

1970년 5월 25일 인쇄

1970년 5월 30일 발행

공산

<제 116 호>



1970



정 래혁 국방부장관 공본 초도순시

정 래혁 국방부장관은 3월 25일 공군본부를 초도순시, 김 성룡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군 전반에 걸친 현황을 청취했다.



「그라함」미 5 공군사령관 공본예방

신임 미 5 공군사령관 「그라함」중장은 인사차 4월 14일 공군본부로 김 성룡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축) 장군 진급

금년도에 영예의 장성진급을 한 최영창, 백용삼, 이주표장군이 4월 6일 김성룡 참모총장께 준장진급신고, 이 자리에서 김총장은 세 장군의 진급을 축하하고, 더욱 중책완수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 공본예방

일본의 항공자위대본부 관리국장 아기모도 긴지씨가 수행원을 배드론 2호기 1기인 공군보부기 1기 선로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권 두 언>..... 찬 (2)

현대전과 정신전력..... 중앙일보 양 홍 모 (4)

변천하는 극동정세와 우리의 자세...전우신문 마 옥 (14)

70년대의 문턱에서 공산북괴의 대남전략과 한국안보를 전망해 본다이 창 록 (26)

수 권

잡 자리오 화 설 (32)

명저에 걸린 우정.....황 금 찬 (34)

남성 테스트.....최 태 응 (39)

원폭피해는 방지할 수 있나...박 경 수(역) (46)

과학의 의미.....이 교 상(역) (54)

청소년 선도국립국립성 경 린 (62)

특집:군인생활 향상을 위한 「교양즈」

한국적 군인상의 역사적 고이 ^{우석대 교수} 상 옥 (65)

검(劍)과 인생소년한 조 풍 연 (76)

병영생활과 정신위생 ...KAL보지 계 원 철 (80)

군인과 사회생활.....아동윤 석 중 (86)

군인의 책임의식과 임무완수...권 변 호 사 영 (93)

청년과 여가(餘暇).....방송 최 요 안 (103)

표지화 > 엄 정 식
차 례 화 > 차 례 뒤
사진화보: 표지 2~3면, 차 례 뒤

최근 북한의 사생활 상상공산주의문제 연구소장 조 성 직 (109)

법의식과 군풍기.....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명 영 (119)

현 공 과 학

초음속 시대의 항공전 전망.....홍 성 표 (125)

하늘을 정복하기까지.....이 용 문 (136)

보잉 747의 전모
<대량수송 시대를 주름잡는 초대형 여객기>이 규 홍(역) (150)

탕그레이의 꿈
<항공기를 위해 일생을 보낸 천문학자의 실험기>...최 현 택(역) (162)

미 공군 독립전야:<빌리·밋첼투쟁기>문 창 원 (174)

「에어·버스」란 무엇인가?김 중 무(역) (184)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제작현황과 금후의 전망박 철 수 (192)

★ 교양 코너 ★

사교(邪教)와 문화김 상 진 신부(202)

불교와 미신이 인 수 군승(206)

사교소고(邪教小考).....김 상 학 군목(211)

광풍(狂風)을 헤치고최 원 진 군목(216)

설교; 새 사람이 건 명 군목(221)

한국전의 용장 맥아더 장군.....정 성 환 (223)

<반공수기> 암흑을 뚫고 ⑤.....시시통신창무이사 이 상 옥 (236)

전 설 <단편>.....최 정 희 (253)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부돈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김 일환 재향군인회장 공본예방

재향군인회장 김 일환씨가 3월 11일 수행원을 대동코, 공군본부로 김 성룡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했다.



이 세호 주월 한국군사령관 공본예방

주월 한국군사령관 이 세호 중장이 군무보고차 일시 귀국중, 4월 8일 공군본부로 김 성룡 참모총장을 예방, 단지의 제반 현황을 설명하였다.

공군

<제 116호 : 1970년 제 2호>

<비대품:무단전재금>

발행처: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접편집인:공군대령신찬

인쇄처:공군교재창

인쇄인:공군대령박판제

편집실:TEL 206-3251,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은갓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캄보디아」의 교훈

『「캄보디아」인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베트남」인은 나무를 심는다』라는 「인도차이나」의 속담이 있다. 이것은 「캄보디아」인의 소극성과 「베트남」인의 적극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비유다.

최근 미군의 「캄보디아」진격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현재 월남에 파병한 한국으로서는 더욱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번 「방콕」의 「에카페」총회 때 「캄보디아」대표 「퐁」공공사업상(公共事業相)은 『「시아누크」시대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중립이 아니고 진정한 중립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캄보디아」가 중립국으로 머물도록 각국은 원조해 달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니까 국내의 「월맹」이나 「베트콩」을 내쫓기 위해서는 미군이나 월남군의 원조도 어쩔 수 없다는, 말하자면 「캄보디아」판 「이이제이정책(以夷制夷政策)」도 결국은 「캄보디아」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논거(論據)가 된다. 그것은 유약(幼弱)한 독립국의 「내셔널리즘」을 타율적(他律的)인 원조로 커버해보려는 외교술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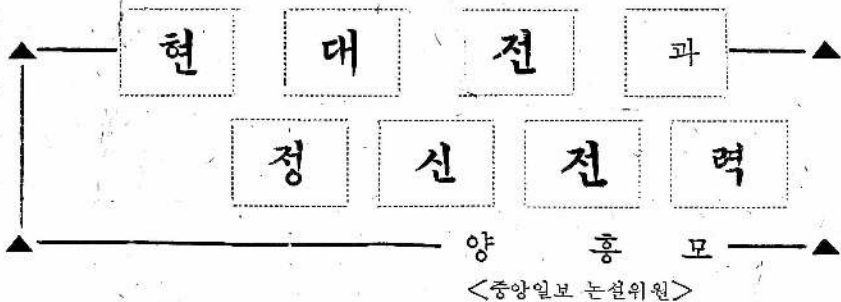
우리는 여기서 일찌기 신라(新羅)가 삼국(三國)을 통일할 때 당(唐)나라의 원조를 청한 사실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흔히 「캄보디아」를 이야기할 때 「앙콜 와트」의 웅장한 유적(遺跡)으로 상징되는 지난날의 찬란한 「쿠멜」문화를 연상한다. 약소국 「캄보디아」에겐 위대한 「쿠멜」의 이미지는 국가건설의 지표(指標)인 것이다. 「쿠멜」에의 회귀(回歸), 「쿠멜」문화의 자부(自負), 「쿠멜」의 후예로서의 자각은 「캄보디아」민족의 정신적인 지주(支柱)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과거의 영광이나 민족의 주체성같은 것은 오늘날의 비정(非情)한 국제환경 속에서는 이미 한갓 서글픈 향수(乡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쿠멜」의 후손들은 지금 스스로의 길, 다시 말해서 어떤 진영이든간에 『선택(選擇)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당할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자조정신(自助精神), 자주국방(自主國防), 자립경제(自立經濟)』라고 불진대는 「캄보디아」의 경우와 같이 「선택을 당할」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라도 우리가 설정한 이 목표는 기필코 달성해야 할 우리 한국의 지상목표(至上目標)가 아닐 수 없다.



현대전의 정의

현대전쟁과 정전전략문제를 논할 때 우선 현대전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즉 현대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현대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형 과학무기로 싸우는 전쟁을 생각하기 쉽다. 예를 들면 기계화 전쟁, 핵전쟁 같은 것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기 쉽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신형 과학무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 무기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대표적으로 핵무기의 경우를 볼 때 몇 해 전만 하더라도 ICBM (대륙간 탄도탄)이 가장 발달한 핵무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도 더 새로운 「복수독립목표 재돌입 단체」(MIRV=Multiple Individually-Targeted Re-Entry Vehicle), 「탄도미사일 방위 체계」(BMD=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부분 궤도 폭격체계」(FOBS=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등등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레이드」 미 국방장관이 「펜타곤」의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을 보면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로서 「신형유인전략폭

격기」(AMSA=Advanced Manned Strategic Aircraft), 「수중 발사 장거리 미사일 체계」(ULMS=Undersea Longrange Missiles System)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는 높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격으로 현대 무기체계의 발전은 나날이 달라져 가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전쟁의 형태 또한 달라지리라는 말이 있다. 즉 1968월 10일 14 미 육군참모총장 「윌리엄·C·웨스트모얼랜드」대장은 앞으로의 전쟁은 「자동화 전쟁」(Automated Wars)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즉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를 지체없이 수집평가하고 즉각 강타할 수 있는 전쟁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무기가 전쟁의 양상을 혁신시킨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들어 제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탱크」가 그 후에 있었던 제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혁신시켰다는 것은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다. 핵무기 또는 전자무기가 등장함으로써 현재 예상되는 전쟁이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것이 현대전이다』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대전은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현대전으로서 핵전쟁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새로운 핵무기의 등장은 오히려 핵전쟁의 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현대전은 어떤 것인가. 구차스러운 설명에 앞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도처에서 일어난 전쟁 또는 내란 형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①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 (45—49)
- ② 「인도차이나」전쟁 (46—54)
- ③ 「말레이」의 공산「게릴라」전 (48—60)
- ④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47—49)
- ⑤ 「카슈미르」 분쟁 (48—49)
- ⑥ 제 1차 「베를린」 봉쇄 (48—49)
- ⑦ 최남공산 「게릴라」 전 (46—49)
- ⑧ 「알제리」 전쟁 (55—61)
- ⑨ 「헝가리」 내란 (56)
- ⑩ 「스웨즈」 전쟁 (56)
- ⑪ 중공 금문도(金門島) 포격 (58)
- ⑫ 「티베트」 반란 (59)
- ⑬ 「타오스」 동란 (59—62)
- ⑭ 제 1차 중공·인도·국경분쟁 (59)
- ⑮ 「몽고」 내란 (60—64)
- ⑯ 「쿠바」 공산혁명 (61)
- ⑰ 제 2차 「베를린」 봉쇄 (61)
- ⑱ 인도 「고아」 탈취 (61)
- ⑲ 월남전쟁 (61—)
- ⑳ 「인도네시아」의 서부 「이리안」전격 (61—62)
- ㉑ 제 2차 중공·인도 국경분쟁 (62)
- ㉒ 「키프로스」 내란 (63—64)
- ㉓ 인도·「파키스탄」전쟁 (65)
- ㉔ 중동전쟁 (67—)
- ㉕ 「비아프라」전쟁 (67—70)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쟁은 잡다한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현대는 전쟁의 시대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전기한 전쟁

을 요약해 보면 국지전쟁(제한전쟁)·「게릴라」전·내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전쟁목적별로 보면 공산침략전쟁, 독립전쟁, 부족전쟁, 감정전쟁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략과 전술면에서 본다면 고전적이지요, 전근대적인 형태에서부터 현대무기를 사용하는 전략, 전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실로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남전쟁이나 중동전쟁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게릴라」전인 비정규전과 현대과학무기가 등장하는 정규전의 혼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다시「게릴라」전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 보다 옛날의 전략전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결코 지금 시대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게릴라」라는 말은 「스페인」말로써 「전쟁」이라는 의미의 「거어라」(Guerra)와 「작은」이라는 의미의 접미어(接尾語) 「리」(li)가 결합된 말로써 「작은 전쟁」(「리틀·워」)라는 뜻이다. 이것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08년부터 1812년에 이르는 「프랑스」·「스페인」 전쟁 때이다. 그때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은 「스페인」 국민의 저항전쟁으로부터 「게릴라」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오늘날 「게릴라」전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들의 독점물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근대 「게릴라」전의 이론을 수립한 선구자는 「아라비아」의 「로렌스」(「토마스·에드워드 로렌스」=1888~1935)이다. 「로렌스」는 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대령으로서 영국 참모본부로부터 「아라비아」에 파견되어, 당시 강대한 제국이었던 「터어키」에 대하여 「아랍」 민족의 반란을 지도했다.

당시 「로렌스」는 「터어키」군이 장비보다는 병력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군수물자를 강타하는 작전을 사용했다. 그를 위해 그는 영국 본국으로부터 공병의 기술장교를 초청하여 그 지도 아래

철도를 절단하고, 교량 또는 「터널」을 폭파하고 보급소를 습격하는 작전을 사용했다. 이러한 「로렌스」의 작전은 「게릴라」 전술을 과학화한 선구자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게릴라」전은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시대에 있는 현대전은 그 어느 한 가지 전쟁형태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쟁의 형태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전과 정신전력

전쟁에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은 비단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의 전쟁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태의 전쟁에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는 불가결의 것으로 되어 왔다. 이것은 옛날의 전략가든 현대의 전략가든 누구를 막론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 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옛날의 중국에서 나온 유명한 병서(兵書)인 「손자병법」이나 「육도·삼략」(六韜·三略)을 부더라도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우선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쟁과 정신적 요소를 결부시킨 대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주 전쟁을 하는데는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도(道), 둘째는 천(天), 세째는 지(地), 네째는 장(將), 다섯째는 법(法)』이라고 했다. 「도」는 도의·도덕·「모랄」, 「천」은 천기·기후, 「지」는 지리적인 유리한 조건, 「장」은 지휘관, 「법」은 군기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손자」는 「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상·하 일치 뜻을 같이 하는 것이며, 생사를 같이 하며 위험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쟁의 조건 가운데 「도」를 첫째로 내세운 것은 정신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함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손자병법」은 「사기」가 꺾였을 때의 위험성이라든가, 또 는 전투에 있어서의 「전개심」의 중요성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육도·삼략」에 나오는 말을 보면 『전투를 개시했을 때 반드시 정의를 위해서라는 목표를 세우고 격려하는 것은 부하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적을 격멸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가 하면 『승패의 징후는 먼저 그 정신에 의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다음 「프로시아」의 「칼·본·클라우제비츠」(1780—1831) 장군이 남긴 「전쟁론」을 보면, 그는 전쟁을 논할 때 물질적인 수단보다도 정신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그는 『정신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전투력이라는 커다란 덩어리의 전체를 움직이며 전투의지와 밀접히 결부되어 일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정신력은 책상의 공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숫자로 표시하거나 분류할 수도 없으며 전적으로 눈으로 보고 감득(感得)할 성질의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군대나 장군, 정부의 여러가지 특성, 전쟁이 행해지는 지방의 민심, 승리 또는 패배에 미치는 정신적 작용, 이러한 모든 요소는 그 자체 종류가 매우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이 직면한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신적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그 이유로서는 물리력의 작용과 정신력의 작용은 서로 융합돼 있으며 화학적 방법으로 금속을 분해하는 것처럼 양자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정신력을 중시한 것은 오늘날 그때와 달리 「탱크」, 「비행기」, 「로켓트」, 「핵무기」 등의 등장으로 시

대가 변천됐지만 그 이론은 현대전쟁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의 세계 저명한 사람들이 정신력의 중요성을 말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39년 11월 30일, 당시 미국의 하원의장이었던 「윌리엄·뱅크 헤드」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방의 제 1선은 그 국민성과 지도자의 지도력이다. 나라가 풍부해지고 무역이 진흥되고, 전통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결핍되면 반드시 그 나라는 쇠퇴해 진다. 믿음이 풍부한 나라는 모두 풍부해지며 나라의 품격을 높이면 국력도 강해진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제 1기체화병단의 사령관이었던 「도우제·듀·비제」 장군은 1950년 8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의 안전보장은 서방측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의 강력성 여하에 달려 있다. 어떤 나라도 세 가지 국경을 방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 정치적 국경과 전략적으로 형성된 지리적인 국경, 그리고 현재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간직돼 있는 「이데올로기」의 국경이다.』

이러한 것은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앞서 정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한 것이었다. 이것이 현대전쟁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현대전쟁이 기계화 전쟁이든 또는 「제릴라」전이든 그것은 그 어느 것에서나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제 아무리 과학무기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개발한 것이며 또 인간이 조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인간의 정신이 올바르게 함양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제릴라」전에 있어서는 전투원의 사기저하, 민심의 동

요, 사회의 혼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게릴라」전에 있어서는 정신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정신전력의 강화

어느 전쟁에서나 정신전력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신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으면 그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겠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사고 또는 정신을 고치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볼 때도 고쳤으면 하는 성격, 사고 등이 얼마든지 있다. 또 교정하기에 힘든 사람, 또는 다루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적이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잘못을 여러번 저지르는 전과자의 경우를 볼 때 이러한 느낌은 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성격 또는 사고는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문제를 이해하고 알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결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람직한 인간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정직, 순결, 무사(無私), 사랑 등을 지닌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그러한 인간이어야,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좋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도덕한 인간, 인간답지 않은 인간으로 저주되거나 규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한 바와 같은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도덕적인 기준에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고치도록 하면 되는 것

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인에게서는 바람직한 군인상이 있다. 우선 정신면에서 볼 때 군인은 군인이 지녀야 할 군인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우선 군인정신이 어떤 것이냐를 볼 때 무엇보다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것을 보면 명예를 존중한다.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가져야 한다든가,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든가 등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군인이기 때문에 지녀야 할 정신이지만, 이러한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비단 군인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전이 총력전이라고 하지만 그 경우를 생각할 때, 그것은 국민 누구나가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덕적인 기준에 절대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일이다.

이러한 군인정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방법론이 문제되겠지만 그것은 전기한 군인정신의 기준에다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서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도록 고쳐나아가면 될 것이다.

우리는 높은 이상을 가진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부문에 정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요컨대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군대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학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국민 누구나 거쳐나아가야 할 교육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 여기서 형성되는 인간의 정신은 비단 군대 내에서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은 그 사명에 비추어 사명감에 불타야 하고 어찌됐든 자기를 포함한 국가를 지켜야 한다. 역사적으로 전쟁에 있어서나 군대에 있어서 정신이 분제되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이 막중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군인이기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국방에 있어서는 항상 전체 국민의 방위의지가 문제되고 있다. 제아무리 현대적 무기를 갖추고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위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국방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방은 물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기한 그 옛날의 전략가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천고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각국은 방위의지가 저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그것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점토하여 국방의식 양양에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위의지나 정신전력이 굳게 함양될 때 그것은 곧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하는 건투력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억지력」도 될 것이며 결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 문언록

◇ 한 민족의 위대한 발전은 항상 시의(時宜)에 알맞는 결단과 용기에서 이룩된다. 또 정의를 숭상하고 용기있는 민족은 항상 어떠한 역경도 이를 극복하고 만다.

◇ 희망과 현실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닥쳐오는 현실과 과감하게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

여 언급하기를

『현재 육상 자위대만의 예비 자위관제도를 해상과 항공(航空)자위대까지 확대 실시하고 약 7만의 제대된 자위관을 예비 자위관으로 대체하겠다.

이러한 방위청 장관의 견해는 70년대 일본의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또 이는 제4차 방위계획(72~76년)의 추측으로 해석된다.

더우기 이에 호응하듯 여당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백만 향토방위대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여 70년대의 일본 방위진로를 명약판화하게 했다.

이러한 일본의 70년대 자체방위를 위한 노력 즉 일본의 70년대 방위계획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닉슨」 대 「아」정책이

일본의 재 군비 촉구

「닉슨」 미국대통령의 새로운 대 「아시아」정책은 70년대에 접어들자 일본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 군비의 발판을 내었다.

2차대전 후 제정한 일본의 새 헌법은 『전쟁의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을 부인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70년대를 맞이한 일본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편승하여 「자위(自衛)」라는 두 글자를 내걸고 지난 1957년부터 시작된 「자위대」는 이제 70년대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군비확장에 돌입하고 있다.

일본은 1957년 제1차 5개년 방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2차, 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뒤를 이어 금년 3월에는 제4차 방위 5개년계획(72년부터 76년까지)에 들어간다.

엄청난 4차방위계획

1백38억9백만「달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는 72년부터 집행될 일본 자위대의 4차 5개년방위계획인 것이다.

이 4차 방위계획은 자발적 방위 준비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그 자발적인 방위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인접한 우리로서도 이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식통들은 일본의 이 4차 방위계획의 예산 규모를 대체로 약 5조원(圓) 그러니까 1백30억8백80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70년도 국가 총
산의 약 10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5년간의 방위예산이라고는 하지
만 엄청난 준비가 아닐 수 없다.

(※ 우리 나라의 70년도 예산은 4천
3백 27억원으로 약 14억 4천2백만「달러」
이다.)

또 이는 제3차 계획(67년~71년)의
예산규모 약 2조 5천 4백억원(65억「달
터」였음을 상거래 볼 때 이 제4차 방위
계획은 3차의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의신이 전하는 것을 보면 요즈음
자위대의 입안자(立案者)들은 과거 자
위대에서 부문별로 세우던 계획을 통
합된 계획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과거와 달리 종합된 국방계획을
세우고 운영의 묘를 가져 오자는데 뜻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 4차방
위계획을 「자발적인 방위준비」라고만 내
세우고 있다.

이는 곧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국지
적 또는 전면적 침공에 대한 대비인 것
이다.

다시 말해서 국지전이던 국지전, 또
전면적이던 전면전에 대응할만한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난날의 일본을

되새기게 할 우려도없지 않기 때문에 그
들은 세계 여론은 물론 국민 감정을 상
하지 않으려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하다.

각종 유도탄 생산계획 항공자위대 대폭강화

물론 일본이 자체의 방위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서는 미·일방위협정의 유지와
비핵화정책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침공에 대비
하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이 4차 방위계획은 72년 「오
끼나와」의 일본 반환과 때를 같이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 할 때 일본이야말로
4차 방위계획이 자체방위의 터전을
잡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70년대에 접어든 일본
각 자위대의 현황을 살펴 보기로 하자.

지상자위대(육군)=이 지상자위대는 작
년 6월 자위대의 병력증강 계획에 따라
현재 18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오직 자위를 위해서 때문에 병력의 급
속한 증강은 예상되지 않는다. 만약 「아
시아」나 극동에 새로운 국지전이나 전면
전이 예상된다면 그들 역시 자위를 위해
현 수준보다 더 증강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저장자위대는 지금까지 미국의 구식 총포로 장비하고 있었으나 60년대 말부터 각종 장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표는 기계화 장비된 기동부대로 육성할 예정이다. 때문에 단순한 보병이 아니라 기갑장비를 갖추는 기계화부대로 육성될 것이다.

해상 자위대(해군)=대부분이 구축함 및 보조함으로 총 13만톤 미만이다.

2차대전 때까지의 「해군 일본」이라던 그 모습을 찾을 길 없다.

「나가도」나 「무쯔」나 하던 대형 전함은 아직 없으나 그들은 내일의 해군을 길러내기 위해 해마다 2만톤 정도를 증장시켜 4차 계획이 완료되는 때에는 약 20만톤 정도의 해군력으로 증강 될 것으로 본다.

어쨌든 일본으로서의 합정을 자체에서 진조할 수 있다는 저변(低邊)을 가지고 있어 「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보다 장비를 증강하는 데 손쉽다고 보겠다.

항공자위대(공군)=항공자위대 역시 모든 장비를 국산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다.

현재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F-4D 「팬텀」 전투기 4개 중대가 창설돼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원조 없이 자체의 능력으로 공군을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최신형 전투기의 개발 등 공식으로 발표된 바 없으나 일본공군하면 2차 대전 때 세제를 경악케 했던 「가미가제(神風)」 특공대를 잊을 수 없다. 이제 그들은 그러한 무모에서 벗어나 과학화된 장비로 현대화에 서들고 있다.

그것은 각종 유도탄의 생산으로 이제 반환될 「오끼나와」까지의 보나 넓은 지역의 방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새 불길에 결코 방관자는 안 되리

일본의 급속한 군비 증강은 어쨌든 「아시아」의 70년대에 새로운 획을 남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존슨」 전 대통령이 「태평양시대」를 제창한 뒤를 이어 「닉슨」 대통령은 「태평양의 공영권」을 제창하여 그 범위를 확대시켰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토」 일본수상이 69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태평양」의 신시대를 제창하여 사실상 전후 일본의 자체나 반성에 중저부른 선언한 느낌이 없지 않다.

물론 이보다 앞서 박정희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제창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관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자유수호에 앞장 선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계획은 비단 일본만

의 방위계획이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의 방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때문에 그 의의도 크려니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오끼나와」의 반환으로 72년 이후의 미·일 관계는 전후시대에 종주부를 찍고, 서로의 협력체로 등장한다고 생각할 때 일본의 재 군비는 새로운 「이미지」를 지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공산 위협이 극동이나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 있을 때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해 미국이 직접 전투 행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일본은 결코 수수 방관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이미 「사토」 일본수상이 「닉슨」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했다.

때문에 70년대의 일본 재 군비는 특히 「아시아」나 극동의 여러 나라에 관심이 됨은 물론 공산권에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70년대의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재 군비와 중공의 핵 무기 개발은 내일의 세계에 하나의 커다란 주목 지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중공의 팽창에 대응한 그 힘의 일부가

일본에서 양성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리라.

그럼 이제 여기서 미국과 소련을 위협하며 군비증강에 혈안이 된 중공의 현 정세를 알아 보기로 하자.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중공

지난 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에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중공은 홀로 핵 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런 중공의 궤도가 속은 언제나 미국 보다 소련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미 국방성은 한 보고서에서,

『중공은 멀지않아 1천9백20「킬로」의 사정 거리를 가진 핵 탄도탄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는 곧 중공이 멀지않아 ICBM(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게 되리라는 전망인 것이다.

그럼 오늘의 중공은 과연 어떠한 군비와 어떠한 정세하에 70년의 「아시아」에 군림할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현역 2백40만 병력

4천대의 항공기도

현재 중공은 약 4천대의 항공기와 2

백40만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현역 뒤에는 5백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60년대는 미국이나 소련과의 직접적 대결막은 극히 조 심해 왔다.

그 한 실례를 들어 본다면, 미국이 월남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수법으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존슨」대통령이 북폭 재개를 선언했을 때,

『월맹을 지지하는 월맹의 후방기지(중공을 지칭)도 때에 따라서는 공격할 것이다.』

라고 위협해도 그들은 잠잠했다. 대꾸는 고사하고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공은 그동안 중·소 국경에서 여러 차례 충돌을 보아 서로 험뜯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들은 69년 10월부터 북평에서 회담을 가지고 이른바 국경분쟁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새해 들어 재개했으나 아직 그 전망은 암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비증강에 혈안

이젠 ICBM 보유

중공의 군비증강은 현역 2백40만명과 항공기 4천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중공의 핵 무기 개발인 것이다.

현재 자유세계의 추산으로 보아서 중공은 멀지않아 사정거리(射程距離) 9백0[킬로]에서 1천9백20[킬로]의 중거리 탄도탄(IRBM)을 배치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적어도 70년대에는 최초의 대륙간 탄도탄(ICBM)을 보유할 것이고 70년대 중엽에 가서는 ICBM 무기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인 것이다.

중공의 이러한 탄도탄 개발의 장래 능력은 중공 자신의 요격 방위망(ABM)계획의 개발을 고려해 볼 때 극히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공이 핵 보유국으로 세계 열강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중공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극도로 강경하고 호전적인 언사를 번번이 사용해 왔던 것이다.

또 행동면에서도 호전적이거나 한국동란 이후 미·소 두 나라의 중요 군사대결에는 언제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면서도 중공은 경제개발을 제쳐 놓고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국민 경제 성장에 많은 피해를 가져 온 것만은 사실이다.

소련으로 부터의 원조는 1959년에 중단되었다.

그 후 그들은 소위 「문화혁명」이란 구호를 내 걸고 모택동 사상 주입에 광분, 마칩내는 정치적 갈등, 사회적인 혼란, 경제적인 파탄에까지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중공은 1964년 10월 16일 이후 11차례의 핵 실험을 실시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 국방성은 『중공의 가장 최근의 핵 실험은 1969년 가을에 실시되었는데 그것은 비행기로 투하된 것으로 약 3 「메가톤」급으로 추정된다.』

라고 말 하고,

『중공은 「미사일」 운반체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중공은 미국과 소련의 틈바구니에서 그 자신의 방위를 위한답시고 오히려 강대국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 향방 주목

중·소분쟁은 계속

이러한 중공의 국방력은 무말 할 것

없이 보병 위수이다.

약 4천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수 정도가 「제트」 전투기라고 보고 있다.

이 외 중공의 국방력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해군의 선박 능력이다.

해군의 대부분은 해안 경비정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장거리 항해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이나 소련에 비해 가장 낙후된 형편이기는 하나 70년대에 들어서 이것이 점차 개선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목된다면 70년대의 중공은 공군과 해군의 장비 강화일 것이다.

광대한 땅에 나날이 늘어나는 인력자원을 토대로 보병부대만이 계속 성장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그들은 「아시아」에서의 주역울 열망하고 있으나 중공은 월맹이나 북괴에게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어 그 귀추가 극히 주목거리이다.

때문에 70년대의 중공과 미국, 그리고 중공과 소련 관계가 어떻게 변천 될지에 따라 그들이 「아시아」에 대한 위협이 좌우될 것으로 내다 보는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그들로서는 미국이나 소련을 도대로 묶어 헐뜯기는 하나 중공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도 적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불질을 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그들은 국지전(局地戰)에 참석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에 넣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에 접근하려는 소련

영국군의 「스에즈」이동 철수와 「아시아」 및 극동에서의 미군 철수와 때를 같이 하여 70년대의 소련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아시아」에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듯 하다.

이는 미·영의 철군으로 생기는 힘의 공백을 이용하자는 음흉한 획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

적극적인 접근책

최근 소련의 극동함대가 인도양(印度洋)에 접차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소원했던 「말레이저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접근책을 쓰고 있다.

그 접근책이란 곧 미군의 월남 철수와 「스에즈」이동에서의 영국군 철수가 끝나 71년 이후에 대비하여 「아시아」의 집단 안전보장 체계 속에 포섭해 들이려는 이른바 「브레즈네프·독트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진출기미는 미군의 월남 철수와도 유관하나 그 보다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아시아」정책은 항구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을 사실상 포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련은 극동을 비롯한 광대한 「아시아」지역에서 공산·비 공산국가들을 한 때 묶어 중립적인 체제를 꾸미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속셈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여태까지 미국에만 의존했던 정치구조를 중립이란 표방 아래 묶어 그 발언권을 강화해 주면서 공산세계에의 접근을 노리는 간계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나날이 팽창되고 증강되어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중공에 대한 견제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견제, 그것은 「아시아」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더욱 소련에 결실하고 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모스크바」의 정책 수립자들은 동남아에서의 중공의 역할을

전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려가지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소련과 중공의 장래는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외교 관측자들의 견해인 것이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소위 「인민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중공의 주장과는 달리 소련은 그것을 국내의 분쟁으로 별다른 관심을 집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점으로 보아 중공 정책과의 대립을 면한 길이 없을 것 같다.

더욱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은 중공의 혁명 이론에 의한 내부 붕괴의 위험성을 항상 느끼기 보다는 차라리 소련의 정치,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진출에 따르는 상쇄적인 효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소련의 진출은 「아시아」도처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것은 얼마전 「싱가포르」에 소련 상선이 기착했고, 일본과 「필리핀」엔 소위 소련 「불쇼이·발레」단이 다녀갔다.

소련 상인들은 「말레이시아」에까지 침투해 있고 「자카르타」주재 소련 대외 무역성 관리들은 차관 협정을 논의하는 동안 열대의 해변에서 마음의 여유를 과시하고 있다고 위신이 전한다.

소련의 공군

중공을 걸 세코

4년전만 해도 소련에 「비자」를 내주지 않던 「싱가포르」에서 이제 소련 대사관 직원들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소련의 「아시아」진출이 현재로서는 무역과 장사면에서 적극적인 것처럼 하고는 있으나 그 뒤에는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정치적 뒷받침은 거대한 군사력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또 그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를 덮을 수 있는 소련의 「미사일」과 공군의 힘은 제쳐 놓고라도 북으로는 「아류산」 「사할린」에서 한반도의 동양을 거쳐 지나해(支那海)와 「인도네시아」군도를 빠져 인도양을 지나 지중해(地中海)를 잇는 광대한 해양에서의 소련 해군력은 「아시아」의 장래에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는 이제 미국과 중공간의 자극장이 아니라 소련도 구 「링」에 뛰어들셈이다.

그 옛부터 전통적으로 남진정책(南進政策)을 써오던 소련이 70년대에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70년대의 극동정세는 미국과 영국의 힘을 공백을 이용하여 일본, 중

공에 이어 소련의 진출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여기 이러한 환경 속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70년대에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새삼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70년대 한국안보와 우리자세

『70년대에는 국토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구해 나가는 일방적 방법이든 비평화적 방법이든 어떠한 방식의 통일 방안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외교에 비해 절대 우위의 힘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북괴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서도 능히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언제든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항상 말하는 자주, 자립, 자초의 정신인 것입니다.』

라고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70년대 우리의 지표를 명시한 바 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통일 방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60년대는 우리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개혁이래 최대의 초용들이 속에서 몸부림을 치

면서 어디론가 향해서 달음질을 하기 시작한 연대였다.

우리는 이제 그 60년대를 벗어나 70년대를 맞으며 그러했던 잠자다 깨어나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표를 향해서 막 달음박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1인당 5백「달러」소득

몽쳐서 국방 건설에

새로 걸출된 전진의 역사가 시작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지난날과 같은 불안과 혼란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 와서는 안 되겠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 자립 경제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5백「달러」이상으로 하고 수출은 적어도 50억「달러」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이란 한마디로 해서 증산과 수출에 있는 것이고 보면 우리는 모든 힘을 합쳐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우리의 국제적 적어도 중진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고속 도로의 건설과 국가의 종합적 개발로 모든것이 우리 1일 생활권이 되게 하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혀야 하며



번천하는 극동정세와 우리의 자세

년간 1백만[달러]의 물자가 연안 항구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 올 수 있는 항만 시설과 해운능력도 갖추어야 하며, 농촌에서는 기와로 개량되지 않은 지붕을 찾아 보기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이렇듯 엄숙한 민족중흥기에 삼을 지닌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기쁨진 향토로 만들어 골려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덩어리로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상경하여해서 선진국의 뒤를 바짝 쫓아가야 하겠다.

그들이 8시간 일하면 우리는 16시간 일해서 1년을 6개월로 10년을 5년으로 단축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학생은 학업에 농민은 농사일에, 노동자는 생산에 우리 군인은 국토방위에 충성을 다할 때 이 나라의 번영은 두말 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곧 증산이요, 진실이요, 국방인 것이다.

우리 온 국민이 모두가 그렇게 길기하는 날에는 일본의 재 무장도 증공의 핵 공격도 소련의 독아(毒牙)도 겁날 것 없다.

민족의 단결은 그 나라의 번영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국민의 위대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2백50만 민족이 1억을 넘는 「아랍」을 상대로 싸워도 끄떡없는 단결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다.

우리는 「아시아」의 방벽 민족의 선봉, 전진의 선봉

우리는 5년전 우리 역사상 처음 해외 파병으로 월남의 공산 침략을 저저하려 나섰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파병은 월남 한 나라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아시아」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총을 들고나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월남 참전은 우리 국토 방위이며, 「아시아」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돼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의 방벽이라는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아시아」사람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군대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국토를 지키며 남을 도울 수 있는 터전을 우리는 60년대에 마련했다.

그 터전에서 우리는 번천하는 70년대의 「아시아」정세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 나라의 정예요, 전위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 나라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나를 지키는 우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설과 생업에서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에서 밀고 나가도록 해 주어야 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중의 국민으로서 일면 건설, 일면 방위라는 명예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번영하는 조국의 건설 대열에 참여하여 보다 알찬 전진을 재촉

해야 하겠다.

자립 경제, 자주국방만이 조국번영의 터전이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민족의 방패로서 전기(戰技)를 연마하고 일단 유사시는 한 목숨 나라에 바쳐 싸워 이길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견고한 국토방위는 곧 조국의 부흥이요, 건설이요, 번영에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침략자를 물리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박 대통령 문언록

대소의 강하가 대양으로 흐르듯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인민들의 모든 힘을 흘러서 협동의 대양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감도는 공포를 축출하고 빈곤을 추방하여, 만인이 갈구하는 복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70년대의 문턱에서……

공산 북괴의 대남 전략과 한국 안보를 전망해 본다



이 창 록

70년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국가 총력체제와 민족 일치단결을 굳건히 가다듬어야 할 줄로 확신한다.

그 하나는 박 정희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70년대 번영>을 목표로 민족중흥을 어김없이 달성하기 위한 절기찬 전진이며 다른 하나는 공산북괴 김 일성도당의 전쟁도발을 분쇄하여 멸공 국토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으로 본다.

이렇듯, 70년대가 우리 한국의 성사를 가름하는 중대한 역사적 단계임에는 이른의 여저조차 없다.

물어켜 보건대 1940년대의 조국광복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길은 험난한 가시밭이었다. 신생국가로서의 기쁨과 희망을 누릴 사이도 없이 50년대 초의 <6·25 적침>을 물리쳐

야 했고, 60년대의 10년 동안은 출근 집요 악랄한 공산북괴 집단의 전쟁도발행위를 배제하면서 조국근대화의 경제부흥을 이룩해 왔다.

문자 그대로 <싸우면서 건설하는> 시련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시련의 결실을 70년대의 민족중흥으로 기약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제 21회 국군의 날 유사에서 <70년대는 자립과 번영을 위한 건설의 시기인 동시에 생존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시기>라고 간명적확한 정의를 내리신 바 있다. <생존은 곧 70년대 대공투쟁의 승리를 뜻하며 통일은 곧 공산 북괴집단의 박멸과 북한 실지회복>을 뜻한다.

70년대의 문턱에서 지난 날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이제부터 걸어가게 될

앞길을 바라보면서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생각컨대 후손에 넘겨 줄 역사적 결실 즉 민족중흥의 과업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는 영광이 자랑스롭기만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여건에 비추어 70년대 초반부터 북한 시련을 겪게 될 것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공산북괴 김 일성 도당의 재침 가능성은 결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오끼나와」의 일본 반환(72년도)에 따르는 미국 극동전략의 일부 변형이 극동안보체계에 부분적인 차질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셋째, 미국의 「아시아」 비미국화정책이 70년대 후반기 이후의 「아시아」 정세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넷째, 72년도까지 종결되리라는 영국군의 「스에즈」 이동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백지대가 소련 및 중공의 야심적인 진출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다섯째, 소련의 중공 봉쇄정책이 가일층 격렬적인 소·중공의 국경 분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섯째, 월남전 후의 동남아 질서를 파괴할지 될 중공의 팽창주의는 <제2의 베트남>을 음모할지도 모른다.

이러나 <70년대 적화통일>을 호언하는 김 일성 도당은 이상과 같은 「아시아」

및 극동정세 변화를 민감하게 악용하여, 한국에 대한 전쟁 도발을 적극화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 즉 재침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한다.

(1) 1972년 4월 15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 일성 도당은 1968년의 <1·21>사태를 시발점으로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정세를 전쟁상태로 꼬집어 넣으려고 발악을 거듭해 왔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을 비롯하여 꼬리를 물었던 대남무장공비 침투 작전은 말한 것도 없거니와 휴전선 상에서의 악랄한 군사 도발 행위, 그리고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기 사건 등은 선전포고 없는 전쟁행위를 공공연하게 전세계에 선언한 것과 다를 없었다. 미국 주간지 「타임」지는 특히 EC-121기 사건 당일인 1969년 4월 15일이 김 일성의 57회 생일날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김 일성 도당이 노리고 있는 야망, 즉 무력으로 남·북한을 통일하겠다는 엉뚱한 야망이 공산 북괴집단의 어쩔 수 없는 실정을 업고 실토하게 된 망상적인 개인 욕망의 발로라고 풀이한 바 있다.

이 「타임」지의 견해를 빌릴 것도 없

이 김 일성의 이른바 70년대 적화통일의 야망은 그의 회갑에 해당하는 1972년 4월 15일까지를 결정적인 시기로 구획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국의 기적적이며 경이적인 국가발전을 저지하고 전쟁수단에 호소하는 적화통일의 시기를 72년도까지로 잡아야 한다는 초조감이 작용하고 있다.

저명한 정세분석가들은 공산북괴의 중요한 전쟁도발행위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초조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실 1972년은 한국의 제 3차 5개년 계획의 기산년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제과단과 내정 실패에 허덕이는 공산 북괴를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공산북괴 김 일성 도당에게는 모퉁이 송연해지는 격차가 아닐 수 없다. 늦어도 김 일성의 회갑을 기념한다는 구실을 내세워서라도 1972년까지 한국의 국가발전을 저해해야 한다는 초조감이 전쟁도발의 지배적인 원인이다.

(2) 군사력 유지의 한계

둘째, 군사력 유지의 한계를 70년대 초반기까지로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에드윈·라이샤워」 교수는 1975년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다.

즉, 공산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현 군사력으로는 1975년을 넘기면 전쟁도발의 기회가 영영 사라지기 때문에 70년대 초반기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세계에서 중등위기 다음 가는 최대위기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1967년 12월 16일, 김 일성은 이른바 북괴 최고인민회의 제 4기 1차회의에서 소위 <10대 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1·21사태>와 <울진, 삼척 공비사건> 등 일련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이러한 김 일성의 특별지시를 표면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년센스」였다.

공산북괴는 1966년까지만 해도 한국내에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는 식의 비교적 온건한 대남공작을 전개하여, 반정부 및 용공적인 정치세력을 육성하려고 했으나 한국 제 3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추진되기 시작하자 종전과 같은 소극적 대남공작으로는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력화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 지역 내의 전시일선에 관해서는 일본의 4대 신문 특파원의 견문기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도 족할 것이다. 비교적
과경 색채로 알려진 4명의 일본인 특과
원 일행의 눈에도 공산 북괴의 전쟁준비
는 시대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했다.

<김 일성을 신처럼 섬기는 가혹한 독
재체제를 펴고 있는 북괴는 군국주의와
전쟁의식으로 충만해 있다. 평양의 거리
에는 「미국을 타도하자」는 포스터와 김
일성을 예찬하는 슬로우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전 인민의 무장화와 전 국토 요
새화 정책에 의해 공장, 농장, 학교에는
노농 적위대가 모조리 조직되어 군사훈
련에 여념이 없다.

기자가 본 연극과 음악은 전부 전쟁과
관계가 있는 것 뿐이었고, 중학생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무장투쟁에 대한 전략
전술론을 학습하고 있었다.>

쿠밋새 없는 이 <루포>의 한 귀절을
가지고도 김 일성 도당의 전쟁준비는 정
점에 다달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의
전략연구소의 1969년~70년도 군사력 분
석에 나타난 공산북괴의 군사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략.....인구 1천 3백 30만.

69년도 군사비 6억 9천 2백만 달러.

(나) 육군.....병력 35만. 1개 장갑사
단. 19개 보병사단. 5개 독립보병 여단.
전차 9백대 (PT 76 · T34 · T54 · T55).

자주포 2백문 (SU76 · SUI00 · ZSJ 57.)
대공포 1천 5백문. 박격포 등(최대구경
152밀리) 6천문. SA2 가이드라인 저대
공 미사일 기지 60개소(미사일 약 3백발)

(다) 해군.....병력 2만 5천. 함정총
수 1백 90척. 잠수함 (초면제 W급) 4척

(라) 공군.....병력 2만 5천, 전투용항
공기 5백 90대. IL28 경폭격기 80대. 미
그기형 요격기 60대. 미그 19형 20대.
미그 15 및 17형 전투폭격기 4백 30대.

(마) 민병 (노농적위대) 1백 20만,

1950년의 <6.25 남침> 당시를 능가
하는 군사력이지만, 김 일성 도당은 이
군사력 유지의 시간적인 한계성을 70년대
초반기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초조감에
사로잡히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괴 군사력이 합리적인 국력의
한 분야로써 조직 유지되는 것이 아니
라 이른바 김 일성 신격화에 의한 일인
독재체제 하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및
강제동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김 일성 신격화가 추진됨에 따라 북괴
군은 당군적 성격에서 김 일성 사병적 성
격으로 변질했다.

나시 말하면, 김 일성 도당이 말하는
인민의 군대도 아니요, 당의 군대도 아니
다. 김 일성이 배거 기용한 군인파들의
광신적인 추종으로 중당적인 사병으로

번진했다. 따라서 날조된 김 일성 신격화의 정체가 드러나고, 김 일성의 권위가 떨어질 때 북괴군은 필연적으로 내부와 해외의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1967년부터 구체적으로 본격화한 김 일성 신격화를 권위있게 계속하기 위해서는 소위 퇴각 연도가 되는 1972년을 한 결정적 시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1972년의 정세 여건

물론, 1968년 9월을 전후해서 군인파를 대거 기용하기로 했으나 이에 맞서는 당인파와의 대립, 따라서 군사 중점파와 경제중점파와의 정책상의 차질을 단기간 내에 결판 짓기 위해서 70년대 초반기를 넘길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주요한 요인으로 개제한다.

이른바 천리마운동에 실패한 위에 과중한 군사비 편증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극도의 껌박상태에 놓여 있다. 김 일성 도당은 이 궁핍생활을 미국의 도전 때문이라고 얼버무려 왔다.

「푸」호 사건 및 EC-121기 사건 등은 그 조작극의 하나였는데 그들은 미국의 단사위협에서 이른바 복귀를 방위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기

만해 왔다. 또한 이른바 민주혁명을 갈망하는 남한 애국 동포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대남공작이 필요하여 무력적화통일이 시급하다고 허위날조해 왔다. 이 기만선전 밑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무슨 수로 더 무마할 것인가 하는 초조감에서 전쟁시기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다.

세계, 1972년을 전후하여 예상되는 경제여건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가) 한국의 차기 총선거가 실시되는 1971년도의 정국 변동기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려는 의도.

(나) 「오끼나와」기지의 일본반환과 비·일 안보조약의 갱신이 변동되는 71년~72년도의 변동기를 이용하려는 의도.

(다) 월남전 종결이 실현되리라고 예상되는 일시 초강시기를 이용하려는 의도.

(라) 영국군이 철수하게 되는 「스에즈」 이동지역의 <힘의 공백지대>에 소련 및 중공이 진출을 기도함으로써 야기될 새로운 분쟁을 틈타려는 의도.

(마) 핵력을 배경으로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중공의 맹창주의에 편승하려는 의도 등 김 일성 도당은 70년대 초반기를 절호의 결정적 시기로 간주하여 전쟁 도발행위를 가일층

격화시킬 것이 확실시 된다.

(4) 우리의 각오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공산북괴의 전쟁도발은 70년대 초반기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안전 보장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 결정적으로 예견된다. 뿐만 아니라, 중공의 핵위협 또한 광의의 안보 문제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1969년대의 중반을 장식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대한 안전으로 취급되었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가 이 중공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견지에서 논의된 것만 보아도 중공의 팽창주의는 우리 한국안보에 검은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안전보장문제는 「아시아」 자유진영의 집단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견지에서 논의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은 곧 「아시아」 자유진영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만큼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 정희 대통령께서 신창하시는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구성에 대한 자유진영의 호응은 대공투쟁에 공동운명적인 결속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중인 비미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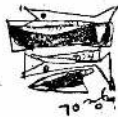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안보에 대한 수차례 결친 특별지원활약을 제시한 까닭도 한국의 위치가 「아시아」 집단 안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시대적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대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우리로서는 언제까지나 민주우방의 지원에 업힌 자세로 자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정희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자조, 자립적인 정신으로 스스로 실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극난을 극복해나가는 전진적 자세를 선행시켜야 한다.

공산북괴의 재침 위협에 대한 국내적인 안보문제와 아울러, 미국의 70년대 아시아 전략, 일본의 집단안보에의 적극 참여 전망, 중공의 핵전략, 소련의 진출기도, 월남전 후의 동남아 정세추이 등 제반문제가 종합검토됨으로써 한국 안보에 관한 총람이 일별되는 것이지만 지면관계로 생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결론적으로 70년대 한국안보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집약한다면 앞서도 논급한 바와 같이 민족중흥의 출기찬 의욕과 전진으로 자조, 자립하는 민주승리가 싸우지 않고도 공산 북괴 김 일성 도당을 계압하는 첩경임을 강조하고 싶다.

(수)

(필)



잠 자 리

오 화 섭

<연대교수>



우수가 지나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나무가지에 연한 싹의 새순이 돋기 시작할 무렵이면 나는 하나 둘 손을 꼽아 세어 보는 것들이 있다. 진달래는 어느 때 즈음 되며, 할미꽃은 어느길 무렵 옆에 많이 피는가? 종달새하고 피꼬리는 어느 달에 나오던가? 그리고 키클리는 언제쯤에 가장 토실 토실한 때 였던가? 시골서 자란 내가 이런것을 궁금해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사람이란 저만큼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던 고장과 직업

과 직장, 그리고 친구들—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철과는 관계없이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잠자리다.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근감이 가고 잡아서 만져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자리였다. 명주실로 짠 것 같은 가벼운 날개를 만져보면서 나도 잠자리처럼 훨훨 날아다녔으면 하고 부러워 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공중에 떠서 내려다 보는 지구(시아의 환계는 있겠지만)는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제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를 휘두른다 해도 공중에 떠있는 나를 해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기 일치하는 사고방식을 낳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린 나이의 내가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냥 잠자리처럼 날라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고 부러워한 것 뿐이다.

하지만 어렸을 때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쇠 잠자리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자. 쇠로 만든 잠자리,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고 놀랄 것은 과학에 눈이 뜬 시절이었던가? 「뒸다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라는 노래가 유행하던 시절 너나 할 것 없이 안창남이라는 비행사를 얼마나 부러워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남의 직업이나 특기를 부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일을 해 보면 알 수 있다. 정자에 앉아 책만 읽고 있는 선비를 부러워한 나머지 의관을 갖추고 책상다리를 한 농부가 글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다시 땅을 밟다는 이야기는 한낱 농담으로만 들어 넘길 이야기는 아닌성 싶다. 우리가 비행기를 올려다 보고 그 승객보다 조종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이 비행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는 능력과 특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을 올려다 보고 그냥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전에 「야간비행」이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었다. 밤하늘엔 별만이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영화에서 보았고 그 험하고 무서운 공간에서 용기와 인내와 극기 그리고 책임감을 지니고 난관을 극복하는 조종사들의 위대한 정신을 나는 보았던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

제가 일단 육지를 떠나 상공에 뜬 비행기 안에서 처럼 심각한 때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기따름 생각해 본다. 거기 탄 사람들은 조종사건 승객이건 공동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적과 싸우는 전투기에 있어서라. 그전 읽은 어린이 소설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것은 대충 이런 내용이였다. 내양을 향해하던 여객선이 폭랑을 만나 선체가 파괴되어 가라앉게 되었다. 보오트에 분승하여 선객들은 위기를 모면하지만 선장은 선객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와 함께 바닷 속으로 가라앉은 것이였다. 나는 어렸을 때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선장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 보오트에 자리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그토록 영웅적으로 죽을 수 있는 선장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소년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던 것이다. 이 경우 선장은 다른 많은 선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기쁨을 안고 죽는 것이 된다. 선장은 자신의 파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배와 함께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선장은 자기

의 배를 생명처럼 생각한 것이다. 그야말로 고귀한 책임감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 가는 가운데 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로는 그 무책임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상황, 그 어떤 경우보다도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하는 것은 흔히 무턱대고 부러워할 하는 저 비행기 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비행사보다도 보라매의 신앙적 조국애 속에는 가슴 부푸는 정열과 의욕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진정 책임과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저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다. 햇빛이 따갑고 별이 종종한 낮과 밤보다도 눈 비 내리고 바람이 험한 날씨에 온갖 잡념을 털어 버리고 오직 내 조국을 위해서 참스런 기도끝에 육체를 떠나는 보라매들의 밝고 맑은 눈동자들을 나는 상상해 볼 수 있다. 비바람치는 이 아침, 은은히 들려 오는 저 진동은 그 어느 젊은 보라매가 띄운 잠자리일까? 어서 햇빛이 났으면 좋겠다.

(글쓴이 : 연세대학교 교수)



명저에 걸친 우정

황 금 찬
<시인>



고 동일(高東一)과 나는 어린 시절을 같이 지낸 친구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각 나는 「문화비평」에 실린 「영원의 도상에 선 형이상학」이라는 김 형호의 논문을 읽다가 고 동일의 생각이 솔바람처럼 내 기억을 스쳐가기에 지금은 어느 하늘 밑에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그를 추모삼아 글을 쓰는 것이다.

그와 내가 보통학교 삼학년 때라고 생각된다. 그 때가 아마 오월이었을 것

이다. 어느 날 선생님이 들어 오셔서 글짓기 시간을 마련하셨다. 제목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 마음에 드는 제목으로 작문을 몇장 지어보라는 것이다. 나는 「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지금 그 글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하여간 「돈」이 없어서 우리집 식구들이 모진 고생을 한다는 것과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내용으로 지금의 원고지로 수록해 썼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주 작문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 오시더니 느닷없이 내 이름과 고 동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지난주 작문 시간에 저 글 중에서 가장 잘 됐다고 생각되는 글 두편을 소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읽는 것을 들어 보시오.」

이렇게 말씀 하시고 선생님은 내가 저 글은 내어 주시면서 그 글을 나머지 읽으라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저 「돈」이라는 글을 읽었다. 그 다음에는 고 동일이 자기의 글을 읽었다. 그의 글 제목은 「우정」이라는

것이였다.

내가 듣기에도 그의 글은 대단히 잘 저 글이라고 생각되였다. 우리 둘이 글을 읽고 난 다음 선생님은 우리들을 눈물이 나도록 칭찬해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 방면의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 시인이나 소설가가 될 것이다.」

선생님의 이 격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과연 우리들의 글이 그렇게 잘 됐는가? 선생님이 괜히 그러는 것이나 아닐까? 이런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선생님의 칭찬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감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후로부터 고 동일과 나는 더욱 친해져 갔고 서로 만나면 글 짓는 때 관한 이야기며 책 읽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들은 문인이 되겠다는 꿈을 걸려 갔다. 그 당시에 우리들은 같이 해도 못하면서 세계명작들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는 월간지는 딱치는대로 읽었다. 「아이생활」 「소년」을 위시하여 어른들의 잡저로는 「삼천리」 「조광」 「중앙」 그리고 석 후이지만 「문장」 순문예지와 「인문평론」

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읽었던 것이
다.

우리는 보통학교를 졸업했으나 진학
의 길이 막혀 진학을 포기하고 말았
다. 그러나 문학의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땐수록 책 읽기
와 시작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몇년
을 그럭저럭 지나던 중 어떤 길이 열
려 나는 동경으로 고향의 길을 떠났고
동일은 간도 용정으로 진학의 길을 떠
났던 것이다.

우리들은 많은 편지와 「시」 습작교환
을 했다. 동일의 「시」는 날로 발전하
는 것같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여
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시바우라」
나 「후가가와」 같은 곳에 가서 학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물론 동일도 용정에서 갖은 수모와
고생을 겪으면서 매성중학을 다니고
있었다. 동일의 편지에는 언제나 조
국해방에 대한 희망의 거원이 암시되
어 있었다. 그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애국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키는 작지만 그의 담대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책 후에 들은 이야기
지만 그가 비행장 뒀는데 내가 노동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일일이 동일을 한국사람이라고 하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길래 동일이 화가
나서 「이 천해에 침략자들아……」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일인 몇 명이 동일을
때려 죽을뻔 하다 살아난 표적이 지금
도 이마에 남았을 것을 생각하니 동일
을 지금 바라보는 듯하다.

이차대전이 일어나고 일년인가 지났
을 때의 일이다. 용정서 내게 작은 우
편물이 왔다. 책이었다. 동일이 내게
보낸 것이다. 「라이너·마리아·릴케」
의 「젊은 시인의 편지」였다.

그는 편지에다 다음과 같은 사연을
써 보냈었다. 「여기 책 한권을 보내오.
시인의 편지요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이렇게 감명을 준 책도 「그리 많으리라
고 생각되지 않소, 읽고 또 읽고 계속
하여 몇번을 읽었더니 내 눈앞에 새벽
이 오듯 광명이 오는 것 같소. 그리고
책 잡피에 풀잎을 넣어 보내오. 어느
오후 하도 무료하기에 용정 뒷산에 울
랐더니 고향에서 보던 풀같은 것이 있
기에 고향을 생각하듯 풀잎을 따서 보
내오. 책 읽는대로 소감을 적어 보내
주.」

이런 내용의 편지였다. 책 잡피에
넣은 풀은 고향의 향기같은 냄새를 풍

겼다. 책갈피마다 풀잎이 들어 있었다. 풀은 실로 수십종에 달했다. 나는 책을 읽다가 책갈피에서 나오는 풀을 들고 잠시나마 고향을 그리워 할 수 있었고 고향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친구가 보낸 「젊은 시인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했다.

나도 동일에게 책을 보내기로 했다. 내가 그에게 보내려고 한 책은 「부커 T·와싱턴 전」이었다. 나는 그 책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동일 「부커 T·와싱턴 전」을 보내오. 나를 울린 책이었소. 이렇게 동일이나 나같은 사람에게 눈물을 강요하는 책은 없으리라 믿소. 동일이나 나는 울어야 하오. 명색없는 흑인아이로 나서 백인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장면을 읽으면 동일은 통곡을 하리라 생각되오, 흑인 아이가 하도 학교를 가고 싶어서 백인선생을 찾아 갔소. 흑인 아이의 말을 들은 백인 선생은 청소를 해보라고 했소. 하루종일 걸려 청소를 했더니 백인 여선생이 흰 손수건으로 교실 사방을 닦아보고 나서 깨끗하니까 합격을 시키는데 조건이 있더라오. 너는 청소하는 아이로 학교에 들어오라. 그러나 너는 학생은 아니다. 청소를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거

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공부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하여 학교에 입학된 「부커 T·와싱턴」은 공부를 열심히 하였소. 방학이 되어 고향이랍시고 돌아왔더니 꼭 제시리라고 믿고 있었던 어머니가 그 사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소. 그가 어머니 무덤에가 우는 장면은 그야말로 산천초목도 울지 않고는 못견디리라 믿고 이 책을 보내오. 동일이 이 책을 읽고 서야 내가 왜 이 책을 동일에게 보내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오. 눈물의 희신을 바라겠소.

동일이 「부커 T와싱턴 전」을 읽고 내게 보내온 독후감은 실로 명문이었다. 내가 그 원고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나는 동일의 원고를 읽고 심취하였었다. 동일의 문제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같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면 문단적인 위치로도 확고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는 이국 땅에서 해방을 마지했다.

자유를 신앙처럼 여기고 신을 생명처럼 섬기던 그가 지금 어느 하늘아래서 영오의 생활을 하는지 궁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지금도 책을 읽다가 감명되는 귀절

이 있게 되면 의례 동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나의 어린시절의 벗이요 독서의 친구며 또한 문우인 것이다. 그가 내게 보낸 「젊은 시인의 편지」는 내가 보물처럼 보관하다가 육, 이오 동안 때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그에게 보낸 「부커 T와싱턴 전」도 아마 지금쯤은 갖고 있지 못하리라. 그도 나와 같이 자유의 하늘 아래

살고 있다면 나는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제간저 「문화비평」을 우송하고 싶다. 지금 모두 처서 다섯런 밖에 나오지 못 했지만 그런대로 권하고 싶은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저금 받은 열 두지가 넘었다. 사방은 고요하다. 전등이 내 책상을 밝게 비춰 주고 있다. 그리운 친구를 생각하기에 좋은 시각이다.

박 대통령 문언록

- ◇ 나의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남에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존경과 이해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돕고 위할 때 비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떳떳하게 신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 모든 나라의 민족이 현대를 살아야 할 지혜를 깨닫고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에로의 역사의 의지를 믿고 행해 나간다면 오늘의 불행은 멀지 않아 해소될 것이다.

(콩) (트)

남성 테스트

최 태 응

모두 이글이글한 장거리 선수들과 같았다.

백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스타아트」를 해서 삼십리, 오십리, 백리 줄기차게 달리는 것처럼 남녀 대학생들은 1년—2년—열십으로 학문의 『코오스』를 달렸다.

허장성세로 남보다 월등히 앞장을 서서 무리하게 기력을 다 없이 하고 지레 기권을 해 버리는 사람——

그만 실수를 해서 발을 꼬디디고 쓰러져 버린 사람——

있는 힘을 다해서 암전하게 싸웠으나 원체 실력이 떨어져 등외로 떨어진 사람——

결국 당당한 실력과 놀라운 기록으로 그 많은 선수들을 여러 백미이터나 감감하게 뒤로 제쳐 버린 다음 이제는 다만 누가 1착——누가 2착——3착이 되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았을 뿐 우승과 일상은 확실하게 된 것 모양 졸업을 앞두고 전반 학생들의 이복과 화제를 도맡듯 차지한 사람들이 그들 셋이었다.

「윤 정민」

「김 도식」

그리고 여학생인 「박 주신」…….

학업에 들어서도 으뜸 가는 수재들이었으나 보다 다르고 중대한 인생문제에 그들 세 사람은 실로 남다른 관심과 부러운 눈으로 바라 보는 동창들로 하여금 박수갈채와 탐심에만 그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말았다.

「삼각관계！」

교문을 나서는 첫 발걸음이 벌써 사회라는 어지러운 웅덩이로 옮겨 놓는 길이기도 한 최고학부를 졸업하자 세 사람의 관계는 마치 그들 스스로가 끄떡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획이라도 세웠었노라는 듯이 활기를 띠었다.

하나 원체 인물이 인물들인 만큼 어느 한 쪽에서건 예의를 벗어난 말부터도 꺼내는 일은 없었다.

첫째 「주신」이가 친성 타고난 이해력과 친절과 명랑성이 얼핏 보아 속단을 잘하는 어리석은 남자들에게 곤잘 오해를 사고 지나친 꿈을 일으키게 하는 반면에 이지 이상의 냉정을 지니고 있는 줄을 잘 아는 친구들이다.

게다가 「정민」이는 정민이 「도식」이는 도식이 대로 그들이 2대 1 이태시 결코 「주신」이가 여성들의 세계에서 차지하고 평가되고 있는 처녀로서의 자량이라거나 가치(인물)보다 조금인들 즉 잡힐 구석이나 낮은데 놓이는 일을 용납

● 콩트 : 「남성 테스트」 ●

한 청년들도 아니었다.

다들 학창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구배
여 우정의 한계 안에서 의심하려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또한 색달리 타진해
보려 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고 우정마저 다짐을 한다거나
시위처럼 참을성 없는 장담을 한다거나
그런 적도 없었다.

도시 바깥 까닭도 서두를 필요도 없지
않으나—— 우선 수력 수력 가기로 작정
을 하고 반 넘어 가던 길을 그대로 가던
서 불일ियो 끝까지 가 놓고 불 판이 아
니냐는데 의견이 일치된 사람들처럼 의
정할 수 있었다.

나이의 철과—— 그 나이 그 철이면 피
게 마련인 꽃과 같이 그들에게도 비동하
게 허전하고…… 모르든 것에 대한 동경
과도 같은 마음의 자극과 작용을 어찌 그
들이라고 무시할 수 있으며 우둔할 법인
들 있었으랴 만은 그별수록 조심하고 신
중성과 인내력으로써 능히 이기고 헤아리
며 오히려 다행한 방향으로 돌리고 이끌
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면 가히 그들의
힘됨이를 추측할 수 있으리라.

× × ×

『윤 정민씨 정말 취직을 하세요?』

졸업식도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소
학, 중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
말로 시원섭섭한 대학—— 정은 교사와

그윽한 정열 흐뭇한 포부 불안의 시조를
더듬한 교정 좁으나 계절마다 싹트고 있
붙고 꽃피고 낙엽지던 자연의 맛보기와
도 같은 뒷동산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
며 주신이가 붙어본 말이였다.

『네 번수없이 취직을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이의 대답은 전에 없이 짐울하게
들렸다.

주신이는 잘못 정민이의 남모르는 사
정이라도 공연히 건드리고 들추어 주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슬
며시 말을 돌려

『이 무미건조한 불악이라구 하시던 산
보 동산을 거닐은 것두 며칠 남지 않았어
요.』

『네 미쓰 박은 졸업하신 뒤에 무슨 일
을 하신댔죠?』

『글세요 진 아직 몰라요 저두 어디 취
직을 했으른 허지만서두 적당한 때가 없
구 저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아닌게 아니라 당장 교문만 나서면
직장으로 가서 다시 일종의 신입생 노릇
을 한다는 노릇이 어쩔지 다소 서글프기
도 합니다. 것도 옛날과 달라서 지금 같
은 사회에서 말씀이죠』

『네……』

붙은 또 잠자코 걸었다.

침묵과 더불어「주신」이는 이 삼일 전에

그날은 「도식」이와 나란히 같은 길을 거닐면서 같은 화제를 꺼냈을 때 「도식」이는 「정민」이와 반대로 자기는 대학원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오히려 지내는 몇해 동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냥 놀리서 공부하며 연구하라라——고 지적하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었다.

불현듯 「주신」이는 바른편에 바름이 서서 몇 발걸음에 한 번씩 가만이 옆에 부딪치는 「정민」이의 얼굴을 쳐다 보기가 바쁘게 왼쪽으로도 비슷한 높이와 비슷한 각도로 쳐다 보면서 그쪽에는 「도식」이가 나란히 있지 않은가——했다.

이어 「주신」이는 근래에 이르러 혼자 속으로 틈틈이 「정민」이와 「도식」이 두 사람을 일시에 그려 보는 버릇이 무척 잦아 졌음을 느꼈다.

따라 두 사람의 남자를 이모저모로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서 제멋대로 상상을 덧붙여 보는 일과 그러한 일들이 꼬리처럼 몰려다 주는 부끄러움에 남몰래 귀밀을 붉히고 낯을 숙이면서 별명과 같은 웃음을 짓는 버릇도……

X X X

그들은 아는 어느 친구에게 물으나 「윤정민」과 「김도식」과는 첫눈에 보는 외양과 인상부터 각각 판이하게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말하는 음성과 투가 또한 눈감고 들어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외에 취미를 보더라도 마치 서로 화할 수 없는 감정에서 일부러 고집을 부리는 셈이나 아닐까——의심을 사리만큼 전혀 공통되는 점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쪽이 남성적인데 다른 한쪽은 여성적이나 하면 추호도 그런 내용으로 대조적이라거나 판이한 것은 아니었다.

다 같이 사내다운 모습과 성격이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 여자르 친다면 뚱뚱한 미인과 갈압한 미인과의 차이라 할까 학교 성적도 박증을 가리기 어려울법하게 우수하기는 마찬가지이던 하나(정민)는 사무적이요 보수적인데 반해서 하나(도식)는 모험적이요 개방주의라 일컬어기에 적절한데가 있었다.

그럼으로써 더욱 「주신」이의 관찰이나 판단력으로는 정녕 어느 편을 더 낫고 그르다거나 무슨 수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닐지라도 어느 편이 조금이건 더 좋고 나쁜지를 저울질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다지나 틀리게 생긴 남자들이 꼭 같이 좋을까?』

벚꽃을 두고 매일처럼 만나고 사귀고 오락가락 해 보아도 졸업을 하기까지 「주신」이는 내내 한결 같기만——도리어 알 수 없기만 했다.

그들은 필경 다 같은 이성이요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남자끼리도 어울릴

● 쿤트 : 「남성 테스트」 ●

수 없는 혈질은 물론 살도 뼈도 온갖 생리가 전혀 등진 사람들 모양으로 너무나 비슷하지 않으리라.

어렴풋하나마 졸업 후에 「주신」이도 그러한 상상에서 비롯되어 흠칫 탄약에 그와 같은 대상——이성——의 두 인물을 놓고 장차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극단적일지도 모르는 두 가지 운명(행복과 불행)을 한 자리에 놓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도저히 선택할 자신도 용기도 없던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으며 두 사람을 하나로 뭉쳐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막상 진심으로 그들을 붙잡고 통사정이나 애원을 한대하 그들이라고 「주신」이의 막연한 심정이나 딱한 능력보다 미필 재주가 있는가.

졸업 후에도 셋은 가끔 자연스럽게 만났다.

구겨 버리고 편지를 보내고 약속을 한다가나 뒀을 밭아 다닌다가나 그럴 필요가 없이 「정민」이도 「도식」이도 그다지 갑갑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에서 다방에서 극장에서 따로 따로 주신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공교롭게 셋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만족한 신사복들을 입고 「정민」이는 곧색 「도식」이는 「쵸코렛」색으로 역시 각각 다른 빛깔로 지어 입었으며 「주신

이에게는 그들이야말로 이 어저럽고 믿기 어렵고 허위 가치와 사기 험잡이 더 많이 흥청거리는 것같은 세상에서, 반에 하나 찾아보기 드문 진짜 신사들——아직 사회나 인생이나 때묻지 않고 얼룩이 지지 않은——깨끗하고 믿음직한 남자들이거니 싶었다.

『아유우 어찌문 두분이 꼭 같은 신사가 되셨어요』

『미쓰 박은 그새 더 벗쟁이 숙녀가 되셨는걸요 허……』

들이거나 셋이거나 만나면 허물없이 웃고 저꺼리고 시간이 있는 것. 그날 시제가 허락하는 대로 음악있는 다방으로 가기도 하고 점심을 먹는 예도 있었다.

다른 동창생들은 아는 처지에서 세사람의 소문을 학창에 있을 때 보다 여러 겹 살붙여 퍼뜨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탓을 내들러 그들의 사이를 한술더 떠서 썩덕거리고…….

과연 그까짓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생각들 내버려 두면서 은근히 기다리던 때가 온 것이라고 할는지 문득 다달오자 뜻밖인듯 싶던 일변 예기하고 바랬던 것같은 배짱도 없지 않은 그들의 날——아니 「주신」이의 가슴이 새삼스럽게 설레이고 묵직하게 짓눌리는 순간이 멀찍 찾아와 안기고야 말았다.

× × ×

마치 돌이서 단단히 짜고 드는 것이나
아닌가——의아하고 집나리 만큼 한날
한시는 아니라 해도 같은 날 오전과 오
후 두번에 걸쳐서 「정민」이의 편지가 아
침결에 「도식」이의 것이 저녁 나절에 저
마다 심상치 않게 속달로 날라온 것이
아닌가——.

내용인즉 난데 없는(그러나 무리도 없
는) 사랑의 고백이요 구혼이었다.

지난날의 짧지 않은 우정을 연정——
연애로 돌려도 그만이라는 눈치들을엿
보이면서 언제나 그들다운 신사적이며
정중한 문구들을 과장도 수식도 없이 실
저로 면대해서 조용조용 다정스럽게 이
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느려 놓은
끝에 파히 「주신」이의 기분에 거슬린다
거나 혹시 이미 당치 않은 지저귀가 아
니라면 사실상 이에서 더 지저할 필요도
없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마
땅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맺은
2통(두 사람)의 편지…….

놀랄줄 짐작한다——놀래는 것도 무리
가 아닐줄 안다——그러나 단지 놀란다
거나 어쩔줄을 모르는데 그쳤어야 될 말
이나——적어도 「박 주신」양이 겨우 그맛
정도의 현대여성이라면 더 상대가 되어
주지 않아도 그만일 것이요, 결단코 그
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는 식으로

「정민」은 시종 일관한 진실성과 어지간
한 인내(忍耐) 뒤에 펼쳐 나서 육박하는
양 「주신」이로 하여금 스스로 엄숙해 지
고 서글프기까지 해서 견딜 수 없는 구
절들이 여러줄——「도식」이는 단판으로
쾌활하고 「유머러스」한 농담까지 섞어
쓰되 어디까지나 그의 인품과 어긋남이
없이 교상하고 「위트」에 넘쳐 「주신」이
의 불안과 약간 떨리던 손길을 허물없이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가다가 불식간
에 손등을 입으로 가져다 대고 히죽——
이 떠오르는 미소를 금키 어렵게 했다.

두 번 세 번 다섯번씩이나 번갈아 읽고
다시 읽어 보았건만 「주신」이의 마음으
로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질만한 장절도
단절도 접어낼 도리가 없었다.

「주신」이는 한밤내 기쁜 것인지 두려
운 것인지 슬픈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채 혼자 이불 속에서 진담
과 한숨으로 밝히며 두루 궁리 끝에 『회
답을 써 보내긴 보내야텐데…….』

입안의 소리를 중얼거리며 부시시——
일어나 머리맡 책상 위에서 반짝반짝 그
의 눈치를 살피는듯이 반짝이면 마넌필
을 잡았다.

× × ×

숨겨야 소용없는 노릇 차라리 속시원
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두분 동창 아니 선생께서

● 콩트 : 「남성 테스트」 ●

어쩌면 요령뚝 같은 날 같은 의미의 말
쓰를 저같이 능력없는 사람에게 던져 주
시는 것입니까.

같은 의미라고 어찌 같은 회답을 보내
드리는 무례를 적다고 하겠읍니까마는
여기서도 차라리 무례한 편을 취하는 러
플을 거듭 눌러 용서해 주시기만 바람
니다.

각각 따로 따로라 해도 어떤 셈인지 하
루에 다 받아 보면서 원래 어리석은 인
간인 나를 두분께서는 공연히 시험 떠
보시고 놀리시느라고(나중에 한바탕 떠
놀리시면서 웃으시려고 일부러 이런 식
으로 능청스럽게 서면을 보내시는 속살
이나 아니신가)——하고 혼자 의심도 해
보고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지난날의 남달리 바르고 두터
웠다고 여기는 나만의 미 한층 미련하고
우둔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마는 나대로
의 인사와 해석에 돌리고 웃음으로써 가
위 경멸과 웃음을 피하는 함을 무릅쓰고
답장을 올립니다.

진정 똑 같은 말씀을.....

진정 어리고 염치없는 말씀을.....

두분과 같이 저는 언제 어디서거나 마
련되었던 마음처럼 서슴치 않고 왈가왈
부 결정적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기한과 조건을 허락
하십시오써 저도 이제부터나마 두분을

상대로 종래보다 다른 뜻과 계획으로 보
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서 결정지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두분께서도 이 못
난 여자를 좀더 벗하고 관찰하시면서 제
몽과 지도를 애끼져 맡아 주시기만 바람
니다.

부디 앞으로도 두분께서나 제 자신이
나 이런 일로 인해서 모처럼 흠없고 즐
거웁게 유지되어 온 우정에 티끌만한 틈
이라든지 어색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다들 노력할 것을 새로이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신」이는 자꾸만 중심을 잃으려는
사람처럼 마음이 가라 앉지 않고 글 쓰
는 손이 예사롭지 않아서 한참씩 멈추고
새벽 찬장을 쳐다 보았다.

무슨 말을 썼는지 무슨 말을 써야 할
는지 그저 펜 끝이 그려 나가는 대로 말
기듯 하고 식을 차릴 것도 없이 끝을 맺
어 정작 똑 같은 편지를 두통이나 만들
어서 우편으로 띄웠다.

남자들의 방법대로——남자들의 희망
(요구)대로 속달로 보내져 않은 까닭인
즉 남자들의 기대에 반쪽을 줄만한 회답
이 못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보통 우편으로나마 「주신」이는 구다지

나 아내 회답을 보낸 일을 후회했다.

단 며칠이라도 더 끌고 나서 보낼 것
을.....

남자를 흑에서는 얼마나 실망을 하고
마땅치 않게 여길까.

그들은 어차하면 자기(주신)를 한심
하고 주절없는 여자라고 비난할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걸 바에는 시일이라도 끌어
놓음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달래고 그들
의 긴장과 기대에 영긴 마음이나마 그
만큼 더 저니고 저낼 수 있도록 할 것
을.....

「주신」이의 뉘우침과 불안은 고민으로
번해서 가슴을 누르기까지 했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나를 만나려 하
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우연히 노상에서
만난다 해도 나같은 여자쯤 눈여겨 볼
것도 없다고 모른체 하고 지나쳐 버릴지
도 모른다.

고민으로도 다할 수 없다는 양 걱정과
불행스러운 시골들이 치밀기도 했다.

X X X

덧새를 저냈다.

회답을 받아도 실컷 발았을 시간이 지
나갔으려니—「주신」이는 흡사 외롭게
돌려 놓여진 어린아이와 같이 쓸쓸하고
담담하고 울명울명 했다.

『편지요—편지』

배마침 우체부가 오고 다른 사람도 아
닌 두 사람의 남성들이 보낸 편지를 안
겨 주지 않았더라면 「주신」이는 내쳐 바
보가 될뻔 했는지도 모른다.

『주신 씨!

감사합니다.

과연 주신씨 다운 회답이었읍니다.

저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 사람의 남자는 오늘 이후
주신 씨에게 「테스트」의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고 결혼하고도 열렬하게 거기 응
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마음껏 우리의 시험관이 되어 어떨든 우
리 두 사람 가운데 하나라 한들 영광의
합격을 이루어 주시기만 부탁이 읍시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들 자신도 주신씨
도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말도록 약속
하면서.....』

짧은 내용이요 두 사람이 한장에다 연명
으로 보내준 편지였다.

『어마나 이를 어쩐담』

딱한듯이 중얼거리는 「주신」이의 얼굴
은 노상 딱한 듯이 아닌 붉은 빛으로 활
짝 피어 올랐다.

※ ※ ※

원폭 피해는 방지할 수 있나

박 경 수 (역)

원자공격에 의한 사상은 화상과 폭풍의 힘 그리고 원자핵 방사선의 결과로 생긴다. 방사는 사망률의 약 15퍼센트, 화상은 그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중요한 산업 중심, 지하 교량, 철도선로의 중심과 같은 중요한 지점 혹은 중요한 건축물의 부근에 있다면 원폭의 위험은 일층 크다. 이러한 곳은 어떤 도시든 가장 폭격될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도시의 교외나 본래 주택지를 이루고 있는 곳은 원폭공격의 주변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원자폭탄은 넓은 지역의 주요 공격목표에 대해서만 사용되도록 계획되고 있다.

비교적 주요하지 않은 목표에 원폭공격을 하는 것은 비용으로부터 따져도 또 군사적 입장에서부터 말하여도 지인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원폭이 떨어진 지점에서 1마일 반쯤되는 곳에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2만톤의 강력폭탄에 필적하는 원폭이 파열한 곳에서 1마일 반 떨어진 곳에서는 가옥은 1명방인치에 따라 2.9톤드의 파압을 가진 폭풍에 휩쓸릴 것이다.

즉 지상에 노출한 것의 표면은 1명방 피트에 따라 417.6톤드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시속 100마일의 바람은 최초의 폭풍과 더불어 여러분의 곳을 통과하는데에 1.12초 들 것이나, 그만큼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집은 폭풍에 완전히 휩싸이고 만다. 혹, 그것이 최초의 폭풍으로 파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서운 속도의 바람이 가옥의 사방팔방으로 부딪쳐 온다.

최초의 폭풍이 오기 전에 닥쳐오는 것은 열의 폭사이다. 그것이 요하는 시간은 1초간이란 극히 짧은 시간이다.

열은 물 배와 같이 속히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근의 집들의 고목이나 불붙기 쉬운 다른 복제는 까맣게 타

버릴 것이다.

최초의 폭풍은 여러분의 집 창과 창살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문, 지붕 등은 남아 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견고히 지어 졌다면 폭풍에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혹시 그 집이 많은 창과 문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은 압력을 경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여러분의 집이 파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를 입을 것이다. 벽돌벽에는 균열이 생기고 채목들은 휘어질 것이다. 또 집내부에 들어온 폭풍은 벽들을 상케 하고 그의 대부분을 넘어뜨릴 것이다.

천정과 조명설비 등은 떨어지고 가구는 부서질 것이다. 전선은 절단되고 불이 일어날 것이다. 원폭이 투하된 지점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면 유리창은 가루가 되고 그의 파편이 방 안으로 날아 들어올 것이다.

창살 안팎은 모두 파괴되고 벽들은 떨어질 것이다. 복사열은 2마일이라도 1마일 반의 거리의 저점과 같이 모든 가연 소물을 태워 버린다. 그러나 과압은 1평방인치에 따라 2푼드 1평방피트에 따라 288푼드로 감한다.

폭풍과 더불어 생기는 풍속은 1시간 약 70마일로서 그것이 여러분의 곳을 통과하는에는 1.23초를 요할 것이다. 만약

에 세군의 집이 원폭이 투하된 현장에서 2마일 반 떨어진 곳이라면 유리창은 완전히 파괴되고 창살이나 문도 망가질 것이다. 벽의 손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과압은 1평방인치에 따라 1푼드반, 1평방피트에 따라 216푼드이며 풍속은 1시간 50마일에 지나지 않으며 복사열은 다른 목적도 태우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비교적 손해가 많지 않은 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 지대에서 더 8마일 떨어진 저점까지의 지역은 손해가 급속히 감한다. 8마일에서 더 떨어진 곳에서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초의 폭발 직후에는 광범위에 걸쳐 불이 일어날 것이다. 중심에서 2마일인 곳에서는 가연소물은 금방 불타 버린다. 전기의 쇼오트 파괴된 가스관 현 냉방장치 등은 대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 때문에 소사자의 사망률이 매우 높아 진다. 열의 복사는 일본 장기의 예로 중심에서 12,200피트, 광도에서는 11,000피트까지 소사자를 냈다.

여러분중 한 사람으로서는 불의 바다가 된 대화재를 끄려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소화작업은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도 불을 끄려고 크게 노력할 것이다. 통상화

제를 일으키는 2개의 원인은 전기의 쇼트와 망가지는 가스관이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여러분 집에 달린 주요 스위치의 장소를 알고 또 가스를 끄는 장소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공습경보가 나면 곧 전기 스위치를 끄고 가스를 잠겨 버려야 한다. 또 만약에 여러분 집에 석탄 연료가 있으면 그 불을 끄는 것이 좋다. 여하한 작은 불이라도 만약, 집이 쓰러진다면 크게 벌어질 것이다.

만일, 공습경보까지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 여러분의 집이 폭격의 중심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폭격에 의한 손해는 많이 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 집이 폭격의 중심에서 가깝다면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이다. 마른 나무잎과 같은 쉽사리 탈것은 무엇이든 치워야 한다. 빌을 가리는 차양 등은 베어 놓는 것이 좋다. 또 마루의 가벼운 가구도 치워 놓는 것이 좋다. 가루로 된 그들의 파편은 불의 위험뿐만 아니라 집의 파괴를 더하게 할 것이다. 하나의 큰 위험은 공중에 비산하는 유리이다. 이 원인에 의한 사상자는 많다. 이것이 특히 원폭투하 중심의 주변을 이루는 저대에 있어서는 심하다. 유리창은 중심에 8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깨진다. 최초의 폭풍이 매우 강하게 1명 방인ちに 대해서 1.5磅드 혹은 그 이상

이내 지속 50마일내지 그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위험하다. 폭풍이 생기는 과압과 풍력이 크면 물론 유리의 파편은 위험하다.

일본의 모든 도시에서 죽은 수 천의 사람들은 살 속에 1인치나 유리파편이 꽂혀 있었다. 큰 파편은 더 깊이 뚫고 꽂혀 있었다. 불행히도 창에 테이프를 발랐으나 원폭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원폭의 폭풍은 종래의 폭탄의 폭풍보다 오래 계속되므로 그것에 따르는 바람은 더 넓은 저대에 걸쳐 심히 불어 제친다. 따라서 유리창을 전부 베어 놓지 않으면 날아오는 유리의 위험을 거의 막을 수는 없다. 시민의 방공이 전실한 기초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영국의 방공권위자는 유리대신에 가루가 되지 않는 인조수지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과 경비상의 문제로 실현 곤란일 것이다. 여러분은 큰 불덩어리가 반짝했다고 느꼈을 때 즉시로 방바닥에 엎드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급하게 원폭을 당했다 하더라도 유리의 파편을 가장 잘 피할 수가 있다. 폭풍은 그 후에 오기 때문이다. 원폭에 대한 준비의 순서는 우선 저방 뒤부터 시작하여 저지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는 대개 너절한 것을 저방 뒷방에 둔다. 그 중량은 폭풍의 중압이 집을 아

때로 뿐만 아니라 옆으로 밀 때에 위험하다. 그러던 지붕 뒷방의 무게로 여러분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창에서는 모든 커어텐을 빼 놓아야 한다. 제 1차 세계대전시 등화관계 때문에 썼던 흑색 커어텐은 위험하다.

흑색 및 모든 어두운 색은 열의 복사를 흡수하고 밝은 색의 것보다 더 쉽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색의 등화관계용 커어텐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완전히 불연성 재료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인화성의 것으로는 그것 역시 타버릴 것이다.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발화할지도 모른다. 흑색 커어텐은 폭풍이 오기 전에 열의 복사로 발화하므로 창이 폭풍으로 물러가면 그것들이 집 안으로 흩날릴 위험이 있다. 그것이 아무리 금속이나 불연소성인 것이라도 특히 견고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빼놓는 것이 좋다.

견고한 창살로 창을 가리는 것이 좋다. 만일 여러분이 파압이 적은 지대에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파압이 심한 곳에서는 창살을 한 집도 파괴되고 만다. 그럴 때는 건물의 외면은 어디나 폭풍이 닿는다. 그뿐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폭풍이 오는지 아무도 확실하지 모르므로 집사방을 단단한 것으로 지킨다는 것은 매우 경비가 들 것이다.

지하실—— 특히 가까운 곳은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된다. 가족들은 캄캄한 속을 그곳에 급히 가지 않으면 안 되므로 지하실은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 혹시 여러분이 특별한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지하실에 머무르게 될 경우를 생각하여 식물과 음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폭이 투하된 현장에서 1마일 이내의 지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지대에서 여간한 행운에 다치지 않은 이상 주택의 파괴를 면치 못할 것이다. 1.25마일의 곳에서 발달한 과압은 강철제의 재료로 된 건축물에 손해를 끼치고 9인치의 벽돌벽에 균열과 부풀음이 생기게 하고 복사열은 지붕 위에서 타이루가 뜨겁게 되어 거품을 내고 표면이 녹아 버릴 정도로 심히 뜨겁다.

1마일 되는 곳에서는 주택건축보다 훨씬 무거운 상업용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몇 층이나 되는 벽돌집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 지점에서 원폭투하의 현장까지는 파괴는 완전하다. 그렇다 해도 만약 여러분의 피난처가 충분히 준비된 곳이라면 생명만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거의 확실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깊이 판 지하실과 지하의 통로를 가진 피난처는 장거나 광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

였다. 이외에 또 이 지대를 덮는 것은 원자력의 방사이다.

1.25마일 저점에선 방사능은 100렘트센 이하로서 이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최저량이다. 약 1마일의 곳에서는 100 렘트센이다. 이 비는 이 저점에서 원폭무하현장에 가까울수록 급속히 증대한다. 4,200피트의 곳에서는 50퍼센트 인간을 죽이는 중간량 400렘트센이 생긴다. 또 3,500피트에 있어서의 렘트센량은 완전히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을 백퍼센트 죽게 한다.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면 설혹 방사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풍이나 열 때문에 확실히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1마일반이란 근거리에서도 핵의 방사는 이겨낼 수 없는 위험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지하실에서 위 힘은 2만톤의 강력폭탄에 필적하는 원자폭탄의 위력을 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피난처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에 요하는 비용은 막대한 요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민간방공기구는 영국국민이 제2차 대전중 행했던 것과 같은 표준적 피난처를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난처는 위험한 1마일 이내가 아닌 이상 유효하고 또 비용도 들지 않고 만들 수가 있다. 1마일 이내에선 그의 견

고함과 방어력의 필요가 크게 요구된다. 그러면 원폭투하의 현장에서 적어도 1마일의 거리에 있는 보통의 교외에선 무엇이 가장 적당한 것인가.

여러분의 지하실은 지표보다 밑에 있고 그럼으로써 비상할 두께의 토양으로 방사나 폭풍을 막는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토양대신에 콘크리트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콘크리트는 폭풍에 견대는 매우 강대한 힘을 갖고 또 방사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실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동시에 매우 큰 위험도 지니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붕괴되고 물이 그 지대 널리 퍼졌다면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확실히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지하실 이상으로 좋은 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실이 각 가정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집이 붕괴되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밑 받침이 되어 끔찍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지하실 상부는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벽근처의 지하실 천정에 기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경비를 그다지 들이지 않고 지하실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 장소는 입구 가까이가 좋을 것

이다. 그러나 폭풍을 받을만큼 가까와서
는 안 된다.

중형이 2피이트나 그보다 무거운 재목
을 서로 부쳐서 세워 그것들이 회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재목의 끝과 다른 끝을
접하여 친정애다 기둥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적어도 벽에서 8피이트 내지
10피이트 벌어진 곳에 두고 벽에 따라
옆으로 간격을 두고 세우는 것이 좋다.
피난처에는 언제나 물과 식료품을 준비
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습 후에도 수도가 단수되
고 상점이 파괴되어 식료공급은 끊어질
것이다. 또 출구는 집계단 이외에 제 2
의 그리고 견고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 출구는 지하도를 통하여 넓은 장소
에 통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용으로 말하면 우리의 대부
분은 이런 출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
므로 여러분은 더 적은 비용으로 마당가
운데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피난처를 만
들 것이 좋다.

이 피난처는 지하에 파묻게 되어 있
다. 그것은 깊지 않아도 좋지만 벽이 거
주로 버티어져 있으면 그다지 깊지 않아
도 좋다. 영국인은 반원형으로 잘린 두
꺼운 강철판으로 피난처를 만들었다. 그
모양은 흡사 큰 판을 길이로 반 자른 것

과 같다. 그리고 그 반원의 제일 높은
곳이 지면과 비슷하게 될 정도로 땅속으
로 들어 갔다.

파낸 흙은 방어력을 증가시키도록 강
철판의 제일 높은 곳에 있었다. 이 피난
처도 조잡하긴 하나 직접 폭격된 때 외에
도 실제상 모든 면으로 유효했다. 이것
을 흉내내어 여러분은 목재나 널판을 써
서 피난처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보
통 가정이면 피난처도 길이 8피이트에서
10피이트, 폭 5피이트, 높이 6피이트쯤이
좋다. 지붕은 지면에서 적어도 1피이트
아래가 아니면 안 된다.

판 흙으로 그 위를 덮어야 한다. 지붕
은 꽤 무거운 재목을 밀집히 놓아서 만
든다. 벽은 좀 더 가벼워도 좋다. 그러
나 그 구조는 지붕 1평방피이트에 대하
여 약 170폰드의 무게가 가해져도 견참
도록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폭격현장지점에서 1마일 좀
더 되는 5,000피이트의 곳에서는 파압은
1평방인치에 따라 7.4폰드, 1평방피
이트에 따라 165.6폰드나 된다(이것을 계
산하면 1평방피이트는 약 1평방척이니까
1평방척에 따라 약 20권의 무게가 된
다).

이렇게 해서 된 피난처에 출입하기 위
하여 여러분은 양측에 좁은 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벽은 판자로 하는 것이 좋다. 입구에 구멍을 파고 그것을 깨뜨린 돌로 막아둔다. 이 구멍을 적어도 2피이트나 3피이트 깊이의 길이와 같은 폭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수(雨水)도 그 구멍으로 돌아가고 호(壕)를 저지르는 않는다. 피난처의 바닥은 나무로 지면보다 높인다. 입구는 좌우를 다 도어나 커터렌으로 달친다.

원폭공격은 도심에 가까운 곳에서 행해지리라고 생각되니까 입구는 도심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게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피난소는 누구나가 만들 수가 있다.

만약에 원폭투하현장에서 5,000피이트 떨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폭풍과 열의 복사 원자핵의 방사에 충분히 견딜 것이다. 그러나 4,200피이트의 곳에서는 간마방사선을 막는 방어물이 필요하게 된다.

방사선의 방어할모써 3피이드의 흙은 20인치의 콘크리트와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밖에 피난처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봉조림, 식료품과 금속 그외의 망가지지 않는 용기에 넣은 신선한 음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정보가 되고 곧 공습경보가 되면 즉시로 피난소에 간다.

또 공습경보까지 사이가 좀 있는 것 같으면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아무 경제경보도 없이 갑자기 공습이 될 경우는 여러분은 원자폭탄의 공격력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열의 복사와 핵의 방사는 불과 1초간에 약 186,000마일이라는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이다. 나만, 폭풍은 그것들보다 늦게 온다. 그것은 원폭이 폭발하고 십광이 싹 비친 후 1분간 이내에 온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피난소에서 나오면 안 된다.

또 아무도 핵의 방지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러나 신속한 행동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폭풍은 금방 온다. 그러나 원폭의 열장에서 떨어진 지대는 폭풍이 오기까지 수초 걸린다. 또 1분 경과하면은 통과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 이것에 반하여 열의 복사는 그곳에 달하는데에 0.0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또 핵의 방사도 열의 복사와 같이 1초간에 186,000마일의 속도이므로 이것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수초간에 방사되고 마니까 부분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확고한 것의 뒤에 대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여 폭발이 무섭게 밝은 빛 의

에 다른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등을 반짝 빛난쪽으로 향해서 죽기로 태지에 었진다. 양팔을 위로 들고 머리와 목을 덮는 것 같이 한다. 오그리면 가장 적게 방사되므로 좋은 자세라 할 수 있다. 만약 집에 있었을 때도 벽 바로 옆의 방바닥에 었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폭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자세로 완전히 1분간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대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경계경보를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여 만약에 여러분이 경계경보 없이 불안간 아무 것도 없는 지점에서 원폭에 습격되었다면 그 투하현장의 가까운 지대에선 거의 살 가망은 없을 것이다. 더 멀리 있다 하여도 생명이 구하여지는데도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 현장에서 1.25마일의 곳에 있고 그곳이 아무 것도 없는 넓은 곳이라면 생명은 확실히 위험하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고 할 수는 없어도 특히 열의 복사 때문에 화상을 크게 당할 것이다. 사망자의 수와 위험한 최초의 반마일을 지난 후 원폭의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사망자의 수가 여하히 급격하게 감해가는가? 광도의 장기에서의 조사결과를 보아도 분명하다. 사망의 퍼센테이지 원폭투하현장에서의 거리

94	—영	1,000 피이트
90		2,000 피이트
80		3,000 피이트
58		4,000 피이트
37		5,000 피이트
20		6,000 피이트
7		7,000 피이트

영국 민간방공당사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사상자중 75퍼센트까지는 미리 알리는 경보와 피난소에 의해서 피할 수가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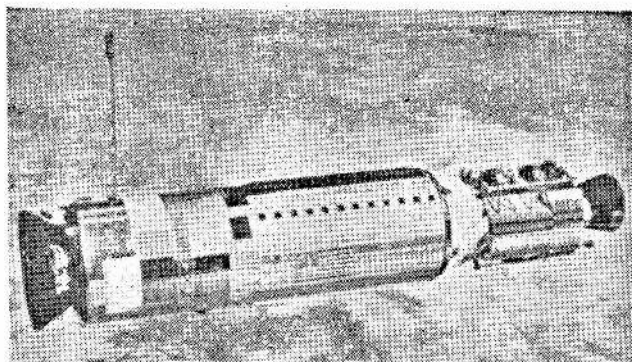
깊은 피난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경보가 시민에게 미리 알려진다면은 사상자의 수는 적어질 것이다.

적당한 준비와 충분히 훈련된 민간방공단원이 있다면 원폭공격은 중요산업시설 혹은 육·해·공군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명을 빼앗는 것은 적어질 것이다.

원폭공격은 집단적 효과에 의해서만 유효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원폭공격의 일을 고려하고 또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 놓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원폭공격에는 원폭공격으로써 그것에 대처하는 방어책이 있는 것이다.

<Atomic Energy in War and Peace에서>



과학의 의미

이 교 상 <역>

L·A·드브리지 박사

◆ 과학의 의미

현대 「과학시대」의 비극은 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있다. 과학은 「제트」기, 원자탄, 전파탐지기, 「텔레비전」 또는 월세 계로 발사하는 「로켓트」 같은 것인가?

아니다. 과학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과학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과 과학과의 관계는 자동차와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과의 관계와 흡사하다.

전파탐지기, 원자탄 및 「텔레비전」 같은 것들은 과학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는 공장의 생산물이지만 우리는 자동차와 공장을 동일한 것이라고 혼동하지는 않는다. 그럼 대체 과학은 무엇인가?

과학은 인류가 여러 세기에 걸쳐 축적한 자연에 관한 지식의 커다란 보존체인 것이다. 인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안락이나 혹은 행복을 위하여 또는 평화나 전쟁을 위하여 유용한 물건을 발달시키는 가능한 길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는 전파탐지기나 원자탄을 혹은 「텔레비전」장치를 발달시키는 사람은 아니다. 과학자라고 함은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과학자는 자연에 대하여 또는 자연계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

힘하여 자연제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실과 원칙에 대하여 무엇이고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그 지식을 섭취하여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한 사람을 묘사하는 단 한마디의 술어는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는데 「공예가」라는 술어를 쓰고 싶다. 공예가는 사람들이 각각 필요할 때 요구하는 물건을 발달시키고 설계하고 또는 실제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과학의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새로운 공업의 생산이든 전쟁무기이든 또는 신 의료가든 과학의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을 공예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업기술자도 공예가의 일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기술자의 사명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발견된 지식을 섭취하여 보다 더 나은 건축을 교량을 자동차를 또는 「라디오」장치를 설계하는데 이용하는데 있다.

오늘날 과학자와 공예가를 서로 혼동하기 편 쉬워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똑같은 훈련을 받고 거의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며 또 흡사한 종류의 지식의 배경을 갖추어야만 하는 까닭이다. 사실 그들은 곧잘 상대방의 직업으로 직업전환을 하는 일이 많다. 좋은 예로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 많은 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전공하는 과학을 버리고 군수공예학으로 그들은 주의를 돌려 전파탐지기, 원자탄 및 「페니실린」 등을 연구 발달시키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예가들 중에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과학자들을 돕기 위하여 더 심오한 지식의 배경을 탐구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예가들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과학자로 변하고 만다. 나는 과학자와 공예가간의 이 대조를 마음 속 깊이 명심하여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과 과학자는 지식의 탐구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보통 과학자체를 위한 지식의 탐구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과학자의 궁극의 목적은 자연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있다. 그러나 공예가는 그가 지향하는 목표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공예가를 위하여 연구해는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물건을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과학적인 발견과 실제적인 응용과의 사이에는 먼 거리

가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의 과학적인 발견이 그 다음 날에는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기구로 변하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러한 예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인 발견과 실제적인 응용과의 사이에는 온갖 노력을 다 하여야 할[고난에 쌓인 먼 거리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 길은 보통 한 줄기의 길이 아니며 시험과 좌오의 길인 것이다. 또 그 길을 걷는 도중에는 여러가지의 발견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그 발견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발견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공예학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 공예학은 과거의 것을 반성하여 보면서 새로운 많은 발견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과학이 걸고 온 오랜 세월의 곤난에 넘친 발자취를 하나 하나 더듬어 볼 수 있다. 사람들 중에는 원자탄은 일주일 동안에 발견되어 다음 주간에는 벌써 실제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끝난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원자핵 물리학의 역사는 최소한도 1890년대 「베쿠에렐」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1900년대 초 「큐우리」부인과 「루더포드」시대에 소급되는 것이다. 사십년간 과학자들은 원자핵 물리학분야에서 연구를 거듭하여 원자의 성질, 원자핵 또는 그 크기의 중량과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탐구를 행한 결과 핵실험을 예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자탄은 그러한 지식의 축적없이 는 절대로 성취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과학은 왜 유용한가?

첫째로 무식한 것 보다는 유식한 것이 좋은 까닭에 즉 지식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둘째는 지식은 우리가 요구하는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까닭에 즉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역으로부터 구출하는 기계를 생산하고 사람을 풍우로부터 보호하는 가옥을 구축하고, 농업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그 외에도 인류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수 많은 일을 가능케 하도록 돕는 까닭이다.

벌써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되었는가? 내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자연에 관한 탐구의 정도를 겨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연에서 발견한 사실을 이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상태

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일에서 식량문제를 고려하여 보자. 세계 일부지역에 있어서는 기아문제는 아직 놀라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를 빚어내고 있다. 이것은 아직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현대 농업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의 일부가 있는 것이다. 또 흔히 현대 농업기술의 적용은 사회, 경제, 정치 혹은 종교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방해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광범한 교육계획은 공예학이 인구 과잉지구의 기아상태를 해결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기술적인 여러 문제가 대체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농업은 역시 원시적인 생산 방법으로써 행하여 질 것이며, 하나의 과학으로서의 품치 될 수 없을 것이다. 농업은 여러 세기에 걸쳐 시험과 파오를 통하여 발달되어 온 것이었다. 즉 인류는 오랜 세월 어떤 종류의 식량이 어떤 종류의 기후와 장소에서 자랄 수 있는가를 관찰 하여 왔던 것이다. 농업은 과학적인 계획으로서 연구하고 농작물에 관한 물리화학을 이해하려고 토양, 공기, 물 및 태양광선 등이 모두 합하여 유용하고 적당한 식량을 생산하는 여러가지의 합성 과정을 밝게하는 자연에서 몇 가지의 「힌트」를 얻게된 것은 최근에 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칼텍」의 노동자들은 과실을 익히는데 따르는 화학적인 반응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 결과 우리는 어느 정도 익은 과실에 화학성분을 주입하여 줌으로써 과실을 예정보다 빨리 익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화학지식이 더 발달되면 우리는 어떤 과실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에서도 그 과실을 재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최근 수년간의 연구결과 우리는 태양광선을 「화학력」이나 식량「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과정 즉 우리가 일광합성과정(Photosynthesis)이라고 부르는 합성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농작물과 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간주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물리화학은 이제 겨우 해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후 석탄, 유류 및 기타 연료가 점점 희소하여지고, 사드리고, 비용이 너무 고등하여지며 또 인류가 「에너지」를 증가하는데 대한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필요성을 태양광선에만 의존하게 되거나 앓을가라고 생각한다. 즉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태양이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는 또한 앞으로 몇 억

조년간 인류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엇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보다 더 유용한 형태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류의 생활에 놀란만한 기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는 태양 광선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즉 일광합성과정이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대규모적으로 실시 되는 방법을 발견시킬 수 있다면 식량은 물론 연료까지도 이 일광합성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물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의 예를 보아서 앞으로 수년내에 농작물과 농업, 물리학 및 화학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그 결과 농업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것은 틀림없을 것같이 생각된다. 그리하여 수년 내에 기아라는 종자 못한 상태는 지구상으로부터 일소되고 말 것이다.

의로 공예학이 과학이라기 보다도 아직 하나의 기술로서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예가 있다. 지나간 오십년간에만 하더라도 의학상의 실험은 물리화학 및 생물학에 있어서의 신발견들에 의하여 혁신되어 왔던 것이다. 예로서 의학에 기여되리라고는 손끝만치도 생각하지 않았던 물리학자가 물리학 연구실에서 발견한 X광선은 근대의학을 혁신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또 화학과 물리학의 여러 계통에서 발견한 새 사실도 의학발견에 이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직 미개척 문제로 남아 있는 물리 화학 합성과정에 대하여서는 거의 이해치 못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과정중의 몇 개도 우리에게는 저극히 신비로운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가장 간단한 개체 혹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세균이라고 생각한다.

세균은 어떤 상태 하에서는 보통의 화학성분 즉 유기적인 합성 화학성분이다. 이러한 세균은 결정시킬 수도 있고, 용해 여파시킬 수도 있고, 또 저장할 수도 있어 마치 우리가 일상 사용할 수 있는 식염과 같은 것이다.

또 적당한 상태 하에서는 세균은 생물의 특성인 개성을 갖게 된다. 즉 그 자신이 번식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균은 놀라운 정도로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수분 동안에 여러 세대의 번식과정을 거치게 된다. 짧은 예로써 어떤 종류의 단 하나의 세균이 「박테리아」(박테리아는 보통 세균보다 개체가 크다)를 습격하면 세균은 「박테리아」 내에서 급속도로

번식하므로 「박테리아」는 단 십오분내에 여지없이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종류의 세균이 보유하고 있는 펙 좋은 특성이다. 즉 「박테리아」를 파괴할 수 있는 세균의 특성은 우리 인류생활에 여간 큰 도움이 된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유해한 「박테리아」를 파괴할 수 있는 종류의 특수한 세균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다. 그러나 기타 종류의 세균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해한 세균들은 번식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폐염, 유행성 감기, 소아마비증 및 보통감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세균을 어떻게 정복하여야 할지 그 치료법도 또는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약품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세균을 정복하려는 연구는 진행중에 있다. 「칼텍크」의 한 과학자는 세균연구의 새롭고도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초기의 세균연구 대상으로서는 원숭이가 사용되었다. 수 많은 원숭이들은 세균이 포함된 주사를 맞는다. 그리하여 병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수 주간 혹은 수 개월간 기다려본 후 만일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세균연구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그후 누가 제란을 세균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그것 역시 연구가 지지하고 곤란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보통의 동물을 조그만 장반에다 기르고 그 장반에다 세균을 감염시킨 다음 연구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즉 장반에다 세균을 감염시키면 즉시로 세균의 각 개체가 그 동물을 습격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전에 몇 주간 혹은 몇 개월을 요하면 실험을 몇 분 내지 몇 시간 내에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장반들은 조그만 연구실이라 하더라도 수 천개를 재둘 수 있으므로 실험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도 평행적으로 일년전에 가능하였던 것 보라도 훨씬 빨리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연구 방법은 세균의 개체가 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그것의 성질과 어떠한 화학물이 세균에 자극을 주며, 번식을 저지할 수 있는가 또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가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의학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화학 생물학연구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대학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수 많은 학자들이 지식 그 자체를 위하여 신비로운 개체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하여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그 신비로운 개체들은 우리에게 위험하고 또한 중요한 존재들인 것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기본요소를 생각케 하고 생명 그 자체의 성질에 관하여 조그만 암시를 가져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과학 분야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는 인류의 복리를 향상시키는데 과학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가? 나는 때때로 아직 수 많은 사람들이 「제트」기, 원자탄 등이 과학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 의회에서 더 좋은 폭탄, 전투기, 무기 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정부연구소의 설립비나 또는 더 우수한 「텔레비전」설치, 자동차, 항공기 제조를 위한 공업비를 승인하였을 때 사람들은 「과학」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에 대한 지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며, 공예학에 대한 지지인 것이다. 공예학은 과학이 발전한 지식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용한 물건제작에 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과학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공예가들이 응용하는 지식은 어디서 얻어올 수 있는가? 이십세기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은 25년 전보다는 약간 풍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학 자체를 위한 과학의 탐구는 적당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경쟁으로 인하여 과학의 연구를 실시할 적당한 자금을 특히 사람을 얻기는 여간 곤란하지 않는 것이다.

지식의 탐구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곳은 어디보다도 대학이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이 과학탐구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쉽사리 구할 수 있는가? 모두다가 아다실이 대학의 재정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관립이든 사립이든 연구소의 비용도 난관에 빠져있는 것이다. 우리는 재정적 곤란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팔고 그 대신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불쾌하게 하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다액의 금액을 벌었으며 이 나라에서 과학연구비로서 수 십억원이 소비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사실 군사 공업 공예학 연구비로써 수 십억원이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연구비는 매년 수 백만불밖에 소비되지 않고 있으며, 그 총액은 공예

학 연구비에 비하면 몇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방면의 문외한이나 일반 시민들인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으로서 과학과 공예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싶다. 즉 과학은 앞서서 기반을 닦아 둔다. 그후 공예학은 그 기반 위에다가 여러 분들이 보는 바와 같은 유용한 상부구조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견고한 기반없이 상부구조를 건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과학의 기반이 튼튼치 않다면 상부구조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지식의 탑주인 과학의 연구가 여러 세대에 걸쳐 과학자체를 위하여 유용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누구든지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무식을 제거하고 지식을 가져옴으로써 또 자연이 주는 재난과 타인이 주는 재난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인류에게 만족감을 갖게 하였다.

이 지식과 능력은 앞으로도 팽창할 것이며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일대 발전을 기할 것이다.

박 대통령 문언록

- ◇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숭배하며, 침략과 파괴 행위를 거부한다.
- ◇ 전체가 같이 자유롭고 같이 번영할 때 참된 혼자 의 번영과 자유도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다.
- ◇ 남을 헐뜯고 분렬과 파쟁을 일삼는 곳에 단결과 협동과 재기의 의욕이 솟아날 리 없다.

청 소 년 선 도

성 경 린

<국립 국악원장>

우리 모두 오늘이 비록 고생스럽고
암담하다 하더라도 내일의 번영, 내일
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지극히 참고
그렇게 견디는 것이다.

한 사회요, 한 국가, 한 집안에서도
그 내일을 담당하고 내일에 기대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비뚤고 귀여운
청소년들이다.

오늘이 간고하면 간고할수록 이들
청소년에게 거는 희망과 꿈은 더저게
부풀고 있다.

그리기에 이들 청소년이야말로 한
나라, 한 사회, 한 가정의 희망이오
꽃이오 푸르디 푸른 새싹인 것이다.

내일은 바로 이들이 주인공이요,
내일의 역사는 이들에 의해 찬란하게
더욱 영광스레 기록될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 청소년이 무엇
을 보고 배우며 또 무엇을 느끼고 어
떻게 자라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를 생각하여 볼 때 우리는 그저 탄식

하고 안여할 수 없는 초조와 불안과
위구같은 걸 아니 느낄 수 없다.

가정교육 학교교육은 여기 잠깐 논
의로 하고 그 사회 환경에서의 감염
즉 사회교육을 조금 들어 보자.

우선 한 마디로 누가 있어 이들 청
소년을 알뜰히 보살피고 있는가?

누가 있어 이들 청소년의 교육을
바로 담당하고 있는가?

누가 있어 이들 청소년의 슬픔과
피로움을 애처롭게 달래고 있는가?

그보다 누가 있어 이들 청소년의 크
나 큰 용지를 키우고 이를 성원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천에의 고아처럼 한 걸치
에 내동댕이 쳐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귀
여운 청소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
을까.

부모가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생
활이 부유하다 해서 결코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닌 이들 청소년들!

좌하고 석석하고 슬기롭게 자라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은 마치 광야에 버려진 어린양처럼 오늘날 무척 고되고 슬픈 형국에 처해있는 것만 같아가 없다.

한편 눈을 돌려 이들 청소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느끼고 손에 잡히는 온갖 사상을 생각하여 본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들리고 잡히고 느낀다기 보다는 그 반대의 것이 오히려 압도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영화와 그리고 일상의 신문, 잡지, 주간지에 이르기까지 매개로 하는 갖가지 수단은 이들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정신의 양식이 되기 보다는 저들의 몸과 마음을 쪼먹는 심히 유해한 것으로 총탄하여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는 말은 아닐 것 같다.

거리마다의 추잡한 극장의 간판 그보다 길목마다 덕지덕지 붙은 저속하고 야비한 영화관의 광고 종이.

제복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그림에 이르러는 어른도 얼굴을 붉혀야 할 부끄러운 화면이 천연스레 나붙어 있다.

그런 영화에 관한 한 미성년자의 입장은 물론 금지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여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도 일 반은 아무도 잘 모르고 있다.

청소년을 선동하는 광고행위라고까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정화 또는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서는 영화관의 광고관 길목에 나붙는 포스터의 내용까지도 면밀히 사건에 검토되어야만 하겠다.

요즈음 신문소설이 하나같이 왜 그런 경향이 되고 있는지를 참으로 모르겠다. 신문은 하나가 되던 둘이 되던 글자를 해독하는 은 식구가 한번은 다 눈을 거치게 마련인 것이다.

정치면 경제면이 주로 부로의 것이 라면 사회면 가정란은 주부들의 흥미를 끌 것이요, 문화면 연예면은 보다 젊은 세대의 관심두는 읽을거리일 것이 분명하다. 여기 매일 연재되고 있는 연재소설은 한글로 되어 있어 국문을 해독하는 어린이라곤 내용은 차치하고 환히 읽어 내려가기에 불편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 거개가 예외 없이 의실한 이야기로 엮어 있어 청소년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신문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부도덕

하고 불건전한 제재를 다루어 취급할 뿐 아니라 그 반향은 날로 더하면 더했지 도무지 퇴색한 줄을 모르는 극성스러움에 더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다.

순결한 정조 위에 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인륜의大本인데 이것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문소설인 것이다.

이야기는 이야기니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결들이는 그림이란게 하고한 날 남녀 포옹의 정사의 장면만 쫓고 있는진 그래야 소설이 읽히고 신문이 팔리는가는 몰라도 가정마다 자라나는 청순한 청소년을 가진 가정에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를 방위하여야 하는가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책 무슨 방책이 있는가.

이 국민을 더욱 명일의 이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의 교육을 어디로 어떻게 가져 가려는 것인지 그저 한심하기만 하고 한심하다는 꾸밈이나 불평만으로 아니되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여론으로 이것을 지금 당장 광정하지 않으면 병원은 정만고 황에 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마저 통렬히 드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또는 주간지 그리고 라디오방송이나

TV발사 등 그것들이 많아지고 팽창하는 자체 그것에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우를 끼운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건전한 공시양속을 해치고 파괴하는 거조에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가 묵연히 좌시할 수는 도저히 없다.

나는 때로 애정세계를 즐겨 다루는 적지 않은 소설가에게 이런 의문을 혼자 걸어보는 것이다.

그가 대담하게 또는 노골하게 자신을 가지고 그리는 남녀 정사의 태도를 그의 귀여운 아들 딸에게 애써 입힐 것을 원하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악에 물들기 쉬운 우리의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든 악에서 방위하고 착하게 착하게만 선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회환경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 청소년 보호와 선도의 건장이 되어 저들의 진로를 희망과 광명, 영광으로 이끌어야 한다.

민족의 중흥 조국의 근대화 그리고 통일 조국의 신성한 죄업도 우리의 귀여운 청소년의 선도없이 기필하지 못한다는 너무 자명한 사실에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엄숙하자.

〈특집〉

군이생활향상을위한 「교양시리즈」

한
국
적
군
인
상
의

역
사
적
고
찰

이
상
옥

△우석대 교수▽

우리의 지형은 대륙에 달려 있으므로 저절로 대륙의 역사적 변동에 따라 항상 흔들리게 된다. 즉 대륙에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 그 부근을 통일하면 그들은 중원으로 들어가려고 우선 우리 땅부터 억압하여 놓고 후환(後患)을 없이

한 후에 대륙으로 쳐들어 간다. 이러한 관계로 대륙의 역사적인 변동은 곧 우리의 역사적 변동으로 되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地理的)인 영향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국의 변동을 주의깊게 보았다.

고구려 장수왕(長壽王) 때는 중국 역사의 오호십육국시대(五胡十六國時代)로서 외래민족이 중국 본토를 넘겨다 보고 있었다. 언제나 중국 변방에 있는 민족은 기후가 온화하고 풍토가 아름다운 중국 땅을 침략코자 노리고 있었다. 이때 고구려의 왕실의 한 사람인 고운(高雲)은 후연국(後燕國)을 세우고 중국 본토를 넘겨다 보았다. 이러한 때에 고구려의 장수왕은 중국 본토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고 후연을 앞장 세워가며 만주에서 한걸음 더 북쪽 중국 땅을 넘겨다 보았다.

얼마 후 고씨의 후연국은 그 밑에 있던 의척 풍씨(憑氏)에 의하여 북연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고구려에서는 그래도 동족의 나라라 하여 친근하게 다



니었으며 한편 고구려의 야심은 중원의 광대한 영토에 있으므로 북연과의 교통은 더욱 빈번해갔다.

바로 이때 선비민족의 나라 후위(後魏)가 강성해져가며 북연을 압박하였다. 여기서 북연의 대신 양이(陽伊)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당시의 명장 갈로(葛盧)와 맹광(孟光)을 응원군으로 보냈다.

갈로와 맹광 두 사람의 장군은 장수왕의 어명을 받고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 장수왕은 두 장군을 불러 놓고 훈계까지 한다.

『우리 고구려의 민족이 중원에 들어가는 좋은 기회이다. 두 장군은 고구려의 장래를 위하여 싸워라. 특히 싸움은 평화스러운 시민을 구하는 데 있다. 장군들은 평화를 중시하여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말로 원정가는 장군을 격려했다. 전쟁과 평화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이다. 승리한 후 혹은 싸우기 전에는 최후까지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아니되면 싸우는 것이다. 이말은 현대에 있어서도 필요한 말이다.

여기서 갈로와 맹광은 고구려의 명예를 위하여 북연의 수도 화룡성(和龍城)으로 응원군 수만을 이끌하고 떠났다. 이때는 5월로서 북쪽 사막에 드문드문 있는 북연 국은 온도의 변화가 심하였다. 낮에는 여름같이 더울지만 밤이 깊어지면 일음이 얼 지경이었다.

이러한 기후 속에 고구려의 원정군은 상당히 곤란을 당하였다. 낮에는 모두 여름 옷을 입었다가 저녁만 되면 겨울옷인 털옷을 입는다.

여기서 화룡성을 중심으로 북연의 군대와 고구려의 응원군이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후위국은 신흥하는 나라로써 속전속결을 원하지 않고 지연자전을 쓰고 있었다. 이 때문에 원정간 군은 더욱 조바심이 났다.

거의 일개월이 가까이 되자 화룡성은 더욱 압축당하였다. 여기서 갈로와 맹광은 일대 결전의 명령을 내린다.

『우리 응원군은 더 시일을 저체할 수 없다. 이제 포위된 성을 뚫고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휘하에 있는 시민들은 한 사람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 시민들 중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군복을 입어라.』

이말에 시민들은 자기들도 싸움터로 나가는줄 알고 모두 겹을 집어먹으며 뒤로 향



하였다.

『아니다. 젊은 사람은 군복한 후 우리의 뒤를 따라라. 그리고 가운데는 부인들까지 군복을 입고 따르라. 무기는 우리만이 갖는다.』

겨우 달래며 고구려 군사들은 새로운 군복과 무장을 갖추고 앞과 뒤 좌우에서 시민을 옹호하여 출발하였다. 적이 이것을 보고 쳐들어오자 갈로와 맹광은 명령을 내리어 군사만이 적과 대항하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진(方陣)이라하여 가운데 부녀자를 넣고 전후좌우에서 군인이 옹호하며 행진한다. 멀리서 보면 한꺼번에 수많은 군대가 떠나가는 것 같다. 인진 또 일진 그뒤에 많은 군대가 장사의 진을 치며 이동하였다. 적은 수에 눌려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것도 십리길이 아니라 모두 80리나 되었다고 한다.

말하면 무죄한 시민을 살리며 무사하게 후퇴하는 전법이다. 도저히 새로 일어나는 후위를 당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후퇴하는 전쟁이었다.

바로 이때 후위의 태무제(太武帝)는 장군 고필(古弼)을 보내 고구려의 갈로, 맹광 등과 싸우게 하였다. 여기서 고구려의 장군은 처음으로 후위의 정규군과 싸웠다. 이때 고필의 부장 고구자가 계속해 갈로, 맹광의 군대와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고필은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나와 싸웠다. 원래부터 술이 그처럼 취하여 싸우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이 사이에 연왕 풍홍은 도망쳐 고구려의 군중으로 들어왔다. 후위의 태무제는 노하여 고필과 고구자를 장군의 지위에서 내리꽂아 한 개의 부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보내 고구려왕에게 북연왕 풍홍을 잡아보내라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보내지 않고 요동으로 끌어다가 두었으며 장차 후위와의 결전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던중 북연왕 풍홍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고구려에 머물고자 하였다. 이로써 장수왕은 풍홍을 북풍(北豊)으로 옮기어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때문에 풍홍은 노하여 고구려에 반항하므로 장수왕은 북연왕의 배자를 불모로 잡아왔다.

지금까지는 동쪽의 나라라하여 친했으나 아들까지 잡아다가 불모로 삼았으므로 풍홍은 노하여 다시 양자강 남쪽에 있는 송(宋)나라로 사신을 보내 화친한다 하였다. 이로써 고구려와 송나라와의 충돌이 생기었다. 이때 고구려의 장군 손소(孫漱)와 고



구(高仇) 등이 연합하여 송에서 온 왕백구(王白駒) 등과 싸우게 되었다. 이것이 제 2차로 중국인과의 충돌이다. 여기서도 장수왕은 왕백구까지 사로잡아 또 다시 요동에서 세력을 떨치었다.

이와같이 대외전쟁에 있어 고구려의 장군들은 항상 승리하여 고구려의 국위를 크게 떨치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장군들은 전필승(戰必勝)하여 한인들의 심간(心肝)을 서늘하게 하였다.

이때 북쪽의 강한 민족 선비족(鮮卑族)에 대한 고구려의 생각은 먼저 북연을 점령하고 다시 후위와 싸울 생각을 하였으나 점차로 신라가 신흥하는 바람에 일단 북쪽과의 싸움을 중지하고 되려 북위와의 친선을 도모하여 국력을 양성하였다.

대략 고구려의 장군들은 북쪽에 있는 오호(五胡)의 나라와 싸울 때 상당히 우세하였으나 고구려왕 때 전연국(前燕國)에게 환도성이 함락된 후 항상 소극적인 면으로 변어 나갔으며 또 하나는 한반도 중에 한강 이남의 온화한 토지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저절로 강대국 후위(後魏 또는 北魏)와는 되도록 마찰을 피하려고 한 결이 보이었다. 이는 소위 화전양양(和戰兩樣)의 국가적인 태세라 하겠다.

다시 1세기가 지나간 후 중원의 형세가 변하며 수(隋)가 천하를 통일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민감한 고구려의 평원왕은 남쪽의 진(陳)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 하여 곡식을 저축하며 군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국제정세를 문의한 유명한 말이 있다.

『요수(遼水)의 넓이와 양자강(楊子江)의 넓이가 어떠한나.』

이말은 수나라와의 국경선이 되는 요동의 천험(天險)의 국경과 진(陳)나라의 국경선인 양자강과의 구분을 문의한 것이다.

이때부터 고구려의 국가태세는 임진태세로 들어갔다. 바로 영양왕(嬰陽王) 9년(隋文帝開皇十八年, 五九八)에 먼저 요동에서 요서(遼西)로 쳐들어갔다. 이는 전쟁에서 선제권(先制權)을 갖기 위해 한 일이다. 수나라는 대국의 체면으로 30만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수의 군사는 10중 8, 9는 전부 전사했다고 한다. 아직도 고구려의 장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대략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명장파 명사가 많이 나왔다. 즉 술지문덕, 연개소문, 김유신, 김춘추, 성충, 제백 등이 대략 같은 시대에 뛰어나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화려한 인물의 만화경(萬華鏡)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러한 인물이 모두 국가의 군사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하여 일기당천(一騎當千)의 기세를 피운 인물이다.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맹장을 생각하고 집안이 어지러워질 때 현처(賢妻)를 생각한다.』

하는 말과같이 이 중요한 시기에 각각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활약한 인물들이다. 먼저 수나라의 양제(煬帝)와의 싸움 때 허영심이 강한 양제는 2백만의 대군을 인솔하고 요수를 건너게 되었다. 당시 요서(遼西) 지방까지 고구려의 영토이었으나 그곳은 수나라와 접경이었으므로 얼마후 빼앗겼다. 말하면 초전에서 수가 승리하였으므로 만심(慢心)이 생기어 일시에 요수를 건너고자 하였다. 그러한 고구려는 요수를 건너오면 요동성이 위급하므로 최후까지 방어선을 굳혀가며 대항하였다. 여기서 수나라의 대장군 백철장(裴鐵杖)이 선봉장으로 나서며

『남자가 어찌 아내자의 손에서 죽어서야 살겠느냐.』

한후 물격전을 벌이었다. 고구려쪽에서는 싸움에는 먼저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 상책이었으므로 높은 곳을 이용하여 적을 일시에 공격하였다. 이 싸움으로 적장 백철장이 전사하고 계속하여 그의 부하 두 낭장(郎將)이 전사하였다.

다음은 친신단고하여 요수를 건너온 후 요동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요동성은 난공불락이다. 2개월간 공격하였으나 사수하는 군사를 당하지 못하였다. 얼마후 양제는 요수를 건너와 성을 털리서 바라보며 자기의 부하 장군을 책망하고 있었다.

『그대들은 벼슬이 높고 또 세록지신(世祿之臣)으로 나를 우롱(愚弄)하고 있구나. 일찍이 낙양에 있을 때 그대들은 내가 전장까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제 보니 싸우기 싫어 나를 오지못하게 한 것이구나.』

이말에 장군들은 떨며 싸우지도 못하였다.

그때도 수나라는 소위 인해전술로써 대장군 우문술(于文述), 우중문(于仲文), 형원항(荊元恒), 설세웅(薛世雄), 신세웅(辛世雄), 장근(張瑾), 조효제(趙孝才), 최홍승(崔弘昇), 위문승(衛文昇) 등 9명의 지휘자가 총동원하여 요동성을 그대로 둔채 압록강 서쪽까지 진출하였다. 벌써 전락상의 실패이다. 특히 우문술은 수나라 황실과 가까운 자로써 총지휘자이다. 즉 우문술의 아들 우문사급(宇文士及)이 양제의 공



주 남양공주(南陽公主)를 상(尙)하였다. 말하면 왕실과의 인척간이 된다.

이제는 적의 대부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고구려에서는 대신 을지문덕을 보내 적의 허실(虛實)을 보게한 것이다. 을지문덕은 대신이지 장군은 아니다. 이때 우중문(于仲文)은 양제의 밀지(密旨)를 받고 을지문덕을 만나면 즉시 체포하라 하였다. 그러므로 즉시 체포코자 하였다. 이때 상서우승(尙書右丞), 유사룡(劉士龍)은 여기서 반대하였다.

『대국의 체면으로서 항복하러온 자를 죽이면 안 된다.』

뜻밖에 대국의 체면 때문에 을지문덕은 여기서 호구를 벗어났다.

이제부터는 적장거리 을지문덕을 살려주었다 하여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도 우중문은 더 고구려 내부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서 우중문은 노하여 우문술을 나무란다.

『장군은 10만의 대군을 가지고 고구려의 작은 성을 격파하지 못하오? 무슨 변복으로 황제에게 대하겠소.』

이말에 우문술이 노하여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갔다. 유명한 살수대전이다.

여기서 을지문덕의 외교수단은 한 병졸도 상하지 않고 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살수대첩은 상당히 선전되어 결국 유도작전으로 대승하였지만 적을 내부 깊숙히 끌어들이는 싸움은 때로는 불가하게 된다. 이 싸움의 승리의 원동력은 중국인들의 대륙적인 기질과 체면을 교묘히 이용하여 승리한 싸움이라 하겠다.

벌써 수양제의 세계정복의 허세 때문에 그동안 자기 국내에서 많은 사람이 원망하며 죽어갔다. 즉 배를 만들기 위하여 잡아온 목공(木工)들은 감옥하는 관리들 등쌀에 못이겨 주야로 물 속에서 작업하였으므로 허리아래가 항상 찬물에 젖어 몸에서 구미기가 발생하여 죽어간 자가 3.4할씩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이 모두 을지문덕의 귀에 들어갔다.

『적 자신이 전쟁준비로 백성을 괴롭히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으므로 작은 병력을 가지고 요소만을 지켰다.

이것이 을지문덕의 승리의 원인이다. 대신으로서 국내의 시무를 처리하였으며 다시 전쟁에 대한 총지휘까지 한 것을 보면 그는 문무겸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수양제가 쫓겨간 후 전쟁에 대한 논공행상을 할 때 우문술은 왕의 신임이 있었으



므로 죽이지는 않고 백성을 만들었고 유사용은 처형되었다.

다음은 고구려의 태종(唐) 싸움이다. 이때 당의 태종은 고구려의 권신 연개소문(臣)인 영류왕(榮留王)을 죽이고 새로이 보장왕(寶藏王)을 내세웠다 하여 이신벌군(以臣伐君)의 죄목으로 고구려를 정복하겠다고 하였다. 당나라 자체 내에서도 저수량(諸遂良)이 반대하였고, 다시 태종은 전번 수 양제 때 고구려 원정한 경험이 있는 의주자사(宜州刺史) 정원숙에게 문의하였다. 이때 정원숙은 이미 흠어 관에서 물러가 있는 늙은 사람이었다. 그래도 그는 태종의 부름에 대하여 대답하였다.

『요동은 길도 멀고 양식을 운반하기 힘들요. 더구나 동쪽의 고구려는 성을 잘 지키고 있소. 한 번에 쳐서 성을 빼앗기는 어려우오.』

경험에 의한 솔직한 대답이다. 이 때도 당 태종은 호기있는 대답을 하고 있다.

『오늘날은 전날 수나라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때는 듣기만 화려.』

역시 자기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요동 원정을 강행하였다.

이제부터는 당대의 명장을 총모집하여 원정의 길에 나섰다. 중국의 지배자로 볼 때는 두 번의 경험이므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도 여기에 대비하여 먼저 요동성을 중시하며 크게 싸웠다. 이때 당장 이세적의 공격으로 요동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전번의 수와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만한 싸움이었다. 당군에게 매우 유리하였다.

요동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고구려에서는 백암성(白岩城)의 성주 손대음(孫代音)도 투항하였으며, 고구려의 북부 육살 고연수(高延壽)와 고혜진(高惠眞) 등이 15만의 대군을 인솔하고 안시성을 응원코자 가다가 안시성 40리거리 땅에서 당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문제의 안시성은 더욱 의로웠다. 그뿐 아니라 고혜진이나 고연수 등은 당 태종에게 아첨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면 고구려가 항복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당시의 사실이었다. 피가 많은 당태종은 여기서 항복한 장군이라 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실패의 근원이다. 이때 고연수와 고혜진의 부대는 3만 6천명이나 그대로 항복하여 적에게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 이중 육살이나 부장 등 3천 5백명은 당나라 내부로 옮겼다. 당을 위한 막대한 군사력이 증강될 셈이다.

최후로 안시성 싸움이 일어갈 때 연개소문의 스파이가 당나라 진영에 잡혔다. 이때 당 태종은 스파이 고죽리(高竹離)를 잘 대접하며 역스파이로 만들어 막리저 연개



소문에게 당군의 내막을 말하라고 전하며 내주었다.

여기서 고죽리는 당군의 내막을 잘 알았고 또 당태종이 상당히 속전속결을 갈망하는 것도 알았다. 어느 전쟁이고 스파이 작전은 있는 것이지만 고죽리같은 스파이는 사실상 고구려를 위한 간첩이라 하겠다. 이로써 안시성주나 그의 부하들은 당의 내막을 더 잘 알았으며 저구진을 결심하게 되었다.

한편 막리지 연개소문은 전번 수나라 양제 때 양현감(楊玄感)의 반란사건이 생겨 수나라의 군대가 실패하고 돌아간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터어키 민족의 나라 설연타(薛延陀)의 진주가간(眞珠可汗)에게 사람을 보내 당의 서북쪽에서 쳐 내려오라 하였다. 이러한 연개소문의 정책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군권을 수립한 막리지의 직책으로서는 응당 있을만한 일이다. 설연타가 연개소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당의 세력이 커서가 아니라 마침 진주가간이 얼마후 세상을 떠났으므로 실패한 것이다. 진근일척 연개소문의 정책이 성공하였으면 동양의 역사가 변해질반 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은 칭찬할만 하다.

안시성 싸움은 그 성주의 용감성에 있다고 하겠지만 이 성주는 막리지 연개소문과도 불협하였다. 일찌기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어 실권을 잡을 때 안시성주는 연개소문의 말을 듣지 않고 버티었다. 이 때문에 성주를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도 고혜진, 고연수 등을 보내 구원한 것을 보면 연개소문의 도량을 짐작할 수 있다. 안시성주는 최후까지 항전한 결과 당 태종이 퇴폐해 갈 때 성주가 지금까지의 외로운 성을 고수한데 대한 사례로써 비난 백필까지 주었다.

이번 싸움에 만주지방에 있던 고구려의 10성이 함락되었고 7만명이 잡혀 당으로 들어갔으며 4만명이나 전사하였다. 당태종이 귀환하는 길도 쉽지 않았다. 겨울이 되며 그해는 폭풍설이 심하여 사졸중에 얼어 죽는 자가 생겼고 귀로에 새로이 걸까 지 저어 진물한 장군들의 영을 위로케 하였다. 12월 들어서며 태종의 병이 심해져 말 대신 보표를 타고 돌아가는 등 고생도 많았다.

당 태종은 동양의 영걸이라 하지만 작은 고구려를 자기 수중에 넣지 못한 이유는 연개소문이라는 막리지 때문이었다. 우리의 옛 역사가 소홀하여 혁혁한 전과를 찾을 길이 없었지만 끝까지 당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나갔으며 때로는 국제적인 득실을 참작하여 원교근공(遠交近攻)하는 정책을 썼다.



백제에는 명장보다도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 백제는 한산성에 도읍하고 있을 때 즉 개로왕 때도 명장이 얼마간 나왔다. 이때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남침을 계속하였으나 그래도 개로왕은 도시를 잘 지켰으며 북에 대한 공세를 막았었다. 그러나 장수왕 때 한성이 함락된 후 공주에서 잠시 있을 때 그란 내란으로 상당히 고생하였다. 성왕 이후 신라와의 투쟁에 있어 명장과 충신이 배출하게 되었다.

끝으로 최후의 왕 의자왕 때 장군 윤충(允忠)이 대야성(大耶城)을 공격하여 성주 품석을 사로잡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성충(成忠)과 흥수(興首)는 문관으로서 국가의 형세를 논하고 있다. 비교적 문신이 많아 왕의 유훈을 막은 듯하나 유훈과 사치 때문에 국가를 저탕하지 못하게 되었다.

황산사음의 계백(階伯) 장군이 5천의 결사대로서 신라 김유신의 5만의 대군을 막은 것은 백제 최후의 충성심을 기념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부여 도성안에서 싸울 때 왕은 일시 웅진으로 피신하였지만 그래도 태자의 군사가 남아 당군과 싸운 것은 그 의기가 장하나 하겠다. 낙화양의 비애에 찬 전설은 백제 멸망의 길을 조상하는 듯하며, 잔중(殘衆)들이 남아 여기저기에서 백제 부흥을 부르짖고 다시 반기를 들며 항전한 것은 백제인들의 화려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끝으로 신라의 장군으로는 김유신(金庾信) 중심의 인물이 가장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하여 논하면 김춘추는 왕족으로서 그는 외교적인 수단이 능란한 인물이다. 먼저 당에 들어가 당 태종과 외교를 벌일 때 해동의 삼국이 서로 경고 트는 속에서 아무래도 강대국의 힘을 빌기 위하여 때로는 편신저두(平身低頭)하며 혹은 아침까지 하였다. 모두 삼국을 통일한 야심에서 나온 한 수단이라 하겠다. 강대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어느 때 혹은 피동적으로도 되고 혹은 아침에 가까운 일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더구나 김춘추는 위모도 잘 생겼으며 남과의 교제할 때 말을 잘하여 상대를 항상 압도하였다고 한다.

김유신은 가야국의 후손으로서 가야가 멸망한 후 일시 신라에 들어와 망국의 비애까지 맛보았으나 아버지 서현(舒玄) 때부터 출세의 길이 열리었다. 서현은 신라의 귀족의 딸을 취한 후 한산주(漢山州)의 도독으로 있다가 백제의 성왕과 관산성(管山城—沃川)에서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서현은 자기의 비장 도도(都刀)를 시켜 백제의 성황을 죽이게 하였다. 일국의 왕까지 출정하여 싸우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관산성 중심의 싸움은 치열하였다. 그래도 지휘자 김서현이 용병을 잘하였으므로 실패가 크게 승리하여 백제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명장의 피를 받은 김유신은 소년시절에는 상당히 방탕한 청년이었다. 천관(天官)과의 애타는 사랑은 그의 사람됨을 말해주고 있지만 일면 결단심을 나타내는 경우라 하겠다. 이러한 청년시절의 서현이 그로 하여금 장내에 내성할 인물을 만들어 준 것이다.

한번 웅비하기 시작한 김유신은 우선 김춘추와의 친근으로 더욱 자기의 지위를 올렸고 다시 자기의 누이 문희까지 김춘추에게 바치며 국가의 주석(柱石)같은 신하가 되었다. 일찌기 김춘추가 고구려로 청병갔을 때도 뒤에서 형세를 보아가며 고구려와 결전도 사양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계심이나 적개심은 김유신을 더욱 큰 인물로 만들어주게 되었다.

그후 백제와 매리포성(買利浦城)에서 싸울 때 전선이 급했으므로 어명을 받고 자기의 집에도 들르지 않고 즉시 전장(戰場)으로 나갔다.

집안 사람들은 너무나 섭섭하여 그를 보내며

『장군 아무리 전선이 분주하여도 집안을 돌보고 가시오.』

할 때 인정에 잃어매지는 그는 무심코 50보(步) 가량이나 집 앞을 지나다가 그래도 말을 세우고 군졸들에게 한 마디 하였다.

『저기 우리집에 가서 물이나 한그릇 떠 오너라.』

『에이 명령대로 행하오리다.』

얼마후 군졸 한 사람이 김유신의 집 우물에서 물 한 그릇과 장 한 그릇을 가져왔다. 김유신은 쪽 마시었다.

『아! 시원하다. 아직도 우리집 물맛은 그대로 있구나.』

한후 다시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행군하였다. 군졸들은 이 광경을 보고 감탄해 마지 않는다.

『대장군께서 집에도 아니 들르시는데 우리 졸병이 어찌 고향 생각을 하겠느냐. 모두 국가를 위하여 크게 싸워 적을 무찌르자.』



이러한 말을 남기고 전선으로 향하였다. 김유신 장군의 인정어린 출전의 한 장면이다. 그후 백제와 싸워 도성에서 패잔병을 소탕할 때 당장 소정방(蘇定方)은 신라의 김유신의 군대가 2일간 기간을 여기었다 하여 지휘자 김문연 장군을 군물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나섰다. 이때 김유신은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우리는 그동안 황산싸움에서 처참한 싸움을 하였다. 연합군의 총지휘자 소정방은 그러한 싸움도 모른다. 우리는 먼저 당나라 장군의 목을 베어야 하겠다.』

말과 동시에 칼집에서 칼이 저절로 나왔다. 여기서 김유신 장군은 당군의 내심을 알게 되고 다시 부여성싸움에 신라가 당의 군사를 몇 번이고 원조하여 겨우 그들을 사저(死地)에서 진저주었다. 말 많은 당나라의 군사가 강하다 하지만 실제로 싸워보니 뜻밖에도 약하고 또 군기가 문란하여 벌써 패색이 농후하게 보이었다.

이러한 당군의 내막을 알게된 김유신은 이미 김춘추가 죽고 자기의 생질되는 문무왕이 즉위한 후 이제 우리의 적은 당군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야 국가에 목숨을 바칠 때다.』

하며 일선으로 뛰어나가 적의 큰 부대를 막았다. 이 때도 당군은 인해진술로써 수만의 군대를 일시에 몰고 들어왔다. 결국 이 싸움에 노장이 거의 전멸하였다. 그래도 김유신은 굴하지 않고 젊은 화랑을 지휘자로 정한 후 다시 일선으로 내보내 적의 진출을 막았다. 어느덧 당군은 한강선을 일부 넘었다. 이러한 때는 적진을 교착시켜야 한다. 완전히 막아냄으로써 싸움은 지구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일면 전쟁, 일면 화평교섭이다. 김유신은 화전(和戰) 두 가지를 주장하며 오래 끌면 중 70여세로써 세상을 떠났다. 뒷수습을 문무왕 홀로 처리해 나갈 때 김유신의 공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국난을 당한 때이다. 북쪽에서 오는 강대한 힘에 대하여 국가의 흥망을 도(賭)하면서 각각 자기의 최선을 다하였다. 울지문덕이나 연개소문은 사실상 외교적인 수단 혹은 유도작전으로 적의 심담을 서늘하게 하였지만 김유신은 자기가 기른 화랑의 무리를 전선으로 몰아내면서 최후에는 적과의 대충돌을 일으키어 민족의 혼을 살리었다. 아무리 민족적 수난이 오더라도 지휘관은 자기의 신념 속에서 적에 대한 지략(智略)을 짜내 끝까지 같은 마음의 태세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중간에 변경하면 후회하게 된다.



검 劍 과 인 생

조
풍
연

∧
▽

△ 소년 한국주간 ▽

이즈음 중국에서 들여온 검극(劍戟) 영화는 비상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나도 곧잘 구경하러 나선다.

나는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을 연재하고 있는데 제목이 「소년 검객 마혁」이다. 그것만 보고도 짐작이 가듯이 이야기가 칼싸움이 중심이므로, 자연 그런 검극영화는 보아들만 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넷편을 잇달아 보았더니, 그것은 검을 바로 다루져 얹고 무용화(舞蹈化)한 것이며, 인간의 실력을 초월하여 신기(神技)를 마구 부리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장면으로 꾸며져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물태면 적이 던지는, 칼을 입으로 막는다든가, 손바닥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소위 장풍(掌風) 따위는 싸움을 많이 다룬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나 수호전(水滸傳)같은 전통의 이야기에는 전혀 비치지도 않는 것이다.

대중이 좋아하는 까닭은 그런데 / 있는 지 모른다.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는 오히려 흥미가 없고, 현실을 초월한 일종의 환상(幻想)이 환극으로 나타난 것은 대중이 즐긴다. 어린이가 만화를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이 인식되고 검의 기술이 차츰 세련된 것은 전쟁이 가라앉고 평화 무우드가 조성되는 때에 한한다.

옛날의 전쟁은 합전(合戰)이며, 거의 모두 육박전이었기 때문에 접처럼 길이가 짧은 것은 실용적이지 아니고 창이 훨씬 쓸모가 있었다.

현충사에 가서 충무공이 쓰던 지휘도를 보았지만, 그것 역시 실제로 사람을 베기에는 너무나 커서 하나의 위엄 이외의 효용이 없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의 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검술이 실전의 쓰임에서 떠났어도 여전히 무사들에게 엄연히 생활을 규제해온 까닭은 그것을 통하여 교양을 쌓고, 신체를 단련하며, 처세의 철학



까지 터득케 함에 큰 구실을 해은 때문인가 한다.

병법 손자(孫子)·육도(六韜)·삼략(三略) 등에는 검을 쓰는 방법은 가르쳐 있지 않다. 그러나 검술의 방법은 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동양 삼국에서 검술이 먼저 발달된 것은 중국이라 함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격검법(擊劍法)이 되었고 이것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검법(劍法)이 되었다가 전략적인 의미로 쓰는 「병법」으로 격이 올랐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격검법이 시들고 오히려 나중에 전해간 일본이 발달하여 오늘날에는 검도(劍道)라는 말로 하나의 인생수업에 없어서 아니될 과목이 된 연유는 어디서 온 것일까?

중국은 광활한 대륙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군웅(群雄)이 할거(割據)하고 도둑이 횡행하여, 도둑질 하는 자나 도둑을 막는 자가 다함께 호신의 술로 검을 쓰게 하였고, 일본은 아시가가(足利) 막부시대(幕府時代)를 비롯하여 4백년 가까이 철저한 봉건제도가 퍼져 있어서, 제후(諸侯)들이 사병(私兵)인 무사들을 양성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늘 북쪽의 대국이나 오랑캐들의 협위 아래서 그 대국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안전의 길인양 생각하고, 차라리 문약(文弱)에 빠져 안온한 생활을 즐긴 탓으로 검술의 발달이 필요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 문판에 의한 유교적 시야에서 실치되고, 사실상 지배계급이 문사에서만 배출되었기 때문에 무부(武夫)들은 명령에 좇아 국방을 담당했을 뿐,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격검법의 수요만은 꽤 많이 전해오고 있다.

문전에 의하건대 칼 쓰는 법이 거정세(擧鼎勢)·점검세(點劍勢)·좌익세(左翼勢)·표두세(豹頭勢)·담장세(擔腸勢)·과장세(誇張勢)·날락세(捺掠勢)·어차세(御車勢)·전기세(展旗勢)·간수세(看守勢)·은개세(銀蟒勢) (이하……생략) 모두 28법이나 된다.

일반무예(一般武藝)를 18기라 부르는데, 그 중의 하나인 검에 있어서 다시 30에 가깝게 분리된다면 옛날 무술이란 참으로 복잡다단하고도 기기묘묘했다고 상상하고도 남는다.



이것은 일본에 가서는 더욱 심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의 봉건제도는 무사의 고용이 많고, 채용에는 겁에 관한 수완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취직(사관이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술을 익혀 두어야 한다. 이들의 예비교육을 퇴역 무사들이 맡아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저마다 무산 유의(流儀)를 간판에 내세워 붙였었다. 예컨대 유생 신음류(柳生新陰流)나 무수승류(無手勝流)나 변의변 유파가 갈려 있었다.

그러나, 알고보면, 이와같은 검술의 용어나 그것에 따르는 사상상의 말들은, 예로부터 이해하기 어렵고 의미가 매우 애매모호한 불교용어가 함부로 유용되었으니, 그 대부분이 허황되고 사람을 현혹시키기 알맞은 것이라고 본다.

검은 주로 1 대 1 혹은 소수 대 다수의 싸움으로 성립된다. 그것은 적을 이김에 유일한 목적이 있다.

바둑·장기의 유희도 적을 이기는데 목적이 있지만, 검의 싸움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적에게서 빼앗고, 그리고 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계몽이 다치지 않고 적을 살상해야만 그것을 비로소 승리라 일컫게 되므로, 유희에 있어서의 승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 살을 베고 적의 뼈를 깎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어리석은 일이다. 내 살을 베었을 제 적의 뼈가 베어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요, 내가 베었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꽤배인 것이다.

손자는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게 수가 아니요,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굶히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일이라』 하였지만 전쟁에 있어서 아방에 피해가 없는 싸움이란 없고, 싸워보지도 않고『끝하는 전쟁은 없다. 전쟁이 이럴진대 하물며 격검에 있어서 내 몸이 다쳐서야 거기 무슨 승리가 있는 것이라?』

검술의 지도서라는 것이 있다.

그 가장 공통된 원리는 『기선(機先)을 제하여 한꺼번에 치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적의 순간적인 해이를 노려 치라.』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적의 마음, 숨을 비연에 통찰하고, 다짜고짜, 치라』는 것이다. 적이 벼개에서 머리를 채 들기 전에 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전력을 다하여 급소를 쳐라』는 것이다.



『파탄을 보자마자 철저히 친다.』

『적을 피어 적의 본심을 알아낸다.』

『적을 낚는 심리작전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내 안전을 피하면서 적을 치는때는 어떠한 수단-선택, 비겁하다고 할 위장 전술을 써서라도 적을 철저히 분쇄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교(技巧)의 수를 자랑함은 사도(邪道)』라고 경계하고 있다. 기교가 능란해 몇을 부러가며 싸우는 것은, 극본에 의해 연기를 하는 배우 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검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교양을 높이는 혜택을 주며 처세의 자세를 일러 준다는 것일까?

검도는, 폭력을 부정하는 민주사회에서는 하나의 스포츠로 화하였다. 이미 검도하는 사람이 상적하는 사람에게 살의(殺意)를 갖지는 않는다. 진짜 검을 쓰지 않고 죽도를 쓴다. 게다가 장비를 단단히 하니 맞아도 다치지 않는다. 안심(?)하고 공격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죽고 다치고와는 상관없이 쳐서 적을 살상하는 가능성만으로 접수될 따지는 까닭에 기교가 중요하게 된다.

바둑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야구, 축구 등 근대화될 스포츠나 게임을 해보면 거기 무궁무진한 인생의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체면을 지켜야 하며, 정정당당한 자세로 엄치려는 생활을 하여야만, 그 사람은 바르고 교양이 있다고 말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으로 가득하지는 않다. 또 이상대로 모두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천하가 차더라도 거기에는 또 새로운 모랄이 생기는 법이니까, 사회의 사고 기준은 달라진다.

우리는 이런 무리들과 항상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숙명에 놓여 있다. 그 싸움의 규모와 경우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전투태세로 자기의 위치를 갖출 때는 검도가 아니라 격검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노상 인(仁)과 덕(德)만을 숭상하고 적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매우 유약해진 혐의가 짙다.



병영생활과 정신위생

계
원
철

△공군에비역준장, KAL보전관리실장▽

서론

나라와 거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장점이면 누구나가 "다 한 번은 병영생활을 거쳐야만 한다." "그"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또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을 가리지 않고, 직업군인이건 단기 복무자인건 간에 한 솔에 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공동사회 단체생활을 하게 된다. 이 병영생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각급 지휘관과 부대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에 달려 있으며 건전하고 명랑하고 효과

적인 병영생활을 통해 단결과 책임완수로서 징에부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병영생활에 있어서의 정신위생은 상하 동료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의 척도를 의미하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부자지간이나 부부지간, 사제지간이나 주종지간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즉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종심을 바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호와 사랑을 바란다. 주인은 종업원에게 충성심과 생산성과 협조심을 바라고 종업원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과 행복을 갈구한다. 병영생활에 있어서 상관이 은정으로 지도하면 부하는 순종하며 따라간다. 명령자는 명령을 내릴 때에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느냐 가 석연치 않은 명령은 비효과적임을 명심해야 하고 또한 복명자는 재빨리 명령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기꺼히 복종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하관계는 평소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통솔력과 훈련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 주저하게 되나 이치에 맞는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병영생활에 있어서도 정신면에서의



「기브 앤드 테이크」원칙은 중요하다. 항상 한 사람의 불평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전체의 단결을 파괴하기 쉽다. 고로 개성에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관계관들로 하여금 성격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휘관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본 론

병영생활을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3가지 지배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병영생활에 있어서 각자가 당면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이며, 둘째는 병영생활 주변의 환경 요소이고 마지막으로 부대원 개개인의 타고 난 성격상 요소인 것이다. 어떤 부대가 정예부대나 아니냐는 이 3자간에 상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 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즉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① 병영생활에 있어서의 정신 위생면에서 본 「스트레스」는 공포심, 불안정, 욕구불만, 육체적인 고통, 피로, 그밖의 긴장감과 불쾌감을 조장시키는 일들이며, 그 정도는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느냐는 각자의 각오와 자세, 훈련과 경험에 달려 있다. 각급 지휘관은 이러한 스트레스요소와 그것에 대한 부대원들의 반응을 재빨리 파악하고 각자가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으로서 뒷바침 해주어야 한다.

전시에 있어서는 적의 공격력과 아군의 방어력, 전상율, 전투기간, 진우의 진사상자의 목격 등등으로 스트레스의 양과 질이 좌우된다. 전투소모율이 높아지면 사기가 침체되며 따라서 전력은 더욱 약화되어 손실이 더 늘어가는 역순환을 이르게 되며, 반대로 사기가 양양되면 손실율도 그와 반비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② 병영생활 주변의 환경요소로서는 사기, 통솔력, 참여의식과 단결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정신적 요소가 어렵고 파충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병영생활에 있어서 각급 지휘관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개인의 불안과 욕구불만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고 만족감과 신뢰감을 최대한 증진시킬



으로써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력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예부대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각급 지휘관과 부대원 자자에 부여된 의무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선천적으로 예측성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대의 일원임을 잘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각자의 임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은 왕성하게 된다. 즉 그 부대의 임무를 뚜렷이 인식하게 되면 각자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임무는 자기보다 앞선다는 원칙에서 기꺼히 자기 앞에 닥쳐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록 지나치게 순조로운 환경에서 자란 군인정신이 박약한 자라 할지라도 애적을 무절려야만 하는가를 남득하게 되면 도리혀 용감무쌍하게 싸울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애 군사훈련은 물론 단체 스포츠 대항 경기 등을 통해 승자의 희열과 패자의 고배를 맛보게 하고 각자에게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고, 소극적인 「신사도」가 아니라 전적필살,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적극적인 「기사도」, 「화랑도」 정신함양에 투철되어 있으면 일종의【죄악의식에 사로잡혀 공격정신이 연약하던자가 도리혀】더 용감무쌍하게 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영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감투정신을 배양할 기회를 가지면 저절로 긴장감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게 되고 따라서 어지간한「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다. 평소애 지나치게 젊은이들을 이유없이 압박해 놓으면 자연히 긴장감이 축적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력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면 항상 피동적인 방어 작전생활 기함에 어눌며 암전만 피우고 숨도 크게 못쉬다든가 남한테 얻어 맞기만 하고 지는 것을 미덕으로 삼을 경우 극기심은 저하되고 어느 사이에 유사시에 전의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지에서 평소부터 시간여유만 있으면 각급 지휘관은 출신전투에 나서서 단체 스포오르를 통한 단결심과 감투정신 함양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또한 참여의식 부여에도 도움이 된다. 부대나 개인을 막론하고 다 같이 공평하게 일하고 그 성과와 희생이 분명히 인정되고 높이 평가될 때 각자의 참여의식은 높아진다. 눈에 띄지 않는 조그마한 요인들이 참여의식을 작용한다. 즉 숙소환경을 조금이라도 낮게해 주고 급여의 질에 신경을 쓰고 오락, 휴식시설 등에 향상변화가 눈에 띄을수록 각자의 만족감이 증진되고 그 부대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지휘관은 항상 자기 부하들의 숙영시설, 식사의 질, 오락 휴식시설에도 적극적 유의를 하고 주기적으로 회식 오락회 등으로 자리를 같이 함으로



써 형식적이 아닌 동고동락을 인식케 하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기회를 줌으로써 주기적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지휘관의 탁월한 통솔력은 또한 그 부대의 단결을 굳게하고 자자와 그 부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부대원의 사기와 자세와 목표설정과 의욕을 북돋아 준다.

위에 말한 모든 요소는 결과적으로 부대전체를 목표달성을 위해 기꺼히 매진케 하는 원동력인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병영생활의 환경요소는 개개인의 능력과 자발적인 극기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병영생활에 있어 정신위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개 성

물론 앞서 말한 모든 요인이 부대원 개개인에 대해서 부닥쳐 온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 없다. 만일 개개인의 기본성격 구성이 건전하면 그의 극기력은 큰 것이다. 그의 감투정신, 조직성, 희생정신과 임무에 대한 헌신적 태도가 그의 병영수행을 좌우하게 된다. 또한 부대 안에서의 자신을 부대의 일원으로서 부대와 같이 행동하는 능력, 동료들과 어울리는 능력, 타고난 책임감, 원칙에 순종하는 신념 등등이 자자의 건전한 정신 위생면을 좌우하며, 이런 것들이 자자가 직면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극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소위 기쁨에 도토리적인 성격이나 마누라의 바가지나 집안의 불안을 부대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 동료나 부하들에게 전염시키는 고질적 소유자는 결코 장려할 바가 못 된다. 그외에 나이, 영양상태(스테미너), 피로도 감투정신 발휘의 기회와 훈련 등이 중요 개성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기회와 훈련교육, 무기사용, 비상훈련, 개인 방어 능력, 도피 구조법 등의 훈련을 통해서 평소의 소극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케 되며, 감투정신을 함양케 된다. 또한 정확한 교육으로서 의심과 회상적 모험에 대한 의욕과 불안을 없애고 계획된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는 미리 예칙과 자신을 가지게 되므로 정세변화에 일일이 우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

결 론

끝으로 이러한 명랑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병영생활의 정신위생이 원만한 인간관



제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급 자족은 물론 부대원 각자는 수시로 문무이나 정훈장교, 군의관, 인사장교를 찾아서 기탄없이 충고를 내놓고 상담하고 자기 개인의 고민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대신정을 파악하고 명랑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유지 향상토록 진의함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대전체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군 전력증강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참고로 les goblin의 인간관계자가 평가표 설문을 소개한다.

- (1) 나 자신 인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은 아닌가? 나 자신 항상 남에게는 완전히 사심을 버리기를 기대하면서도 자기에게 대한 때 만은 자기맘대로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가?
- (2) 나 자신 나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완벽하기를 바라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용성과 만사를 선의로 해석하는 아량을 베푸는 경향이 있는가?
- (3) 나는 남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준 댓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가?
- (4) 누구나가 다 자존심을 높이기를 원한다. 내 자신에 대한 합법적인 성적 평가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자기 위치로 깎아내리려 하지는 않는가?
-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6) 나는 남을 충분히 알아주고 있는가?
- (7) 남과 비교할 때 공평무사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약간 자신을 후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나 없는가?
- (8) 남을 평가할 때 자기와 같이 생각해서 도우려 하는가? 또는 남을 깎아내리려 하지는 않는가?
- (9) 나는 남의 인격과 개성을 존경하고 있는가?
- (10) 나는 그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그가 자신을 귀하게 느끼도록 행동에 나타내고 있는가?
- (11) 나는 남을 대할 때 그가 자기에게 친군하리라고 가정하고 자진해서 친해져

◀ 특집 : 군인생활 향상을 위한 「교양 시리즈」 ▶



려고 노력하는가?

(12) 나는 자신의 용모를 단정히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가? 구두는 닦았고 튀김치가 많지는 않았는가? 머리는 빗고 복장은 단정히 하고 손톱은 깨끗한가?

(13) 나 자신 남을 대할 때 그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태도로서 출신수범하는가?

(14) 나는 말주변이 능란한가? 사귀기 쉬운 사람인가?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은가?)

(15)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가? 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는가?

(16) 남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수완이 있는가?

(17) 타인으로 하여금 협조케 하는데 성공적인가?

(18) 남에게 도움을 바랄 때 직접 같이 참여케 하는가? 만일 직접 참여한다면 응분의 이익을 분배하는가?

(19) 나는 내 앞에서 일하는 인재들로 하여금 그들의 두뇌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력도 발휘하도록 하고 있는가?

(20) 「칭찬」이라는 심리적 힘을 사용할 줄 아는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해 본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21) 나는 항상 타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업적을 인정해 주고 있는가?

(22) 「감사하다」는 말로서 자신의 사의를 표해 본 일이 얼마나 되었는가?

(23) 남을 화내지 않게 감정을 해치지 않게끔 그를 비평할 수 있는가?

(24) 남과 더불어 일하는데 성실한가?

(25) 남과 더불어 일하는데 참을성이 지나치거나 없는가?

(26) 내가 원하는 일을 완수해 주었을 때 또는 내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에게 항상 답례를 베푸는가?

(27) 불명 불만이나 남을 시기하는 경향은 없는가?

(28) 자기 성미가 남과 시비결기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가?

(29) 허풍을 떨거나 소리지르거나 허세를 부림으로써 자신의 비겁함을 캄푸라지하려 들지나 않는가?

(30) 오만 불손하거나 헛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랫 사람에게는 교만하지나 않는가?



군인 사회생활

윤석중

△아동문학가△

내가 남들에게 어울려 잘 지내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외손뼉이 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군인을 어떻게 보아왔나? 그것부터 알아보자.

그런데 군인을 보는 눈이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 이상이 다르다. 8·15 해방 전 군인과 해방 때 군인과 6·25뒤 군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8·15해방 전이면, 말할 것도 없이 군주주의 일본이 우리 땅을 식민지로 다스

던 때다. 총칼 앞에서 우리 겨레는 숨을 죽이고 살아 왔었다. 군인하면 이가 갈렸고, 경찰하면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보채는 것먹이를 달낼 때도, 『에그 저기 순사(순경)온다. 에그 저기 군인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그쳤다. 뱀이나 호랑이 보다 독하고 무서운 것이 일본군인이요, 일본경찰이었다. 그 시절 우리가 목격한 군인이란, 권력자의 대명사요 특재의 상징이었다. 거기 한 몫 들어 동족을 괴롭힌 한국인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I대I로 일본인과 맞서서 실력으로는, 인격으로는, 그를 일본군인을 앞지른 뛰어난 우리 군인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 학생을 극도로 제한해 받던 경성 제국대학에서 모든 일본학생을 물리치고 항상 첫자리를 차지하던 뛰어난 우리 학생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 군대 안의 우리 군인 가운데에도 한국을 빛내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만주를 삼키고 나서 중국을 몽땅 삼키려고,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에 싸움을 건 대평양전쟁에서 손을 들기까지는, 사람 죽이는 군인으로 밖에 쳐 주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일본군이 연합군에 무릎을 꿇은 덕으로 8·15해방을 맞이한 것이었다. 36년만에 일본의 손아귀에서 놓여



나온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맨 먼저 시들려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었다. 국군 창설과 한글 전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좌우 대립과 국토 양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비섯처럼 돌아난 것이 정당, 사회단체가 아니었던가 국방을 게을리하고, 양반만 찾고, 당쟁만 일삼다가 나라가 망했으면서도, 해방이 되니까 맨 먼저 벌인 것이 정당 싸움이요, 권모술수요 모략중상이 아니었던가. 한글 전용만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일본말과 일본투 우리말이 적소리 못하게 된 8·15해방날 부터 말벗고 나서서 시들렸더라면, 지금쯤은 어저간히 우리말이 순화되고, 정리되고, 자리가 잡혔을 것인데, 25년 동안이나 쟁개쳐 두었다가, 이제 와서 시두르니 몇 갑절 더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병 주고 약 준 것이 아니라, 약 주고 병을 퍼뜨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한글 전용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국방을 소홀히 했다가 큰 코를 다친 것이 바로 6·25동란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1주일만 가지면 부산까지 휩쓸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내리 밟 북한공산군도 더무니 없었지만, 까맣게 모르고 지내던 우리에게도 불찰은 있었다. 다행히 도로 믿어버리기는 했지만, 국방력이 허술했다가는 언제 또 그런 병변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어슬렁 어슬렁 걸어내려봐도 아무도 아는 체 안 했던 김신조 한패를 놓칠 뻔 한 것도, 마음이 풀어져 있었던 때문이었다.)

1·4 후퇴 뒤, 부산이나 대구에서 우리는 외국 사람한테 흥인지 칭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 왔다. 한국에 와 보니, 싸우는 나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사치, 그 호강, 그 변화……그것도 자기가 벌어서 제 멋에 겨워 똥땅거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선세를 톡톡히 지면서 돈을 몰쓰듯 하는 모양이니, 물자를 대 주고 싸움을 거들어 주려온 나라 사람들로서는 편쩍 떨 수 밖에 더 있는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일어난 것이 4·19요, 5·16이었다.

더구나 5·16은 군사혁명이 아니었던가. 보나못해 군복을 입은 채 정권을 잡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군인은, 우리나라를 바로잡을 책임을 단단히 지고 있는 것이다. 간접 책임이 아니라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실로 나라의 흥망이 군인 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군대 안에서만 그런것이 아니라 군대 밖에서도 군인들의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 우리나라 국운이 좌우되리 만큼 그들의 책임은 무겁고도 벅차



다. 『눈을 돌려 밖을 보라. 아시아 사람의 아시아니, 한국 사람의 한국이니』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실력을 쌓은 다음에 『이탄하면!』 될 자신이 서서 하는 소리라면 든든하고 반갑기 짝이 없지마는, 뉘 대주면 나라의 혼자 소리라면, 날 겁기는 커녕 정떨어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손을 댄까보아 겁들을 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도 남의 소리처럼 들어 넘기는 방관 태도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생각을 안 한다면, 그런 생각이야 말로 나의 적, 나라의 적으로 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골라서 돕는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결실하고 절박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런데 시대의 눈은, 군인을 보는 자도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북한이나 공산군에 대한 생각에도 현격한 차가 생겼을 것이 뻔하다. 6.25남침이나 1.4 후퇴를 겪은지가 꼭 20년이 되었으니,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갓실흔을 넘긴 청년 남녀들도 공산당 맛을 아직 모를 것이다. 4.19 뒤, 민주당 정권 때, 대학생들이 남북회의를 우리끼리 열자고 판문점을 향해서 어정어정 걸어 간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자신만만한 그 패기는 가상했지마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실익은 애국심과 뜻내기 민주주의만으로는 공산당을 때려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는 군인과 사회가 따로따로 놀았다. 6.25 때, 유행어가 무엇이었던가. 일선에서 졸병이 죽을 때, 『백』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백』 풀이물 들은 즉, 『돈 많고, 권세 있는 자식들은 뒤로 슬슬 돌고, 백 없는 놈만이 총알에 맞아 툭툭 쏠어진다』는 넋두리였다. 군·민 이간책으로는 그 이상 가는 것이 없었다. 반공이 아니라 용공에 부채질하는 두려운 사대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

요즘 한창인 병역기피자 이잡듯 잡아내기는, 아교풀에 섞인 모래알을 골라내는 작업에 비길만한 새 바람 새물결 운동이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장병들도 이제 비로소 고생을 낙으로 알게 되었고, 젊은 보람을 자랑하게 되었다. 「나라가 바로잡히나 보다」고 반색을 하는 것은, 두메산골 노인들만이 아닐 것이다. 싸우는 나라에서 군대 가기를 꺼려한다면, 그 나라에 살 자격이 없지 않은가. 자격 없는 국민들이 모여 민족 중흥을 꿈꾼다는 것은 고기를 낚으러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맹추 짓이라 하겠다.

모조리 군대를 다녀왔을 때, 그들이 타스리는 나라는 또 다른 의미의 군정이요 민정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밖의 군인에서 사회 안의 군인으로 복귀하게 될 것



이다. 군복을 벗은 것이 민간인이요, 평복을 벗은 것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군인다운 군인은 곧 민간인다운 민간인이요, 민간인다운 민간인은 곧 군인다운 군인이다. 얼마나 든든한 노릇인가.

군인이란 군대 안에서만 남의 모범이 될 것이 아니라 군대 밖에서도 사회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군인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우선 부드럽게 잘자.

재래식, 그러니까 일본식 군인은 『고라 빠가 (이봐 바보)』란 말을 즐겨 썼었다. 그 말이 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걸핏하면(어린애까지도) 「이 새끼 저 새끼」소리를 잘한다. 부드러운 말씨와 너그러운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마음이 불령불령해 지거나 몸가짐이 휘청휘청해 지는 것은 아니다. 군인들이 즐겨 부르는 군가만 하더라도, 악쓰는 것에 가까운 것이 더러 있는데, 싸움터에서 불격할 때라면 또 몰라도, 쏘지 않을 때의 활줄이나 켜지 않을 때의 거문고 줄을 늦추어 놓는 모양으로, 쉴 때나, 놀 때나, 즐기는 때나, 소풍갈 때나, 일할 때, 흥겨워 부를 노래는 것처럼 살기등등한 곡은 피해야 된다. 꼼짝 달싹도 못하고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불러야만 될 노래라면 그런 고생이 어디 있겠는가. 육군 참모총장이실 때 김계원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갔을때 가 보면,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흔들거리며 부를 수 있는 아주 쉽고 부드럽고, 운치 있는 것이 수두룩하더라는 것이었다. 군인을 노래로까지 들볶으나 「기압」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다.

부지런하자

우리들이 물려받은 것 가운데 버려야 할 유산은 느린 것과 게으른 것이다. 소나기가 퍼부어도 뛰는 법이 없어서 모시두루마기가 뽕땅 젖는 것이 옛날 선비들의 모습이었다. 짙은 사람들이 정치나 제 나라 사랑에 눈을 뜰가보아 「주색잡기」로 몰아넣은 것이 일제 때의 우맹정치였다. 느리고 게으르다 보니, 남한때 기대기를 좋아하고, 공졌을 바라는 버릇이 불게 되었다. 남들은 능률적으로 일하고 능률적으로 쉬는데, 우리 사회는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가리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부지런할 수록 밀리는 것으로 아는 빛나간 생각을 품은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거짓말을 말자

우리나라는 지금 가짜 등산에 진짜가 몰리고 있다. 가짜 약품이 없다. 가짜 식품이 없다. 잠기름에도 가짜가 있어서 가짜 「잠기름」이 나돌고 있는 판이다. 가짜 박사가 큰 기쁨을 하고 다니기도 한다. 가짜의 어머니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때문에 에누리가 생기고, 부도수표가 흙을 추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만 몰아낸다면, 훨씬 편안하게, 훨씬 값지게, 그리고 훨씬 오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오래 사는 저름길은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시간 낭비를 줄이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 거짓을 몰아내자. 부정 부패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도 역시 거짓말을 없애버리는데 있다.

부드럽게 굴고, 부지런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이 세 가지만 굳게 지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명랑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일변할 것이다.

그러나 몰라서 안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실천력이 부쳐서 말 따로, 짓 따로가 되어 언행일치가 어려운 것인데, 몸과 마음을 철저히 단련시킨 군인에게야 말로 사회 정화, 환경 정화를 기대할 만한 것이다.

애국심이란 땅에서 하늘로 솟거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빠져리게 조국의 고마움을 느꼈을 때, 눈물이 솟고 피가 뛰는 것이다. 조국의 고마움을 모르면서 조국에 몸을 바칠 생각이 올어날 수는 없다. 미운 조국, 너절한 조국, 정떨어지는 조국 앞에 머리를 숙일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망해 싸망」은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 이러한 자포자기는, 「나라밖의 나」 「사회 밖의 나」로 걸도는 사람들의 크나큰 오산이라 할 것이니, 미운 조국을 아름다운 조국으로, 너절한 조국을 알찬 조국으로, 정떨어지는 조국을 꿈에도 못잊을 조국으로 가꿔 나가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 안만의 나라사랑, 군대 안만의 셋사람 섬김, 군대안만의 참을성, 군대 안만의 아껴씀, 군대 안만의 큰소리로는 절름발이 국민구실밖에 할 수가 없다.

흔히들 「한국 사람은 틀려 먹었다」느니, 「다른나라 사람이 알까 두렵다」느니 하는 소리를 예사로들 하지마는 자기만 썩 빠진 줄 아는 것은 염치없는 책임 회피요, 인식 부족이다.

군대 안에서 달군 단련과 굳힌 각오를 사회에서 실천에 옮기고 앞장서 모범을 보이



는 군인이야 말로 참다운 군인이요 바람직한 인간이라 하겠으니, 나라 안의 사회요 사회 안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군대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사람, 도리, 국민 도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점에서는 일치된다고 하겠다.

부드럽게 굴자든가, 부저런하자든가, 거짓말을 말자든가 하는 소리는 우리네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것은 자신과 용기가 팔려서였다. 그런데 나사 빠진 기계처럼 어딘가 허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정신이 번쩍 들게 바로잡아 나갈 사람은, 군대에서 엄한 규율 속에 뛰어난 젊은 청년 밖에 없다. 한 가지 두려운 것은, 군인이란 단순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남의 말곤이를 잘 듣고, 핏에 빠저기도 잘 하므로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마는 그 단순과 그 순진을 사회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나라 발전이 빠를 것이다.

사실, 애국심 애국심 해도 군인의 애국심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그들 위에 잘 사람은 없다.

1.4 후퇴 두어 달 뒤, 38선을 넘어 동해안으로 쳐내려 왔던 북한공산군을 도로 몰아내는 싸움에서, 뜻다운 우리 청년이 꽃잎처럼 흩어졌었다. 그때 속발이된 거리, 총알을 맞아 곰보가 된 무너진 담에 이런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내 형제 흘린 피로
나 잘 되려 하지 말고
나 자신 흘린 피로
우리 형제 구하자!」

이 얼마나 장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부르짖음인가! 만일 우리네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 기름을 알 수 없는 이 무명청년의 일을 이어 받아 나갔던들, 나라 재건, 겨레 증흥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알차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1.4 후퇴 뒤에 나는 3년 동안 문관으로 군대 일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심리작전과에서 한글을 보아 주다가 미 8군의 같은 과에서 같은 일을 맡아 보았었다. 1.4 후퇴 직후에, 찢차를 몰아 동해안을 들었을 때,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38선 근방에서 우리 군인 한 배를 탄났는데, 어디서 황소 한 마리를 생으로 잡아 가지고 어디로 잡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나와 동행을 한 R대령이 팔려 세워 나무라니까 한다는 소리가,



『넛! 부역을 한 소가 돼서 잡아 죽이려고 물꼬 가는 길입니다!』

하고 저수경계를 하는 것이었다. 일행은 터지는 웃음을 참으면서 회전방의 민폐 군인을 용서해 주었거니와 그들은 소까지 빨갱이로 몰아버린 것이었다.

이것은 20년 전 실화이거니와 요즘은 어떤가. 어느 국민학교에서 반공교육을 편답시고 아이들보고 빨갱이를 그리라고 했더니, 살빛서전, 옷서전, 신발서전, 모두 새빨강계 그려 놓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내가 제주도를 한바퀴 돌면서 교가 없는 학교에 교가를 지어주던 노래 나그넷길에서는 이런 것을 보았다. 어느 국민학교에 어린이가 그린 「간첩」 그림을 붙여 놓은 것을 들여다 보니까, 빨간옷을 걸친 크리스마스 때의 산타클로오스 할아버지로 밖에 안 보였다. 반공교육이 이처럼 「수박 겉 핥기」가 되어서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겉은 빨강지만 속은 흰 것이 사과요, 겉은 푸르지만 속이 빨간 것이 수박이 아닌가. 그러니 수박 겉 핥기 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는가.

결핍하면 이복 욕을 하지마는, 우리가 국토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이복을 쳐부셔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 짓눌려 신음하는 가엾은 이복동포들을 붉은 이리떼 손아귀에서 빼내오자는 것이 아닌가! 붉은 종이 되어 허덕이는 그대들을 구해 낼 사람은 우리 밖에 또 있는가.

우리는 이왕 저저리 교생을 하고 살아온 뒤꼍이니, 우리 대까지는 「낙(樂)」 불 생각을 하지 말고 다음 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 밑거름이 되자는 것이 아닌가.

맑고, 맑고, 든든하고 버섯한 사회를 건설해 나갈 사람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단련된 젊은 일꾼들이다.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는 작업은 가짜 국민, 영타리에국자를 숙아내는 일이나 다름없다. 참다운 군인이 참다운 국민 구실을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더구나 공군은 무한한 창공을 상대로 생활하는 젊은이가 아닌가! 집과 집 사이에 울타리가 쳐지고, 산과 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파진 땅 위가 아니라, 꺼리낌없이 날 수 있는 저 하늘의 용사가 아닌가! 이상이 높고 생각이 깊은 용맹스러운 보라매들이여! 그대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방패요 우리 사회의 거울인 것이다.



군인의 책임의식과 임무완수

권
순
영

△
변
호
사
▽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거나 살다 보면 자기가 지키고 살아야 할 의무감 또는 책임권 같은 일들을 망각하고 지내는 것이 허다하다.

저금 필자가 생각하여 보아도 마치 국민의 삼대의무중 국방의 의무의 연령이 지났으니 책임없는 사람마냥 무관심하게 지내도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온 듯한 생각이 든다. 이러한 마음은 필자가 나이가 많아서 노파심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요 또 열기가 부족하여 미력하여서 하는 마음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그만큼 믿었고 의지하고 살았다

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인데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국방에 대한 의무감과 그 책임감이 항상 몸에 젖어 있고 긴장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전 국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에 익숙 단련되어 일상생활화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불타오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자신력을 가지고 있다.

장병들에게 책임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하나만은 자신있게 답하리다. 국군장병이니 국방의무 완수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만은 아니다. 국민의 삼대의무인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 의무가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다. 국군 장병이니 국방의 의무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법률가로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니 억울한 국민의 인권이나 권리 행사를 정당하게 올바르게 찾아주고 본받는 직업으로 아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필자 역시 국민된 의무를 다 수행하면서 과외로 직업에서 주어진 변호사의 책임이 또 있는 것이다.

그러하면 우리가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완수하여야 완수하는 것인가.

흔히들 너는 책임완수 하였다는 등 책임 완수를 못하였다는 등의 용어를 쓰는데 완수란 있기 어려운 말이라 하겠다.



장병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책임완수가 되느냐고 물으면 아무런 사고없이 주어진 복무 연한동안 사고없이 제대하면 책임완수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책임완수가 아니라 군 복무기간을 채웠을 뿐이지 책임완수 한 것이 아니고 국방의무중대한 남아로서 임무와 책임은 미완수인채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책임자에게 주어져야 할 요건은 너무 많다.

첫째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상태요, 더 나아가서는 투철한 반공정신인 사상이라 하겠다.

현 지점에서 우리는 바른 정신으로 반공사상을 완고히 하여 국가를 부흥시켜 하루 빨리 통일을 가져오게 하는 것만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급선무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게으른 노력으로 바랄 수 없는 효과이다. 마치 개미와 같이 험 사이 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 감정의 도가 천태만상이만큼 정당한 효율적인 방법과 규율이 없어서는 아니된다.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맹목적인 노력보다도 효율적인 노력으로 거대한 성과를 가져 오게 하려면 인간의 정서상태가 안정되어야 한다.

장병 여러분은 집단 생활인만큼 그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려거든 단체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기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여 업무의 능률과 책임수행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 째》 인 화 단 결

사람과 사람이 화합되어 있지 않고 각 개개인으로서 분산된다면 이것은 마치 저옥에서 저녁은 것과 같은 교역일 것이다. 동료들 아끼고 서로 위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적과 같이 생활하는 가시밭 같은 생활이 된다.

동료를 미워하지 말고 상대방을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한 동료는 얼굴이 못 났으니 보기가 싫다. 한 동료는 너무 아는데하니 의견이 맞지 않으니 싫다는 등 그 개인의 특성 단점만을 꼬집어 내어 상대방이 동료로부터 소외되어 버림받은 인생을 만들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서는 아니된다. 동료들간에 기본에 거슬리면 감정사처럼 쉽게 상대를 타일러 고치도록 신경을 써 주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이고 타이름을 받는 동료는 자기를 멸시 또는 무시하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나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선의의 마음으로 고마운 동료라고 자신을 억제하면서 받아주면 이상적으로 개선되며 서로 편하게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이 생기면 기쁜일 슬픈일 할 것 없이 누구의 환경이나 입장에서 원만히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한 동료가 옆으로 비뚤러지려고 하여도 비뚤러질 수가 없게 되고 서로 마음에 간격이 없어지니 서로 편안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오해하는 마음은 살인보다도 무서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씨로서 정신건강자가 되지 못한다.

인간의 감정은 상대를 아니꼽게 밋게 보려면 주는 것 없이 그 사람은 점점 밋게만 보이는 감정이니 그 감정을 바꾸어 좋게 보려고 애를 쓰면 좋게 보이는 감정이 우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 로, 애, 락은 저절로 같이 하게 된다. 이것이 인화단결의 첫 해결책인 것이다.

《돌 때》 여가 선용

특히 집단생활에 있어서는 쉬는 시간을 적절히 잘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정신상태가 불안하면 매사가 다 불안하다. 여가를 잘 이용하면 정신 건강에 큰 유익하다.

장병은 모두가 가정을 떠나서 객지에 낯선 동료들과 어울려 지내야 하니 갖은 애로가 많다. 그 애로가 비단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상통되는 것은 아니다. 목 자세를 같이 가지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쉬운 감정이다.

인간이 가장 손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리크레이션 즉 오락에서 얻어지기가 가장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상대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겠다.

아마 동료중에는 이 오락을 잘 이용하는 동료가 있을 터인데 그 동료는 가장 인기 있는 것이다. 노래를 잘한다면가 풍자극을 잘한다면가 아니면 유모어를 적절하게 잘 써서 만인을 웃겨준다든가 하는 동료는 가장 마음을 잘 산다. 이와 같은 동료는 여가를 잘 운영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군인은 우울한 기분들 지니지 않도록 서로 애를 써야 한다. 우울한 기분이나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단체생활의 분위기를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분위기가니 동료의 기분을 쉽게 발견하여 우울감을 해소 시켜주는 것도 동료의 할 일이니 하



나의 특기를 갖도록 하여 잘 리이드 하여 가도록 함이 좋은 방법이다.

상사에게 맞은 매가 아픈 것이 아니라 동료의 기분 즉 분위기가 아픔을 느끼게 하였기 때문에 그 상사가 때린 매가 아팠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큰 기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동료의 분위기에 따라서 기합이 아팠다거나 아프지 않았다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자 동료의 책임감을 더욱 복돋게 하고 책임수행에 쫓 용이한 방법으로 그 효과는 두들어지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매사에 흥미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책임이 개인에게 물론 주어져 있지만 단체 생활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단체를 망각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요령있게 자기만이 유리한 입장에서 벗어나려는 잘못된 사고 방식은 일찌기 버려져야 한다.

《세 째》 상담하는 습관을 기르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생리가 너무나 다르고 복잡하다. 그러니 그 복잡성을 가진 우리 생체가 한 마음같이 뭉치려면 가능한 통일성을 찾아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통일성을 갖추자면 그 안에는 맞지않은 모순이 많기 마련이니 행동의 통일을 찾고자 할 때는 서로가 가까운 마음을 발견하여야 하고 그 마음을 찾아서 살려주는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가이드스 서클을 이루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 동료가 하등의 이유없이 단체생활에서 이탈되는 수가 있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상담을 통하여 그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 원인을 알게되면 치료를 하여 주어야 한다.

매사의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하니 결과만 보고 나쁜사람, 틀어진 인격자라 비판하기 전에 그 동료가 비틀어진 인격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야 하는 것이 단체 생활에서 중요하다.

각 동료의 문제점을 비단 당사자들이 해결할 책임은 아닌 것이다. 가까이 지내는 동료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니 동료의 문제점은 동료가 발견하여 치료(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상사에게 알려져서 협조를 얻는 것은 더욱 환영할 일



이라 하겠다. 한 예를 들면 A라는 동료는 B라는 여자와 죽거나 [살거나 꿀 맛을 이
 루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들은 A의 의사를 무시하고 B라는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
 하고 부모의 일방적인 생각에서 A가 모르는 D라는 여자와 결혼할 것을 충고한 나머
 지 결혼하기로 양가 부모간에 결정을 보았으니 그렇게 알아라 하는 따위의 통지를 받
 은 A의 동료는 부모의 처시에 불만을 품고 단체 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우울하고 반
 항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때 A의 입장과 심정을 조속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가
 장 가까운 동료들이니 것이다. 아닌 말로 서로 마음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란 어려운 일이니 남자들은 혼이 잘 이루어지는 장소나 기회는 대포(술) 한 잔
 을 들면서 아픈 A의 심정을 단번에 알아내려고 펍 켜지 말고 자연스럽게 입이 열려지
 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도록 하는 것이 상담을 맡은 사람의 일이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심정이라든가 피로워하는 마음이 줄줄 꼬리를 물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때 피 상담자 A에게 즉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답은 아직 갖추어 두었다가, 가
 령 A의 환경에서는 D라는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나 B라는 여자와 결
 합될 수 있도록 A의 부모를 용납시켜서 상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상담자
 의 역할이니 간단하게 생각 말고 나이들고 경험도 많은 상사에게 A의 문제를 놓고 그
 해결책을 마련한 후에 가령 A의 동료나 또 책임자인 상사와 A의 가정을 일단 방문
 하여 부모를 만나서 A의 심정이라든가 A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여 A가 B와 결
 혼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 문제가 해
 결 되면 상담자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A에게 직접 알려주지 말고 일단 그 결
 과 통지를 보류하여 두었다 A의 상사 즉 상담자들은 A에게 휴가를 말게하여 가
 정에 갔다 오라고 넉넉히 말을 건너 본다. 그러면 그 A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완강
 히 거절하는 수도 있겠고 캐히 허락하는 예도 있겠으나 일단 A에게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A와 가장 가까운 동료를 찾아 동행시켜 가정에 보내보는 방법도
 좋다.

그럼 A가 집에 갔을 때는 이미 부대 상사께서 동료와 같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
 러 다녀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첫째 부모보다도 복무한 부대의 상사에
 게나 부대 동료에게 느끼는 고마운 마음이 앞서서 그 기쁨은 맛 보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이다. 그 다음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부모에게 불만을 가지고 아니



면 극단의 투쟁을 할 계획까지 서 있었을 터인데 뜻밖에도 부모들은 너의 상사님이나 너의 동료에게서, 자세한 말을 듣고 너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할 때, 그 응답의 효과는 감히 짐작이 갈 것이며 A가 근무하는 근무처의 생활은 아마도 백의 효과도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니까 상사되는 분이나 동료들은 가까운 동료의 동정을 살피서 상담할 수 있는 태도가 갖추어 있어야 겠고 습관이 들어 있는 것은 책임의식을 더욱 더 굳건히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째》 군수물을 애용하자

군수물자는 군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전력 요소이다. 하물며 이런 중요한 군수품이 우리가 전부 생산시켜서 자급하는 정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국가 예산에서 원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더우기 그러한 뼈아프게 여겨야 할 군수물의 취급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마음이 아쉽다.

책임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지급받은 하나 하나의 장비를 철저히 정비해서 아껴써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시키려 하는 마음가짐이 책임있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지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한계가 항상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현 위치에서 바꾸어 놓으면 현재의 책임감을 벗어나게 되고 바뀌어진 환경이나 보직에서 새로이 책임한계를 부여 받는다 하는 엉뚱한 생각으로 타인에게 자기의 책임한계를 넘겨 버리려는 비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부터서라도 버리는게 우리나라 장래는 물론 자신에게도 더욱 이로운 일이라 하겠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부족한 장비나마 최대로 정비하여 아껴써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정신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상과 같이 크게 때문하여 분별없는 에기를 넣어 놓았지만 이상과 같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물론 업무능력에도 보다 효과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세 일출로 믿는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타인에게 해가 없이 복무기간만이라도 무사히 몸 건강히 계대를 맡는것 만이 국군 장병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완수 하였다고 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우기 국방의무 책임은 피수 김일성이가 우리 손에 맞아 쓸어져도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손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었다 하여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은 계속 있는 것이니 국민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의무를 잇는다든가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 우리 의무를 착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흥분되어 그 분노를 억제 못한 오늘날 북괴의 단행을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같은 동족에게 화생방전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고 무서운 병균을 수입까지 한다는 그 악독무도한 행위를 볼 때 우리는 속수무책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의 방위태세만 하여 왔는데 이 무서운 북괴놈들은 지상에서 최고의 악질적인 행위로 저화하려는 꿈만 꾸고 광분된 채 전쟁을 전개하려고 하니 이 어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다스려 분령교 20여년간 갖은 노력을 하여 왔는데 끝내 악으로 대항 또는 침략하려는 괴뢰들을 볼 때 우리가 분하다 못하여 전 세계 자유전영은 물론 하늘까지 그 비인도적인 행위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악당 괴뢰들도 대한민국의 발전성은 제 이로 여긴다 하여라도 우리 전 국민의 반공태세 즉 반공사상이 얼마나 철두 철미한가를 수십 차 시험에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자세를 제일 무섭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만도 아니다. 정신 태세는 물론 정신 상태를 뒷받침할 제반 경제적인 부흥을 이룩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수록 저 북괴놈들은 걱정인 것이다.

이제까지 전쟁준비에만 급급하여 국민을 수십 차 기만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침략을 하지 않으면 국민 복통은 물론이요 큰 변란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 맞게 되었으니 북괴 김일성이란 악질적인 동물은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기어이 그 침략성을 들어낼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장병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초 비상대기 태세로 임무에 열중할 수 없는 시점이니 행여나 안심이냐 방관 말고 이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태세가 말로 자기의 임무감 책임된 사명인 것이다.



끝으로 군인의 사회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과 같이 생활할 때의 태도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기본자세와 그 근본이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봉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면 있기는 하나 봉사보다는 영어로 서어비스니 서어브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봉사는 ① 남을 위하여 성의를 다함 ② 현실적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진력함 ③ 남을 받들어 섬김 대접함 등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전통에는 봉사라는 것이 없으며 우리나라 같이 봉사정신이 없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병역법에는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영어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엔터 더 서어비스(Enter The Service)」라고 하며, 공무원이 되는 것을 「시빌 서어비스」(Civil Service)라고 하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밀리터리 네이비 오일 서어비스」(Military or Navy or Air Service)라고 부른다.

우리말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말이 부드러운가?

정구나 배구경기에 있어서 서어브(Sever)라는 말을 쓴다. 공을 던져주는 것을 서어브라고 한다. 물론 공을 던져주는 것이지만 받기 좋은 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공을 던져주어 그것을 받지 못하면 한 점을 얻는 경우에도 서어브라는 말을 쓴다.

우리 말의 봉사도 영어와 같이 「병역봉사」와 같이 쓰여진다면 봉사라는 것이 특별히 적십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 것이다.

나는 작년 여름 8월 5일부터 보건사회부에서 하는 세미나에 강사로써 만리포에 갔던 일이 있다. 내가 만리포에 있을 때는 일기가 좋지 않았다.

인천서 배를 타고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람 때문에 배가 일곱시간이나 걸렸으며 배가 흔들리어 배 탄 사람들이 전부 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로 서울 갈 것을 단념하고 버스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 버스의 타이어가 두 번이나 빵꾸를 해서 무려 서울까지 오는데 아홉시간 반이나 걸렸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봉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천안을 지나오자 버스칸에서 큰 시비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봉사와 관계되는 사



건이다. 영어로 「밀리터리 서어비스」 육군 군인 한 사람을 어떤 검문소의 헌병이 친안까지 공짜로 태워주라는 부탁에 그 군인을 태웠다는 것이다. 그 군인은 서울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러니 차장은 친안부터 서울까지의 차삐를 내라고 하고 군인은 못내겠다고 시비가 벌어져서 버스를 쉬어 놓고 내리라고 하거나 못 내리겠다고 하거나 해서 버스가 약 20분 동안이나 정차하였다가 그 군인이 돈을 내고 버스는 다시 떠났다.

그 군인의 차삐가 120원인데 군인이 내놓은 돈은 500원짜리였다. 그 군인은 돈이 있으면서도 나는 「병역의무에 복무」중인 특권계급이니까 돈을 안 내겠다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군대에 가는 것을 모든 국민이 젊어서 한 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이라는 관념은 없고 하나의 특권의식으로 생각한다. 군인은 경찰이 손을 댈 수 없고 오직 헌병만이 다룰 수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데냐 하는 식이다.

우리 국민은 버스간에서 버스 값을 안 내는 군인 때문에 불유쾌한 광경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때 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병역법을 고쳐서 「병역의 의무」라는 말 대신에 「병역의 봉사」라는 말로 고쳤으면 하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군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있지 않고 서서 있다. 자리가 비어 있는 데도 군인은 앉아서 있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앉지 않고 서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군인 대답이 「나는 군대봉사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놓고 앉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군인은 차삐가 보통 사람의 반 값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 값을 낸 사람은 자리가 비어 있지 않은 이상 자리에 앉아서 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반 값을 내는 것이 큰 특권인 것처럼 군인들이 자리에 앉고 일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다음은 얼마 전에 미국 「타임」지에 보도되었던 기사이다. 미국의 어떤 대학교수가 쓴 글이다. 자기의 강의를 듣는 학생중에 이스라엘과 아랍학생이 있었다. 어느 때 교실에 강의하러 가보니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학생이 교실에 나타났다. 교수는 그 학생에게 왜 그동안 강의를 들으러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돌아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아랍 학생이 나타났다. 교수는 그 학생에게도 「왜 그동안 학교를 쉬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 학생은 「대사관에서 근무에 가라고 할 까봐 피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교수는 「이러한 정신 상태에 놓여있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 뻔하지 않느냐」고 타임지에서 말하고 있다. 어머니의 뱃속에 어린애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부모가 거기에 들어 보내기를 갈망하는 영국의 사립 특급 학교인 이른 스쿨이나,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그 학교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해 전사한 사람들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 본관에 대리석에다 다음과 같은 문귀와 전사자의 성명 사망 연도를 새겨 보존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조국을 위하여 죽었다. (These also died for their Country)」 전교생이 전염병인 이러한 학교에 나라를 위하여 전사한 모교 출신자의 수는 자기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런던 법원 홀에는 제 1차대전 때 전사한 판사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 생화를 장식해 놓고 있었다. 이렇게 상류계급 인사들이 숭신하여 국가 유사시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받치는 그 나라가 부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파리의 거리 거리에 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항쟁(레저스탕스)하다가 쓰러진 곳 마다 화분을 장식해 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술의 나라로 연약하게 느껴지는 프랑스인도 또한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6·25 동란 때 8군 사령관 벤프리트 대장의 외아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부장집 외아들들은 병역을 기피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 왜병과 싸워 이긴 것은 관군이 아니고 의병이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군인들의 봉사정신(Military Service)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1956년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월급(판사)을 물어 보았다. 그 때 나의 월급은 미국 돈으로 7불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월급 가져고 어떻게 사느냐고 나에게 물어 보았다. 나는 대답하기를 한국의 공무원은 자기의 부모재산이 있거나 다른 부수입이 있거나 한 사람이 젊어서 한 때 국가에 봉사하며 월급같은 것은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루 속히 우리 군인들도 봉사정신이 왕성해 졌으면 하고 나의 글을 끝 맺는다.



청년과 여가 〰餘暇

최
요
안

〰방승극작가

◇ 근무는 여가의 주인이다

우리의 생활을 시간적으로 구분한다면 근무와 여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군에 복무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사회인의 경우도 한가지다.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조차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집안 일이란 좁은 것을 따지더라도 조식의 식사, 가족들의 의복세탁, 집안 소제와 정리, 그날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

는 일. 주부도 그러한 일들을 끝냈을 때 혹은 그 일을 계속하는 사이사이에 여가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근무 상태가 없이 늘고 있는 사람, 본의진 본의 아니진 일정한 직업이나 직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여가이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매일 일요일인 것인데 이런 사람을 본인은 물론 남도 결코 행복하게 보지는 않는다.

신은, 하늘을 나르는 조그만 참새나 물속에서 헤엄치는 가느다란 미꾸라지조차도 그들의 양식을 입앞에 갖다 주지는 않으며 스스로 몸을 활동시켜 얻도록 하였다.

만약 턱 아래에서 평생 먹을 것이 샘솟듯 솟아 나온다면 미꾸라지는 바위 밑에서 노상 자고 있고, 경쾌한 곡선을 그으며 헤엄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새는 전신줄에 앉아서 저희들 동료들과 어디로 먹이를 찾으려 할까. 우리들의 귀에는 노래 소리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고, 그들은 노상 나무가지에 지어 논 조그만 새집 속에 붙어박혀 있었을 것이다. 먹이를 구하여 하루종일 활동하는 자세지만 밤에 고소한 안면이 기다린다.



먹이를 위하여 하루의 노고를 지불하는 것은 모든 생명에 부과된 하나의 근무이다. 근무의 의무없이 편안히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신세를 때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의 생명은 나무가지에서 떨어진 잎과 같이 시들고 말 것이다. 푸릇푸릇한 색깔과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강인한 힘은, 나무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그럼으로써 그 나무일 하나하나에 생명이 깃들었던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근무」란 나무뿌리를 잃는다면 생명의 보급창을 잃는거나 같다. 고생할 때 건강하던 사람이 잘 입고 잘 먹고 몸이 편안해지자 갑자기 병을 얻어 죽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본다.

그것은 근무와 연결되었던 마음의 긴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생명은 본시 일정한 긴장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과중한 계속적인 근무도 너무 긴장감이 심하여 사람이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사람의 근무에도 일정한 여가는 있다. 가령 개업의(開業醫)의 경우를 보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나 11시까지 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다. 정해는 진료시간이 지났더라도 야밤에 급환이 문을 두들기면 의사는 그의 근무의 성질상 일어나서 환자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여가라는 것이 없을 듯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환자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실 틈을 주지 않고 밀려오는 것은 아니며 낮에 한 때, 혹은 저녁 무렵 한 때 한산한 틈이 있다. 변호사, 작가, 연예인, 상인 등은 의사와 같은 종류의 여가의 소유자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군인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이 일정해 있고, 그 시간 외는 여가로 되어 있다. 의사나 전기한 직업의 사람들은 일요일도 하지만 대부분의 근무의 성질은 일요일이 여가로 되어 있다.

내가 아는 의사는 핵크리에이션으로 바둑을 즐기는데, 많은 환자를 치료한 뒤에는 바둑에 이기는 율이 당연코 많다고 말했다. 혹은 어려운 수술을 성의껏 힘껏 무사히 끝냈을 때 그때 술 한 잔의 맛은 천하 일미라고 했다.

좋은 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술맛을 근무와 연결지어 판단하고 있었다. 그의 사의 말대로 나도 머리를 짜내어 고된 작업을 끝냈을 때 한 잔의 소주, 한 잔의 맥주에 심취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다른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땀과 긴장과 노고로서 근무를 마친 뒤에 참된 「여가」의 진미를 알게 된다는 의미



에서. 그러므로 여가란 어디까지나 그의 주인은 근무이며, 주인을 섬기고 난 뒤에 남게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자체라서가 하나의 독립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가를 얻기 위해서 근무를 희생한다는 것은 본말 전도다.

그렇게 얻은 여가는 즐거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근무를 몰실히 했다는 불만감과 자책감이 맘 속에 남아서 즐거워야 할 「여가」의 시간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연전에 안동역전에서 한 사병이 권총을 난사하여 무고한 행인의 여러 생명을 빼앗고 스스로의 인생도 파멸로 몰아버린 기억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데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순간 그 사병은 일종 정신 착란증에 걸렸다고 봄이 옳다. 그러한 정신 상태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며, 평소의 근무 생활 속에 씨가 뿌려지고 싹이 튼 병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의 근무와 여가 사이에는 건전한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근무에 충실하고 또 이를 사랑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안동역전의 그 불행한 사병은 근무 태세에 있어서 사랑과 충실을 갖지 못했었다. 따라서 근무에서 해방되자 즉 여가라는 자유시간의 광장에 발을 들여놓자 그는 평소에 축적되었던 불만이 나 울분이 폭발했던 것이었다.

좋은 여가를 가져려면 우선 우리는 좋은 근무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근무란 늘 인내를 힘줄로 삼는다. 인내가 안 들어간 어떠한 좋은 근무도 이 세상에는 없는 법이다. 군인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 독서와 대화(對話)를

동양화를 보면 여백(餘白)이 표현의 한몫을 맡고 있다. 서양화는 화폭 가득차게 빔빔없이 채색되지만, 동양화의 구도에서는 가장자리 한 모퉁이에 대가 시고 새가 한 마리 날며, 나머지는 모든 회밀진 공백으로 채색도 않는다. 이 단박한 맛이 동양화가 서양화와 다른 점인데 여백과 그림과의 조화에 화가는 매우 고심하고 있다.

그것이 또한 구도상의 생명을 이룬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특히 청년들에 있어서는 이 한쪽의 동양화가 가진 여백(餘白)과 같이 「여가」는 중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에 KBS의 독서주간 캠페인에 다음과 같이 필자가 말한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의 역사는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좌우되는 수가 많다. 한 청년의 장래는 그가 그의 여가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에 많이 달린다. 이렇게 말을 고쳐 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개 여가 이용은 그 근무의 성질과 상치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의사들이 다른 직업인이나 과학자보다 시(詩)나 문학, 또는 음악에 애민하며, 종교에 귀의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은데 이는 구질구질한 환자와 노상 설근해야 하며 또 인간을 물체와 같이 냉정히 다루던 반동에서 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공장의 탁한 공기에서 물려있는 공장 근무인들이나, 접두에서 상품을 상대로 거의 감춰있는 상인들은 여가가 있으면 소풍을 가려하는 것도 당연한 요구이다.

젊은 군인들의 경우는 각자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그들의 여가 이용의 취미도 다양 각색으로 나타날 줄 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영화일 것만 같다. 또는 바둑, 당구, 독서, 술, 소풍, 윗백션 등등. 그 밖에도 종류가 많겠지만 나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 좋은데 다만 술만은 조심하라고 이르고 싶다. 나도 한때 술을 몹시 즐기던 사람의 하나이며 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경험이 있는데,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는 마시라는 편이다. 그러나 기분이 건전치 못한 상태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거듭 이르고 싶다. 술은 자제력을 파괴하는 횡포자이기 때문에 술에 먹히는 일만은 경계해야 한다.

안동역부의 사병도, 그가 술을 그와같이 많이 마시지만 앓았더라도 나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술이란 입에 대기 시작하면 자연 오고 가는 잔을 거절 못해 따라 마시게 되는데, 단숨에 많이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실 것이며, 술잔을 입술에 떨어뜨린다. 자제력의 파괴자에게 내가 먹히지 않으리라 스스로 나짚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이란 한 잔 술에도 정신을 빼앗길 수도 있고 열잔 술에도 정신을 굳굳이 지낼 수 있는 것이며, 술을 대할 때만은 정신도 무장이 필요하다.

몇번 그러한 상태로 술을 대하면 습관이 되어, 취중의 큰 실수는 없게 된다.

내가 솔직히 여러분 젊은 장병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깨끗하게 한 잔 술을 입에 뱉다가 접이나서 자리를 일어서는 사람보다는 열잔 술을 유쾌히 들이미시면서, 한편 호주머니의 돈보다 더 소중히 이성을 지키며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필자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서고, 하나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와의 「대화」이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취미나 오락을 무엇이든저 갖되 그 속에, 독서와 대화의 자리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는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하다. 하나는 인생이나 사회에 대한 견식을 독서를 통해서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안동역두의 그 비극의 주인공이 여가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졌더라면 그는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 제가꿈의 한(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한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며, 그를 분발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독서에서 얻은 교양이 부족했던 그는 그의 가슴 속의 한을 아무 데나 대고 마구 총질을 하는 것으로 발산하고 말았다.

여러분은 이미 학교나 부모 밑을 떠난 몸인데, 군대나 사회생활에서의 길벗이 되고 스승이 되어 주는 것은 독서인 것이다. 또, 독서는 만연히 닥치는대로 읽는 것보다 어떤 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읽으면 더욱 좋다. 가령 경제에 관한 책을 읽는다면 당장 그 책을 읽었다고 갑자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사회에 나갔을 때, 젊었을 때 여가에 읽은 책이 뜻하지 않게 중요한 힘이 되는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연배의 한(恨)의 하나는, 젊었을 때 좀 더 여가를 독서에 바치지 못했던 점이다. 나이 먹은 뒤의 독서는 흡수가 잘 안 되며 독서의 시기는 청년시기가 절정인 것이다.

다음의 대화(對話)도 독서와 못지 않게 중요시 하고 싶다.

누구나 한 둘의 친한 벗은 있는 법이다. 만약 아직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무인도에 혼자 놓인듯한 고독한 그림자는 원치 않는 법이다. 친구로 사귀고 싶은 상태에게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자연 친구가 된다.

친구는 부모나 형제와는 또 다른 친밀의 새로운 셈이다. 가정상의 고민같은 것은 누구에게도 하소할 수 없다. 오로지 친구만이 이해해주고 격려해 줄 것이다. 이쪽에서도 친구의 한(恨)에 대해서 격려해주어야 한다.

여가에 이런 친구와 함께 광범히 인생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안동역두의 주인공이 이러한 마음의 벗이 하나라도 있었고 휴가를 떠나기 전날 여가에



벗과 진지하게 대화를 가졌더라면 스스로의 일생을 그처럼 무참하게 결말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 또 다른 인생의 한 페이지

나는 저금의 젊은 군인들이 근무시간을 채우고 나서 하루에 얼마나 여가가 있고 또 한 달에 며칠이나 휴일이 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른다. 그것은 근무의 성질과 부서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주어진 여가가 많은 적든, 반연히 그 여가를 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여가를 당해서 바둑을 둘까, 당구를 칠까? 소풍이나 갈까, 영화나 볼까가 아니라 주어진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미리 시간을 잘라 계획을 세운다면, 적어도 1년 후에는 하나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 내가 아는 의사는 취미로 잠잠이 문학서를 탐독하던 것이 나중에는 스스로 작품을 쓰고 싶어졌다.

바쁜 의사생활에 일이 끝나기만 하면 그는 책상 머리에 원고지를 펴고 앉았다. 그는 환자에게서 해방이 되어 집필을 계속할 시간을 기다리게끔 되었다. 이미 그에게는 여가를 이용한 매일 매일의 스케줄이 서 있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신경이 피곤한 일인데 그 뒤에 글을 쓴다는 것은 신경의 파로를 가져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혀 성질이 다른 일은 기분 전환이 되어 새로운 정력이 솟아나는 법이다. 이리하여 그 의사는 웬만한 삼류작가 뺀치게 좋은 작품을 써 냈었다. 의사로서 저명한 작가가 될 사람은 외국에도 손을 꼽으면 매우 많다.

내가 아는 어떤 가정 부인은 여가에 가정에서 쓰는 발명에 골몰하더니 허를 얻었다.

또 어떤 친구는 우표수집, 신문 스크랩, 명소·고적 스크랩을 하여 귀중한 자료를 남기게 되었다.

이같이 여가 이용도, 한 가지 일에 계속적인 끈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의 계획성 있는 이용법이며,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오랜 시간을 축적하는 동안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인생을 기록하는 페이지가 되고 있다.

여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안 쓰여진 한 장의 백지와 같다. 그 종이를 헛되이 휴지로 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 최근 북한의 사생활 양상 —

조 성 직

<공산주의 문제 연구소장>

25년간의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은 완전히 이질적인 사회체도로 변질하였다.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독재와 급진적인 소위 「사회주의 제도」를 모방하여 한국민족의 전통적인 풍습과 문화, 미풍양속을 멸시하고 김 일성 일당의 독박한 독점, 착취, 탄압제도를 강압적으로 강요한 나머지 25년간이란 장구한 세월에 수 백만명의 동족을 살상 숙청하였으며, 갖은 악독한 수단과 방법으로 침략과 반미 반한국사상을 철저히 강요하여, 동족간의 이간, 증상, 모략 등으로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구대천수 원수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현 북한의 사회제도 자체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을만큼 숨막히는 철의 장막을 띄고 북한동포들에 대한 갖가지의 허위교육과 공산주의 기반적인 세뇌교육을 그 어느 때 보다는 철저히 강행함으로써 북한동포는 김 일성 도당들의 침략도구로써 또는 하나의 기계부속품 처럼 되어 버렸다. 이에 인간으로써 가질 수 있는

친부의 기본권은 말살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상호협조와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이란 어더론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며, 다만, 김 일성 도당에 맹종하고 고된 착취와 증노동에 시달리는 자유만이 남아 있을 뿐 말하는 자유, 듣는 자유, 의식주의에 대한 개개인의 자유마저 완전히 말살되었다.

특히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라파의 공산권에서는 사회발전 법칙에 따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현실적인 모순성을 인식하고 젊은 세대는 물론 중년층 이상의 공산주의 지도층에서도 자유화, 민주화의 물결이 격동해가고 있으며, 소위 사회주의의 다원화, 분극화가 격심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괴집단은 이러한 자유화 물결을 막기 위하여 더욱 악랄한 세국정책과 간악한 사상 감시제도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지금 현재에도 매일같이 사상검토, 성분검토란 미명하에 소위 「복잡한 성분소유자」 즉 반동으로 인정되는 자, 이에 따른 친저 친척 등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 백만의 반 김 일성 분자(즉 민주인사)들을 별도로 수용하거나 강제노동을 강행하거나 또는 타 지방으로 이동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는 악독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성분의 복잡한 주민들의 생활상

북되는 6.25 당시 많은 북한 동포들이 거의 자유를 찾아서 한국의 품에 안겼으며, 더욱 김 일성 도당을 배반하였다는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남침을 예상하고 철저한 김 일성명 종자를 가려내며, 부동분자에 대한 소위「김 일성 혁명전동」을 기만적으로 세뇌교육하여 일사불란하게 김 일성에게 충성을 다 하게끔 하기 위하여 66년도 4월부터 (이전에도 많은 숙청이 있었지만) 소위 인민 동태 조사를 실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신성분, 친지관계, 인척관계, 동창관계 등을 세밀하게 다각도로 조사하여 소위 반동분자들과의 연계유무를 심사하는 한편 아무리 당원이라도 재심사하여 김 일성 교도로서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자인가를 선택하는데 현안이 되고 있다. 이렇듯 소위 반동분자로 규정된 지주출신, 상인, 자본가, 종교인, 월남 유가족, 치안대가족 기타 전과자, 반동이라 인증하

는 자를 수 종류로 구분하여 거주지 이동, 수용소 입소, 강제노동, 요감시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수 백만명의 소위「반동으로 규정된 인사」중에서 강제노동과 수용소에 입소하여 국한된 지역 내에서 노동 및 화전민 생활 또는 탄부, 광부로서 처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동포들이 매일같이 쓰러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지역 내에서 각종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인사들이 약 1백여 만명에 달하며, 일정한 지역에 국한하여 조직한 각종 노동수용소가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양강도 등 1백여개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울타리없는 감옥생활을 영위하게끔 조직하고 있다. 이 수용소에서는 빈약한 진로소, 학교(조급)도 자체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 구조가 조잡하기 그지없으며, 수용소 내에서 중노동으로 써 화전민생활 또는 탄부생활로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작곡류를 배급받고 기아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대로이다. 현재 수용소의 명칭은 128호, 175호 등등 호수로 표시하여 수용소에 일반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며, 완전히 죄수생활 같은 참혹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곳 수용소의 개개인의 생활은 노동을 하

지 않으면 하루라도 생활하기 곤란한 처지이므로 60세 이상의(형식상의 부양가족) 노인들도 노동을 함으로써 겨우 500그램 내지 600그램의 잡곡류를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수용소에 수용중인 청장년들은 거의 단광, 광산같은 중노동 직장으로 강제 배치되어 늙은 부모를 부양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2) 일반 노동자 생활

정상적으로 각 직장에 배치되어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생활도 다양다종하다. 소위 천리마 운동에 전부 망라되어 작업반, 직장, 공장단위로 천리마 칭호를 받기 위하여 일일 평균 15시간의 노동이 강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긴 노동시간을 그들은 착취라고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소위 「애국노동」, 「통일축진을 위한 노동」으로 정당화하며, 긴 일성의 신격화교양으로 세뇌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에 대한 영예와 자부심을 전지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노동중에서도 중노동, 경노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경노동자는 일일 배급량이 700그램(잡곡7:현미 3), 중노동자는 800그램~1kg까지 있으나 이것은 유행 노동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하노동과 인체에 유독성 있는 중화공 노동 등이다. 이들의 사생활은 고

정한 배급(양곡, 된장, 간장, 양말, 광목, 화학주 등)과 평균 임금 40원~60원이 최고이며, 간혹 그들이 조작한 소위 노동영웅에게는 100원까지 임금을 지불하여 하나의 걸본처럼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인 가족중에 늙은 부모(60세 이상), 처자(자식은 6세까지)는 잡곡과 현미 합하여 300그램 밖에 배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결국 노동할 수 밖에 없다. 할 수 없이 노인도 자식을 가진 처도 어린 아이를 누추한 탁아소에 위탁하여 고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이 노동에서 살고 노동에서 죽는 현실이므로 가족이 한 자리에서 화가에에만 분위기 속에 같이 환락하며 같이 희석하든가 같이 오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다. 매일 노동을 끝마치면 각종 회의, 학습회, 비판회의 등이 계속되어 밤 11시까지 경과하여야 집으로 갈 수 있으니 가족과 같이 한 자리에서 모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파괴도당들은 가족분리제도를 채택하므로 자식 중에서 성년이 되어 각종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파괴당의 재량에 의하여 최종학교 진학까지 결정한다.) 파괴당의 지시에 의하여 각처의 노동직장 또는 농촌의 협동농장 기타 노동 직장에 강제로 배치하므로 가족과 같이 동거한다

□ 최근 북한의 사생활 양상 □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모두 김 일성을 아버지라 믿으라는 끈덕진 세뇌교육과 소위「김 일성의 혁명사상」을 침투시키는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20대의 청소년들은 가정의 부모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고 부모의 결점과 약점만을 탐지하여 자기가 소속한 단체 또는 학교 기타 집단에 고발하는 것이 김 일성에 충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사고방식이 날로 격앙되어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처지에서 40대 이상의 주민들은 아무리 당원이라 한지라도, 10대, 20대의 자기 자식들에게 언어행동을 삼가하며 서로 감시하는 정조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래서 일반노동자들의 가정의 사생활이란 일반의 자유와 휴식의 여가도 없는 것은 사실이며 매일 노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반노동자들의 사생활의 전부이다. 가정주부라는 것은 말이 주부이지 실제로는 남자와 같이 매일 노동에서 생활하며, 노동에 지쳐 일말의 휴식과 주부로서 가장과 자식을 기르며, 양육하며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북한 사회의 현실정이다.

(3) 농민들의 사생활

북한의 주민 중에서도 가장 고된 노동과 불명불단이 가득 차 있는 층이 농민층이다. 보수성이 강하고 사유 재산욕이 강한 농민들에 대한 북괴당국의 각종 세뇌교육과 성인교육이 2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으나 아직도 40대 이상의 농민들의 불명과 불만은 그치지 않고 있다. 6·25남침으로 농촌의 청장년층이 극도로 부족하여 늙은 노인, 노파, 불구자, 어린여성들만이 주로 농촌에서 힘겨운 농민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나마 산간벽지의 박토에 속해 있는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참혹하였다. 북괴당들이 1954년부터 불과 5년 이내인 1958년 8월까지 개인농을 만살하고 전부 협동농장으로 만들고 난 후에도 농민들은 매일 15시간의 긴 시간을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식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기에는 농촌의 여성들이 농촌을 이탈하기 위하여 도시의 노동자에게 결혼을 갈망하여 많은 여성 농민들이 남편을 따라 도시의 노동자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북괴당국은 이 여성 농민들을 농촌에 잔류시키기 위하여 1957년부터는 도시의 남성들이 농촌의 여성과 결혼하면 도리려 여성을 따라서 농촌으로 이동하게끔 규정을 정한 바 있다. 하여튼

농촌의 막중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일년 수확고중 토지가 비옥한 저지에는 그래도 평균 700그램(1일 1인 잡곡 7:현미 3)의 배급과 부업으로 획득한 소량의 현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간벽외지 박토를 가진 협동농장에서는 1년 열 두달 때가 휘도릉 중노동을 하여도 일인당 매일 평균 300~500그램도 배급받지 못하므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엄동설한에 십십 산 중에서 도토리, 약초채취, 수렵(狩獵)을 강요하여 피뢰수매소에서 잡곡 또는 규정한 현금으로 교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생활은 즉과 잡곡으로 연명하는 곳이 전 북한의 협동농장 중에서 1/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조잡한 농민주택을 조잡소유로 건축하여 입주시키고 있기는 하나 농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단박한 생활커녕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전정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도당들은 있지도 않는 북침소동을 요란스럽게 선전하여 총 수확고 중에서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수탈 당하는 것이 상례이며 가정에서도 한 숟가락의 양곡을 매 식사 때마다 봉투에 저축시키고 남한 동포를 구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만연극을 꾸미면서 극도의 착취와 수탈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의 일반농민들의 기아상태에 따르는 영양실조는 두 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어떤 마을에는 전 농민의 2/3의 농민이 구루병, 폐병 기타 불치의 병으로 심음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농촌에서도 60세 이상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써 배급을 제공한다는 규정 따위는 있으나 부양가족분으로 배급받는 분량은 거의 잡곡 300그램 정도밖에 없으므로 부득이 7,80에 달한 노인까지도 먹고 살기 위하여 협동농장에서 자원노동을 하여 매일 노농공수를 획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사실은 북한이 아니면 이러한 비참한 현상을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북괴는 선전용으로 이용하려는 목적과 외국의 내빈들에게 보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개의 모범 협동농장을 만들어 소위 노동영웅도 조작하고 수확시에는 노동영웅과 소위 노력혁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수량의 양곡을 배급하여 북한의 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과장 선전하는가 하면, 이자들의 뒤를 따르라고 더욱 노력착취에 채지질을 가하고 있다. 북괴가 노동자 농민의 낙원이라고 호장선전하는 북한 땅의 농민의 생활상이 이토록 참혹하고 가정생활이란 거의 파탄되었고, 따라서 부자간의 정과 친척간의 정리마저 말살되어 수 천년간 계승하던 인심 좋은 미풍양속

이 완전히 파탄된 것은 김 일성 도당들의 악독한 독점과 착취와 인간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면서 기인되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4) 일반 서민층의 사생활

일반서민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각종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원급의 가족생활을 말한다. 이 자들의 생활은 노동자 농민에 비하여 다소 운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반 배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700그램(잡곡 5: 현미 5)이 일인당 일일배급량이며 기타 의류품, 생활필수품 등 국한된 정도의 배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래도 정신적인 노동이며 거의 당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자 계층보다는 훨씬 융통성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역시 300그램 밖에 배급이 제한되고 있어 부양가족인 처(妻)들은 거의 직장에서 노동을 하든가 혹은 사무원급으로 취직하여 배급미를 보충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아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가정에 남아 있는 늙은 노파와 유아를 양육하는 처자(妻子)들은 그렇다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못한다. 동(洞)과 리(里)마다에는, 오호담당제(五戶擔當制)가 조적되어 피리당에서 추천한 당원여성이 오호담당의 책임자로

서 매일같이 다식가구에 돌아 다니면서 메호마다의 사상동향, 방문객, 생활정도를 감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 내에, 회상기(回想記)학습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갖 가지의 비판 사업이 진행되며, 더우기 일년에 부과되는 강제노력에 동원되어야 하며, 피리정부에서 부과된 각종 무상보수의 가내부업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물구나 혹은 병약자 외에는 거의 노동직장이나 기타 직장에서 노동하는 것이 차라리 번거롭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리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일반 사무원급의 가정생활자체도 할당된 일정한 아파트생활에서 부부와 자식과 같이 단락한 생활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특히 늙은 노부모들이 세탁, 취사 등 부업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자식과 며느리의 부양가족으로써 300그램의 배급식량을 공급받는 대가로 각종 잡역을 맡아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늙은 노인들의 모습은 그저없기 짝이 없으며, 일 년간에 복피의 경축일이면 다소 도야지 고기와 화학주를 배급받기는 하나 경축일의 휴식일에도 집에서 하루종일 낮잠자는 것이 유일무이한 휴식으로 생각하니 이들의 사생활상태가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은 70년대의 소위 적화통일을 요란스럽게 선전하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를 막론하고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10시간 내지 15시간의 노동 외에 철저한 김 일성 우상화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매일같이 각종 열성자 대회나, 김 일성 특공대조직이니 하는 회의와 대회 따위를 불철주야 숨마저 현사이 없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으로 심신을 극도로 피로케 하고 있다.

특히 가정마다에 초급학교에 다니는 자식을 가진 가족들은 자기자식이면서도 이들 앞에서는 일거일동을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자식들의 비판과 학교 내에서의 가족교발을 두려워 한 나머지 한 가정내의 혈육간의 자연적인 윤리, 도덕마저 말살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북피제도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

(5) 특수층의 사생활

특수층이라 함은 소위 중앙 공급대상 의 3급이상이며 이 특수층 중에서도 피퇴당과 정부의 고위층 중의 장관급, 부수상, 2급피퇴당의 부장급, 비서, 정치위원급 등 그 계층의 차이는 천중만중이며 직위에 따라 모든 의식주의 정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수층에서 위선 극장급에 해당하는 자들은 일반

층과 달리 주택의 구조 장소도 각이(各異)하며, 배급받는 종류와 질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 공급대상자들의 구매상점은 10호상점이란 특별상점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배급과 각종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직위마다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특수층 중에서도 부상상, 피퇴당의 부장 및 당비서급 이상은 사실상 필요에 의하여 공급받는 형식으로 외제물품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으며, 배급에 있어서도 (형식상 결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이러한 명목으로 귀중품이나 질 좋은 외제 의류 양복 등도 거의 원가로 구입하는 형편이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도 장관급 피퇴당부장급 이상은 거의 독립주택에다 점점마다 부대별, 소대별, 경호대원들을 수비하며, 이들의 부양가족인 처와 부모는 직장에 진출도 하지 않으며 의무노동도 동원에도 제외되고 있다. 부양가족에 주어지는 배급량도 규정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백미와 기타 육류를 요청대로 공급받으며, 가족간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퇴 부수상급이나 당의 비서, 정치위원급들의 생활은 참으로 상을 찌푸릴 정도로 호화스럽게 짝이 없으며, 자가용차는 물론 식모역할을 하는 위생원들이

□ 최근 북한의 사생활 양상 □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적어도 3인 이상의 위생원들이 가정요리, 세탁 기타 잡역까지 맡아서 일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김 일성 같은 피퇴수상의 생활은 최근대적인 균왕 이상으로 호화찬란하며 개인의 비용이란 일체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의 모든 재산과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김 일성의 사인 하나로 북괴의 재정과 예산이 결정 저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인독재의 난폭성과 착취상은 우리들의 상상에 맞기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만치 기아와 억압에 신음하며, 게다가 각종 농노동에서 시달려 하나의 인간 기계처럼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피퇴수상의 생활상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호화관을 벌이고 일반 주민에게 호령하며 명령하여 마음대로 주민들을 착취, 억압, 통제하는 것이 북괴의 사회제도의 특성이며 김 일성 독재유지의 악랄한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천차만별의 계급적 차이를 조작하여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의료제도, 사회보장제도, 관혼상례의 제도에 있어서도 증오스러울 만치 차별이 심하다.

북괴의 규정에는 혼례식과 장례식의 참가 인원이 15명까지로 되어 있으나 일

반 노동자 농민, 서민층의 혼례식은 사실상 15명의 참가자도 없을 경우가 많다. 혼례식에 있어서도 일일이 간섭하는 북괴당국은 식당이나 어느 협소한 회의 장소를 빌려서 혼례식이 거행되기 마련이나 특배로 받은 간소한 화학주와 양곡으로 몇 명만 내접할 뿐 이렇다 할 소연도 없고 신혼여행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 불과 2일 밖에 휴가를 주지 않는 혼례식인 만치 2일간이라도 어디로 여행할 수도 없고 다만, 초라한 가옥에서 두루미하게 경과할 뿐이다. 특히 농촌의 결혼식에서는 같은 협동농장원이라도 제한된 몇 명만이 간단한 인사조로 혼례식에 참석할 뿐 친지와 친척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협동농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례(喪禮)에 있어서는 더욱 초라하기 짝이 없다. 소위 장의사라는 곳에서 4명의 노동자가 관(棺)을 메고 그 뒤에 상주와 빛 사람의 허가된 친척만이 따를 뿐 이웃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친척, 친지의 문상이라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상례만은 참으로 인간무상을 더욱 느끼게 하며 쓸쓸하고도 저참한 사회상을 저주하는 때에는 가장 두드러진 표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피퇴 특권층의 관혼상례는 판이하게 호화스럽다.

특권층 중에서도 극장급만 되어도 사실상 관혼상례에 참가하는 인원의 제한이란 없으며 5일장을 상례로 많은 조객들이 몰려와서 며칠이고 밥을 새워가면서 장례식을 치루는 것이 보통이며, 혼례식도 우류장같은 고급 외빈음식점의 홀이나 또는 큰 단체회의장을 이용하여 수 백여명의 하객의 참가하에 성대히 거행한다. 특히 피뢰부수상이나 당 부장급이상의 상례식(喪禮式)에는 본인에 대하여는 거의 극장형식을 취하나 가족에 대하여도 마음대로 좋은 묘지를 선택하여 5일 이상 7일간이나 매일 수 백여명의 조객과 많은 선사품과 특별상점에서 공급하는 일용식품, 우류, 의류 등 참으로 자기 돈 한푼도 드리지 않고 성대히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특히 자기 자신들의 혼례식은 수백, 수천의 하객들이 몰려와서 많은 선사품, 하례품을 장식하여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렇게 북한의 공산집단들은 항상 무계급 평등만을 부르짖고 있으나 사실상 계층별 배급제도 즉, 의식주(衣食住)제도에 현격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특권층은 인민 착취자급으로 마음대로 호사하는 치외법권의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일단의 자유와 일순의 여유조차 없이

노동과 기아와 감시와 탄압생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 북한의 사회실정이며 생활의 실태이다.

결 론

이상과 같이 북괴의 악랄한 독재제도가 빛이면 사회생활은 자유 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바차 인간의 윤리도덕을 소외하여 북괴의 독특한 인간 중요사상과 김 일성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처럼 우상화하는 세뇌교육과 남침적화를 위한 철저한 민족 중요사상으로 정신무장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최근 6.25의 쓰라린 실패를 감안하여 소위 핵심분자, 중간분자, 동요분자, 요감시분자, 반동분자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이에 적용하는 감시제도와 직업, 거주지 이동 등을 단행하는 등 단단마적인 악랄한 인간차별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매일같이 전쟁소동으로 전 북한을 군사화하여 개개인의 가정생활은 부자, 친척지기의 단란한 협조와 화목을 제거하고 가족주의, 종파주의를 잉태한다는 이유로 가족분리 정책을 요즈음 철저히 실시하여 한 가족이 한 장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피뢰당의 지시와 배당포에 따라 각처에 분산하여 노동에 종사케 하

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세계와 같이 아무리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더라도 관혼상례시나 또는 필요한 때는 즉시 오가고 할 수 있는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북한에서의 여행자유, 이동자유가 전연없는 조건 하에서는 가족간의 분리정책으로 인하여 부모가 별세하든가 또는 형제자매간에 혼례식이 있거든 치더라도 마음대로 내방할 수 없는 압축의 땅에서는 가족과 친척간의 도의는 점점 사라지고 사생활면에 있어서도 기아와 굶주림과 자유없는 억압정책에 의하여 삼강오륜과 미풍양속의 제도는 벌써 사라져 버렸으며, 다만 자기 혼자만이라도 굶주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만이 여행중의 내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일반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가족위주의 사생활과 국가위주의 사생활이란 생각할 엄두조차 없으며, 항상 형식적이나마 김 일성을 위하여 복습

을 바친다거나 또는 김 일성의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며, 소위 「아버지 김 일성」에게 맹종하며 죽는 시늉도 내야지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도 안전원(비밀경찰)과 열성당원이 주동이 되어 한 사람에게 상호수명식의 감시원을 붙여서 상호 감시하여 사소한 비밀과 가정 내에서의 일거일동을 비밀리에 보고케 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자식과 부모간, 친척간, 친척간에도 서로 감시의 눈동자로 옮겨보며 상호 의심하며 경각심과 의아심을 지니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개개인의 사생활은(특권층의 몇몇분자를 제외하고는)참으로 냉혹하며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야말로 인간사회를 떠난 압축의 구렁텅이 같은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의 북한 생활상이다.

어 둠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찾자

법의식(法意識)과 관풍기

이
명
영

△경향신문 논설위원▽



1. 민주시민과 법의식

법의식의 결여 또는 그릇된 법의식이라든가 혹은 건전한 법의식이라든가 하는 말들을 우리는 흔히 쓰고 있다. 이러한 용어법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법의식이란 말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법적으로 옳다거나 혹은 옳지 않다거나 법에 맞는다거나 혹은 맞지 않는다거나 하고 생각할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의 법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의 법의식이란간에 그것은 대개의 경우 도덕의식이라든가 기타의 규범의식과 반드시 분화하지 않을 경우가 보통인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본시 법이란 도덕 종교 또는 관습 등을 바탕으로 생성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문명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생성 변천하는 일반적인 관념, 또는 가치관에 의해 중요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도덕, 종교, 관습, 가치관 등이 또한 법에 의해, 크게 규제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의식은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의 주관

적반영인 동시에 법의 실효성(實効性)의 기초이기도 해서 나라의 법이라도 국민 대중의 법의식에 의해 지지되지 않고서는 실제로 행해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의 법의식에 의해 지지되는 법은 「산법」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법은 실제 생활과의 사이에 불편 또는 마찰이 생기게 된다.

민주사회를 한 마디로 법치사회라고도 한다. 모든 것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미리 제정된 법에 의해서만 행해져 가는 사회가 법치사회인 것이며 그것이 곧 민주사회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법을 지킨다 법을 따른다 하는 것이 법이 지니는 강제성 때문이라기 보담 법이 일반 국민의 의사의 공동 표현이란 전제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또 하나의 도덕율(道德律)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준법정신이 고창되는 것은 바로 이 자율적 실천의 요구에서이다. 따라서 이 자율적 실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민주사회 일수록 모든 법을 국민대중의 법의식에 밀착되어 제정되고 또 집행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란 다양성 속에서도 절대다수의 사람이 승부할 수 있는 공동치(共同値)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화합해 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공동치의 설정과 그 확립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국가목적에서부터 법 체계,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가치의 실현이 목표가 되어지며 그 가치란 바로 민주주의 이념과 그 기본원리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리고 서로 애끼고 사랑하며 살자 하는 것이 다름아닌 민주주의 이념이다. 어떤 법률이든 제도이든 또 무슨생활 규범이든 이 기본 이념을 넘어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의 실현을 위해 오직 있어야 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 민주이념의 추구하고 실현이 바로 민주시민의 법의식에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분야를 규제하는 잡다한 법의 구성구석에서 바로 이 민주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의식과 그 합당한 노력이 약동해야 하며, 국민들은 그와 같은 법을 자진해서 지킴이 의무임을 기꺼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2. 군관계 제 법률

위에서 말한 바 원리는 군관계 제 법률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모든 남자는 헌법에 의해 병역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필요 불가결한 남성특유의 의무이며 또한 남성으로서의 보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첫 단계가 병역법이기도 하다. 병역법은 민주국가의 원리에 따라 모든 성년 남성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신체적 장애 때문에 병역에 복무하기 적당치 않은 사람에게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 또한 이 공평의 원리의 불가결한 일부이다.

본시 군이란 특수한 사명과 독특한 기능을 안고 있는 곳이라서 무엇보다 높은 사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매사 엄격한 규율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반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규율 정도를 가지고서는 군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엄격한 군 풍기가 문제되는 소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풍기의 유지를 위해서 군에는 군대로의 제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저촉에는 군 특유의 재판과 처벌이 가해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해서 이들 제 법규를 어긋남이 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군 법규에 대한 특별한 법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사회 생활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전전한 상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요. 기초적인 훈련과정에서 익힌 여러가지 규칙을 잘 습득해 두면 그다지 불편할 것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 여러가지 규칙이란 것이 일반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매우 엄격한 것이 군 생활이다. 거기다가 군의 생활을 엄중한 훈련과 일사불란의 규율이 겹치기 마련이다.

군이란 조직적인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규칙한 행동이나 게으름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질서에 큰 해가되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군 생활은 어렵다고도 하고 고되기도 하다고 한다. 이 모든 고됨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기기 위해서는 강건한 체력과 함께 높은 사기가 필요하게 된다. 사기가 떨친 곳에서는 고됨과 어려움은 문

◇ ◇ ◇ 법 의식과 군풍기 ◇ ◇ ◇

제가 아니다. 이 높은 사기는 어디서 진작 되는가. 다시 말하여 군의 엄중하고도 까다로운 모든 법규나 생활 규범이 하나도 무겁거나 까다로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의 힘 이것이 바로 사기의 출발점인데 이 사기는 어떻게 펼쳐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기의 문제를 법의식의 문제로도 고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있어서의 법의식은 두 가지의 측면 즉 일반사회에 있어서의 법의식과 군 내부에 있어서의 법의식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말 할 필요도 없이 군은 국방을 임무로 하는 곳이며 여기에 있어서 우 국방이란 기존의 국가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인 것임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매일반이다. 따라서 군이 지키고져 하는 나라가 온 국민이 목숨을 받쳐 지켜야 할 만한 가치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북괴로부터의 침략적 기도가 호시탐탐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우기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체제에 대해 온 국민이 투철한 가치관과 신념에 불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 온 나라가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합당해야 할 것과 온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에 대해 온 국민이 저지해 마지 않을 수 있는 법 의식이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꺼이 병역의무에 충실하게 되며, 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모든 군인이 지켜야 할 군 관제 제 법규와 제도가 군의 법 의식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모든 군 관제 법규가 민주주의 군대로서의 원리에 합당하며 동시에 공평하게 실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아주 중요해 지는 것이다. 법규자체로서는 나무랄데가 없더라도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면 군에 높은 사기가 유지될 수 없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3. 사기와 군 풍기

사회에 있어서나 군 내부에 있어서의 법의식의 문제는 사실 치밀한 조사

◇ ◇ ◇ 법 의식과 군풍기 ◇ ◇ ◇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다. 사회에 있어서 어떤 법에 대한 범법자가 현저히 많다고 할 때, 법에 대한 무지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그 법이 대중의 양식에 입각한 법 의식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때도 분석의 눈은 가해져야 한다. 누구나 지키기 어려운 법은 폐기되던지 개정되어 마땅하다고 이와 똑 같이 군에 있어서 예컨대 탈영자가 현저히 많아 지고 있다면 이는 탈영이 군의 어떤 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따라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 지는 것이어야 함을 몰라서 저지러지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군생활의 어디엔가 건디기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탈영치 않을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이유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종류의 범법을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이라든가 군 복무의 윤리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속한다. 또 명령위반이라든가 기타의 탈선에 있어서도 한 가지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를 수 있는 비행, 탈선, 범법, 그런 것이 군이라 해야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문제 될 때에는 군 풍기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군수물자의 횡류, 무기의 암매 등이 있다면 이는 가공할 사태의 발단이 아닐 수 없게 된다. 덧붙여 군사 정보의 유출이라든가 군사시설에 대한 파괴행위 또는 적에의 귀순, 투항, 더 나아가서 전의상실 등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이야말로 군의 존망에 관한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군 풍기가 이쯤 되면 그 어떤 엄격한 통제나 처벌만 가지고서도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군 전체의 사기가 바로 잡아지기 전에는 이와 같이 하여 타락된 군 풍기는 도저히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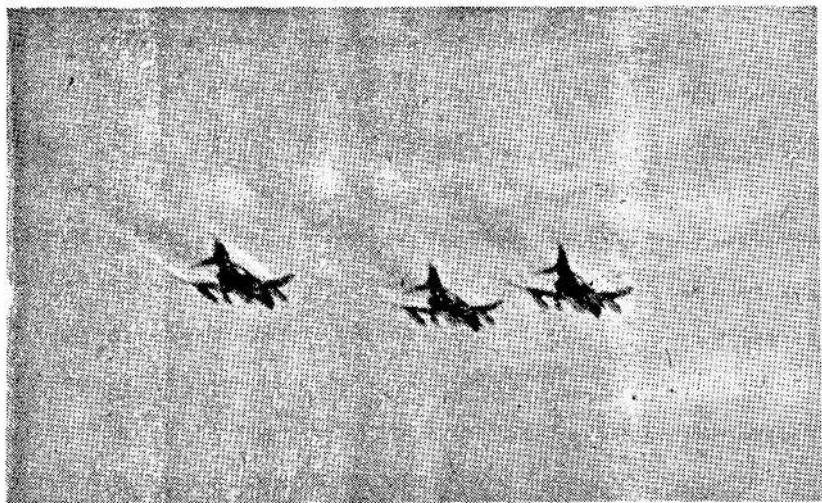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예는 아주 극단한 사태의 상징이겠으므로 길게 논할 필요조차 없겠고, 군의 사기와 풍기의 관련성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눈에 잘 띄이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일 것이다.

질실강건이 숭상되어야 할 군에 사치와 허영과 그리고 연파기풍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과 같이 조만간에 돌이킬 수 없는 정상으로 악화하여 큰 병폐를 낳기에 이른다. 평소엔 훈련과 정신연마로써

이와같은 병폐의 유행을 막아야 하며, 특히 상관들의 생활태도가 영향력이 있다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병사들이 회향병에 걸린다거나 일반사회를 동경한다거나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군 내부 생활은 윤택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풍조가 정화되어 있어야 한다. 탈영병 문제라든가 귀휴병의 귀태, 기피 같은 일들은 바로 이런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풍기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사기와 관련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사기는 또한 군의 법의식과도 깊숙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군의 법의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군의 역사 또는 전통이란 문제를 제기해 봄은 유익한 관점이 될 것이다. 모든 집단이 역사를 지니며 전통을 갖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성원들은 혹은 사명을 혹은 긍지를 찾게 된다. 그것은 정신의 양식인 것이다. 우리 국군은 훌륭한 그야말로 민족의 심장을 울렁거리게 하는 역사적 사실 속에 우리의 군의 정신적 지표를 찾아 세울 수 없겠는가. 보다 더 실감있고 보다 더 절실한 감명으로 국군의 사명과 정신적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재 평가, 재 확립 되어야 할 것이다. 고도의 사기와 전의, 그리고 모든 엄격한 통제나 훈련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법의식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굳은 신념, 깊은 감동에서 배양 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민족적 사명감에 불탈 때에 신명을 흥모와도 같이 여길 수 있는 완벽한 전사가 탄생하는 법이다. 드높은 정신적 지표를 갖은 군은 군 특유의 엄격한 율법이나 제도가 제아무리 엄격하더라도 그 엄격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는 법의식을 낳게 할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그와같은 풍토 위에 군 내부생활이 화기에 애하며 군 복무기간에 무엇인가 배울만한 것이 있게 된다면 군은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생활터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병영의 가정화 병영의 교양장화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복귀의 호시 탐탐한 침략기도를 분쇄해야 할 우리의 간절한 상황에 비추어 건강하고 씩씩하며, 드높은 사명감에 충만한 60만 대군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초음속 시대의

항공전 전망

중 병 종 성 료

항공전의 양상은 한국전 초기만 하더라도 2차대전이 끝난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비무 냉전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항공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아 그의 경험이 없어 그대로 2차 대전의 경험 속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항공기하면 임무별로 작전에 임하게 되는 개념으로써 전투기하면 적의 공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해서 격추한다거나 또는 우군 폭격기를 엄호하는 주임무이며 대지 폭격 등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한국전의 항공기 동원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진혼을 얻게 되고 진혼은 새로운 관념으로 변천한 것이다. 특히, 무서운 사실은 2차 대전중만 하더라도 하늘의 요새기라고 불리우는 B-29대형 폭격기는 한국전이 고조에 달하던 임박인 1951년 10월 23일 B-29폭격기 8대가 압록강 부근의 전략목표를 대량 폭격하기 위하여 F-84E, F-86A형 및 F형 등 89대의 엄호를 받고 출격했는데 갑자기 소련제 제트전투기 MIG-15 100대가 출현하여 기습함으로써 B-29 8대중 3대가



격추되었고 4대가 대파되었으며 1대는 겨우 김포기지에 물시작된 이외에 F-84 1대가 격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방성은 급작히 항공전의 양상을 변화시켜 B-29를 모두 출격 중지시킨 대신 제트전투기로 대저폭격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피해가 별로 크지는 않았으나 그의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토록 급작스런 변화를 가져온 것도 드물 것이며,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전에서의 항공기의 역할을 한 마디로 가리켜 제트시대(Jet age)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한국전은 미국과 소련 공군만이 제트화 하는데 자극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우수한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라면 제트 공군의 박차를 가한 것이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항공기는 속도가 빠르면 승리한다는 생각을 넣어준 것 같다.

그러나 한국전에서 항공기의 속도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했으나 절대적인 것은 못 되었다. 공중전에서만 보더라도 1952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사이에 F-86이 소련제 MIG-15와의 공중전에서 벌여 얻은 전과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써 15대¹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미 공군이 계속 승리하여 거의 제공권은 빼앗겼던 것이

다. 이런 비율은 휴전될 임박시인 1952년 6월에는 MIG-15 74대를 격추시켰고 1일 최고는 15대까지 격추하는 등 놀란 만한 전과를 올린 것이다.

승리하게 될 주요 원인이 속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속도면에서는 MIG-15와 F-86이 같으며, 기동성에 있어서는 가벼운 MIG-15가 F-86보다 훨씬 월등했던 것이다. F-86이 MIG-15를 압도적으로 승리케 한 것은 흔히 쓰는 조준장치(Gun sight)라고 말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조준장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종기술에 다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미 공군의 조종사들의 조종술이 소련이나 중공 또는 북괴 조종사들보다 능숙하다는 것은 주위의 환경이 어릴적부터 자동차 운전을 많이 했거나 기계조작을 어릴적부터 시작했거나 심지어 경 항공기와 같은 자가용도 조종한 경험은 기계를 다루는 운동신경이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전에서는 전쟁기간중 공중전에서의 승리는 12대 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양상은 달라진 것이다. 월남전은 제트 시대이기는 하나 아음속에서 초음속 시대로 변화되었으며, 한국전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타났다. 속도면에서만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무장, 전자장비, 그리고 조종사의 숙련도



도 변화된 것이다.

월남에서 공중전 전과는 한국전과 판이한 것으로 12대 1에서 2.5대 1로 격감한 것이다. 여기에 주요 원인을 미 공군에서는 조종사의 숙련도가 저하된 것이 아니라 타국의 조종사 숙련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격차가 좁혀졌다고 본다. 그 하나의 예를 끄집어서 한국 조종사의 능력을 평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미국의 공군지 Air Force(69. 8.)에 게재되었다. 이 잡지는 미국이 과거 10년간 우수한 조종사의 기술에 의존하여 왔으며 다른 나라의 훈련수준을 따를 수 없을 것이라는 신화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한국공군”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훈련에 의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된 것을 볼 때 어리석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논술한 것이다.

여기에서 들고 나온 것이 미국 공군의 전력구조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항공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항공기의 기술은 부단히 연구발전하고 있으며 오늘의 결함은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차기 전투기는 새롭고 유익한 항공기로 출현시키고 있다.

한국전의 경험은 프로펠러기가 쓸모없게 되었으며 제트만이 만능시대를 이루었으나 한국전의 경험과 시대의 번천은 새로운 항공기의 출현을 기대하기에 이

른 것이다. 월남전은 비록 특수하다고는 하나 역시 항공기사상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케 했으니 바로 음속 2배의 항공전 시대를 이룩하게 한 것이다.

한편 한국전의 경험은 어떤 항공기는 1개 목적만을 수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 것이다. 그의 대표적이라 하면 F-4(팬텀) 전투기로서 지금부터 14년 전에 개발하기 시작한 이 전투기는 월남전이 결정에 오르기 이전만 하더라도 별로 그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월남전에서 월맹지역의 폭격을 시작하면서 단일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F-105 등은 목적만이 위주였으나 F-4는 F-105 엄호와 아울러 필요에 의해서는 월맹지역에 배치된 소련제 MIG-21과의 공중전을 수행해야만 한 것이었다.

공중전의 전과의 대부분이 F-4에 의해서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많은 폭탄 적제량은 호평을 받기에 족한 것으로서 F-4는 폭탄을 적제하더라는 공중대공중 유도탄을 동시에 적제하도록 하는 등 다목적인 것이어서 그의 월산대수는 일거에 50대였으며 총 생산량은 2,000대를 능가하였고, 그의 인정은 세계 각국에 퍼져서 각국이 F-4 공군으로써 이룩하기를 기대하여 자연이 개량형이 속출하게 되었다.

월남전에서의 교훈을 간추려보면 첫째, 속도가 가능하면 음속 2배 이상이면 좋겠다는 것과 둘째, 적재량이 많아서 필요에 의하여 폭탄, 공중용무기 및 연료를 자유자재로 교체해서 적재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며, 세째는 최소한 전자전 능력에서 자체가 적재한 탐색능력을 가진 레이더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적의 지상 또는 공중의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로부터 전자적 작동을 수행할 때 이를 맹목화시킬 수 있는 전자방해(ECM)능력, 더 요구한다면 적이 자기(自機)에 적재된 레이더를 방해할 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대전자방해(ECCM)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네째는 항공기 구조, 또 역학적인 면에서 상기의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소형이고 가벼우며 기동성이 우수하여야 할 것과 심지어 공중전에 필요로 하는 시계(視界)문제와 아울러 복좌조종사는 더욱 그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계문제와 복좌조종사의 이점은 1967년 6월 중동지역에서 6일 전쟁중 이스라엘은 아랍공군의 MIG-21 2대를 그대로 노획한 것을 1대는 즉각 미국으로 보내어 시험 비행하면서 공중전을 실시한 결과 시계가 대단히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종사석의 풍판(風板)은 주위시계가

좋은 뿐 아니라 후방시계는 미 군기의 결합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될만큼 상당히 좋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미군기의 F-102, F-104, F-105, F-106, F-4의 후방시계가 몰랐하다는 것이다. 후미에서 추격해오는 적기를 탐지하는 방법은 “백·미러”도 있고 소련에서는 후미경보장치가 있으나 인간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백·미러”나 후미경보장치는 인간의 눈을 보조하는 데는 필요하나 주 역할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후미 경보장치는 그의 필요성이 미 공군기에서도 대부분 장치하고 있는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복좌조종사의 이점은 시계를 통한 탐색능력의 향상도 있겠으나 전자전시대에 들어와서 지상에서 유도해주는 거리까지 접근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의 레이더가 탐색하면서 적기에 도전하게 되는데 끝까지 레이더에 의하여 추적하게 된다 면 문제될 바는 없으나 공중전이 Dog fighting 형식으로 전개될 때에 조종사석에서 레이더 스크우프를 들여다 보다가 눈으로 계속 보려고 밖을 내다보면 마치 암실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서 하늘이 캄캄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월맹지역에서 단좌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들이면 누구나 경험하고 체득한 진실한 느낌이었다는 것

이다. F-4는 바로 후방석의 조종사는 계속 레이다스코우프를 보면서 추적하도록 전방조종사와 협조함으로써 많은 전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끝으로 월남전에서의 공중전 교훈은 공중전의 양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상식으로서서는 지상레이다의 유도를 받으면 적기에 접근하고 접근하면 자기의 레이더로 추적하면서 적기가 화기발사 범위에 들어오면 발사하고 발사하면 명중되기 때문에 공중전이 전자장비가 적재하지 않으면 한국전까지의 양상과 같은 Dog fighting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믿었으나 사실은 판이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적기도 똑같은 절차로 수행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F-105가 폭격하던 중 적기에 의하여 추적당하는 것을 엄호하는 우군기 F-4가 적기를 추적하게 되는데 이때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며, F-4가 적기를 추적해서 조준경내에 들어오면 공중대 공중 유도탄으로 발사하면 격추시킬 수 있을 터인데 실은 유도탄의 유도능력이 인간의 두뇌만큼 우수하다면 모르되 특히 적외선 유도탄 Sidewinder는 적·아기를 구분해서 요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 만일, F-4가 적기를 향하여 발사할 순간에 위치는 좋았으나 공중전이 전개됨으로써 기동의 번

화가 우군기 F-105가 유도탄 발사범위에 들어왔다면 결국 우군기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전을 통하여 공중전에서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으나 우군기의 피해를 우려하여 발사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교훈이 전투기는 기총을 장착하여야겠다는 것이다. F-4에도 C형에는 기총이 없었고, D형에도 없었으나 그후 POD 형식의 VULCAN포를 동체 밑에 임의로 장착하도록 되었으며, E형은 반(半) 내장식의 기관포를 고정 장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관포는 인간의 육안에 의하여 조준되고 발사되기 때문에 거의 우군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관포의 명중률은 전자장비 또는 적외선과 같이 그의 공격거리와 범위가 넓은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현대전에서 항공기에 장착된 기관총의 목적은 첫째, 공중대 공중 또는 공중에 지상유도탄의 백·업용이고 둘째, 유도탄 사용이 가차 없을 때의 기회를 기총으로 사용하고 셋째, 낮은 수준의 전술임무를 수행할 때 소형 무기로서 사용한다거나 여러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한 다라고 되어 있다.

기총은 2차 대전만 하더라도 1분간에 600발 밖에 발사하지 못하던 것을 현재의 VULCAN포는 1분간에 6,0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으며 그의 효과도 대단히 커졌다. 그의 효과 평가공식은 $E = \frac{HRD}{W}$ 로 E는 효과, H가 매발당 적중확률이고, R이 매회전(단남)당 발사수, D가 매적중환탄환의 파괴율을 모두 승(乘)한 것을 탄환중량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에 의하여 VULCAN포의 명중률은 알 수 없으나 Call·50의 명중률은 0.17제수가 나오고 있다.

0.17 제수는 공중대 공중 로켓 및 유도탄과 비교해서 2.75인치 FFAR 로켓이 0.45제수, FALCON이 0.9, GENIE가 0.92제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기총의 효과가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 있다.

기총의 효과가 낮은 것도 큰 결함이지만 현재 실전화하고 있는 공대공유도탄이 모두 가능하면 원거리에서 발사해서 적기를 격추시킬 목적하에 시정거리를 길게 한 것이 특징이다. 긴 사정거리의 유도탄은 장점이기는 하나 반면 근접했을 때 발사하면 그의 기동성이 불량하다는 것과 발사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공중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총과 현 공대공유도탄과의

효과와 발사거리와 범위의 갭(Gap)을 매꾸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항공기의 결함에 대한 교훈은 월남전에서 실전을 통하여 얻었으며 그의 경험은 즉각 새로운 항공기를 설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월남전이 일어나 절정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고 많은 적재량을 가지고 기동성이 좋으면 가장 우수한 항공기라고 생각한 끝에 F-111과 같은 날개가 움직이는 전투기와 이를 개량한 전략폭격기 FB-111이 출현하여 F-111은 이미 69년부터 월남전에 투입했으나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이 나타났다.

F-111은 최근 비행중저 상태가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주익의 결함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가변익을 움직이는 "조절변"의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F-111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익이나 "조절변"의 불량 때문임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전투기는 속도나 적재량에서 대단히 우수하다고 보았으나 대형이며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데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악평을 받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F-111의 결함으로 인한 것과 F-4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좋으나 향후

15~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새로운 차기 전투기(F-X)를 모색해 왔으며 그의 결정판이 미 공군의 F-15이고 그의 자매기가 미해군의 F-14이다.

다음 미 공군의 현 전략공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B-52는 조수밖에 없으나 음속 2배의 B-58은 구식화됨에 따라 폐기하고 이와 대치할 예정이면 FB-111을 F-111의 결합과 또한 전략폭격기로써의 역할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B-1A라는 유인전략폭격기(AMSA)를 새로이 개발하여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전투기종 F-15와 F-14가 결정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F-4는 소련제 MIG-21과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으나 곧 작전화될 음속 3배의 MIG-23(Fox BAT), SU-11(FLAGON)과 대항하면 뒤떨어질 것이라는 데서인 것 같다.

F-15와 F-14는 다같이 1975년부터 작전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1980년까지 계속 작전화하게 될 쌍발엔진의 복좌가 될 가능성이 많은 전투기이다.

이 전투기의 특징은 바로 현 전투기의 결합을 말해주고 있으며 장래의 전투기가 어떤 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F-15와 F-14를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속도면에서 소제 MIG-23이 음속 3배

임에도 불구하고 F-15/14는 음속의 2.5배이며, 최대지속속도는 음속 2.2까지 가능하며, 공중전에서는 월남전의 경우는 최대 음속 1.3배 밖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엄호 비행속도 0.8에서 1.5배까지 가속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비행토션에 의한 가속 또는 비행토션에 대한 정상가속(90°각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동성에 있어서는 이 항공기가 갖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만큼 중시했는데 이는 일단 공중전이 개시되어 혼전이 시작되면 각 개의 항공기가 갖는 기동성 및 기능 여하에 따라서 2명의 동등한 능력을 가진 조종사 중 1명이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미 공군본부 연구개발 참모부차장 “조세프” 중장이 말하였다.

기동성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속도는 크게 작용하지만 그보다 소형화되고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 크게 영향을 준다. F-111이 대형이고 중량이 무거워 공중기동에 불편을 주는 경험을 살려 소형화는 말할 것도 없고 경량화도 F-111이 총중량 30.5톤이고 F-4도 25.2~27.2톤에 이르는 것에 비하여 불과 20.5~22.7톤 밖에 되지 않는다. 중량이 가벼운 것에 비하여 엔진의 추력은 상당히 향상되

있으며, 추력 대 중량의 비율은 F-4가 0.8대 1이고, F-111이 0.5대 1로써 F-15/14전투기는 F-111보다 낮은 0.44대 1밖에 되지 않아 추력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중량이 가벼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중량이 가벼워진 것은 미 해군의 함재기에서 곤란을 받았던 가장 큰 문제로써 함재전투기는 그의 최대중량이 23~24톤을 훨씬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나, F-11B(당초 해군용으로 설계)는 30.5톤이기 때문에 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F-15/14의 기동성 향상은 F-111이 가변익이기 때문에 얻은 이점을 살려 역시 가변익으로 할 예정인데 그의 변화 각도 F-111은 17도~72도까지인 것을 20도 68도까지 변화폭을 약간 좁힌 것이다.

가변익의 특징은 이미 F-111전투기 중심으로 논술되어 왔겠지만 항공기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장점도 되지만 오히려 감속하기 위하여 속도를 상당히 줄이려면 그의 감속한계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더 낮출 수 없다. 하나의 예를 들면 최대속도가 음속 2배의 항공기, 전투기의 경우는 최저(실속)속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지는데 예를 들면 음속에 가까운 항공기는 실속속도가 115-125KTS이나 음속 2배만 되더라도 그의 속도는 140~145KTS가 되므로 음속 3배의 속도는 약 190KTS까지 증가되는 것이다.

실속속도의 증가는 바로 항공기의 이착륙 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그의 공사비는 막대한 뿐 아니라 큰 활주로는 적의 기습공격에 의하여 발전 및 파괴당할 염려가 많은 것이다.

가변익기의 또하나의 장점은 공중진행수행할 때 필요에 의하여 주익의 각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동성이 대단히 양호한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다.

소형 및 경량화는 실전을 통한 경험과 공력학적인 발전이 있겠으나 기체에 가벼운 금속을 사용한다든 원인이 있다.

기체에서 나온 특징 이외에 이 항공기에 갖춘 다른면, 전자장비면에서 현재 전투기가 구비한 탐색 및 추적레이다를 비롯하여 전자방해(ECM) 장치와 레이더 능력을 방해할 때 대처할 대전자방해(ECCM)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자장비와 더불어 생각되는 것은 무장으로써 공중전에 필요한 무장은 공대공 유도탄은 Sparrow(AIM-7F) 4발을 F-4에 장착하는 방법과 같이 반 내장식이며 또 필요에 따라 혼합식으로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하는데 아직 실전화는 되지 않았으나 곧 이루어질 단거리 유도탄(SRM)이라는 것으로 당초는 Sidewinder를 소형화한 것이었으나 Sidewinder는 적외선 유도이기 때문에 적·아기를 구별할 수 없어 혼전일 경우 발사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량하여 벨리비전 유도방법을 사용하는 SRM이 될 것 같다. 이 SRM은 AIM-82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서 사정은 2-3N/M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바로 현재까지의 공대공 유도탄의 사정이 길고 기종의 사정이 상당히 짧은 간격을 매꾸기 위하여 새로이 개발한 것이다.

이 유도탄을 혼전일 경우를 고려하여 Sparrow 2발과 SRM 4발을 장착하는데 Sparrow는 원거리에서 레이더 추적으로 발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혼전시에는 SRM을 TV 스크린을 통하여 추적하여 발사하므로 적·아기를 구별하기 용이한 뿐만 아니라 근거리 공격용이므로 발사 후 확실히 목표를 추적하되 많은 G(중력)를 받아도 기동에 자신을 갖도록 설계된 것이다.

해군용 F-14는 Sparrow도 장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상에서 단독 방공 작전을 수행할 것이므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AIM-54A(PHONIEX)를 장착함으로써 80N/M 전방의 적기를 요격한다거나 또는 MINI-PHONIEX를 설계하여 사정이 약간 짧은 40-50N/M의 적기를 격추하도록 고려중에 있다.

공대공 유도탄 이외에 고정형 기관포는 월난전의 교훈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75년까지 새로운 기관포를

제작하려고 노력하나 만일 불가능하다고 볼 때 현재 F-4에 장착된 VULCAN 포를 그대로 장착할 계획이다. VULCAN은 중량이 무겁고 탄환 발사 속도가 낮아지거나 하는 단점이 들어 미 육군에서 개발한 탄피가 없는 공기압축에 의하여 발사되는 새로운 기관포, DART형을 장착할 계획이다. DART기관포는 구경이 25밀리이고 길이가 8인치 밖에 되지 않을만큼 소형이라고 하는데 그의 단환은 "우라늄" 이라고 하는데 우라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천갑으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전 당시에 미군이 소총을 탱크에 쓰니까 탱크가 잠깐 불덩이가 되었다가 그대로 식어지더라고 하는 풍문과 같은 것이 현실화되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DART 기관포는 강철관을 뚫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탱크도 태워 버릴 수 있다고 되었으며, 사정거리는 미상이지만 발사율은 매초 1,000발, 매분 6만발이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탄환을 발사할 수 있고 또 그의 초속도 1초간에 5,000ft로서 M-16 탄환보다 5분전 2나 더 빠른 것을 보면 그의 치명상은 대단한 것 같다.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무기의 장족으로부터 대지공격에는 제레식 폭탄의 적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핵탄의 소형화는 앞으로 국제 전쟁에서도 사용



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 같다. 특히 유도탄은 월남전에 Bullpup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신문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빛의 집중과 증폭을 이용한 레이저(Laser)광선을 이용한 유도방법의 폭탄이 사용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레이저폭탄은 약 1,000개를 항공기로부터 투하하였더니 그중 77%가 명중되었으나 나머지 10% 이상은 명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여하튼 이상과 같은 명중정도는 제레식 방법에 의한 것보다 10배나 향상되었으며 이로써 항공기의 출격회수와 손실을 격감하였다고 한다.

레이저폭탄은 750, 1000 파운드 및 1톤 짜리 탄두 앞에 레이저광선 탐지장치를 붙였는데 개조비는 1발 당 4,000~6,000불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Bullpup가격보다 2분의 1 또는 1/3밖에 되지 않는 염가이다. 이 원리는 항공기에 레이저광선 발사장치가 적재되어 있다가 목표물을 비추면 폭탄은 되돌아오는 광선을 쫓아서 명중되게끔 설계한 것으로 명중오차(CEP)는 종래의 300~3,600ft에서 불과 10~12ft로 훨씬 단축되었다는 것이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세계 항공기 특히 전투기의 대결은 소련제 MIG-23과 미국의 F-15/14로써 양 항공기는 바

로 항공제의 비상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듯 관심거리는 바로 대량생산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성능은 향상되고 있으나 비례적으로 가격도 급상승하여 F-15의 1대당 가격은 1,350만 달러로 F-4 6대분 가격 이상이나 되는 것을 75년까지 미 공군은 700대를 생산하여 작전화한 것이며, 미 해군도 F-14 463대를 실전화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다음은 항공전에 대표적이라면 미 공군의 B-52가 30개 대대(450대), B-58초음속폭격기 2개 대대(60대)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작전화한 FB-111 약간 대수이며 향후 4개 대대까지 취역시킬 예정이다.

무장면에서는 B-52는 모두 700마일 사정의 Hound-Dog(AGM-28) 핵유도탄을 적재하고 있으나 사정은 길어도 그의 적재량이 2개 밖에 되지 못하다는 것과 명중률이 좋지 않아 신형의 SRAM(Short Range Attack Missile)을 B-52 10개 대대에 12개월간에 걸쳐 개조해서 장착할 예정이다. SRAM은 AGM-69로 사정은 100마일 밖에 되지 않으나 명중률이 좋고 초음속으로 비행하므로 적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으며, B-52는 12개까지, FB-111은 6개까지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

SRAM도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를 개

★

량한 새로운 공중 대 지상 유도탄이 출현 했는데 SCAD(Subsonic Cruise Armed Decoy)라는 것으로서 속도는 음속을 넘지 못하나 이점은, 핵탄은 불과 20 kt(TNT 2만톤) 밖에 되지 않으나 그 내부에는 동시에 적의 전자장비를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는 등 이중목적을 가졌다. 그 이외에 사정이 1,100마일로서 현재까지 실전화된 어떠한 공대지유도탄보다 사정이 길다는 것이 장점이며 적재탄 수에 있어서 B-52만 하더라도 20~30개까지 가능하니까 대단한 것이다.

공격무기는 SCAD까지 출현했으나 B-52로서는 저공침투능력이 부족하여 FB-11을 설계 제작하였으나 최근 논란이 많아서 결국 4개 대대만 생산할 예정이고 그 후 계기는 B-1A라는 유인 전략폭격기 AMSA(Advance Manned Strategic Aircraft)로서 초음속 폭격기이며, 저공침투력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적재량에서도 B-52보다 2배라고 하는 것이다. 비행거리는 현재 미 본토에서 소련까지 공격하고 귀환할 수 있는 거리인 7,000~10,000마일에는 변함이 없으며, B-1A는 1975년까지 200대를 SCAD로 장착한다는 가정 하에 약 100여발을 투입하여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소련은 새로운 폭격기의 설계 계

★

작에 관한 정보는 없으나 현 항공기들을 개량하되 공격용 유도탄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를 개량할 것 같으나 항공기 대수의 부족 또는 항속거리가 짧은 단점은 전략 항공전에서 미국에 도저히 뒤따를 수 없다.

다만, 전투기에 주력하여 극지전이나 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요격용으로 많이 등장시킬 목적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전략면에서 전연 도의시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폭격기 대신 ICBM이나 FOBS를 대량 생산하여 실전화하게 되었으며, ICBM만 하더라도 미국을 능가하는 1,290개를 보유하고 있다 한다.

한편 미국은 케네디-존슨의 신속적응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대량 보복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금년도 닉슨 대통령의 세계 맥서가 발표되어 항공기의 전망은 어떻게 변화할지 의문스럽다. 다만, 미국은 세계 각국에 직접 대규모 무력공격에는 군사력을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장차 이루어질 항공전을 도의시할 수 없고 현태전은 전면 핵전이 아니면 항공전의 우위가 없이 전쟁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이나 월남전에서 뼈저리게 느낀 전후에 있을진대 현 계획을 상당히 변경시키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늘을 정복하기까지

이
용
문

● 항공 발달 소고 ●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사이래 20세기 만큼 인간의 예지가 찬란히 꽃핀 적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항공력의 출현과 이로 말미암은 영향력의 증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늘을 날아 보려는 꿈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일찌기 겪어온 바이다. 그러나 1783년 인간은 드디어 그들이 오랫동안 겪어 왔던 꿈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장·프랑쵸·필라투·드·로지에」라는 한 출판사 청년이 「몽골피엘」형제가 만든 기구를 타고 「베르사이유」시 상공을 날았던 것이다.

간단하게 보이는 이 기구는 이후 대중화되어 사용되었고 더욱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는 양군에서 모두 전략정찰무기로써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783년 「로지에」는 기구로써 인류사상 최초의 유인 비행을 간행하였다.

1794년 발란서는 세계 최초의 공군-항공대-을 창설 보·물전쟁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1798년 동 항공대는 「나폴레옹」에 의해 해산되었는데, 만약 그렇지만 않았던들 「워털루」의 참패를 비롯한 여러가지 실수로 인한 「나폴레옹」의 몰락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로서 동력 비행을 할 수 있기 까저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역사상 유명한 두 형제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미국과 구라파에서 당시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빌」과 「윌버 라이트」형제가 사상 최초로 글라이더로 이를 실험하였던 것이다.

초기의 선구자들이 극복하려고 애를 썼으나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의 꿈을 실현한 것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고독한 두 형제였다.

목사의 아들인 이들 두 형제는 소년시절을 「데이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지냈는데 두 사람의 취미는 공통된 점이 많았으며 기질에 있어서도 연구심이 왕성하고 손재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참을성이 많았다.

고등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다 굉장한 독서가로 무슨 일을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보아야 하는 성미였다.

그들이 맨 처음에 손을 낸 사업은 소규모의 신문 인쇄공장이었는데 얼마 후에 팔아 버리고 자전거 수리점을 개점하였다.

여기서 그들 두 형제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여 비행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1899년부터 1903년까지 그들이 경영하던 이 작은 공장이 근대 항공의 발상지

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작은 자전거포 주인들은 그 당시 데이튼시 사람들로 부터 미친사람 취급만 당할 뿐 연구에 필요한 어떠한 자금원조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인간이 하늘을 날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때문에 일어나는 생활의 부담이나 재정적 파탄이 눈에 보이며 마지막에는 실패하는가 생각하니 착수한 일의 방대함과 곤란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라고 「윌버」는 술회하였다.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천년이 걸려도 안될 것 같다」고 실망에 찬 비탄의 말을 내 뱉으면서도 그들은 기류 속에서 익변의 반응을 손수 시험하기 위하여 작고도 소박한 풍통을 하나 만들어 내었다.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 가는 동안 이들 두 형제는 이제까지 믿어온 실험 항공제수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수집 작성한 제산표를 재검토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비행의 참된 해답을 1903년 설달 17일, 「키티·호크」의 「킬 테빌」 언덕에서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기의 역사적 대사업치고서는 관객수는 말이 안될 정도로 적었으며 신문에서도 별 취급을 하지 않았다.

오직 다섯사람의 관중—「키티·호크」

사람들은 모두 조대되었는데— 앞에서 세계 최초로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동력 비행을 하였던 것이다.

모래 언덕을 넘어 달리는 살을 에이는 듯한 풍속 27마일의 맞바람 속을 「오빌」은 허부익 푸로펠러 정면에 배를 깔고 올라 탔다.

그는 이제까지의 쓴 경험의 결정인 활공 경험 이외에 오늘날 조종사들이 본다면 웃음을 금치 못할 계기의 도움을 받았다.

「오빌 라이트」가 시동 키를 열자 기체는 힘차게 전진하면서 상승하여 흡사 날으는 새처럼 대지에서 백피이트나 높이 떠올랐다.

그리고 두번째 시험비행에서는 「월바」가 올라타고 날은 결과 비행거리를 175 피이트나 연장시켰다.

그리고 20분 후에는 「오빌」이 다시 타고 고도 14피이트에서 똑같은 정도의 거리를 날았다.

이렇게 해서 정오까지는 비번째 비행을 하였는데 그때 「월바」는 852피이트의 거리를 날아 체공 59초라는 기록을 세워 이제 성공이나 실패냐를 따질 단계를 지났음을 입증하였다.

삼년만에 걸친 눈물겨운 연구와 실험 추위와 더위를 보른체 해냈던 중노동 그리고 총액 천파운드에 달하는 돈을 투자

한 끝에, 이 날 한 시간반 사이에 「라이트」형제는 인류가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라이트」형제의 그 빛나는 성공에 대하여 일반 대중은 물론 미 정부조차도 관심을 가져기는 커녕 오히려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903년 이후 5년사이에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비행기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 가운데는 「라이트」형제가 이룩한 업적을 명확히 인정하고 「라이트」형제가 만든 비행기를 개량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보려는 신인들도 나타났다.

「월바」와 「오빌」은 시험비행 최초로 미 육군성에 그들의 비행기를 보였으나 이렇다 할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제까지의 무관심했던 태도를 바꾸어 프랑스와 더불어 「데이톤」에 시찰원을 파견하기 까지 이르렀다.

「라이트」형제가 1903년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를 미 특허청에 신청했을 때 사무관계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특허청은 그후로부터 3년 후에야 특허를 이들 두 형제들에게 내어 주었다.

비행실험을 거듭하는 끝에 비행중의 신뢰를 검토하여 9월 20일에는 목장 주

위를 벗어나지 않고, 원형으로 선회비행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뒤 높이 10피트 상공에서 목장주위를 완전히 네 바퀴 돌았다.

당시로서는 사람이 새처럼 이렇게 하늘을 날은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라이트」형제는 다른 경쟁자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1908년은 항공기 발달사상 특기할 만한 해이다.

그것은 「라이트」형제에게도 원조의 손길이 뻗었던 것이다.

2월 조순 미 통신병단은 「라이트」형제에 정식으로 역사적 최초의 육군기 제작을 의뢰 계약하였다.

계약조건은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최저시속 40마일, 5마일 저점을 왕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적어도 한 시간의 체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격은 2만 5천 달러였다.

한편 이때 「라이트」형제는 서로 잠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월바」는 비행기 선전을 위해 애기와 함께 프랑스를 방문케 되었고 「오빌」은 육군이 주문한 비행기를 제작하였다.

두 형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곧 신문들이 두 사람의 사업을 크게 보도하였다.

「월바」는 「루단」에서 그 어려운 선회비행을 보기 좋게 성공하여 지금까지 「라이트」비행기에 대해서 그 성능을 의심하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을 감쪽 놀라게 하였다.

한편 「오빌」은 육군기를 완성하여 「포르트·마이어」에 인도했고 9월 관병식에서 한시간 이상이나 선회비행을 해내어 감채를 받았다.

1909년초 「오빌」은 프랑스로 건너가 열광적인 군중의 면전에서 공개비행하는 「월바」를 보았다.

그후 미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정부며, 오하이오주며, 바로 「데이튼」 시로부터 영예의 훈장을 받았다.

귀국한 「오빌」은 육군기의 최종 납입기를 세밀히 점검 시험하였다.

그후 「타프트」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속 42마일 14분 동안을 비행하였다. 여기서 그들 두 형제는 계약보증속도보다 빠른 속력과 거리를 날았다는 이유로 5천 달러에 이르는 보너스를 더 받게 되었다.

육군과의 계약을 완수하기 위하여 「월바」는 「프레데릭·햄프리지」와 「후랭크·피·랩」중위를 양성하였는데 이들 두 사람은 후일 상상치도 않았던 대규모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오늘날의 공군 최초의 조종사가 되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구라파의 전쟁참전국들은 현재의 수준에서 본다면 물론 형편없고 보잘것이 없는 가스로운 것이기는 하나 비행가능의 여타가지 모양의 비행기를 끌어 모아 조그마한 공군을 만들었다.

그런데 배서양을 건너 뚝 떨어져 있는 미국의 항공공업은 구라파에 비해 그 수준이 꼭 뒤지게 되었다.

미국 군부는 아직까지도 비행체에 대한 중요도와 그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일부 식자층으로 부터 미국 공군장설의 열렬한 요망이 있었으나 외면면제 묵살되었다.

미국이 참전했을 때에는 이미 공중항공권은 가장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었다.

닥쳐오는 위기를 인식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많은 젊은 미국인들은 때때로 미국의 국적을 떠나서 까지 연합군의 공군에 가담하였다.

영국 왕립비행단은 그들을 즐거이 받아들였고 프랑스에서는 미국인만의 비행대「라파이에트」 창설을 보아 1916년 활동을 개시하였다.

1917년까지에 미국정부는 자유의 일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몇 천명의 비행훈련을 본국에서 일부는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각국에서 대규모로 실시하는 한

편, 비행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국국산 신탁기를 완성하려 하였다.

미국 육군 비행사들이 사용한 고속 전투기는 모두 영국이나 프랑스 제였다.

그러나 미국 육해군의 비행사들은 참전에 뒤졌으나 중요한 시간에 그들이 끼친 공헌은 전국의 결정적 요소가 되어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제 1차 대전때 유행되어 일발화된 유명해진 말 가운데 「에이스」란 것이 있다. 이 말은 적기를 5대 이상 떨어뜨린 조종사를 이른 말이다.

육 해군에는 이만이 없으나 공군에서는 아직까지 「에이스」 즉 「하늘의 영웅」으로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

(제 1차 대전당시 연합군 조종사로서 최초로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은 프랑스 공군소속 「에스카틀」 SM-23을 조종한 「로랑·가로」이다).

미국 공군 장교중에서 가장 이름을 떨친 사람은 미 공군사에서 불멸의 공적을 남긴 야심가이며 선견지명이 있는 「윌리」로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윌리엄 미첸」소령이었다.

그는 미국군 군복을 입고 적진을 처음으로 횡단 정찰한 장교가 되었다.

그는 미국이 대전에 참전한지 7년후인 1918년 미공군의 편성에 힘을 기울여 드디어 성공하였다.

1903년에서 대전이 폭발한 1914년까지 11년간 항공기의 진보는 여러가지 장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다.

1914년까지에 여러 종류의 단엽기와 복엽기가 발달하였고 회전 액생식 및 공생식 엔진을 동력으로한 추진형 비행기와 전인형 비행기가 나타나 자기 특색있는 전형을 남기게 되었다.

그후 4년간 구미 각국은 자국의 곤란을 받는 발명이 및 민간항공관계 사업체를 군사상 이유로 인수하여 이의 발달에 충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다.

1912년 경까지 독일은 항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적었으나 불란서가 전쟁에서 많은 비행기를 동원 입체적인 군사 작전을 전개함을 직접 겪고 난 후, 즉시 비밀리에 국산기의 제작에 착수케 되었다.

1914년까지 이러한 결과로서 크에츠베린 비행선을 비롯한 6백여개 이상의 군용기를 보유케 되었다.

한편 보수적이며 왕립해군에 신뢰를 가지고 십나를 지켜온 영국은 육해군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자체의 항공 부대를 갖게된 것이 1912년 이었다.

대전 초 영국군은 영 왕립비행단 전 4 비행중대가 독일군의 포진 현황을 정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이후 군부에서는 항공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프랑스 공군도 영국과 같은 많은 시련을 받았다.

다만 다른 점은 새삼스럽게 비행기의 가치를 군 고위층에 인식시킬 노력이 필요 없었다는 점이다.

대전 초 항공기의 속도는 그다지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비행사들끼리 공중에서 서로 만나 총을 겨눠 쏘며 수류탄을 던지는 등, 상대방의 항공활동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점차 수정되어 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기총동축 발사장치는 독일 「포카」 단엽기에 처음으로 장착 실전에서 사용되었고, 항공 정찰사진 또한 유치하기 이를테 없는 것이나 실전에서 필요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발명이 생겨난 중의 하나였다.

화살처럼 날으며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불안정한 비행기에서 기관총으로 표적을 정확히 사격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노릇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발사되는 탄도영광탄을 사용하고 작탄을 조종사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을 보았다.

양군의 전투부대의 비행기는 기관총을

장비하고 소위 공중전이라는 새로운 전락이 명확해 지자 조종사들은 마침내 독일군이 고안한 “V”자형 편대비행이 가장 안전함을 알게 되었다.

공중전에 있어서 기습공격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경험이 미숙한 조종사들은 하늘이 무한히 넓어 접근해 오는 비행기는 곧 발견될 것 같이 생각하였지만, 추적거는 교묘하게 높은 곳에서 태양의 반사, 또는 구름사이를 이용하여 급강하, 접근공격 해오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얼핏 속기가 쉽고 좀 둔한 조종사는 뒤에서 적기가 기관총을 쏘아대어 그것이 기체에 박힌 다음에야 기습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공격에서 반격을 가하는 전법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최초의 독일의 하늘의 용사였던 「막스·인머루만」이었다.

기습을 알리는 최초의 총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급강하 하면서 기수를 원편으로 튼다.

이리하여 고도를 충분히 안정시켜 잡는 후 방향을 역전해서 반격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 「인머루만」 선회법은 곧 자국의 비행사들이 사용하여 위기에서 많은 생명을 구해 주었던 것이다.

1914년에서 1918년 까지의 4개년간에 군사항공은 크게 진보하였으나 기체 설계상으로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남겨 두었다.

오늘날 생각하면 당시의 비행사가 그러한 조잡한 비행기로서 어떻게 공중전을 벌였을까 싶을 정도였다.

더우기 군용기는 속도, 기동성, 화력, 그밖에 정비가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지마는 그것을 긴급히 생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비행훈련은 단순히 하늘을 날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기의 취급법을 비롯해서 중요한 전투대형의 형성법, 여하히 민첩히 행동하며 지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통달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케 된다.

1914년 대전 당시 각국 공군의 지휘층은 누구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으나 사태의 긴박함에 비추어 훈련시간 30시간이면 전투에 임하게 하였다.

공군의 지도자들은 비행기가 기총을 발사하고 폭격을 행하며 또는 사진을 찍는 이동하는 기계로만 생각하며 비행사들도 그정도도만 여기고 이 기계를 유리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다.

한편, 미국의 항공계는 제1차대전 중 결과 더불어 일대 진화기를 맞이하게 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직도 새로운 항공시대가 얼마나 일상생활에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미처 알지 못하였다.

즉 이제까지 그들이 겪은 전쟁에서 비행기가 얼마만한 역할을 담당해 내는가는 확실히 보았으나, 이것이 평화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미국은 종전과 더불어 공군부대를 평시규모로 축소할 것을 결정하고 육 해군은 정원제 때문에 조종사를 소수인 밖에 수용할 여지가 없었으며, 대전시 조종사로서 활약한 사람들도 타분야에서 종사해 온 사람들도서 향후 20여년간의 군 항공정책이 요리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전후 미국에 돌아온 「빌리 미첼」장군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번 전쟁의 결과 모든 전쟁이 영원히 끝났다고 믿고 있는 것에 찬성치 않고 전쟁의 교훈에서 특히 가공할 항공병기와 그 방어대책의 중요성을 강조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는 공군을 육해군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대등한 조직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육 해군의 간부들을 격노케 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신념은 1936년 그의

사거시기까지 굵힐 줄 몰랐으며 그의 선견자적인 예언은 진주만 폭격으로 입증되었다.

1924년에 이르러 육군항공대는 세계 일주비행을 감행, 항공사상 보급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함을 입증하였고 이후 1926년에서 1927년에 걸쳐 발동기를 많이 장착하는 다발기시대가 찾아왔다.

1927년은 세계 항공사상 위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즉 「올티」상 비행의 성과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며 「린드버그」에 의한 대서양 무착륙 단신횡단비행의 성공은 미국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찰스·린드버그」가 탐하늘을 타고 열린 안개에 싸인 「파리」에 내렸을 때 단숨에 미국 사람들을 광적인 환희로 들끓게 한 적은 없을 것이다.

1930년대 후반은 상업 항공회사가 적극적으로 노선확장을 꾀한 시기였다.

선구자들이 많은 시험비행을 통해서 개당된 기체가 구입되었으며 또한 여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최신의 무선기를 탑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망의 확대에 대하여 「팬아메리칸」항공은 당시 여러 외국으로 가는 해외항공로를 전문으로 해서 설립된 미국 유일의 항공회사였다.

1939년 9월 독일군의 폴란드 침입으로 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미국 항공부대에는 두 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

1938년 「오스카 웨스트오버」가 항공사고로 죽은 후 「해리·아놀드」대장이 육군 항공부대의 사령관이 되었고 39년 「존·타워즈」가 해군 항공부장에 취임하였다.

두 사람이 다 오랜동안 미군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인데 전에 「미첼」을 비롯한 항공장교들의 공군 강화론이 미국 방화책에 고려되지 못한 것을 특히 중시 액체화된 공군력 재건을 위해서 미 의회와 끈덕진 접촉과 설득 끝에 인원 및 항공기 정비비용 예산을 획득하였다.

세계 최초로 항공기를 만들고 항공기술을 높은 수준에 까지 끌어 올린 미국 시민들은 긴급사태에 대비 다시금 열강의 수준에 달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미국 항공부대의 수뇌부는 B-17 폭격기 제작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예산의 일부 삭감으로 그 완성이 늦어져 1937년에 첫 비행에 성공을 보았다.

「벤·아메리칸」항공회사와 영국 「임페리얼」항공회사는 1939년 초 대서양 횡단 여객수송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 당시 「벤·아메리칸」에서 쓰고 있던 여객기는 4발 「시콜스키」제 였는데

항속거리가 이보다 길고 보다 대형이고 튼튼한 「보잉」기를 여섯대 발주하고 있었다.

제2차 대전중 이들 민간 대형 수송기는 군에 징용되어 군 수송임부에 봉사하였다.

1939년경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은 독일이 공군력을 과도히 증강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불안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멧사 슈미트」기를 비롯하여 약간의 폭격기가 실전에 나타나 그 우수함을 과시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독일 공군의 급강하 폭격기는 피난민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도로 상공에 규칙적으로 나타나 급강하해서는 모든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하였고 또한 「왈소」지구에 소위 유탄폭격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철저한 공격을 받은 폴란드 공군은 작전불능에 빠져 한달도 못가서 독일에 항복하고 말았다.

다음해 「덴마크」에 침입한 독일군은 여객기를 개조한 J U 52 수송기의 대편대로 노르웨이에 채도, 다수의 무장부대를 공중투하, 낙하작전을 개시하였다.

숨돌릴 사이도 없이 화란에도 독일군이 낙하, 「폴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습전을 되풀이 함으로써 「노블담」시는 컷머미로 화하였던 것이다.

물란서도 항공기 준비가 충분치 못한 채 잠전하였고 영국으로부터 「하리케인」 전투기 원조를 받았을 뿐이었다.

1947년 5월 독일군은 전력을 기울여 「런던」에 집중공습을 개시, 동년 11월 「런던」은 소이탄 공격을 받고, 도시의 대부분은 다 타버린 최악의 한 밤을 지새게 되었다. 그 밤에 독군은 연속 파상공격을 날이 밝을 무렵까지 계속하였다.

독일의 「게팅」원수는 영국의 항공세력을 점멸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러나 그 승산은 여의치가 못했다.

독일군은 공중의 손해가 심내해졌던 관계로 영국군이 본토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구태여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스피드 화이어」나 「하리케인」같은 전투기가 무장면에서 독군 전투기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영국 전투기는 날개 전면에 발사속도가 기가 막히게 우수한 기관총 8정을 장비하고, 조종간 앞에 있는 스위치 하나로 동시에 발사되는 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 전투기는 무장면을 희생해서 속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급강하 목적으로 구라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JU-87 급강하 폭

격기도 고작 무장이라고는 전방에 2정 후방에 1정, 도합 3정에 불과하였다.

영국 공군은 다행이도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공군 자체는 물론 일반까지도 커다란 희생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공헌으로 말미암아 공군의 공적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항공 관제장교들이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레이다·스크린」에 배달된 격기의 내습을 경보하고, 「하리케인」이나 「스피드 화이어」의 요격을 명령하여 적의 행동반경을 좁혀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 공군의 정찰부대가 적어온 항공사진을 상세히 조사하는 사람들이다.

영국 폭격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독일군이 은폐하고 있는 군사목표를 판독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 사진해독에는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성을 가져 왔는데, 이를 말아 해치운 것은 공군 여군대원들로서, 독일군 유도탄 비밀공장이 공습으로 파괴되도록 하는데 공헌하였다.

영국 본토 폭격의 위협은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독일내의 V-1 V-2 유도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 왔으나 그의 공격력은 날이 갈수록 현저히 감퇴되어 갔다.

개전과 동시에 영국과 폴란드는 엄청난 숫자에 달하는 항공기와 그 엔진을 미국에 발주하였고, 더구나 영국은 폴란드의 끝까지 맡아서 1940년 초에는 미국 육해군용으로 제작한 항공기 6백대의 대여를 받았다.

미국의 항공공업은 삼시간에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갔다.

미 육군은 오랜 세월을 걸쳐 조종사가 정비사를 충분히 양성할 만한 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간학교에 원조를 의뢰해서 1940중반에는 17,000여명의 청년이 비행훈련학교에 입교하였고 또한 정부와의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정비학교에서도 30,000여명의 정비사가 양성되었다.

1941년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일본간에 긴장의 도가 심해져서 간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미 정부 내에서는 항공부대 이외는 방위력 강화의 압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미국 수뇌부는 동경과 「베를린」사이의 암호전보를 해독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암호는 1940년 말부터 모조리 해독되고 있었다) 일본이 공격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증잡았다.

12월 6일부터 일본 함대와 30척의 수송선단이 화관영토에 접근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동안에 폭격

기와 전투기를 반재한 항공모함과 구축함, 순양함으로 편성된 일본의 대주력함대가 베링해를 은밀히 남하, 미국 함대의 대부분이 집결하고 있던 「하와이」진주만을 향해서 항행하고 있었다.

12월 8일 일요일 먼동이 틀무렵 일본 항공기는 모함을 발진, 공격에 돌입, 드디어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전세계는 전쟁의 회오리바람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다.

12월 8일 하와이에 대한 일본의 제1격과 그로부터 2개월 후인 비올린 공군기지에서의 공습과 같은 잇달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소수였던 미국 공군기의 대부분은 전멸상태였다. 이같은 대타격을 받기 전 미국은 총계 9,000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00대는 해외기지에 분산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연습용으로 실전용 항공기는 겨우 1,000여대 정도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전산업은 전력을 다하여 생산을 계속하였다.

「보잉」항공회사는 B-17 폭격기를 개전 당시 월산 37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곧 월산 75대로 증가시켰다.

「콘베어」항공회사는 신형 폭격기 B-24 「리베이터」를 생산하였다.

1942년 초여름에 미군이 조종한 B-17

이 처음으로 불란서의 피점령지대에 있는 적 목표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주간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폭격기는 전투중 총탄에 맞아도 끄떡도 안해서 탑승원들은 모두 사기가 충천할 정도였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중요물자나 인원의 보급, 그리고 전투요원의 수송을 위해서 많은 수송기가 필요하였다.

육군이나 해군 모두가 이러한 요구에 응할 항공기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간 항공회사 비행기를 징용하게 되었다.

민간 항공회사는 그동안 300대에 가까운 수송기를 군용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4발기였다.

민간 항공회사에서 사용키 위해 새로 제작하는 수송기는 완성되자마자 호화스런 객석이나 방음장치 등은 그 측에서 제거된 채 정부의 항공수송사령부(ATC)나 해군의 이와 비슷한 기관에 앞을 다투어 징발되었던 것이다.

싸움은 횡수를 거듭할 수록, 반비베로 미국의 힘은 강해져 연합군은 자지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육군과 조종사의 훈련, 그리고 전차나 총포의 생산이라는 중래의 임무 이외에 미국은 1943년에는 90,000여대의 항공기

와 300,000대의 항공기용 발동기를 생산하였던 것이다.

1944년은 사상 유례없는 동향을 보여준 1년이었다.

거의 전세계의 하늘은 미국 군용기로 뒤덮였다.

7대양에 미국 함선이 깔려있고, 각국 지상군 가운데는 미군이 꼭 끼어 있었다.

5,000대 이상의 미제 항공기가 「알라스카」를 경유 소련으로 떠갔다.

소련 조종사들은 B-25, C-47, P-39 따위를 인수하였는데, 이들은 미국 정비사들의 마지막 정비와 점검을 끝낸 다음 「시베리아」항야를 날아 소련 전선에 운반되어 갔던 것이다.

그 밖에 「아프리카」나 「펠샤」란의 「바스타」를 경유 소련에 넘겨진 비행기도 있었다. 그해 봄 B-17, B-24가 독일 본토에 연일 주간폭격을 개시하였고, 이 무렵부터 「산다볼트」 「라이트닝」 「무스탕」같은 전투기가 “진다리”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무스탕」은 독일 공격을 위해서 900여마일이나 비행하면서 폭격기대를 엄호하였다.

1945년 4월부터 일본군은 소위 가미가세 특별공격대의 수법으로 작전을 바꾸어 연합군의 함대사령관들을 당황케 하였다.

이는 독일의 V-1과 흡사했으나 인간

이 조종한다는 점에서 틀릴 따름이었다.

1945년 늦은 여름에는 「테니안」섬을 기지로 하는 B-29의 한 부대가 정밀한 폭격연습을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었다.

얼마후 이들에 의해 일본 유수의 공업 도시인 히로시마는 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았고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8월 10일 일본은 드디어 종전신청을 연합국에 하였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끝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1943년은 대전중이었기 때문에 항공기 탄생 40주년은 거의 주의하는 사람없이 지나갔던 것이다.

당시까지 생존하고 있던 「라이트」형제 중에 「오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그들이 이 기계를 발명한 것을 몹시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것은 2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비행기는 무서운 병기로 발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차전 후 가장 필독한 만한 발전은 제트엔진의 출현이었다.

1941년 미국의 「아놀드」대장은 영국을 방문하여 전시중 군용항공력을 시찰하였는데, 그때 영국에서는 제트기가 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보고 깜짝놀랐다.

그때 독일에도 이와 비슷한 비행체가

상당히 개발되어 있다는 정보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급히 영국 항공생산성에서 제트기관에 관한 청사진과 사양서를 가지고 급거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곧 특수 기체제작은 「벤」 항공기 회사에, 엔진은 「제네랄-일렉트릭」 회사에 엄중한 기밀보저 조건 하에 각기 제작을 의뢰하였다.

「아놀드」대장은 중량이 불과 650파운드 밖에 안되는 「호이틀」엔진이 1650파운드나 되는 「몰스·로이스·마틴」발동기 보다 출력이 크고, 가동부분이 20%나 적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후랭크·호이틀」은 영국군 장교로서 생도시절에 제트엔진에 관한 논문을 쓴 바 있는데, 1941년 5월 14일 「그로스타」단엽기에 그의 이론대로 제작한 제트엔진을 달고 역사적인 처녀비행을 하였다.

1945년 3월 「아놀드」대장은 독일 공군 중위가 독일의 ME-262 쌍발 제트기를 몰고 연합군측에 투항해와 제트기가 실전에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 최초의 제트기 「에러·코메트」는 1942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비행하였는데, 독일이 항복한 후 미국의 기술자들은 독일의 제트 전문가의 원조로 몇종의 실험기를 제작하였다.

해군과 육군에서 독립한 공군은, 그의

독립과 더불어 제트 추진으로 전환을 개시하였다.

점차 피스톤식의 항공기는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제트기와 제트기의 공중전이 한국 동란중인 1950년 11월 8일 한탄 국경부근 고도 40,000피트 상공에서 사상 최초로 행해졌다.

미 공군의 「세이버」제트전투기가 「미그」-15 소련제 전투기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 12:1이라는 격추율을 보여 주었다.

제트기가 실용화된지 20여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비참한 교훈을 안겨준 전쟁중 얻은 제트기의 약점이나 경험에 비추어 그후 많은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져, 신속 정확하며 믿을 만한 확실한 안전도를 갖춘 초대형 호화관 제트수송용객기가 세계 각처로 거미줄같이 뻗힌 항로를 누비고 다니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역시 제트화되어 미래로 줄달음질 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키티·호크」에서 「라이어트」형제가 어썬 비행체로 목장주위를 난 이태, 인간의 무한한 불가지의 지적 의지는 바야흐로 우주로 향해 힘찬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우리 인간들의 여행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습관은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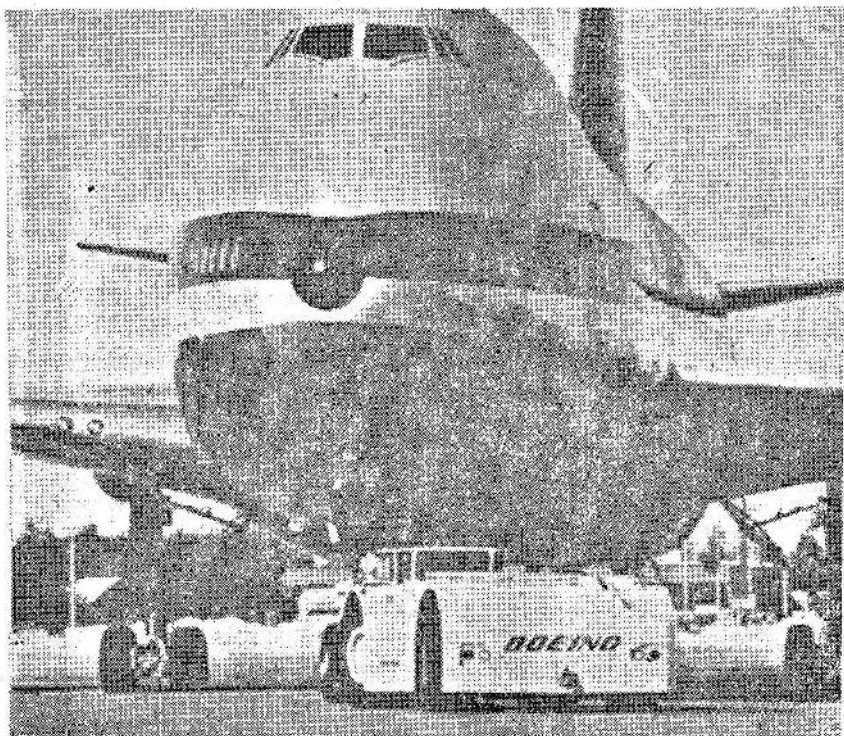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20년전만해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비행은 장거리와 단거리 비행이 상업적으로 전업화되고, 사용하는 항공기도 자연 별개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피스톤식 엔진이 제트로 거다 전환되어 항공기의 속도도 월등히 향상되었으나, 비행기를 보다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비행시킬 새로운 방식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

어느 항공계 원로의 말처럼, 금후 항공 설계기술을 포함한 모든 항공능력이 좀 더 진보한다면, 원자력을 이용한 비행기의 출현도 멀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의 꿈을 버리지 못한채 수많은 희생물 바친 인간이 종내는 그들 멸망의 위험에 까지 영향을 줄 비행체의 개발에 손을 대고 있으나 그러나 한 가지 사실 즉 진보는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거듭되어 왔다는 사실만은 명백하다.





<보잉 747의 거대한 모습>

보잉 747의 전모

—대량 수송시대를 주름잡는 초대형 여객기—

이 규 홍 <역>

'70년 1월초, 세계항공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초대형여객기 보잉 747은 드디어 대량 수송시대의 꺾목할만한 피

치를 올리게 되었다. 여기 동기의 전모를 살펴보자.

<필자 주>

◇ 스트레치 경쟁

1964년경 미국의 민간 항공업계에서는 장거리 제트여객기의 생산도 안정기를 맞아 차차로 위축상태에 들어 갔다.

한편, 727, DC-9, 드라이벳 등에 의한 단거리 제트여객기의 시장획득 경쟁도 일단락함으로써 각 항공기 생산자들은 새로운 수요자를 구하고, 자기 독자여객기 수요 예측에 의하여 기체의 대형화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기성의 기체의 동체만을 늘려서 대형화하는 다시 말해서 스트레치형 장동형(長胴型), 또는 동체연장형(胴體延長型)의 계획이 생겼다.

단거리 제트기체에 있어서의 스트레치화는 항공기 생산자간에 특히 새로운 매각경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자기마다 순조롭게 무리없이 실현시켜 나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727-200과 DC-9-30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장거리 제트기체(界)에 있어서의 스트레치형의 개발은 보잉사(社)와 더그라스사(社) (현재의 맥다넬·더그라스사)간에 경쟁을 하고 있다.

양 회사가 모두 차기 개발기종으로서 200내지 250인정도의 비행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더그라스사에서는 지난 64년 중간기부터 DC-8-55를 기초로 하여,

장동화(長胴化)하기도 하고, 익단을 늘리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엔진으로 환장(換裝)하기도 했다. -60, -70, -80의 각 시리즈의 계획을 개시하고 있다.(이중-60시리즈 뿐이 -61, -62, -63으로써 실현되며, -70, 80의 계획은 취소되었다.)

보잉사에서도 이에 대항하려고 1964년 말부터 707-320을 기초로 하여 동체 및 주익을 스트레치 하였다.

-320X, -320Y, -320V 등을 계획하고, 각 항공회사에 그 의향을 타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DC-8-60 시리즈의 구체화가 빨랐다는 것, DC-8 보유의 항공회사가 기체의 대형화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대하여, 707을 사용하고 있었던 회사에서는 그 크기에 비하여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대형화의 계획이 중간에서 허트러지는 경향 등으로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했다.

1965년 4월에는 707-320의 동체를 13.7m 스트레치하여 260인승의 장거리형 707-820-50E와 16.8m 연장한 279인승으로 한 중거리 707-320-50E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팬·아메리칸과 트랜스·월드가 각각 약간의 흥미를 표시하였을 뿐 그 이상의 것은 얻을 수가 없었으며, 7월에 보잉사에서는 계획을 축소하여, -320의

동체를 2.5m 연장한 707-520과 9.1m를 연장한 707-620을 가지고 제작하였으나 수요가 없어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새로운 초대형기

이해에는 미공군용 대형수송기 CX-HLS(후에 C-5A가 되다)의 계획이 발표되어, 여기에 보잉사도 참가하여, 로키드사, 더그라스사와 경쟁하였으나 동년 10월, 이 계획은 로키드사의 담당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당시 민간 수송기계의 장래의 전망으로서 장거리 노선의 여객은 SST, 화물운송은 웨이로드 100톤급의 아음속 제트기로 운항되며,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현재 국제선에 취항하고 있는 DC-8이나 707의 기재와 그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300인승 정도의 운항비가 싼 에어버스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이 아음속의 장거리 대형여객기는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보잉사로서는, SST 또는 에어버스를 개척하는 외에 다른 무엇을 만들어야 할 기재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양 기종이 다같이 1973~75년경에는 출현될 것이 예상되어 그때까지는 707-320과 727-200, 737-200 등의 수요

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여기서 64년 11월에 이르러 보잉사로서는 사운을 절고 그 때까지 생각지 않았던 707과 SST사이를 메우는 새로운 카테고리인 초대형 아음속 제트여객기의 개발을 목표로하여, 팬·아메리칸의 협력을 얻어 수요를 환기시키는 한편, C-X연구설계의 경험을 살려서 300~400인승의 새로운 기종 747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747의 설계목표는 현용 제트여객기보다도 높은 고도를 빠르게, 대량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팬·아메리칸의 의욕이며,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 대서양선을 생각한데서 연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서양 횡단노선에서는 항공회사 취항 항공기 수가 많으며, 특히 취항시간의 이용이 많은 아침 저녁의 2~3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사보다도 조금이라도 빨리 비행할 수 있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즉 혼잡을 이루고 있는 현용 제트기의 비행고도를 피하여 그보다 더 높은 고도를 비행하여 고속화 함으로써 새로운 이점을 생각한 점이다. (동일 고도를 동방향으로 비행할 경우 앞에 가는 비행기를 자동차와 같이 노선을 변경하여 앞지를 수는 없다.)

이때문에 운용고도한계 13,700m, 최대순항 마하 수는 0.9로서 현용의 공항이 충분히 이용되어 특히 운항비가 현용기보다 20~30%정도 싸게 될 것을 설계의 목표로 하였다.

처음에 고안된 것이 747-3-4-5라고 불리우는 3종류였다.

어느 것이나 객실이 상·하 2단으로 되어 있다. 즉 2단계식의 좌석이 7열~8열로 배치되고 있다.

스트라트그루사를 커다랗게 한것과 같은 감을 주는 기체이며, 최대이륙 중량에서 이륙 활주로로 길이 2,440m, 최대 착륙중량에서의 착륙활주로장 1,580m, 항속거리 5,100nm(케이로트만 제한것으로서)의 성능을 보유하는 기체이다.

형식 747-4, 747-3, 747-5

승객 311 363 433

최대이륙 중량(kg) 220,000 241,000 272,000

엔진 추력(kg) 14,700 15,800 18,600

12월이 되려는 이로부터 3기중에 대한 항공회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수정하였다.

역시 2단계식의 747-136(최대이륙중량 271,000kg, 승객 435명)의 2기종이 발표되었다.

그후 다시 계획이 수정되어 747-151-152, -153의 3종의 2단계식과 조종석의

부분만을 2단계로 한-154가 발표되어 66년 1월에 비로소 747의 기본형으로서 154형이 선정되었다.

-154는 전장 70.1m, 전폭 55.1m로서 주익은 40°의 후퇴각을 갖고 있으며, 고도 10,000m를 음속 0.9로서 순항하며, 운용고도한계 13,600m, 승객 381명을 싣고 항속거리 약 5,200nm의 현용형에 가까운 형태의 기체이었다.

◇ 기본형의 선정

747의 기본형태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1. 객실에 있어서는 좌석폭이나 통로의 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보다 넓으며, 3인이 한 자리 앉는 식은 피했다.
2. 화물수송거리의 전용을 고려하여 천정을 높이하였다.(천정의 크기는 높이 2.43m×폭 2.43m)
3. 비상탈출시에 대한 배려.
4. 여객형이라고 그리지만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한 것.
5. 장래 스트레치할 경우에 있어서 유리한 형태라는 것 등이다.

-154가 선택된 것은 조종석만이 2층으로 되어 있을 뿐, 즉 객실에 관해서는 1층이며 긴급탈출시에는 「전원이 90초 이내에 탈출할 수 있을 것」의 법규를 만족시켜 줄 것. 2층으로 하면 승객 수에 비

해 크기를 적게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장래에 스트레치할 때에 유리한 이점은 있으나, 화물실이 작아지며, 화물을 실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결점이라 할 수 있다.

747의 엔진은 추력 18,000kg 급이며, 고도 10,000m를 마하 0.9로서 순항할 때 4,000kg의 추력을 낼 수 있는 것이 설계의 요점이었다.

당시 747에 탑재하려고 생각했었던 엔진으로서 P & W JTF-14E, GE.1/6, RR. RB.178-51이 있었다.

이중에서 747대형화와 엔진추력증가의 속도관계 등에서 P & W. JTF-14E의 개발형인 JT9D가 66년 3월에 선정되었다.

이때 발표된 JT9D 엔진의 사양을 보면 최대정지추력 18,550kg, 최대순항추력 4,000kg(고도 10,000m, 순항마하수 0.9으로) 직경 2.48m, 전장 3.18m, 중량 3,530kg, 연료소비율은 현용엔진에 비하여 23%가 적다.

747이 여객형의 설계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화물탑재방식, 탑재능력이 중시된 것은 다음 이유에 의한 것이다.

1965~66년 당시의 견해로서는 장래 장거리 여객기는 모두 SST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히 그것이 1971년에 큰 코오드가 1973년에는 미국의 SST가 자

각 취항할 것으로 보아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실현이 예상되어 747이 실현된 70년과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다.

최근의 대형 제트수송기에 있어서는 그 수명을 10년 또는 3만비행시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747이 취항하여 4~5년 후에 SST시대로 되었을 때에는 비록 값싼 운임이라 하더라도 여객기로서의 747 수요는 없어질 것이며, 자연 747은 퇴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대책으로서 그 때에 가서는 화물기로서 전용한다는 생각에서 비록 현재 여객기라고 하지만 일차 구조는 화물형과 동등한 강도를 유지하겠음 했다.

◇ 드디어 생산 착수

이와같이 여러 번전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747의 개발계획은 66년 2월 중에 형식사양시틀 완성하고 각 항공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써 50기의 발주요청이 있으면 생산에 착수할 것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항공회사측에서도 처음에는 주저하였으나 벨·아메리칸이 25기 발주, 10기를 발주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루프트한사, 일본항공 등에서 계 49기를 발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므로 66년 7월에 생산결정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일호기의 불·아우트는 68년 10월 1일, 초비행은 12월중, 시험비행은 5기로써 하고 형식 증명취득은 69년 10월 15일, 그리고 그날까지 20기를 완성시켜 증명취득과 동시에 인도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형식사양서 작성시에 있어서 이 비행기의 총 중량은 281,000kg, 381인승이며, 5,200nm을 날을 것이었으나 실제 생산결정시에는 총 중량은 309,000kg로써, 기체의 외형도 다소 커졌으며, 주익후퇴각도 40°에서 37.5°로 줄고, HF 안테나가 주익양익단에 장착되어, 조종석 후방의 정형부도 후방으로 늘어났으며, 형상이 개선되었다. 여객형에서는 일등석(6열배치)과 에코노미석(9열배치)의 표준좌석 배치로서 366석, 10열배치의 울·에코노미의 경우 490석으로 되었다.

또한 조종석후방의 정형부를 이용하여 여기에 특별실을 설치하고 승객 8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747은 여객형 외에 전술한 화물형이 고려되고 있으며, 747F(Freighter라는 뜻)라고 호칭된다.

이것은 기수에 바이시형식의 커다란 화물취급문이 있으며, 2.4m×2.4m×3.2m의 콘티나 28개를 주화물실에, 자리밀 화물실에는 콘티나 15개와 28.3m³의 용적에 화물을 실을 수 있어 총 적

재용적은 약 675m³, 중량은 약 104톤을 실을 수 있다. 여기에 비교하여 DC-8F-55의 전화물 용적은 약 164m³, 중량은 약 26톤이므로 747F는 DC-8F의 4기분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747C(Convertible의 뜻)라고 하는 화물-여객변환형도 고려되었다.

◇ 시작기의 개발·시작(試作)

747기의 개발, 생산에 있어서는 더그라스사가 DC-9의 생산에 있어서 채용한 똑같은 하청회사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하였다.

이것은 하청회사의 기술진을 이용함으로써 시설확장 등에 부리한 출자를 방지하며, 생산가격의 인하를 위해 취해진 수단이다.

즉 웨어차일드·힐러, LTV, 노스롭 등등의 하청회사인 6개사에 대하여 기체중량의 65%이상의 부분이 세부설계와 제작을 하게 하며, 결국 큰집적인 보잉사에서는 기수 부분의 생산과 총 조립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비행기의 구체적인 개발작업은 생산 결정과 전후하여 클래스 1 모캄(조종석이나 객실의 개념을 알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적인 것)의 제작부터 시작되었으며, 계속하여 클래스 2 모캄이 만들어졌다.

부품의 제작은 66년 12월에서 개시되

있다. 67년 3월경에는 설계도도 30%정도 완성, 6월부터는 부품의 소조립이 시작되었다.

이들 부품은 클래스 3 모캡이라고 불리어지는 실기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전체 금속제 모캡으로서, 장착방식, 정비성, 기타의 부품이 세밀히 조사되었다.

9월에는 동체와 주익 등의 커다란 부품의 조립이 개시되었다. 67년 가을에는 설계도도 90%정도 완성하였으며, 68년 봄에는 도면 등은 거의 완성, 6월부터는 총 조립이 개시되었다.

이들 일련의 작업은 도중주익과 동체의 결합작업중에 주익을 바치고 있던 작기는 제거되었고, 양익에 구멍을 뚫는 사고가 있어, 일정을 1주간씩이나 늦추는 사태도 발생하였으나 전체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1호기의 물·아우트로 거꾸로 예정인보다 빠르게 68년 9월 30일에 성대하게 행하여 졌다.

◇ 5기에 의한 시험비행

1호기의 초비행은, 라이트형제가 초비행에 성공해서부터 꼭 65년에 해당하는 68년 12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체와 제작 기기의 기능시험 등에 예상외로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2개월이 걸린 69년 2월 9일에 억지로 실시되었다.

초비행에 있어서는 저속비행 시험중에 플랩의 기구에 진동이 생기므로 해서 예정보다 빨리 착륙을 하였으나, 일반 비행특성은 양호하였다. 비행 시험용으로서 1호기를 포함하여 계 5기(이중 1호기는 예에 의하여 보잉사의 사유기(社有機)지만 2~4호기는 팬·아메리칸, 5호기는 트랜스·월드(의 기체)로 되었으나 그의 4기도 1호기의 지연으로 인해 완성이 다소 늦어져 결국은 형식증명취득의 예정과 기체인도의 예정까지도 늦게 하였다.

이 5기에 의한 비행시험은 1,377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후에 다시 1,585시간으로 증가되었으나 다시 검토되어 1,368시간으로 줄었다.

각기의 주요시험 요목은 다음과 같다.

1호기; 일반비행성능, 홀라터 작 장치의 일반기능.

2호기; 엔진성능, 이착륙성능.

3호기; 비행하중추정, 비행특성 전기계통.

4호기; 기능부품의 신뢰성, 항법, 통신기기의 기능.

5호기; 관성항법장치, 연료계통으로 되어 있다. 다시 69년 11월 초까지도 이 5기에 의하여 총 비행시간 1,080시간의 비행시험이 행해져 보잉사로서의 시험항목

은 거의 끝나고 나머지는 주로 FAA에서 요구된 시험항목이었다.

공시기(供試機)로서는 이외에 강도시험용, 피로시험용에 각각 1기가 만들어져 시험을 하였다.

이 비행기의 양산은 70년 4월경부터는 월산 7기에, 9월에는 월산 9기로 증가되며, 72년 말경에는 200기, 75년말까지는 400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되었다.

◇ 문제가 된 중량증가(重量增加)

개발의 초기와 1호기의 생산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개발 중간기부터 후기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계획이 늦어져, 보잉사를 재정적으로도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

문제는 우선 중량예측이 틀리는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초설계도 굳어져 생산도면이 완성된 66년말부터 기체중량의 예측이 틀려 67년 1월에 20% 정도의 도면이 완성된 시기에 중량의 재검토를 한 결과, 예정자 중의 10%에 상당하는 약 15,000kg에 달하는 중량추정에서 기인되는 자중 증가가 예측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예측 차이에는 기체가 대형화함에 있어서 종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개소에 서 의외로 중량이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천정(天井)이다. 종래의 기체의 경우에는 동체도가늘고, 천정의 무게가 적었으나, 747의 경우에는 천정이 커서 자연 이에 따른 하중을 받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동체 플랩과 천정과는 제법 긴 자제로써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이 부분이 중량증가의 일원인이 되었다.

그외에도 여하튼 커다란 기체인만큼 밑바닥에 깔려있는 판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한 중량을 갖고 있어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량을 차지하게 된다.

이 결과에서 놀래지 않을 수 없는 보잉사에서는 엄중한 중량관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단 하나의 기체에까지도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결과 67년 4월말까지 10,000kg의 중량경감에 성공하였다.

계속 노력한 결과 동년 10월에 가서는 또 다시 2,500kg을 경감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2,500kg의 중량증가분은 근본적인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어서 보잉사에서는 이 문제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그대신 만 곳을 조정하여 최대중량을 13,600kg을 올려서 322,000kg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하므로 해서 자중증가가 없었던 때와 같은 정도의 페이로드 및

항속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대이륙 중량의 증가에 의하여 중량의 엔진추력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보잉은 P & W에 엔진의 추력강화를 요구하여, JT9D-1(추력 18,600kg)을 추력 19,050kg으로 늘려, 또 다시 JT9D-3(추력 19,700kg)으로 개량하였다. 또한 필요에 있어서는 JT9D-3을 물분사식으로 추력을 20,500kg으로 한 JT9D-3W을 장착할 수 있도록 물분사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물분사장치는 물을 연료 노즐의 주위에서 1분간에 150l를 분사하여 터어빈 입구 온도를 내려, 그 온도강하의 분만큼 나머지 연료를 넣어서 추력을 얻는 것인데, 이 때문에 플랭크(600G/L)는 동체내의 중앙익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파이프를 통하여 각 엔진으로 들어가고 있다. 1회에 사용되는 수량은 약 1,360kg이다.

팬·아메리칸의 기체는 이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이 중량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성능을 저하시키기까지 했다.

즉 본기의 설계목표로써 고속순항, 고고도순항이며 이때문에 운용한계 마하수는 현용의 제트여객기보다도 빠른 마하 0.90으로서 여압능력도 현용기보다 1,500m나 더 높은 고도 13,700m까지 날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체의 대형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행해져, 엔진의 개발이 여기 따라가지 못하므로 기체의 능력을 부득이 발휘시킬 수 없어 순항마하 수도 0.86정도로 현용기보다 0.02~0.04 빠른 정도로 고도는 오히려 현용기보다 저하된 점이 있다.

◇ 747의 B. C. F

보잉 747에는 여객형 외에 화객양용의 747C, 화물전용의 747F가 계획되어, 조수의 발주신청이 있었으나, 증량증가의 문제로부터 그 채산관계가 문제가 되어 발주를 취소하는 회사도 많았다. C-5A의 민간형인 L-500의 개발이 구체화됨에 따라 보잉사로서도 이상태로서는 747 C.F는 좋지 못할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의 증량증가형의 계획이 구체화되기까지 계획을 늦추기로 하였다.

1968년 10월에 747의 증량증가형으로서, JT9D-7W(추력 21,300kg)로서 최대이륙 중량 351,000kg의 747 B를 발표하였다.

이 기체는 외형 크기에 있어서는 747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나 기체구조 각부가 보강되어 전연의 플랩이 다소 달라졌다.

747 B의 발표와 동시에 이륙중량 뿐 아니라 최대착륙 중량을 285,000kg, 최대

무연료 중량을 262, 000kg으로한 새로운 747CF도 발표하였다.

747B는 71년도에는 실용기로 될 기체이나 JT9D-7W엔진이 뒤따르지 못하여 처음에는 JT9D-W로서 대응되어 그때는 이륙성능상의 요구에서, 최대이륙 중량은 337,000kg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콘코코드 B 2707의 계획 지연에 의해서 747도 여객형으로도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서 항공화물시장도 그 수요가 급속적으로 늘어, 장래는 상당량의 화물편의 운항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져도 과연 747F를 다량 도입하여서도 채산이 맞을까 하는 것은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지금의 경우는 747C.F의 발주가 적고, 그 수요를 환기시키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747도 이 이상 기종이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호종이 복잡해지며, 그 구별이 어려워지므로 최근에 있어서는 보잉의 통례에 따라 -100시리즈 또는 -200시리즈라고 표현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종래의 747은 747-100이며, 중량증가형의 747B.C.F는 각각 747-200F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 동체의 부피는 폭이 6.5m

폭이 6.5m나 되는 동체는 조종석과

라운지가 있는 상단, 객실이 늘어선 1단 그 밑에 있는 화물실로 각각 3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층의 조종석은 지상에서 약 8.5m의 높이에 있으며 커다란 폭면 유리의 풍방장치가 있는 외에 좌우로 2장의 창에 의하여 전망이 좋게 되어 있다.

이들 창문은 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고속비행중에 바람을 타는 소리가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구조는 풍방유리가 더러워져도 조종석에서 닦아낼 수 없어 밖으로 풍방담기 고무에 의하여 닦아냄으로 불편한 점도 다소 있다.

거인기 이므로 조종석을 큼직하게 편안 하도록 할만하기도 하거나와 천정을 높게 한단든지 폭을 넓게 하면 저항증가가 많으므로 현용기보다 오히려 좁은 감이 있다.

조종석 후방은 처음에는 단순히 정형의 복저만으로 설치되었으나 저항감소를 위해 조금씩 늘리다보니 공간이 생기게 되어, 이 공간을 8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어 이곳을 들로 나누어 특별시 또는 라운지로 이용하게 되었다.

객실은 다섯 개로 나누어져 각각 객실의 양 측에는 어른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서 출입할 수 있는 폭의 승강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는 A형비상구로서 90초간에 100명의 인원이 비상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객실은 천정까지가 2.5m이며, 동체는 일구획이 4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종래의 비행기와 같이 터널 속의 기분은 전혀 없다. 양쪽으로 있는 통로도 각각 높아졌으며 좌석은 6열과 9열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비행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은 727과 비슷하다.

◇ 유압장치는 4 계통

공기조화장치는 엔진의 압축공기를 이용한 에어·사이클 방식으로 3조의 장치로 되어 있다. 객실내의 공기조화는 객실을 넷으로 나누어 거기서 독립한 온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다.

유압장치는 각 엔진으로 가동하여 4개의 펌프와 엔진에서의 압축공기로써 가동되는 4개의 펌프에 의하여 4개의 독립한 계통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날개, 스포라이, 후연 플랩, 랜딩의 인입, 브레이크 등의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

특히 보조익, 방향타, 승강타는 이 4개의 계통이 상호 조합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비행기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 한 쪽 날개가 떨

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유압이 없어지지 않겠음 고안되고 있다.

연료탱크는 주익내에 있으며 모두가 인베구란·탱크이다.

탱크는 5개의 주탱크와 2개의 예비탱크로 되어 있으며, 총 용량은 47,210 G/L이다 (747-200은 51,000 G/L으로 되어 있음).

승객에 대한 오락설비로서는 스트레오의 오디오 장치가 각 의자에 있으며, 이어폰에 의해 좋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영화상영도 할 수 있도록 기본 사양에서 고려되고 있으며 여러 항공회사가 이를 채용하고 있다.

승객에의 안내 등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녹음테이프에 의하여 방송되며 또한 승원간의 연락은 다이얼이 붙은 전화기와 같이 되어 있으며 기장과 스투어 디스칸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혁신적인 관성항법장치

항법·통신관계에서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극히 최근까지 미국의 군사상의 기밀로서 민간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종래의 항법이 무엇인가의 형태로서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는 등 자

자기(地磁氣)에 의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이 장치에서는 자이로의 특성을 이용하여 우주공간에 대하여 일정한 평면을 구성하여 이 위에 전후, 상하, 좌우의 삼축방향(3軸方向)의 가속도계를 싣고 출발에 있어서의 초기조건을 컴퓨터에 기억시켜 놓으면 다음은 이 가속도계만을 읽어가면 자기의 위치 속도의 정확성을 알 수 있게 된다.

전에 파리에서 개최된 항공전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시아틀에서 파리까지 직행한 727의 4호기는, 이 항법에 의하여 대권(大圈)코오스를 비행하였는 바 이때 오차는 불과 수마일에 지나지 않았다.

현용기에서의 장거리통신은 단파로써 행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전리층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잡음이 많은 것이 결점이다.

한편 초단파에서는 그 성질상 통신가능한 범위가 좁으며, 장거리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결점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함으로써, 초단파무선에 의한 장거리통신이 가능하게 되며, 통신의 확실도도 향상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항공통신의 위성통신이 용에 관하여 국제간의 협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준비 등의 관계에서 747에 있어서는 운항 초부터의 이용

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러 항공회사에서는 장거리통신용에 중태와 같은 단파무선을 장비하고 있다.

이외에 기상레이더의 2중장비, 자동차중량 및 중심위치, 측정장치, 기상레이더 기록장치 등 기계가 대형화한데서 기계의 불비에 의한 취항률의 저하를 극력 줄이기 위해, 현용기 이상에 이중 삼중의 장비를 행하고 있다.

또한 그 안전성에는 충분한 배려가 배 있으며, 객실내의 장비품, 벽, 커튼 등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 격심한 대량수송시대로

점보·제트의 선봉으로써 출현한 것은 747이나 그후 보다 새로운 장치를 장비한 DC-10, L-1011 등에 발을 묶이어 최근에는 발주가 완전히 정지상태에 있다.

현재 747의 생산주문량은 28개의 항공회사에서 총 189기이다.

이미 태평양횡단 처녀비행에 성공, 취항을 하고 있는 동기는 70년 중간기에는 태평양 선상에 취항할 예정이다.

새로운 거인기의 취항에 의하여 세계의 주요 로선이 또다시 격렬한 경쟁시대로 돌입할 것이나 차차로 세계 각국이 거인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량 동시수송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 예견된다.

랑그레이의 꿈

—항공에의 불길같은 집념 속에

일생을 보낸 한 천문학자의 실험기—

최 실험 택 <역>

이곳 저곳에 굽지한 바윗돌이 우뚝 우뚝 솟은 「버어지니아」주 「콘티코」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초파왕식」섬 해변가에는 덩석부리같은 두 늙은이가 흥분된 보조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옥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물 위에 떠 있는 조그마한 배 위에 설치된 이상한 기계만을 훑어 저게 쳐다 볼 뿐이었다.

1896년 5월 6일 정오로부터 조금 지난 때였다. 「포트맥」 해변을 스쳐 불어오는 5월의 훈훈한 바람으로 삼방면이 옥저로 둘러싸인 오목한 「콘티코」항의 물결은 실사이 없이 출렁이고 있었다. 「사무엘·랑그레이」교수는 배가 가까이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의 옆에는 가장 다정한 친구인 「알렉산더·구라함·벨」박사가 별로 크지 않은 현대의 카메라를 꼭 쥐고 서 있다.

「벨」박사는 지금 세계 최초의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하는 기계」가 하늘을 나는 역사적인 찰나를 촬영하려고 노리고 서 있는 것이다.

『여보게, 「셀」 이번에는 날게 될 것 같나?』 「벨」교수는 나직히 물었다.

49세가 되던 해 그가 발명한 전화의 특허권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은 「벨」박사였지만 당년 62세의 「스미즈 소니안」연구소 기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말없는 한 사람의 과학자였다.

『그건 또 왜 묻나?』 「랑그레이」교수는 의외의 질문이었다는 듯이 힐끗 돌아보면서 표정없이 한마디 던졌다.

『나는 실패하는 꼴을 보여주려고 자네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닐세』 「벨」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곱방대 나는 「스미즈소

니안」 연구소 뒷 골방에서 훈풍주우
오르자 「비행하는 기계」 연구에만 정
열을 바쳐온 「라그레이」교수는 지난날
10년 동안의 피와 땀으로 엮어진 눈물
어린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라그레이」교수에
게는 이 「비행기」의 연구야말로 버릴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의무로 화하였
던 것이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과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도 오직
그의 가슴 속에는 19세기의 푸른 하늘
을 정복해 보리라는 야망만이 화산처
럼 불길을 뿜고 있었다.

「라그레이」는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오후 1시 5분. 거선의 기관처럼 마구
고동치는 가슴을 건잡을 수도 없이 그
는 두 손을 둥글게 모아 입을 대었다.

「발동기 시동」 건너편 언덕에 서 있
는 「라그레이」의 배는 위에 대기하고
있는 두 사람의 조수에게 고향쳤다.

「라그레이」의 개인연구소 책임자로
있는 「리드」와 「몰트버」는 이 비행기
를 띄우기 위하여 배 위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그레이」교수는 물론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제조한 장본인
이겠지만 소형의 아담한 1마력 남짓
한 발동기를 기적적으로 제작한 것은
전혀 「몰트버」의 뛰어난 기량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장구한 시일에 걸친 일련의
실험의 결과 발전된 「에어러트롬·제
6호」인데 희랍어로 말하면 「공중을
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마치 괴물과도 같고 잠자리와도 같
은 세계 최초의 비행기 「에어러트롬」
은 배 위에 부실된 짧은 「카타팔트」케
도 위에 안치되었다.

케도에 걸린 강한 「스프링」이 괴물
처럼 생긴 비행기를 바람부는 쪽으로
힘차게 밀어 줄 것이다.

이 비행기는 풍향을 따라 나는 것
이 가장 유효하리 만큼 자유자재로 풍
향을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박
이 「에어러트롬」의 발사장(원주)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몰트버」는 제팔
리 몸을 앞으로 구부리며 기민한 동작
으로 성냥불을 켜다.

그러나 증기기관 밑바닥에 있는 내
연장치에 성냥불을 대려던 「몰트버」는
웬 영문인지 고개를 돌리며 미웃거리
고 있다.

그러자 「라그레이」는 참을 수 없다
는 듯이

『이 녀석아! 빨리 불을 붙여』라고
고함을 친다.

『꼭발될 것 같아 그렇게 겁을 낸단
말이냐』

그럴 때였다. 때마침 불어온 일진의

< 랑그레이의 꿈 >

물풍이 성냥불을 훑듯 꺼버렸다.

「랑그레이」는 화가 난듯한 표정으로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였다.

「저놈의 기계가 하늘을 날은다면」 윌라드·호텔」에 가서 한턱을 내겠네」 긴장에 싸인 침묵을 깨뜨리고 「벨」 박사가 꺾꺾대고 웃었다.

「나는 내기를 할줄 모르는 사람일세」 「랑그레이」교수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콜트버」는 조금 후에 또 다른 성냥불을 켜다. 휘발유에 불이 붙자 들연 새빨간 불꽃이 번쩍 일어났다.

「콜트버」는 주춤하며 두서너 걸음 뒤로 물러섰다.

「「리드」군 프로펠러를 잘 체크해 보게」 「랑그레이」는 조조하였다.

작동하는 발동기의 웅장한 소리가 주변을 흔들기 시작하자 「카타팔트」케드의 발사기가 스프르 풀려진다.

「날은다!」 「벨」박사가 소리쳤다.

이와 동시에 그가 가진 카메라의 렌즈는 하늘을 날르는 괴물을 포착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중 순간 상공에 높이 뜬 비행기는 마치 날개가 부러진 종달새처럼 상공에서 마구 덩굴면서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실로 눈깜짝할 사이도 없이 10년동안의 공든 비행기는 최

후를 슬퍼하는 괴물의 마지막 신음처럼 애처로운 발동기의 소리만 물 위에 남긴 채 침묵하고 말았다. 「랑그레이」교수의 꿈은 기어코 출렁이는 파도와 더불어 흘러가는 듯 하였다.

이두 주머니에 손을 꼽고 있던 노 과학자 「랑그레이」는 아무말 없이 두턱두턱 앞을 향해 걸어갔다. 물론 「벨」박사는 「랑그레이」의 뒷모습만 쳐다볼 뿐이다. 조금 후에 「랑그레이」는 다시 되돌아왔다.

「도」실퍼로군」 「벨」박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피죽 웃었다. 그의 주름잡힌 이마에는 생뿔조차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무튼 신문기자들이 오지 않은 것만은 무척 섭섭하군」

「미안하네. 그렇지만……」

「랑그레이」교수의 어깨너머로 두팔을 걸치면서 「벨」박사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랑그레이」는 아무것도 듣기 싫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말 없이 물가에 있는 보오트 위에 올랐다. 그리고 큰 배로 건너 올랐다.

「카타팔트의 스프링이 비행기 풍지에 걸렸을지요」 두손을 부비면서 「리드」는 어쩔줄 몰라 미안해 하였다.

「염려할 것 없어 「에어로드롬 제 5호」는 어디 있나?」

『창고 안에 분해하여 넣어 두었읍지요』

『울반해 오개. 그리고 이번에는 좀더 조심해야 하네』

X X X

『자, 이사람아. 점심식사라도 해야지』 「랑그레이」가 먼저 제안하였다.

「벨」박사는 말없이 떠났다.

나직한 시골 음식점으로 인도된 「벨」박사는 담배관을 뚝뚝 빨면서 연기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랑그레이」 3년 전에 자네가 시카고에서 바람의 내부적 작용이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지』

『자네의 관점은 매우 정확하네』

「벨」박사는 「랑그레이」를 칭찬해 준다. 「랑그레이」교수는 빙그레 웃었다.

그는 하늘을 날으는 신비로운 비밀을 일념으로 추구해 온 그의 과거의 피어린 역사를 조용히 회상해 본다.

1886년이니까 바로 10년 전이었다. 「이스라엘·랑카스타」라고 불리는 새장수로부터 「에어브드롬」에 관한 영감을 받은 후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연구에 몰두하여 왔다. 그는 푸른 하늘을 거리낌없이 훨훨 날으는 새들을 끊임없이 통쾌하게 동경해 보았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랑그레이」의 마음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새가 어떻게 하여 하늘을 날으는 것인가를 끝내 규명하려는 결심으로 불타 올랐다. 새의 날개에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 동력이 있다는 것만은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는 어느날 수송기를 동력으로 사용한 회전하는 원판을 만들고 한 마리의 군함조(열대산의 맹렬한 새)를 실로 원판 위에 매달아서 어떻게 원판위를 뛰며 걸어가는 가를 살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랑그레이」박사는 『새들이 공중으로 날을지연정인간이 하늘을 날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한 「조셉·레·코트」교수의 학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랑그레이」교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될 수 있으면 그의 연구 결과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당시 벌써 「시몬·뉴콤」이라는 수학자는 다음과 같은 학설을 공포하였다.

X X X

「새와 같이 하늘을 날아 보려는 생각은 우리 인간의 선천적인 욕망이다. 우리는 요대의 수학자들이 원과 동면

적의 정방형을 구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욕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1893년 「랑그레이」의 비밀연구는 마침내 신문 기자들에게 탐지되었다. 그때 「랑그레이」교수는 「스미즈소니안」 연구소로 전직되어 온지 얼마되지 않은 때였다. 빌베처럼 배를 지어 모여든 신문기자들은 곱판내나는 뒤 골방에서 고무줄로 동력을 얻어 날으는 「비행기」(오늘날의 모형비행기와 같은것)를 장난감같이 만지고 있는 「랑그레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의외의 방문객들에게 「랑그레이」는 도리어 화를 벌컥 내면서 창문을 꼭 잠궈 버렸다. 이런 일이 있던 후 그는 침식도 변변히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는 결혼은 하지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며 해가 바뀌는 사이에도 그의 연구는 계속되었다.

끝내 그는 당시 세계제조업자들의 유일한 꿈이었던 가벼운 소형의 발동기 제조에 성공하였다. 다음 문제는 날개와 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최초의 「에어로드롬·제 1호」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최후의 제 5호가 남았을 뿐이다.

1896년 5월 6일 「랑그레이」의 몰사 조와 같은 의지와 신들지 않은 신념은

최후의 「에어로드롬·제 5호」로써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었다. 「랑그레이」와 「벨」교수는 배 위에 올라갔다. 「카타팔트」 조종사도 준비는 완료하였다고 한다. 부채살처럼 생긴 기체에 비단을 입힌 동체와 날개도 팽팽하였다. 「엔진」준비도 완료되었다.

오후 3시 조금 지났을 무렵이다. 그들은 소형의 발동기가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회전하는 모양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었다. 바람은 고요하였다.

『발사』 「랑그레이」는 소리쳤다. 「랑그레이」의 충현될 두 눈은 일순 바르르 경련을 일으켰었다.

「벨」박사는 또다시 해변가로 추락하는 비행기를 목격이나 하려는 듯이 그의 카메라를 목에 쳐 걸고 서 있었다.

이때다. 약간의 요동을 일으키던 기수를 앞으로 낮추며 물 위로 떨어지려던 「에어로드롬·제 5호」는 점점 기수를 위로 올리며 기적적으로 보기좋은 나선 비행을 한번 하고난 후 상공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 30, 40피트 된 구름과 같은 수증기를 미익으로부터 뿜으면서 하늘 위로 줄곧 상승하고만 있다. 흥분된 함성이 주변을 뒤흔들었다. 「벨」박사는 「랑그레이」교수의 어깨를 힘껏 껴

어당겼다. 「랑그레이」의 주름잡힌 눈에는 기쁨에 찬 눈물이 막을길 없이 불을 타고 흘러 내린다.

『기어코, 날으는군』 「랑그레이」는 다만 한마디 조용히 중얼거릴 뿐이었다. 「벨」박사는 그제서야 그의 카메라에 생각이 미쳤다. 아직까지 선회를 계속하고 있는 비행기에 거리를 맞추어 서터를 눌렀다. 이제 그는 서터를 누르는 것만이 그의 할 일이 아니었다. 「랑그레이」의 위대한 성공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그마한 「날으는 기계」는 잠시동안 기수를 끄덕이며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100피트 상공으로부터 부드러운 선회가 활공을 계속한 후 수면 위에 착수하였다.

4,300피트를 1분 49초에 비행하였다.

X X X

와싱턴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속에는 「랑그레이」 교수와 「벨」박사가 가져런히 앉아 있었다. 「벨」박사는 연필을 들고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다.

『그게 무엇인가?』 「랑그레이」는 「벨」박사에게 물었다.

『허 이사람아, 이것이 신문기자들에게 발표할 성명서일세. 이제 자네가 거둔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발표할 때

가 왔네』

『알렉산더 그라짓진 씨서 무얼해, 나는 다만 내가 끝없는 일에 끝장을 보았을 뿐이야. 나는 멀리 구라파로 장기여행을 잘 예정이야.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해썩해진 「랑그레이」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눈물겨운 연구에 지친 자국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세제는 「랑그레이」교수를 버리지 않는 않았다.

1898년 2월 16일 구라파 여행으로 부터 돌아온 그는 여장도 풀기 전에 새로운 충격에 부딪치게 되었다. 미국의 대서양 횡단 정기선 「메인」호가 하바나 항구에서 「스페인」군함에 의하여 격침되었다는 뉴스는 미국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국내 여론은 물끓듯 하였다. 분격찬 의회 의원들은 보복수단을 취할 것을 절대다수로 가결하였다.

이리하여 나어진 미국은 노련한 해상국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상태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이해 7월 미국군 통신참모장 「아돌프스·구리릭」대장이 「랑그레이」를 찾아왔다.

『「셀서」 나는 이제 방금 대통령을 만나 뵈고 오는 길ियो. 나는 대통령에게 당신이 균용비행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말하였소. 비행기 위에 사람이 타고 적의 전선과 후방을 정찰한 후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요, 「샘」씨는 어떻게 생각하오? 『그렇지만 「구리리」장군은 나의 환경을 잘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오?』 「랑그레이」는 정중히 말하였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한 사람의 늙은이요, 나는 이 두 눈으로 저 푸른 먼 나라만을 볼 줄 아는 천문학자입니다. 전쟁계획이란 나와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구리리」장군은 잠간동안 말머리를 잊었다. 그는 「랑그레이」라는 위인이 간청한다고 하여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샘」씨,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필요 없이 오늘날도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지금 「메인」호를 상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한 후 전구에 대한 여타가지 이야기로 그를 설득해 보았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오?』

『예, 내가 이제 말씀드리지요?』 「구리리」장군은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턱수염을 손등으로 두서너번 이리 저리 문지르고 난 후

『미국 육군의 통신 참모장으로서의 나는 지금 우리의 정세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랑그레이」교수의 눈은 군시에 심광처럼 번쩍 빛난다.

『「샘」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일전에 적진을 관측하기 위하여 관측병들을 조그마한 기구에 태워 「쿠우바」상공에 보내져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티아고」라는 작은 기구를 1개 가지고 있는데, 이 기구의 한쪽 끝에 노끈을 달아서 적진 부근의 밀림지대에서 우리 군인이 목숨을 내걸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리리」장군은 그 효과에 대하여서는 말할만한 자신이 없었다.

『「세퍼」장군은 이미 이 기구를 사용하여 「산티아고」함에 정박중인 「체루베라」제독 타하의 「스페인」함대를 탐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엘포소」상공에서는 격심한 적의 대공 포격을 받았읍니다. 우리 관측병의 보고에 의하면 「산·유안」교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미국군이 건설한 비밀 공격로까지 원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마침내 「랑그레이」교수는 「구리리」장군의 열변에 감복하였다.

『그러면 내가 제조할 「에어로트롬」이 적진 깊숙이 날아가서 아방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도 얻을 수 없던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구 많구요. 그뿐입니까. 그 비행기에 폭발물까지 적재하여 「채루베라」제독의 머리 위에 투하하여 깨끗이 불키실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형태는 극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 랑그레이」는 전쟁사상을 극도로 비난해 왔지만 그가 제조하는 「에어로드롬」이 세계의 평화를 쟁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필지도 모른다는 확신으로 마침내 「구리리」장군의 간청을 승락하였던 것이다.

즉시로 「랑그레이」교수는 「코벤」대학장 「B·H·더스턴」박사를 전화로 불렀다.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더스턴」학장의 특별 알선으로 「찰스·엔리」라는 젊은 기사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동년 12월 12일 미육군성 병참 및 요새위원회는 역사상 최초의 군용비행기 제작비로 「스미즈소니언」연구소에 5만불의 경비를 영달하였다.

똑같은 날 「랑그레이」교수는 뉴욕에 있는 발동기 제조업자에게 무게 100파운드를 넘지 않는 12마력 가솔린, 엔진 1대를 주문하였다.

새로이 계획된 「에어로드롬」 A호는

지난번의 제5호와 전혀 똑같이 설계되었고 다만 크기에 있어 4배로 확대되었을 뿐이다.

역사는 실사이 없이 바뀌어 갔다. 「에어로드롬, A」호를 세기가 바뀌어지기 전에 완성하려던 초조한 노력은 기어코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20세기에 접어들었다. 엔진 제조업자가 「랑그레이」교수의 설계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엔리」군이 엔진집이야 손수 만들겠다고 나선 것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었다.

이러는 사이에 「쿠바」에서의 전투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하여 하늘을 재패해 보려는 「랑그레이」와 「엔리」사제간에 불같은 야심은 시들지 않았다. 「엔리」군은 「랑그레이」교수의 끊임없는 지도하에 「스미즈소니언」연구소의 밀폐된 골방에서 침식을 잊고 연구에 몰두하였다. 마침내 그의 탁월한 재능은 새로 만든 엔진의 위력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세계 최대의 5기통 원형 발동기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950회의 회전속도를 가진 이 52마력의 발동기는 불과 188파운드의 중량밖에 되지 않았다」

× × ×

마침내 실험의 날은 오고야 말았다. 1930년 10월 7일 일기는 별로 좋지 못한 편이었다. 「버어저니아」주 「와이더 워터」는 흥분과 긴장의 공기로 불려 싸였다.

이미 3개월 전부터 고대하는 신문기 자들과 수많은 관중들은 「랑그레이」가 탄 배 주위에 모였다.

이날 정각 12시, 「요트」조종복에 「테니스」 경기회와 어부의 구명복에 보라빛 「선·그라스」 등으로 단장한 「멜리」기사가 마치 파리의 개선장군처럼 늠름한 풍채로 나타났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핀 후, 선원들에게 최후의 부탁을 한 후 미리 마련된 사다다리를 밟고 비행기 좌석에 올라 앉았다.

그는 색안경을 벗어놓고 손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비행기 좌석을 움직여 본 후 조종간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그때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멜리」의 머리 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그는 주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쪽 훑어본 후 「몰트버」에게 눈을 옮겼다. 그리고 아무 뜻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물 위에는 수많은 보오트가 마치 출전하는 함대처럼 대기하고 있다. 「멜리」는 「몰트버」에게 소리쳤다.

『엔진 시동』

「몰트버」는 엔진 옆으로 다가섰다.

프로펠러를 다시 한번 검사해 본 후 진동장치도 정밀히 체크하였다. 카브레터의 조정이 끝난 후 피륙으로 덮힌 주익을 검사하였다.

이때 신문기자 보오트에서 고함을 치는 자가 있었다. 「와싱턴·포스트」지의 「조지·브라운」기자였다.

『이 사람아, 빨리 날아보게』라고 말하면서 「멜리」를 격려해 주었다.

「엔진」을 걸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뚝뚝하면서 활발히 작동하는 듯 하더니 꺾히면서 꺼져 버렸다.

백지처럼 해쓱해지는 「몰트버」의 얼굴이 「멜리」군의 마음을 적지 않게 동요시켰다.

다음 또 성냥불을 켰다. 이번에는 활발히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프로펠러는 푸른 섬광을 발하는 원판을 그리면서 삼시간에 주위에 마치 폭풍이 불어온 것처럼 바람을 일으키며 배를 뒤 흔든다.

『발사』 「카타팔트」가 탁 플러졌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실로 눈감작할 사이였고 목격자도 몇 사람 없었다.

그후 기자들의 질문에 「멜리」는 갑자기 중압감을 느낀 후 어떤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와싱턴·포스트」기자 「브라운」은

그의 목격담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넬리」군은 저음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생긋 웃기조차 하였다. 비행기에 엔진이 회전할 개시하자 그는 얼굴에 점점 긴장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죽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가 되느냐라는 교차로에 선 그는 분명히 흥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머리로부터 1미터 상부에는 커다란 프로펠러가 1분간 수천회로 회전하고 있었다. 「카타팔트」가 풀려지려고 할 때였다. 비행기는 갑자기 하향하고 「카타팔트」의 지선은 탁 끊어졌다. 굉장한 엔진소리와 더불어 「랑그레이」의 비행기는 배모서리에 더러부딪친 후 한층의 쇠뿔처럼 물 속으로 갈아앉았다.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신문기자 보오트가 일제히 사고장으로 노를 저어갔다. 잠시 후 싸늘한 물속으로부터 「넬리」는 보오트 위로 영급영급 기어 올라왔다.

『웬일이냐, 웬일이냐』 모두들 야단이었다.

『이사람들아, 말할 것 있나 보는 것이 듣는 것일세』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은 「넬리」군의 실험이 시작되기 전 당당하였

던 위풍파는 너무나 달라진 초라한 모습에 「브라운」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보를 터뜨렸다.

「넬리」는 아랫니를 덜덜 떨고 있었다.

『말 좀 해보게』 「브라운」의 간청에 못이겨 「넬리」는 소감을 말해주었다.

『비행기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어. 우리들이 이때까지 실험한 것은 모형 비행기 뿐이었더라 말이야.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 다만 실제의 비행기는 오늘이 처음인데 이 모양일세』

그러나 그후 「랑그레이」교수는 「넬리」의 설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즉시 「넬리」의 발언을 정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에어로드롬 A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사고현장을 복격한 비육군성의 「봉고매리·마콤」소령도 뒤에 사인한 바와 같이 비행기가 이선 직후 고개를 약간 숙였을 때 「카타팔트」의 지선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랑그레이」교수의 구구한 설명도 신문기자들의 귀에는 우이독경의 격이었다.

여러사람들은 「넬리」의 사고는 하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을 날으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는 뚜렷한 증거라

고 수근거렸다.

「멜리」는 그후 그의 잘못된 설명을 「랑그레이」교수에게 깊이 사과한 후 다시한번 기회를 줄 것을 애원하였다.

『비록 나의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더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다시 실험해 보게』

「랑그레이」교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즉시 물에서 건져온 「에어로드롬 · A」의 수선작업에 착수하였다.

동년 12월8일, 이른 아침 「아나코스티아」강과 「포트맥」강 분기점에는 「볼트버」와 「백도날드」기사장의 도움으로 수선된 「에어로드롬」이 안착되었다.

오늘은 육군성과 몇몇 신문사의 대표들만이 와 있을 뿐이었다.

경오 때에는 잔잔하던 바람이 살을 짚는 듯한 차디찬 북서풍으로 차츰 변하여 갔다. 군데군데 깨어진 얼음조각이 파동치는 물결을 따라 마치 「에어로드롬」의 최후를 기다리는듯 넘실거리고 있다.

다행히도 멀리서 2,3척의 신문기자 보오트가 달려와서 대기해 주었다. 물론 이 기자들은 이렇게 험한 일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멜리」의 우뚝을 지나리는 듯한 얼굴들이

었다.

『오늘은 비행실험에 좋지 못한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된 노릇이었다. 오늘을 놓치면 이러한 기회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이었다. 「랑그레이」의 재정적 자원은 고갈되었으며 그의 인내심도 이제는 지탱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다달았다.

실제적으로 5만불의 국고금은 이미 수개월 전에 탕진해 버렸으며 「스미즈 소니안」의 재산을 소비한 것만도 2만불을 초과하였다. 용도는 물론 합리적인 연구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랑그레이」자신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낭비였던 것이다. 그는 미안한 마음으로 마치 바늘방석 위에 앉은 듯하였다.

실험은 또다시 실패로 끝마쳤다.

부시진 얼음장 속으로부터 구조된 「멜리」의 몸에는 구명복 한벌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 × ×

『「랑그레이」선생님』

한적한 시골병원 침대 위에 누운 「멜리」군은 조용히 풀렸다. 「랑그레이」교수는 주위를 힐끗 살핀 후 다정스럽게 웃는다.

『열려말게, 내년 봄도 있지 않은가』 「멜리」는 가슴이 찢어지는듯 하였다.

「랑그레이」는 마침내 그의 실패를 자인하고 말았다. 그는 최후의 기회인 실험마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라이트」형제의 근래의 소식을 상기해 보았다. 최근 민심은 「라이트」형제가 있는 「키티 : 하우크」로 쏘리고 있다. 그들은 이때 이미 글라이더의 시험비행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10일 후인 1903년 12월 18일 「랑그레이」교수는 조간신문을 받아 쥐었을 때 「라이트」형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포오즈를 휘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였다. 이보다 하루 전인 17일, 진동식 가솔린 엔진을 장치한 복엽 「글라이더」가 「라이트」를 태우고 인류사상 최초로 하늘을 날았다는 것이었다.

『축하한다』

「랑그레이」교수는 「멘리」에게 말했다. 성공이란 두 글자는 늙은 천문학자 「사무엘 · 랑그레이」의 손가락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가슴은 터지는듯 하였다.

얼마 후 십 수년 동안을 마주잡고 싸워온 연구실의 책상을 맡꿈히 치운 위대한 천문학자 「랑그레이」교수는 남은 여생이나마 조용히 쉬려는 마지막 소원만을 가슴에 담은 채 조용히 연구실의 문을 나갔다.

1906년 2월 27일. 인간이 하늘을 제패하는 신화같은 이야기로 꿈같은 현실도 영영 보지 못한 채 늙은 바람의 예언자 「랑그레이」는 숨을 거두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랑그레이」는 가슴이 터져 죽었다고 만하였다.

× × ×

1913년 진수한 미해군 최초의 항공모함 「CVII」은 「USS · 랑그레이」로 명명되고, 「버저지니아」주 햄프톤에 있는 미육군 항공시험소는 「랑그레이」기지로 명명되었다.

그후 「벨」박사의 추천으로 「라이트」형제는 「랑그레이」 금메달을 받았다. 「셀 · 랑그레이」가 창설한 국립과학관 유물 속에는 오늘날도 정복하지 못한 하늘을 원만하면 「랑그레이」의 유물이 잠들고 있을 것이다.

간첩으로 잃은 자유

자수하여 다시 찾자

빌리·밋첼 투쟁기

미 공군 독립 전야

문

창

원

1941년 12월 6일

폭격기와 전투기를 질서정연하게 실은 항공모함과 이것을 엄호하는 전함, 순양함으로 짜인 일본 해군의 대주력 함대는 이듬에 뿔싸인 베링해의 짙은 안개 속을 헤치며 항로를 남으로 불며, 미국 함대의 대부분이 집결하고 있던 하와이 진주만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 오고 있었다.

1941년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일본간의 관계에는 긴장과 불안감이 더 해졌고 더욱이 동경과 베를린 사이의 암호가 1940년 말부터 완전 해독되었기 때문에 미국 지도층은 전쟁이 박두했음을 인식

하고는 있었던 것이다.

12월 8일

급기야 일본은 거대한 보일러에 짐화물을 재촉케 하고야 만났다.

조용하고 한가한 일요일, 먼동이 틀무렵, 전함도 순양함도 홀수선까지 깊이 잠겨 옥중한 거체를 가지런히 맞댄채 잠자코 있을 무렵 일본군의 항공기들은 일제히 모함을 발진하여 힘차게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한대 또 한대 바람을 쐬는 듯한 날카로운 음향과 함께, 일본의 비행기는 차례 차례로 태평양 함대의 머리 위로 밀려들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는 물기둥, 검붉은 연기를 힘차게 마구 토해 내며 아름답던 해변을 온통 기름 투성이로 만들면서 기울어지는 저 바다의 가련한 거체들.

사이렌과 총소리, 폭음과 전규—조용하고 평화롭기 이를테 없던 항구는 삼시간에 아비규환의 일대 수라장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기습공격에 아연실색한 미국은 급히 군사태세를 재검토, 선진을 포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하와이의 비극은 동시에 「윌리엄·밋첼」장군의 예언과 공교롭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숙명적인 일요일, 미 항공기의 활

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하늘의 요새로 불리우던 B-17 13대가 하와이를 향해 비행중이었기 때문에 진주만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히트캅」비행장 관제탑에 있던 공군 대령 한 사람은 쌍안경을 손에 든채 그들 비행기의 도착을 근심스러운 눈초리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후, 수평선 저쪽에 비행기의 대편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노라니, 그 편대가 저의 만상을 통과할 무렵에 비로소 그는 그들 비행기 모두가 일본기임을 깨달았다.

어찌할 사이도 없이 일본기들은 만내에 집결해 있던 태평양함대의 주력 86척의 함선을 목표로 연달아 급강하를 해서는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 불의의 기습을 미군은 멀거나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다.

일본 비행기가 해상에서 파사적으로 침입해 오는 동안에 앞에서 만한 B-17 편대가 겨우 도착하였으나, 한 시간 만에 전천 일본군 공격이 끝날 무렵이었다. 일본군의 기습공격이 있기 이전부터 「하와이」에는 지휘체통이 단일화되어 있지 못하여 작전상 혼란이 일어나기 일수였다.

하와이거저의 군 당국은 육군과 해군으로 나누어 저서 서로 권력다툼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일본측으로서는 여간 이점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대도 가능하였을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불행은 일찌기 미 공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미켈」(「빌디」라면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다)장군이 1925년 「진주만 내에 정박하고 있는 함대는 어느 때건 공중공격의 절호의 목표」가 된다고 예언한 바 대로였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미켈」장군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번 전쟁의 결과 모든 전쟁이 영원히 끝났다고 믿고 있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전쟁의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 특히 가공할 항공병기와 그 방어대책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이 있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 상당히 상심하였다.

전쟁이 끝났을 때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치칠」은 충심으로 공군의 업적을 찬양하였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인류투쟁의 역사 가운데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적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켜져 왔다는 것은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주만 공격이래 팽배해진 미국민들의 세론에 미국은 급히 항공병력의 필요성

미 공군 독립 전야

을 재삼 동감하고, 전략의 중심을 대형 폭격기 및 항공모함으로 전환시키고, 이에 의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지만, 만약 이보다 20년 전에 해상의 여하한 전함도 공중에서 격침할 수 있다고 언명함으로써, 당시 해군에 도전장을 제시하여 항공전력의 위력을 강조했던 육군장교 「윌리안·밋첼」의 말을 당시 군부가 받아 들였더라도 전쟁은 좀 더 일찌기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해군이야 말로 국방의 주축이다.

군부도 국민도 수세기동안 이를 믿어 왔으며, 당당한 해군의 위풍은 미합중국의 위력을 그대로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적고 영성하기 이룰때 없는 불건이 바다에 떠있는 천년요새를 격침시킨다는 말이 전해지자 해군은 물론 「밋첼」의 상관인 육군 장성급들도 일소에 붙여 버릴 뿐더러 신진 기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신입생조차 믿으려 않았다.

그러나 밋첼은 자기의 의견과 신념이 육·해군 당국자들에게서 부터 불신됨에 굶힘이 없이 모든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 그의 의견을 일반 대중에게 침투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이 자랑으로 삼아 오던 대함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고색창

연한 폐물과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사실은 미 국민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과연 「빌리」의 말이 사실인가?

이 결정적인 논쟁점을 판가름하기 위해 그는 해군에서 사격훈련용으로 침몰시킬 예정이었던 구 독일 해군의 구축함, 순양함, 전함 작 일척 가운데 그 어느 것을 폭격기 표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 그때 1918년 강화조약에 의해 독일의 무장은 해체되고 카이젤의 자당이 라 불리우던 독일 해군의 전함 「오스트 후리스란트」(Ostfriesland)호가 미국에 인도되었다.

그는 다시 공군을 육 해군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대응할 조직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육 해군의 수뇌부를 격노케 하였는데 이 논쟁에 언제나 기쁨노릇을 하던 신문들이 그의 지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해군은 그의 완강하고도 지나친 행위를 끌려주기 위하여 드디어 폭격시험에 동의하였다.

국제법에 의해 이 거함은 3년 이내에 해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연방의회로부터 해군에게 명령이 내려졌다. 「오스트 후리스란트」호를 「밋첼」의 비행기에 의한 전함 격침 시험에 사용

하라-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특히 해군장교들은 비웃음을 금치 못한, 나머지 미 해군의 장내를 축하하며 잔을 기울이며 기뻐하였다.

더구나 이 전함으로 말하면 지난 대전 중에는 영국 해군의 거포 [18발을 맞고 거기다가 1발의 어뢰를 맞고서도 끄떡 않은 바다의 불사신인테다가 선복은 3층 함내는 완전 방수벽으로 각 구간이 분할 되어 한 두어군데 직격탄을 맞아도 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스트후리스란트」호가 격침된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생각키조차 어리석은 것이었다.

폭격시험은 육 해군 공동감독 아래 3일간 행해지기로 되어으나 직접지휘는 해군측에서 맡게 되었다.

폭격시험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것이었다.

즉 폭격시험 참가 비행기 대수는 6대 이내로 하며, 폭탄투하교도는 당시 비행기로는 불가능을 연상케 할 정도의 고도를 요구했고, 거기다가 시험해상은 비행기로서 부터 왕복하는 폭격기의 항속 2시간에 빠듯한 거리였다.

수주간에 걸친 폭격훈련 끝에 1921년 7월 31일 「밋켈」이 직접 지휘하는 신「마텔」형기를 포함한 비행기 편대는 버지

니아주 랑그레이 필드의 기지에서 표적함이 정박하고 있는 75마일 해상을 향해 날아갔다.

시험 제 1 표적은 구 독일군 순양함「프랑크푸르트」호였다.

최초의 폭탄은 백미터나 표적을 벗어나 바다에 큰 물기둥을 치올렸다.

그러나 드디어 최후의 2발이 순양함의 함수에 명중하였다.

무서운 폭발음과 함께 검붉은 연기를 내뿜으며 이 거함은 공격 19분만에 서서히 바다 속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시험 감독관들 사이에는 흥분의 소리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피격함은 경량함에 불과하다.

시험의 참 목표는 바다의 요새 「오스트후리스란트」호다!

제2일의 시험폭격에서는 「밋켈」의 부하들은 완전히 실패하였던 것이다.

6백 파운드의 폭탄 2발이 함상 갑판에 명중 하였으나, 갑판만 날려 버렸을 뿐 거함은 끄떡도 않고 떠있지 않은가,

신문은 해군 승리를 앞질러 알렸고, 해군 장교들은 물론 일반 국민역시 「그러면 그렇지」하는 표정을 지었다.

신문기자들은 심지어 폭격목표가 되어 있는 「오스트후리스란트」호 갑판에서 있어도 아무 피해도 없을 정도라고까지 혹평을 가하였던 것이다.

미 공군 독립 전야

군인의 입장을 떠나서 금번 실험을 목격할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또 있을 수도 없었다. 이내 승부는 끝장이 난거나 진배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오를 조금 지나서 수평선 상에는 조그만 흑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이기 시작하였다.

선명히 그 모습을 드러낸 「마틴」폭격기 6기 편대는 기뢰기 형을 질서 정연히 짜고 감독관들이 타고 있는 함상 위를 유유히 스치고 지나갔다.

「마틴」폭격기 6기 편대의 선도기에는 오색의 아름다운 깃발까지 길게 느리고 날고 있었다.

이를 본 육군 수뇌부에서는 갑자기 불유쾌한 비판에 빠진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저작자는 위엄있는 육군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더구나 준장이란 계급까지 단 주제에 저런 소동을 일으키고 실패하면 어떻게 마무리될 작정인가 말아야.

육군의 입장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들은 「밋켈」의 행동이 몹시 밋고 못마땅하였다.

목표상공에 뜬 「마틴」폭격기들은 목표물 상공을 두 시너번 잇달아 선회한

후, 탄약에 가까운 임산부가 가까운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숨찬 듯이 선도기의 뒤를 따라 상승하면서 고도를 높여가기 시작하였다.

비행기마다 동체에 붙들어 맨 2천파운드의 폭탄은 육군 창신이래의 거인 폭탄이었다.

폭격기 편대들은 규정된 고도에 다달았다.

그러자 즉시 「밋켈」이 조종하는 선도기가 공격자세로 돌면서, 날카로운 비행음을 흘날리며 거꾸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하였다.

거인 폭탄이 투하되었다.

합수 전방 약 2백미터 수상에 떨어져 아름다운 큰 물기둥을 탐스럽게 뿜어 냈다.

「오스트루리스란트」호는 파도에 그 체는 감관위를 파도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틴」폭격기 들은 썩썩거리며 거탄을 투하하였다.

그때마다 데서양의 물결은 때 아닌 풍파를 저으며 고향을 질렀던 것이다.

각기마다 장착했던 폭탄을 다 투하하고도 다시 기뢰기형 편대로 돌아가 자기들이 이제까지 마음을 조리며, 때로는 조초까지 바로 북녘미 뒤에서 들으면서 애써 해낸 그들의 결과를 확인하려는 듯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해상에 가득히 깔려있는 수연이 차차로 바닷바람에 걸리기 시작하였다.

만약에.....

이러한 일반의 우려와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 속에 짙차 있었던 것이었다.

해상에는 「오스트후리스란트」가 아직 그 위용을 버티고 있지 않은가.

육 해군 감독관들 사이에는 저 보라는 듯한 야유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해군측에서는 심지어 환성까지 질렀던 것이다.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편대를 향해 「밋첼」 편대 고집으로 실례를 했군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자 이때

“저것 바라!”

신문기자 한 사람이 외쳤다.

「오스트후리스란트」, 카이젤의 자랑이었던 바다의 요새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까지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은 계면 찍은 모양으로 입을 굳게 다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거함은 함수를 세상이 귀찮다는 듯 물속으로 처박으며 함미를 들어 올리면서 팔강계 칠해져 있는 아름다운 함수선을 드러 내 놓기 시작하였다.

함수선 바로 밑에 몇군데 커나란 구멍

이 뚫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를 바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것은 위대한 인물의 최후를 지켜보고 있는 유족들의 표정과도 흡사했다.

12시 33분 「오스트후리스란트」는 함미를 수직으로 세운 채 물속으로 기어 들었다.

그로부터 5분 후 무서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함체가 다시 잡히는 듯 싶더니 12시 40분 완전히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였다.

「룻드랜드」해전에서 영국 함대의 맹렬한 포격에도 용감히 견디어 낸 22,800톤의 전함 「오스트후리스란트」호의 거체도 2,000 파운드의 폭탄 6발을 얻어 맞고 얼마 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던 것이다.

감판에 직격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격파된 것은 공중공격의 위력을 과시한 것 바로 그것이었다.

목적이 끝날 무렵 은빛 날개를 번쩍이며 하늘로 부터 급히 곤두박질해서 내린 「밋첼」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1천 5백 피트 상공에서 전함의 연통 속에 소형 폭탄을 투하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관람석에서는 칭찬과 분노의 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장내는 급세 소연해 갔

다.

그러나 육상의 소란과는 거리가 멀다는 듯 6기의 「마틴」 폭격기들은 「밋첼」의 선도로 상공을 한 바퀴 순회한 후 서서히 육지를 향해 기수를 들렸다.

백색의 치아를 내보이며 유쾌히 웃고 있는 「밋첼」의 모습을 요기를 조종하고 있던 동료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20세기 초에 있어서는 비행기는 단지 육상작전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지자 독·불·영의 항공작전을 통해 비행기의 활약이 상상의료 눈부시었다.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밋첼」은 이러한 현상을 중시, 공중세력, 항공력이 곧 종래의 전쟁방식을 송두리채 뒤바꿔 버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1916년 스스로 비행조종술을 익히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곧 구주로 배속받아, 영·불 비행사와 같이 독일 공격에 참가하여 공중전의 경험을 쌓았으며, 곧 중령에 진급, 미 전선비행교육대 사령관에 임명되어 구주 주둔 미군의 비행교육을 시작하였다.

다시 「밋첼」은 비행대와 군사령부의 직접 연락을 당국에 진언하여 1918년 가을 자기의 손으로 공군을 지휘하기에 이

르렀다.

당시 연합군은 독일의 「미첼」출진저분체작전에서 상당한 희생을 보고 있었지만, 난공불락이었다.

「밋첼」은 이 작전에 공군을 투입,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가 지휘하는 4백대의 항공기가 1918년 9월 일대 파상공격을 감행하여 독일의 요새는 가루가 되었고, 독일군 1만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이 훈공에 의하여 「밋첼」은 준장으로 진급, 미 육군 집단항공대 사령관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 내전을 통해서 공군력에 대한 편견을 완전 제거되었지만 공군을 육·해군 어느 편에 소속시키느냐에 관해 주도권 쟁탈전이 심각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개선한 「밋첼」장군은 말하기를 「앞으로 국방성을 설치, 산하에 육군, 해군, 공군의 3군을 병립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의 군부에 대단한 반발을 일으키었다.

더구나 1921년 7월 미 의회가 구독일 전함 격침안을 통과시키고 그 결과 전함이 격침되자 해군의 위신이 여지없이 땅에 떨어질 때, 공군의 독립이란 하나의 공갈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1923년 「밋첼」의 비행기들은 해군이 주휘하는 시험에서 불퇴전의 진함

「버어지니아」호와 「뉴 저지」호를 격침시켰던 것이었다.

그러자 미국의 여론은

『폐물전조에 국민의 혈세를 소비하지 말라』라는 외침이 일기 시작하였다.

해군은 육군에 「밋첵」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육군도 「밋첵」의 인기상승에 반감을 품은 나머지 시기심에서 해군의 요구에 동조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밋첵」은 항공부대 미 사령관의 직을 그만 두게 되었고, 전쟁이 끝났다는 단순한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어 「벡사스」 「휴스턴」 항공부대장으로 좌천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끈덕지게 항공력의 개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심술궂기 짝이 없는 자들에 대항해 그의 의지를 조금도 굽힘이 없이 의연히 싸웠던 것이다.

<Against the arch Conservatives who Stood in the way of reform and Progress.>

당시 공고롭게도 해군의 비행선 추락 사고가 연발하자 「밋첵」은 자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폭탄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는 귀중한 국방기재에 대한 무능력, 범죄적인 점점의 결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언치 않을 수 없

다.』

<Incompetency, Criminal negligence, and almost treasonable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Defence.>

『—일개의 충성된 시민으로서 국민의 생명의 손실과 공군에 대한 기반에 대해 이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밋첵」의 이와 같은 폭탄선언은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었다.

의회에 큰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태를 목과 할 수 없게 되자 대통령은 즉시 조사위원회 결성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9월 22일 「밋첵」대령은 항공조사 위원회에 증언키 위해 현직을 물러나고 와싱턴에 초치되었다.

1925년 10월 8일

전국의 신문들은

『「밋첵」대령 군법회의에 회부되다』라고 대서특필하였다.

통수권침범에 관계된 죄목으로 기소된 것이다.

10월 하순 「밋첵」대령은 밀려든 군중을 헤치고 육군성 현관에 당도했다.

그의 측근으로는 아내와 누이동생이 따르고 있었다.

육군성내 1실에는 3인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13인의 판사가 고참

미 공군 독립 전야

상사가 『기립』을 힘차게 구명하는 가운데 엄숙히 입정하였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군법회의가 이렇게 하여 어둠침침한 한 방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재판장에는 전 하와이-경비사령관 찰스 소장, 판사에는 소장 5인, 준장 6인, 대령이 1인이었는데, 신기롭게도 이 가운데에는 한국 동란중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파면되어 제2의 「밋첼」로서 동정을 받은 바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 소장도 끼어 있었던 것이다.

쌍방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증인이 환문을 받은 바 있고, 군인이 아닌 증인들은 하나 같이 「밋첼」대령에게 유리한 증인과 입장을 취하였으나, 재판의 결과는 「밋첼」대령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내렸다.

그때가 하오 6시 34분 어슬막이었다.

판시내용은

향후 5년간 휴직을 명하며 일체의 급여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원상복귀를 원한다면 5년간 입 다물고 자숙하라는 내용의 조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신념과 의지로 패기만만한 「밋첼」대령은 본 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다.

1926년 1월 27일 「비행하는 장군」으로 알려진 「밋첼」대령은 퇴직원을 제출 유

군을 불려 갔는데, 그후에도 모든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 그의 의견을 일반 대중에게 침투 보급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의 고향 버어지니아로 돌아가 공군 건설을 위한 기초작업을 굳혔던 것이다.

우선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나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와 동등한 공군사관학교 건립을 위한 민간 기금모집을 위해 전국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러한 운동은 순조로운 반응을 보이지 시작하였으나 불연 그는 종래의 방침을 바꾸어 민간인에 의한 사관학교 건립을 포기하고 국가에 의한 전설 내지 건립을 구상, 이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세력 규합에 나섰다.

그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기 훨씬 이전 한 잡지사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의 전법을 예언하면서

—일본군은 공군을 기간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며,

필리핀을 점령, 여세를 알라스카에 상륙, 미국 침공의 전략을 진행시킬 것이다—

이러한 그의 글에 군 당국은 전쟁미치광이의 잠꼬대라고 혹평을 가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예언은 일본과 독

일에 있어서는 하나의 크나큰 전략적 쟁
제요 일대 수확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그의 이러한 진언이 군당국 자
신에 의해 무시되었기 때문이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1차대전
시 「밋첼」이 보여준 바에 따른 교훈을
되새겨 난공불락의 「마지노」선을 돌파하
였고, 일본 또한 진주만 기습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의지와 신념으로 패기만만했던 「밋
첼」도 명을 다해 1936년 이 세상과 작별
을 영원히 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진주만 기습으
로 잠을 깨 미국은 뒤늦게 그를 슬퍼하
며, 판결을 취소하고 46년 고「밋첼」대령
에 대해 2계급 특진, 소장으로 추서하고
국회에 의해 명예훈장을 추증하였다.

그의 꿈도 차차 이루어 지기 시작하
였다.

1945년 10월 육군성의 「제이·로튼·
코린스」 소장은 미 상원에 육·해·공군
을 통괄하는 국방총성설치안을 제의하였
고, 「에드윈 존슨」 상원의원과 「리스터
힐」 상원의원도 동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상원 국방위원회는 양의원
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
최하였다.

합대사령관이자 1942년 부터 1948년까
지 대통령 개인 수석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는 「윌리엄·디·리」 제독만이 「트루
먼」 대통령을 비롯한 합동 참모본부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공군 독립안을 반대
하였다.

1946년 5월 중순 「트루먼」 대통령은
육군성과 해군성에 대해 공군 독립에 따
르는 문제점을 검토, 종합보고를 명령
하였다.

그러나 국방성의 창설과 군 항공권의
소속여부를 비롯한 해병대의 지위문제등
에 관해 육군과 해군 당국은 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1947년 3월 18일 미 상원 국방위원회
는 국가보안법 심의에 착수. 1947년 7월
26일 동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루먼」 대통령은 「제임스·브이·워
레스탈」을 초대 국방장관에 임명하였고,
1947년 9월 18일 「스튜어트·사이빙톤」
이 초대 공군장관에 취임하였다.

동년 9월 26일에는 미 합중국 초대 공
군 참모총장에 「칼·스파츠」장군이 취임
하였다.

이로써 「빌리 밋첼」의 숙원은 달성되
었다.

지금 공군은 국방의 최일선에서 육, 해
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늘을 초계하며 전
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유일의 희망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에어·버스」란 무엇인가?

— 그 개념과 특징, 개발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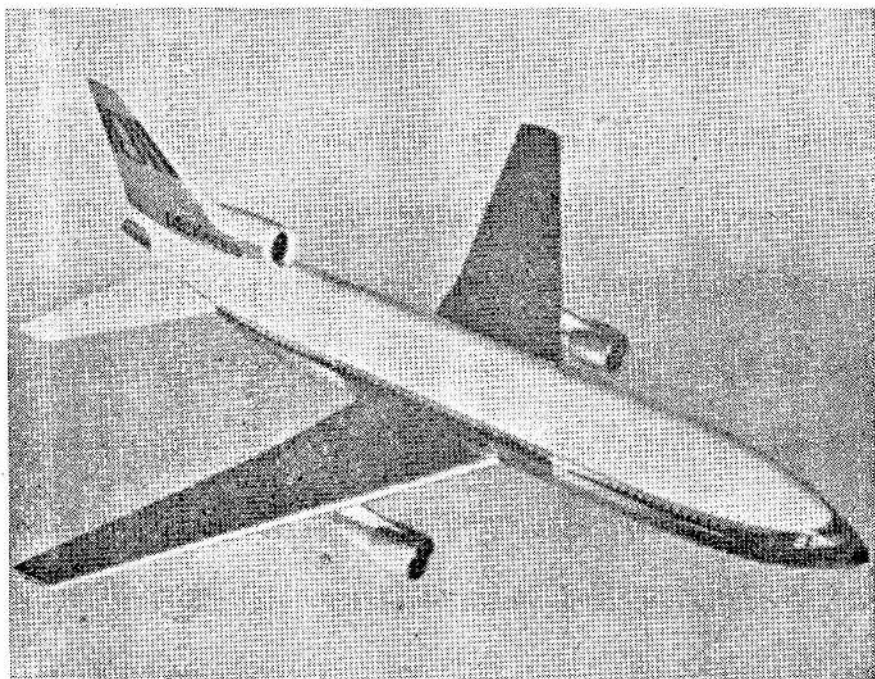
김

중

무

<역>

<3발엔진의 로키드회사제 L-1011>





I. 「에어·버스」의 개념

「에어·버스」시대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 이와함께 민간여객기에 가장 호화롭고 초현대적인 시설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1970년대는 비록 보잉 747 같은 「젠티젯기」(초대형 거인 여객기)나 「SST」(Super Sonic Transport=초음속제트여객기)가 등장하여 대륙횡단항로나 대양 횡단항로에서 판을 치겠지만 마찬가지로 「에어·버스」는 단거리나 중거리항로를 독점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민간항공계는 여객기의 급증한 수요와 항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타입의 여객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그 크기나 항속거리가 「젠티젯기」나 「SST」와 거의 맞먹으면서도 200마일(322킬로)에서부터 3,500마일(5633킬로) 사이의 영업적 운항거리를 갖는 단, 중거리용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여객기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안된 것이 속칭 「에어·버스」라고 불리는 대형 제트여객기인데 현용 단, 중거리 제트여객기보다 탑승인원이 많고 더 빠르며 보다 안락하

고 요금이 싼 것이 이점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보통 350명의 승객을 싣고 뉴우욕과 워싱턴 간을 시내버스모양 연속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설계상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엔진을 채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렇게 대량수송을 피하는 「에어·버스」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로는 항공교통량의 포화상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민간항공협회(IA-TA)」가 예상하는 바로는 세계의 민간제트여객기 수요는 현재의 1,700여대로부터 1975년에는 5,600여대로 늘고 1980년까지는 7,000여대를 「마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15년 내에 세계의 항공교통량은 4배로 증가되고 65개에 이르는 세계의 주요 공항이 여객기 처리 능력에 포화상태를 이루어 대량수송능력을 갖는 여객기의 필요성이 절실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중, 단거리용 「에어·버스」가 세계 각국 항공회사의 구미를 돋우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고밀도 항공교통량의 60%가 운항거리 2,500마일(4,025킬로) 이내의 중거리항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미국의 국내 항공교통거리는 모두 「에어·버스」의 항속거리 이내라는 점이다.



<로키드 L-1011의 내부>

Ⅰ. 「에어·버스」의 특징

일반적으로 항공회사측의 요구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량수송능력을 갖고 경제적이며 안락하고 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대량 수송능력에 관해서 「어메리칸·에어라인」측의 요구에 의하면 「(에어·버스)라는 것은 3등 좌석수가 최소한 200석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경제성에 관한 「TWA」측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적

으로 「직선 운항코스트」(DOC)가 현용 최신 제트여객기에 비해 80%밖에 안 들며 단거리일 경우에는 보잉회사의 「보잉 747」(승객 490명을 싣고 대륙간·비행을 한다.) 보다도 적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메리칸·에어라인」측의 요구는 「에어·버스」의 운항비용은 「보잉 747」과 비교해서 그 수송승객의 수효에 비례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넓고 안락한 점이 있어서 「보잉 747」을 능가해야 되는데 길이로 2줄의 통로가 있



는 반면에 좌석의 수는 옆으로 나란히 해서 8개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항공회사들은 「에어·버스」는 뉴우욕의 「라·구어디어」나 시카고의 「미드웨이」공항같은 비좁고 복잡한 공항에서도 능히 운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각 항공회사측에서는 자기비둘의 영업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스턴」측에서는 미국의 동부해안지방에서 「산·휴안」과 「푸에르토·리코」까지의 약 1,500마일(2,415킬로) 거리간 운항에 알맞게 TWA와 「유나이티드」측에서는 미 대륙횡단에 알맞게 「어메리칸」측에서는 고밀도 항공로인 뉴우욕과 워싱턴, 보스턴 간의 200마일(322킬로) 거리를 운항하면서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게, TWA에서는 화물전용기로서 기수부분으로 화물을 실게 하며 미대륙 횡단시 단 1회의 착륙만 허용되어야 한다는가, 또 어떤 항공회사측의 「화객겸용기도 아니며 화물전용기도 아니면서」 화물을 적당히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등 실로 그 요구조건은 저마다 까다롭기 한이 없는 것이다.

속도면에서 TWA측의 요구에 의하면 미대륙횡단의 경우 「보잉 747」보다 5분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

나 이 감다하고 세밀한 제각기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처음 미국에서 「에어·버스」의 구상이 생겨났을 때는 동체 뒷부분(尾部)에 쌍발엔진을 달고 여객을 만재한 채 1850마일(2980킬로)의 중거리를 비행할 수 있게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초대형 항공기에 대한 정비공의 부족, 엄청난 항공기의 가격, 운항비의 저렴 등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러 항공회사측에서 항속거리의 연장을 요구했고 제한된 활주로의 길이, 악천후시, 해외운항시 등을 고려한 안전을 생각해서 미 연방항공국(FAA)의 중용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3발엔진으로 그 구상을 바꾸게 된 것이다.

실상 「에어·버스」를 구상한 선도적 항공기제작회사인 「로키드」측에서는 쌍발엔진일 경우 직선운항코스스트가 3발엔진일 경우 보다 5%~6%가 싸게 먹힌다고 주장하고 항공회사인 TWA 측에서도 그 절감비용을 3%~4%로 시인하고나섰지만 결국 경제성도 안전성과 보다는 운항거리에 뒤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구라파에서는 각국간의 지리적 밀집성으로 인해서 항속거리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쌍발 엔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3발의 엔진을 어떻게 장착하느냐가 문제거리가 되었다. 한때는 「보잉 727」이나 「DC-9」 같이 동체 뒷 부분에 엔진을 다는 것이 유행되었지만 설계상의 묘를 발휘해서 주익에 2발, 동체 뒤 꼬리부분에 1발을 장착하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Ⅲ. 제작경쟁

원래 미국에서 「에어·버스」를 실질적으로 구상하게 된 동기는 6년 전 미 공군의 초대형 거인 수송기 C-5A의 제작 입찰경쟁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보잉」 「다글라스」 「로키드」 3개의 제작회사가 입찰경쟁 끝에 「로키드」사가 승리하여 C-5A를 제작해 낸 것인데 나머지 「보잉」 「다글라스」 양 회사는 민간용의 대륙간 초대형 여객기의 개발로 방향을 돌려 「보잉」회사가 한발 앞서 「보잉 747」을 만들기에 성공, 세계 자국 항공회사로부터 총 25여분이 넘는 주문을 획득했던 것이다.

한편 C-5A 제작에 성공한 「로키드」측은 그간 C-5A 제작 때문에 「보잉」회사의 「보잉 747」 제작을 보고만 있다가 다시 여세를 몰아 67년 9월 제일 먼저 「에어·버스」 제작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인데 「로키드」회사는 실로 5년간

에 다시 민간기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두 차례의 경쟁에서 패배의 고배를 마신 「다글라스」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맥도넬」사와 합병하여 재기의 기초를 굳히면서 이보다 2달 늦게 「에어·버스」에 손을 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에어·버스」를 제작중에 있는 회사는 「로키드」와 「맥도넬·다글라스」 양 회사로서 「로키드」회사의 것은 「L-1011」, 「맥도넬·다글라스」의 것은 「DC-10」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밀도 근거리 항로가 많아 「에어·버스」를 가장 먼저 구상했으면서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현을 보지 못했던 구라파에서도 미국의 독주를 막아낼 수 없었다. 이에 영, 독, 불 3개국은 「로키드」회사의 발표가 있는 즉시 합동으로 「에어·버스」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A-300」이라는 모형을 67년도 「파리 에어·쇼」에 선을 보이면서 그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반면에 세계 최대의 여객기제작회사인 「보잉」회사측은 현용 제트여객기보다 진보된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에어·버스」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미 대륙간 초대형 거인 여객기(보잉 747)을 개발, 70년



초에 일선에 취항시키는 성공을 거두었고 더구나 종래의 중거리제트여객기 「보잉 727」을 개량하여 동체의 길이를 20피트(6미터)나 길게 늘어 승객 178명을 태울 수 있게 만든 「보잉 727-200 스트레치드」를 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여객기는 벌써 150대 이상이나 팔렸고 이미 뉴욕에서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리스」 「런던」과 「로마」사 이등 「에어·버스」에 적합한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보잉」회사는 이 「727-200」이 70년대 안까지는 무난히 팔려나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의 에어·버스」로 세계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잉」회사로서도 타 항공기제작회사가 진보된 기술을 채용하여 새로이 개발, 제작하고 있다는 「에어·버스」의 선전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음인지 장차 「보잉」회사의 「에어·버스」로 「보잉 757」을 발표, 실내구조의 모형까지 선보였으나 70년 초기까지는 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잉」회사의 항공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항공회사들이 「보잉」도 「에어·버스」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IV. 판매 전망

현재 세계 각 항공회사의 「에어·버스」 주문실적을 보면 「로키드」사의 「L-1011」을 TWA사가 44대, 「이스턴」이 50대, 「에어·홀딩스」가 50대, 「델타」와 「노스·이스트」가 합쳐서 28대로 총 172대의 주문을 받고 있고 「맥도넬·다글라스」계의 「DC-10」은 「어메리칸」에서 50대, 「유나이티드」에서 60대, 총 110대의 주문을 받아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장차 「에어·버스」의 판매전망에 관해 「로키드」측은 비록 영, 월의 「포코드」나 미국의 「SST」 초음속 여객기가 대륙간 여객기로 등장하더라도 1980년까지 L-1011이 미국에서 493대, 구라파에서 197대, 기타 자유세계에서 110대, 도합 800대가 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1975년까지라도 500대는 무난히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SST」가 음속폭풍 때문에 미비록 횡단비행이 금지될 것 같으면 L-1011의 판매량은 1980년까지 1,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맥도넬·다글라스」측은 이보다 100대가 많은 1,100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 모두가 다 자기회사의 것을 구입할 경우를 생각한 것이고 「제네럴·일렉트릭」의



조사결과로는 잠재적 「에어·버스」의 구매능력이 향후 10년간에 1,000대, 「어메리칸」항공회사 역시 1,000대로 보고 있다. 영, 독, 불 합동의 「A-300」측은 1,500대로 내다보고 구라파에서만 A-300이 300대가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 「TWA」회사의 부사장 「렘멜」씨는 「에어·버스」의 개발비용이 「보잉747」과 맞먹으며 「로키드」사에서 「L-1011」1대 제작에 쓰는 비용이 약 1,560만불 (저금은 이보다 많으나 액수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로 추산해서 세계의 「에어·버스」구매력을 약 150억불로 잡으면 역시 1,000대의 구매능력이 나온다는 것이다.

V. 엔진 경쟁

진보된 기술을 적용하여 대량수송 능력에 보다 빠르며 안락하고 경제적인 여객기라는 「에어·버스」의 특징을 살리는 데는 엔진의 성능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에어·버스」의 제작 계획이 구체화되자 세계의 유명한 항공기 엔진 제작 회사들은 저마다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엔진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강력한 「TF-39」엔진을 만들어 미공군의 거인 수송기 C-5A의 엔진경쟁에서 승리한 바 있는 「제네럴·일렉트릭」회사에서 이것을 「에어·버스」에 알맞게 개량

한 추력 3만 6천파운드(16330kg)를 내놓았고 「프랫 앤드 휘트니」(P&W)회사에서는 「보잉 747」이 채용한 「JT9-D」를 만든 여세를 몰아 역시 이의출력을 감소시킨 「JT9-D-9」(추력 38,100파운드=17,327kg)을 내놓았고 영국의 「롤스·로이스」회사에서는 구라파의 「A-300」에 알맞게 「RB-207」(추력 47,500파운드=21,545kg)을 만들어내는 등 만만찮은 경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롤스·로이스」회사제의 「RB-207」이 일단 A-300에 채택되자 그 우수한 성능은 미국의 주목을 끌어 「L-1011」에서도 채택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원래 쌍발인 「A-300」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3발 엔진인 미국의 「에어·버스」에 맞게 하기 위해 「롤스·로이스」에서는 「RB-207」의 추력을 조금 줄인 「RB-211」(추력 33,260~34,740파운드=15,176kg~15,851kg)을 제작해서 L-1011에 장착하게 한 것이다.

「RB-211」엔진이 미국의 「에어·버스」에 채용된 이유로는 중량이 가볍고 가격이 싸고 폭음이 적고 연료의 소비가 적게 든다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VI. 각 「에어·버스」의 비교

▲ L-1011

처음 설계 때는 227~300석의 좌석을



배치했으나 현재 250~350석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장(全長)이 애초보다 10피이트(3미터)가 늘어나 175피이트(53미터)나 되고 전폭(全幅)이 47,4미터 동체의 직경이 5.97미터로 「보잉 747」보다는 가늘게 보이나 「DC-8」에 비하면 1.7배가 크다.

「L-1011」은 운항거리 200마일(322킬로) 이내의 짧은 항로에서 뿐만 아니라 2,200~2,500마일(3,540~4,225킬로)의 중거리, 즉 미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여객과 화물을 만재하고 시속 600마일(965킬로)로 무착륙 비행할 수 있으며 1971년 11월 면허를 취득, 1972년 초부터 취항할 예정으로 있다.

▲ DC-10

「맥도넬·다글라스」회사는 2종의 「DC-10」을 개발하고 있다.

즉 「DC-10A」와 「DC-10B」형인데 「DC-10B」는 「DC-10A」보다 동체의 길이가 21피이트(6.4미터) 긴 191피이트(58미터)이고 적재량이 거의 50%나 더 크다.

그러나 「DC-10A」형이 먼저 나올 예정이고 좌석수는 230 내지 350석이 될 것인데 「유나이티드」사가 주문한 것은 266석, 1971년 8월에 납품할 예정으로 있다.

▲ A-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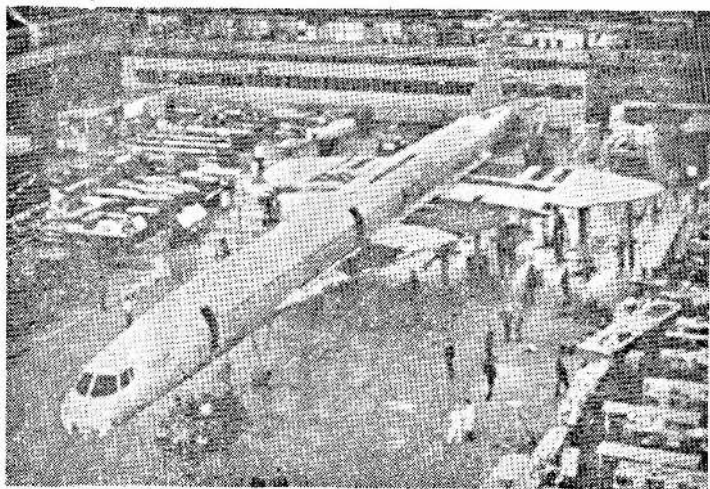
미국의 독주를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영, 독, 불이 합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쌍발엔진에 좌석수는 211석에서 298석 사이, 내부설계는 구입회사의 요구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최소한 75대의 주문이 들어오면 원형제작에 착수하겠다는 것이고 1971년에 최초의 시험비행, 1972년에 운항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라파의 주요 항공회사(서독의 「루프트·회사」 등)들은 1974년이나 1975년까지는 「에어·버스」가 필요없다는 것이고 이들 회사들은 아직 쌍발이 좋은지 3발이 좋은지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판매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일본항공」회사에서는 「A-300」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초음속여객기「콩코드」의 제작현황과 금후의 전망

박 철 수

◇ 조용히 음속을 돌파하다.

1969년 10월 1일 드디어 콩코드○○!
호가 최초로 초음속비행에 성공했다.

플란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원형(原
型)제1호기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슈
드」사의 시험비행사인 안드레·몰카씨에
의하여 「쓰루즈」비행장을 이륙하는 것으
로써 드디어 시작되었다.

우선 마하 0.9와 0.95의 속도로써 후
따. 테스트를 마친 후 「상상 이상으로

조용하게」 음속을 돌파하여, 마하 1.05
까지 가속시켰다.

이때의 시각은 11시 29분——

초음속비행은 이때부터 9분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이동간의 조종성능은 극히
좋았고 지상에서 상상한 것과 거의 별다
른 것이 없었다.

안전성 역시도 음속 이하의 비행보다
도 좋았다고 한다.

이때의 고도는 11,000m, 비행위치는
「쓰루즈」북방 약 100km의 내륙지점상

<초음속여객기「콩코드」의 제작현황과 급후의 전망>

공이며, 이 정도의 속도에서는 지상에 이르는 것과 같은 소닉·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〇〇1은 그후 재차 시험비행을 계속하여 이륙 후 1시간 38분으로 착륙, 기수에 음벽을 돌파한 기념으로 파괴된 널판지를 달아가져고 음벽돌파의 성공을 축하하였다.

콩코드의 시험계획에 의하면 이 초음속비행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중대한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보다 먼저 69년 3월 2일과 4월 9일에 최초로 비행한 콩코드 〇〇1과 영국측의 원형 2호기 〇〇2는 그후 5개월 동안에 제2단계까지의 시험비행을 마치고 8월 6일 현재 〇〇1이 39회로써 59시간 45분, 〇〇2가 24회로써 42시간 7분을 비행, 합계 102시간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의 소련제 SST, 스포레투 Tu-144의 비행실적은 68년 12월 31일의 최초비행 이후 22회로서 26시간 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20년간의 초음속비행을 하진 하였다고 하나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한다.

콩코드의 제1~2단계의 테스트 비행은 가장 알맞게 진행되었다.

〇〇1과 〇〇2에 의한 그 내용은 각종 장비품의 기능점검과 가속속에 의한 조

종특성 및 비행성능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결과는 영국측의 시험비행을 담당해 온 BAC사의 시험비행사「부라이안·드라브쇼」씨의「우리는 누구나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리라 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정지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그런일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예상외로 호조(好調)이었던 것이다.

◇ 시험비행의 내용

다음은 시험비행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콩코드의 이륙조작은 비행기를 173kt까지 가속시켜 10.5도까지 일으킨 다음 19.2kt에서 지면을 떠나 그리고 230~250kt에서 랜딩기어를 올려, 300kt에서 상승한다.

이때 상승속도는 장래 400kt까지 증대할 예정이다.

이륙시의 중량은 보통 130,000kg에서 행하여져 왔으나 가장 무거울 때는 132,500kg이었다.

또한 엔진 1기(基)를 꺼놓고 3기로서 이륙비행도 시험하였다.

자도 조종은 조종자 말에 의하면 굉장

< 초음속여객기 「콩코드」의 제작현황과 금후의 전망 >

히 조용하며 그러나 조작성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며 10.5도라고 하면 10도가 되더라도 안 되며 또 11도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로딩도 극히 안정해 있으나 느린조작에도 변화율이 많으므로 이것은 장래에 개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동안진 장치나 자동 스톱들이 없어도 비행은 용이하다고 한다.

비행고도는 보통 10,600m정도로써 제 2단계의 최고고도로 12,800m 최대 속도는 마하 0.95이었다.

최대로 변형각은 150kt로서 001호가 18도, 00호기가 16.5도까지로 시험한바 있다.

장래는 21도까지의 시험을 해 볼 예정으로써 이 각도가 되더라도 실속될 염려는 전혀 없으나 바퀴팅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착륙조작은 보통의 아음속 제트수송기와 변동이 없으나 미부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70kt라고 하는 약간 빠른 속도로서 접지한다.

그러나 다량생산형은 랜딩기어를 1m 정도 뻗치고 착륙속도를 150kt까지 늘출 예정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원형기에서도 조종사의 눈 높이가 활주로부터 14.6m나 되며 익숙하지 않는 이상 조종사의 예상

보다는 2~3초 더 빨리 접지하므로 조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착륙시의 기수는 12도와 17.5도의 두 방법을 사용하며, 그 어느 것이나 시계가 좋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002호는 엔진의 1발정지와 2발정지에 대하여서도 착륙시험을 하고 있다.

착륙활주중의 엔진·리바스(역분사)는 지금의 경우, 나셀의 파열을 막기 위해서 아이몰·파워 만으로 한정돼 있다.

도 부레이크와 파라솔은 당초 3회정도 열리지 않은 적이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고, 레리스기구가 개조된 것 같다.

엔진의 작동은 대단히 좋았다. 비행중의 트러블은 한번도 없었으며, 공중에서의 엔진정지와 계 점화시험도 가끔 행하여 졌으나 한번도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 초음속비행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해서 콩코드 001은 002와 제1~2단계의 아음속 시험비행을 순조롭게 끝마치고, 69년 8월 7일부터 이 두 비행기를 초음속비행을 위해서 개수가 시작되었다.

「슈드」사 쓰루즈공장에 들어간 001은 9월 17일까지의 40일간에 예정대로

< 초음속여객기 「콩코드」의 제작현황과 급류의 전망 >

정비작업 기타의 수입(手入), 시험용 측정기의 교환과 추가장착, 친(選)음속 비행에 따른 증압위치 제어 장치의 조정 등을 받아, 또다시 제트의 공기취입구에 가변기구가 장착되어 올림퍼스 593-2A엔진이 장비되었다.

그리고 〇〇1은 제3단계의 시험비행이 시작된 것은 작년 9월 21일, 이들 시험비행에서 수정한 결과가 그로부터 수일간 행해졌으며 5회의 비행에 대해서 확인되었다.

이 확인에는 비행중에 기록된 데이터를 컴퓨터로서 분석하여, 그 결과가 확실함으로써 다음 비행을 행하기로 신중히 처리되고 있다.

그 결과 9월 30일이 제1회의 초음속시험의 날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날의 쓰루즈지방은 시정이 나빴고, 난기류가 있어서 기상조건이 좋아지지 않아서 1일간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그 익일 10월 1일 〇〇1로서는 45회째의 비행에서 처음의 초음속에 달하였던 것이다.

그후, 동기는 10월 14일에 마하 1.15를 기록하였다.

또다시 제3단계의 시험비행으로서 10월 말까지 적어도 15회의 비행을 하여, 서서히 속도를 늘리고나서 마하 1.3에 도달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기취입구의 가변기구나 소닉붐의 시험 등도 결행하여 실험되었다.

이것이 끝나고서는 〇〇1은 또한번 공장에 들어가 가변기구의 출킨트플장치와 593-3B엔진에의 교환 등 본격적인 SST로서 마하 2.0을 지향하여 몇개의 개수 공사를 받도록 되었다.

한편 〇〇2에 대해서는 저금도 웨이어 워드 테스트 센터에서 개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우선 기수의 상하 작동용 베일의 공작——, 이것도 비행시험의 결과에서 생기는 유일한 주요개조사항으로써 옆으로의 진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은 최초비행 전부터 시뮬레이터 테스트의 결과에 의해서 판명된 것이나, 「내측(內側)에 레본」(승강타브조인)의 작동범위를 2분의 1로 단축하는 공사이며 친음속의 퍼치 컨트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후라트 테스트를 위한 진동장치의 장착 및 동태 좌측 2기(2基)의 공기취입구에만 붙어 있던 가변기구를 우측의 2기에 장착하는 공사가 대 작업이다.

동시에 엔진은 저금까지의 593-2A에서 2B로 되었으며 작년 12월부터 비행을 재개한다.

또한 OOI의 테스트 결과에 의해서 초음속 비행으로 들어가며, 1970년 5월에는 OOI보다도 한걸음 앞서 마하2.0에 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두 비행기는 결코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양기의 시험내용은 상호 중복되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즉「릴레이 할 때 바튼을 받아가며 뛰는 것과 같이, 한기의 테스트를 한 결과에 의해서 그 자료를 다음 비행시험에 제공하며 그 결과를 상대측이 다음 시험 때 또 받아 가지고 하는」등으로 처리해 나간다.

이 제4단계의 테스트에는 다음 OO1도 참여하여, 음속의 2배 주변에서의 비행특성과 소닉붐의 측정 등이 행해진다.

그리하여 제5단계에서는 마하2의 장시간 연속비행에 들어가는 셈이다.

◇ 컴퓨터기술의 성과

콩코드는 구라파의 아폴로라고 불리어 졌다.

영국의 기술성(技術省)도 「서구측 제국에서 시도된 기술계획 중에서, 콩코드는 가장 복잡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점의 계획은 미국의 우주계획에 다음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뿐 아니라 콩코드·프로그램에는 도

처에 최선의 계획법이 채용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가 구사되고 있다.

1966년에 시작된 시뮬레이터·테스트도 그 하나이며, 이것은 콩코드 개발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그림자의 역할을 해왔다.

시뮬레이터는 실제의 비행을 하기 전부터 거의 전부의 비행특성과 조종 반응을 예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콩코드의 비행시험도 미리 미리 시뮬레이터에 의하여 자료를 얻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의 비행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조종사도 이 정밀한 시뮬레이터의 덕택으로 항상 안심하면서 비행할 수가 있다.

처음 비행하기 전에도 그들은 수회에 걸쳐 모의비행을 하였으며 모든 종류의 고장과 그 조합을 가상하여, 또는 한번도 비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실제의 비행시험의 결과에 비추어 보아 시뮬레이터의 예고나 해당자료는 극히 정확하다고 한다.

오늘날 이와같은 컴퓨터기술이 없었다면 콩코드계획도 도저히 목표기일에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개발

<초음속여객기「콩코드」의 제작현황과 금후의 전망>

계획에 따른 무수한 복잡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에 예지되고 있지 않은 것도 허다하다.

3년전, 가변익을 채용한 보잉 2707 ST가 중량증가에 고뇌하였으며 드디어 이를 체념한 것과 같이 콩코드도 아직 과중한 설계변경을 과감하게 하였다. 작업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저항감소와 중량경감을 위한 주익 전연, 익단, 후부동체 등의 재설계 또는 케이로드 증가를 위해서 강화형(強化型) 오лимп스·엔진의 재 개발은 큰 것이라고 하겠다.

이들 성과는 양산하기 전의 형태로부터 서서히 취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를 위한 비용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

영국기술성이 최근에 밝힌바에 의하면 콩코드의 개발비는 현재 비행중의 원형 2기와 양산전형기(量産前型機) 및 지상 시험기의 각 2기는 제작비를 포함하여 약 20억불에 달한다고 하며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한 변경이 따르고 있다.

작년 9월하순, 영국의 기술상과 불란서의 운수상이 파리에서 회합하고 콩코드의 생산단계의 계획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나 또다시 회합을 열어 검토하기로 하였다.

생산자로서는 지금 당장에라도 생산설

비를 정리하여 부분품 생산에 착수할 수 있으나, 양산단계에서는 다소의 예로가 있을 것이다.

◇ 성능과 소음

콩코드의 고민은 단지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그 목표성능은 결코 약속된 것은 아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은 재 설계에 의하여 과연 케이로드 향상성능의 목표가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치로서, 파리~뉴우욕간의 케이로드가 20,000lb에 한달다고 한다」는 것이나 영국기술성의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즉 제산이나 실험 결과가 제아무리 좋을 지라도 실제의 비행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역시 불안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지금의 원형기에 의한 성능시험의 결과는 실제의 정기편에 취항하는 양산기의 성능에 관하여 80~90%의 확률 밖에 없다. 나머지의 10~20%는 금후 더욱 양산전형기에 의하여 확인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20,000lb라고 하는 케이로드를 콩코드를 구입하는 항공회사측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 초음속여객기 「콩코드」의 제작현황과 급후의 전망 >

또한 취항 2년후에는 25,000lb으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엔진의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다. 파리에서 실서번 항공 쇼에서도 굉장한 소음을 내며 비행한 콩코드였으나 저음 현저도는 아음속 제트수송기 보다는 크지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에 발표된 FAA(미연방항공청)의 공항소음 기준안에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으리라고 한다.

원형기에 의한 소음(騒音)시험은 금년 중에 실시될 예정이나 소음(消音)장치의 개량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을 것이다.

이와같이 소음분의 문제도 미해결 상태이다. 보잉 SST의 개발에 참가하고 있는 미 공군의 테스트파일럿의 한 사람은 최근, 「소닉붐은 바야흐로 시민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드디어 여기 찾아질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콩코드의 시험비행사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가가 많은 육지상공의 초음속비행은 제한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미국의 운수성에서도 최근 미국상공의 SST에 의한 초음속비행은 금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BAC사에서는 부득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나 콩코드의

설계의 특징은 아직 충분히 실증되고 있는 양이나 초음속에서나 또는 음속이하의 비행에서도 다 같이 똑같은 항공거리리를 비행할 수 있다.

즉 마하 2에서나, 마하 0.9에서나 똑같이 항공거리의 차는 5% 이하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행한 경우 우선 대서양을 마하 2로서 비행, 미대륙은 마하 0.95로서 횡단하여 그로부터 또다시 마하 2로서 태평양을 날으면, 미국상공의 속도제한은 있어도 역시 시간적으로는 커다란 절약이 된다.」고 하여 SST의 효용을 강조하고 있다.

콩코드의 소닉붐은, 급후 초음속베스트의 진전에 따라, 기체중량, 고도, 속도 등을 바꾸어 여러 각도에서 측정될 예정이다. 거기서 여하한 해결책이 발견될는지 기대되는 바이다.

◇ 어깨를 겨누는

미국의 SST

다음에 미국의 보잉 SST와의 관계는 여하한지 살펴기로 한다.

작년 9월 23일에 발표한 닉슨대통령의 개발결정을 들은 구라파측의 콩코드 관계자는 누구나가 다같이 뜨거운 환영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의 결의에 의하여 SST시대의 도

< 초음속여객기 「콩코드」의 제작현황과 금후의 전망 >

래는 드디어 결정적인 것으로 되었다.

우리의 선견지명도 이것으로써 확인된 것 같다.」고 했다.

BAC사에 의하면 「보잉 2702-207은 탐재량, 속도 등이 많은 점에서 콩코드와 다르다.

따라서 그 성격이나 역할은 그 자체가 다르며 세계각국은 이 두 종류의 SST가 똑같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의 아음속제트기에 의한 항공수송사업이, 100인승의 BAC 111에서 250인승의 보잉747에까지 폭넓은 자종의 기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SST에 관해서도 비교적 여객의 적은 노선이나 계절이 있는 것으로서 적어도 대소 두 종류의 기체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아니라 콩코드의 취항시기는 보잉 SST를 5년이나 앞당겨 있다.

양자는 결코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SST의 치타늄 합금을 사용한 구조나 마하 2.7이라고 하는 속도성능은 콩코드가 지난날 고민하였던 여 러가지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그 문제는 콩코드보다도 훨씬 크고 비록 장래에 개발 일정에 지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말하면 1978년이라는 취항목표는 과연 낙관적이 되지 않을까 보

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의 SST의 「발전명령」은 콩코드에 있어서 무서운 경쟁대상이 등장한다는 것을 뜻할지도 모른다.

또한 월슨대통령도 말한바 있거니와 미국이 세계의 항공수송을 리드하는 것이다.」고 천명……. 미국이 500기의 판매목표를 발표한 것으로 볼 때 구라파 역시 좌불안석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장래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콩코드가 파잉될 때, 구라파의 SST마케트는 완전히 미국에 여계당할 것이다.

콩코드로서는 이제 후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ST의 장래는?

그 「후퇴할 수는 없다」콩코드의 최후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양산기의 판매율과, 여객이 이용해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콩코드의 판매자는 당면 200기의 판매 목표를 내 걸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테스트의 호조로 보아 250기가 팔릴 것으로 내다 보는 측도 있다.

그중에는 예비주문을 받고 있는 것은 74기이며, 8기씩 주문하고 있는 BOAC, 에어프랑스, 팬·아메리칸항공을 필두로 일본항공(3기) 등 16사가 포함되어 있

다.

그리고 또한 콩코드의 마케트의 장래에 관하여 BAC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SST의 속도성은 금세기말까지 마하 2~3의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콩코드를 기본으로 하여, 엔진과 기체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그 항속거리, 속도, 경제성을 느린 SST는 금후 30년은 계속 판매될 것이다.

여기서 콩코드의 시장성은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콩코드의 시장성은 삼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미국 SST가 취항하기까지의 5년간이며 이 기간은 콩코드가 독점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역시 지금까지의 형태로써 보다 큰 미국의 SST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 그리고 제3은 진보와 개발에 의한 새로운 콩코드 즉「스퍼·콩코드」의 시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항공수송의 수요도로 보아 콩코드의 팔리지 않는 이유는 추호도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1973~80년에 있어서의 수요증가분만도, 그 전부를 콩코드로 채운다면 1,250기에 상당한다.

즉 금후의 수요도는 예상외로 클 것이

며, 그만큼 콩코드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난날 보잉707 등의 아음속 여객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서도, 이 속도가 빠른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SST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두고 보아야 될 일이다.

특히 에어버스나 거인여객기가 싼 요금으로서 비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간과 금전의 어느쪽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할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만약「금전의 절약의」방향으로 기울어졌다면, 콩코드는 중대한 실패작이 되고 말 것이다.

확실히 SST의 취항당초는 다소 요금을 올려 받지 않으면 채산이 맞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보잉사의 견해이나, 지금과 같은 추세로써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항공기의 운항비는 장래 인건비가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이때 SST는 속도가 빠르므로 같은 시간내에 아음속기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운행비의 상승은 SST가 비교적 싼 것으로 유지될 것이며 적어도 1980년대 의 중반기에 들어서는 에어버스보다도

각국 SST의 비교

	콩 코드	B-2707	Tu-144
객석수	128	250	126
최대 케이로드	6,400Km	6,400Km	4,800Km
시의 항속거리			
최대마하수	2.05	2.7	2.25
코비행	1969년 9월	1972년말	1968년 12월
취항 목표	1973년	1978년	1972년
수주기수	74기/17사	122기/26사	
판매목표기수	500	500	

SST쪽이 훨씬싼 요금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콩코드계획은 일면 밝다고도 하겠으나, 암담한 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계획이 시작된 것은 1962년 11월 29일, 영·불 양국 정부가 공동개발협정에 조인하였을 때였다.

그로부터 7년에, 콩코드는 그후 이루어져야 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파야흐로 음속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작업은 지금부터 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성공이 어느정도 확실한 것인지는 아직 예측을 불허한다.

성공의 기회는 제법 좋다고 하는것이 구라과 뿐 아니라 미국측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의 성공을 위해 점차적으로 주의성 있게 시험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다리를 두들겨가는 식으로 조금도 투기성을 허용치 않으며 안전과 확실을 제일주의로 하여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

×

×

<군종코너>

- 사교(邪教)와 문화.....김 상 진
- 불교와 미신.....이 인 수
- 사교소고(邪教小考)... 김 상 학
- 광풍을 헤치고.....최 원 진
- 새 사람.....이 건 명



사교(邪教)와 문화



김 상 진 신부

현대인에게 있어 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은 각 개인 안에 내적인 사고를 낳아가고 있다. 단체생활 지역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또는 각 가정 각자가 당면한 제반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와도 같아 그때 그때 이러한 일들로부터 헤어나려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만한 순간의 겨를조차 주지 않고 있다. 시인 엘리엇은 그의 시 <형 빈 사람>에서 현대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우리는 텅 빈 사람

우리는 가득한 사람.”

(We are the Hollow men

We are the Stuffed men)

현대인은 한편으로 볼 때에는 속이 텅텅 비었으나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는 속이 가득찬 사람이란 말이다.

얼른 생각할 때에 모순되는 느낌을 갖게 되지만 재삼 생각할 때 공감할 수 있는 귀결이라 하겠다.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생활로 빠 차있고 생각해야 할 문제에 있어 텅 비었다 할 수 있겠다. 현대인은 속은 비어 .유풍만 남아 있으나 그 반면 무용지물로 가득차 있다고 해석하여 볼 수도 있다. “비었다”라는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그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차있다”라는 말도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없고 그대신 소용없는 것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소용없이 가득찬 것을 비우고 응당있어야 할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 중에 인격의 내적 존엄성 내지 인간의 영성(영혼)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종교관 종교생활에 대한 태도도 있는 것이다. 현대인 뿐 아니라

인류에게 채워져야 할 것은 물질 문명의 발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여 유아 독존적 생활태도가 인간 본성에 어긋나며 서로 긴밀한 유대 연관성을 갖고 생활함을 말하였 듯이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카임은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 하여 인간본성에 뿌리박은 종교심리 내지 종교본성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우리는 현재 수 많은 종교가 있음을 친히 보고 있으며 자신도 어떤 종교 또는 나 안의 종교적 신념을 갖은 자로 자부할 것이다.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여러가지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간과 세상 모든 것이 전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따라나오는 바 신과 인간과의 주종관계가 곧 종교로서 표시되는 것이다. 즉 종교란 인간의 전 생명을 최종 목적인 신에게 인도하는 모든 진리와 본분의 총화이다. 창조를 통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인과 즉 주종관계가 맺어짐에 따라 결과인 인간이 그 원인이신 신에게 마땅히 해야 될 본분과 공경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만치 권리란 개념은 의무란 개념을 내포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따라 종교의 3가지 요소라 할 만한 것은 진리인 교리와 본분인 윤리와 경신행위인 예전이다. 보다 어떤 종교가 무엇이나? 보다 어떤 종교가 참다운 종교이나 란 물음에 대답하기란 어려운 점이 많다. 더 나아가 사이비종교 사교로 규정지어질 때 더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어느 종교를 어느 정도 승인해야 되며 어느 정도 배격해야 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인 것이다.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바라 볼 때 편협한 독단적 입장만을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며, 다른 종교도 어느 의미에서는 종교적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사종교 사교를 가려내는 징표는 역사적흐름 속에서 사회 안에 일어난 종교로 인한 결과 즉 인간의 종교 생활을 통해 진전한 사회문화물 통해 사회적 현상을 귀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사교란 문자 그대로 사회에 해악을 주는 종교 즉, 종교의 교리의식 그것이 미치는 여력 가지 영향이 해롭거나 오류인 종교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의 표준은 상식적이며 어떤 때 정치적 등 여러 힘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교를 규정하게 되는 동기는 첫째, 막연한 반감에 기인될 때 즉, 새로운 종교로 대두되거나 도입될 때 일반의 보수성에 의해 배척을 받게 될 때.

둘째, 종교 대 종교의 대립에서 오는 것. 이는 교리상의 대립과 세력의 대립에서 오며 정통파에 상대적으로 사교의 취급을 받게 된다.

셋째, 정치적 세력에 의하여 사교로서 낙인이 찍힐 때도 있다.

그러나 이상의 동기는 객관적인 표준은 되지 못한다.

네째, 도덕적 표준에서 개인사회의 질서를 깨치는 경우.

다섯째로, 풍기의 관점에서 사회의 미풍양습을 깨치고 여섯째로, 지적표준에서 비위생적 행위 비과학적 행위로 미신과 총칭될 수 있는 종교현상을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기의 의도를 음제한 종교금전의 획득 기타 욕망(나쁜 의미에서)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잠깐 종교의 역할은 사교의 난점을 규정해주고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가 정돈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

거나 쉽게 처리 될 수 있지만 사회가 혼란될 때 정통적 종교에서도 잘못 비둘어질 수도 있고 여타까지 사교가 대두하여 동요하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적 종교심은 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더욱 의지하려는 집착에 사로 잡히고 참다운 이성과 신앙심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조선시대 정간록 같은 것도 하나의 사회적 동요와 이에 대한 예비적 자오 즉 이씨 조선이 무너져 망함게 되더라도 또 다른 계승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백성들의 실망과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승자가 이씨 조선 후에 나타나지 않았고 일본의 식민정책의 밥이 되어 36년간의 쓰라린 고초를 당하게 되자, 거것 예인자들이 출현하여 계몽산 같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종교가 들끓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 제2, 제3의 정도명을 찾아 계몽산으로 찾아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과거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문제로도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민족고유의 민족신앙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받아오고 있다. 그중

에는 민족전체가 정신적 생활의 좌표로 살아야 할 것도 있겠고 어떤 것은 미신적 경향을 띠워 사회의 폐습으로 또는 생활의 해독을 끼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종교가 사회를 이끌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되고 그리스도교가 지구사회 안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까지 사회문화로 이끌어 온 자취를 우리는 보고 그 혜택 속에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근대화를 물질적 경제적 발전에 국한시키지 않고 제2의 경제, 정신적 더 나아가 종교적 영역에까지 이끌고 올라가야 함을 말하는 것은 종교가 사회의 정신적 밑받침으로 올라와 이끌고 나아가갈 때 인간의 향상 발전의 뜻을 피우고 비뚤게 이끌 때 어떠한 파멸로 이끌런지 역사 속에서 잘 배우기 때문이다.

참다운 종교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하여 사교의 해독 병폐 역시 매우 큰 것이다. 종교는 인간 안에 여러가지 방향에서 연관을 맺는다. 정치, 경제, 사회구조 등등 인간의 모든 생활 안에 종교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문화의 중심적이며 기본적으로 한 측면을 이루며 전

반적 문화에 있어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존사회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또는 충돌하기도 한다. 종교의 사회 안에 방어체계(Defensive System)를 갖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의심, 불안, 공격 등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개인과 사회내부에서 발생하는 공포와 공격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종교를 통해 증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시체계(Directive System)를 갖고 인간의 사고와 감정 행위를 형성해 주며, 요구되는 방향 즉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깨닫고 느끼며 행동하게 해준다. 한 마디로 문화에 대하여 종교는 방향을 이끌어 주고 목적을 달성케 하는 수단의 역할까지 해준다.

참 종교의 이러한 역할임무의 주요성은 바로 사교 거짓 종교가 어떠한 영향을 사회와 문화에 끼치리라는 것을 예견케 한다. 하나의 관점 즉 사회공동체성과 연대책임을 놓고 참다운 종교와 사이비 종교와의 구별점을 본다면 참다운 종교에서는 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자연인으로서의 관계나 혈육의 관계를 초월하여 즉 법적 문제를 떠나 서로의 일치성을 신을 통하여 제시한다. 그리스도교의 예를 든다면 하나의 나무를 이루는 가지와도 같이 하

나의 몸을 이루는 저체들로서 “너”와 “나”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라는 일치된 한 체(體) 한 몸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이 역시 물질적인 면에만 국한되어 너를 나와 빼어놓고 심지어는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 되며, 나의 불행의 썩는 바로 너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낳고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운명을 좀먹게 하며 대아를 위해 소아를 희생해야 한다면 이는 자기의 파멸로 생각 하게끔 한다. 사회의 부정 부패는 사회의 정화 이는 오로지 어떠한 외적 규정이나 처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종교관을 갖고 자신 안의 신앙대로 사느냐에 따르게 되는 것이며, 사회에 의한 인생관은 사회 안의 이러한 병태를 더욱 더 조장하여 문란케 할 것이다. 인간의 사회성 공동체성에 대해 이와 같은 구별점을 낳는다면 문화에 있어 참다운 종교의 역할 기능과 사이비 종교의 영향의 차이는 정말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의 한 순간 한 시대 안에 이러한 차이점 사이비 종교가 인류 문화 안에 끼친 영향

을 여러분의 비판 속에 맡기며 우리의 앞날 자신의 한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 참다운 종교가 주는 보이지 않는 힘과 사이비 종교 미신을 통해 받게 될 외적 손해를 자신의 과거 우리민족의 자취 인류역사의 거울을 통해 한번 비춰보아야 할 만격스러운 일이다.

불교(Buddhism)와

미 신



이 인 수 균승

1. 서 언

『종교의 이론이 철학이요 철학의 실현이 종교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불교는 이러한 민족적이요 역사와 더불어 같이 걸어온 종교이므로 인도에서 산출된 불교사상은 종교나 철학이 모두 그들의 어떠한 필요성과 인간사회의 필연적 요청에 의한 소산인 만큼 이 양 사상이 천연 상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는 원래 철학적인 종교이므로 여기에 불교의 독특한 신앙이 있게 되고 또 발달하여 왔던 것이다.

대성자모이신 석가모니의 근본 관심사는 인간교의 실상에 크게 감동하여 이 인간교(人間苦)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 인간교를 절실히 느꼈다는 것은 현실로서의 인생의 부력을 자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6년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오도로 Buddha(覺者)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본성을 찾아 내어 그 위대성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체득한 이 진리를 우리 인류에게 교시한 것이 즉 불교다.

Buddha는 입증시에 제자들에게 해탈의 길을 오직 자기자신(自歸依)과 법(法歸依)을 아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지 결코 Buddha 자신이나 기타의 어떤 것에도 있지 않다고 누누히 가르쳤다.

수 많은 경전에 가득히 실려 있는 불교 교리의 핵심인 공사상과 연기설이 주장하는 일체존재의 상대성 앞에 어떠한 인격적 혹은 절대자도 있을 수 없다.

불교에서의 인간 위치는 항상 가변

적이고 상대적인 존재밖에 못 된다.

불교교리의 대전제가 되어 있는 제행무상의 근거에는 인연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상대적인 세계가 놓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성, 불성(佛性), 일심(一心) 등은 그것이 다만, 종자성(Bija) 즉, 인간이 연에 따라 선도, 악도, 진(眞)도 가(假)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혹은 전혀 허무적인 무기(無記)로도 될 수 있는 순수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지할 뿐이지 결코 어떤 종교적 신성이나 절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할 때 일심(一心)이라는 「마음」은 본래 Indo철학에서나 불교학에서 마음이란 말은 학술적으로는 Citta(心), Manas(意識), Vicara(思量), Bodhi(覺) 등의 여러가지 심(心)을 포함하는 류개념으로 사용되며 좁게는 이들 중의 어느 하나 혹은 몇 개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불교의 경우 이들 어느 한 마음에도 결코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정신앙의 대상

그러면 불교의 정신앙(正信仰)의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원시 불교시대 부처님께 귀의하여

〈교종코너〉

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날 적에/그
입교의식으로 취해진 것에 3귀의(三
歸依)와 5계(五戒)가 있다.

3귀의 즉 3보(三寶)라 함은 Buddha
(佛), Dharma(法), Samgha(僧)이며
5계라 함은

- ① 살생(殺生)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②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③ 사음(邪淫)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④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등이다.

먼저 3보에게 귀의한 후 5계의 수
저(受持)를 맹세하면 입교가 허락되었
던 것이다. 이 가운데 3귀의라는 것이
신앙(信仰)의 대상으로 Buddha, Dh-
arma, Samgha의 3종이 제시되었고
이에 귀의 하는 신자의 신앙심이 발로
되었다.

불교교단이 형성된 2,500여년 이래
오늘날까지 초입교자나 승려나 신자를
박문하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창(唱)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원시 불교시대부터 3보라 일
러 오는 바 이 불, 법, 승, 삼보가 불
교신앙의 절대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사실로서 이외의 것은 모두
미신(迷信)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 3보가 불교신앙의 대상인 의의

(意義)에 대하여 약간 해설을 가하면
이 3보는 3단계적으로 점차 심오한 의
의에 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앙(信仰)의 대상이 3보이지만
그 제 1단계로서는 먼저 Buddha를
우리 인생은 신앙(信仰)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교는 Buddha로부터 시
작 되었기 때문이다.

Buddh의 말씀을 보던 3보에 귀의
하는 자는 불타(佛陀)께서 반드시 구
제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범
부는 무엇보다도 불타(佛陀)의 이 말
씀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건져 주시겠다는 대자비의 품 안에
우리는 순결무구한 마음으로 뛰어 드
는 것이 불교신앙의 첫 걸음인 것이
다.

법(Dharma)이 무엇인지 승(Sang-
ha)이 무엇인지는 얼른 그다지 간단하
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성불타는 그 위대한 인격
에 우리의 머리가 수그러져고 또 마
음에 감격을 느끼게 되어 우리 범부
들을 신앙심(信仰心)의 첫 단계적인
대상이 된다.

제 2단계는 Dharma(法)가 신앙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Buddha는 어찌서 불타 즉

각자(覺者)가 되었는데, 그것은 Dharma 즉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불타(佛陀)의 말씀에 『법(法)은 불(佛)이 출세(出世)하나 없으나 항상 상주하는 것을 불(佛)이 깨달아서 우리 인생에 연설하고 개시할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 법(法)은 우리 인생도 불타(佛陀)와 같이 능히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현실상은 어떠한가. 만약 불타와 범부와를 비교하여 본다면 그것은 현격의 차가 있다.

Buddha는 마치 일원과 같은 청정광명의 존재요, 우리 범부는 혼탁하고 얽메인 범부라 일컫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부가 고원한 대성불타(大聖佛陀)를 따라 가고자 할 용기와 신념을 북돋우어 주는 것은 역시 Dharma(法)의 힘에 의하는 것이다.

Buddha께서 법을 깨달아서 불타(佛陀)가 되신 것과 우리 범부가 Buddha를 따라갈 수 있는 근거도 역시 Dharma(法)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찰하여 보면 3보중의 법보는 제 2단계적으로 한층 더 높고 깊은 의미의 신앙대상임을 알 수 있다.

Dharma(法)라는 것은 우로는 Buddha를 내고 아래로는 범부를 이끄러 올릴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이 법(法)이 없이는 불타도 있을 수 없고 우리 범부가 찾아날 근거도 없는 것으로 이 법(法)은 다만 우리 범부의 신앙(信仰)의 대상일 뿐 아니라 불타의 신앙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타께서도 항상 법(法)을 존경하고 공양하신다고 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불 때 불교신앙대상의 그 제 1단계의 Buddha 보다도 일층 더 고원 심오하게 제 2단계적으로 진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3단계로는 자아(自我)가 신앙의 대상이다. 불타로 하여금 불타가 되게 한 것은 법(法)이었다. 법이라는 것은 즉 진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인가.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장 갈구하고 흠모하는 것이 이 진리다.

불타는 이것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있다. 즉 그의 말씀에 「법을 보는 자는 나(佛)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나니라」라고 하셨다.

Buddha가 도(道)를 깨달았다는 도나 법은 모두 동일한 진리의 의미로써 불타 자신과 진리는 2체(二體)가 아니라 곧 하나라는 것이다.

이 의미를 「Buddha(佛), Dharma(法), (一體)」라 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일체로 된 것이 도를 깨달았다는 것이요, 도가 곧 진리며 진리가 곧 석가의 자아라는 것이다.

Buddha는 자아 이외의 진리는 이것을 인정치 않는다.

불교목적이 자(覺)에 있다함은 진정한 자아를 체득하는데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覺)한다 함은 자아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진리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 체득한다는 것이다.

3. 미신의 대상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칠성승배라든지 산신승배라든지 하는 것이 불교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토속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재래의 신앙이 불교신앙의 한 모습을 습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불교신앙이 먼저냐 토속신앙이 우리 풍토에서 먼저냐 하는 것은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현실의 불교신앙의 실태를 볼 때에 견성성불(見性成佛)을 하겠다고 하는 불교의 대중은 아따 극소수다.

대부분이 내세의 기복이라든지 또는 현세의 발복을 위해서 사원에 모이는

대중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불교의 순수한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도 일종의 미신이다.

마찬가지로 칠성각을 모신다 산신각을 모신다 하는 것도 미신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과거의 당시 입장으로 볼 때는 칠성승배나 산신승배를 옛날 승가에서는 불교를 생활화하고 당시 안목으로는 이것을 현대화라고 했으며 포교를 하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적절한 새로운 불교신앙의 토착화를 위한 진저한 노력이요 또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한다.

오늘날 불교의 근대화와 경화화를 의치고 있는 마당에서 그러한 재래의 산신각 칠성각에서 볼 수 있는 토착화의 노력과 생활화의 노력에 대치될 만한 아무런 방법이나 대응이 없이는 그것은 속신이요, 미신이라고 축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교유의 신앙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우리 현실로 보아서 대중들로부터 단감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와 같은 것은 신앙의 측면에서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불교를 논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신앙자체가 끼친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여러가지 영향력도

영향력이겠거니와 특히 문화의 측면, 전통문화에 대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격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최기적인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종래의 불교가 토착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생되었던 토속신앙은 좀 더 재고되어야 할 시간이 요하는 것이다.

4. 결 론

불교신앙 대상의 본질문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3단계적으로 고찰해 왔다.

그 제 1단계의 대상은 Buddha, Dharma, Samgha의 삼보(三寶)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대상으로서 그 중심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층 더 깊이 찾아 들어가서 제 2단계로 진리가 그 대상이라는 데까지 진입하였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이 과연 그 핵심체를 탐색한 결과 그것은 즉 자아라는 데까지 도달하여 제 3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이상의 논술이다.

불교신앙의 진정한 대상은 결국 믿는다는 우리 사람들 각자 자신의 자아(自我)를 신앙(信仰)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3보라는 형식을 통하여 진리에 들어가 그 진리의 핵심체인 신자각자의 본질적인 자아(自我) 즉 자성청정

심(自性淸淨心)을 신앙의 구경적(究竟的)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교소고(邪教小考)



김 상 학 군목

서 론

풍요한 20세기는 『사교』의 범람의 시대가 된 것 같다. 저면관계상 박강로 전도관과 통일교회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여호와의 증인, 제 7일 안식일 교회, 말일 성도 그리스도교회,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에 대해서 약술하려 한다.

본 론

I. 여호와의 증인 (The Jehavas Witness)

가.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역사

종파의 교조는 찰스, 러셀(Charles Russell)이 1872년 미국 펜실라니아주 알레겐니에서 시작했다. 1884년 "Zions

Watch Tower Tract Society"라는 공인 종교단체로 인가 받았다. 1902년엔 몇몇의 성서해석에 반발 많은 교도가 떨어져 나갔으며, 1910년 부인의 이혼 소송제기에 『번역스럽고 자아주의자며, 억압적이며, 만 여자들과 올바르게 못한 관계 때문』이라고 했으며 정식 이혼을 했다. 회랍어 원어를 통달했다고 했으나 판사 앞에서 회랍어성서를 읽지 못한 쟁피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기적의 밀』한 조대에 60불씩 받고 판매한 비난도 받고 있다.

몇몇사망 후 Rutherford가 인제 받아 전임자의 성서해석을 수정해서 교세를 일로 확장시켰다. 『성도들의 구원의 시기를 1914년』이라 했으나, Rutherford는 1914년 후 언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열광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수정함에 이르렀다.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애급의 피라밋의 크기를 측량해서 예언할 수 있다고 했다. 성서의 바른 재림의 시기는 예수자신의 말을 빌리면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마태복음 25장 26절)

1931년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Jehovas Witness"라고 결정했으며, 1942년 1월 8일

Rutherford가 사망하고 Nathan H. Knorr가 인제받아 교세를 더욱 더 확장시켰다.

나. 성서해설의 오류

Jehovas Witness는 성서의 문자를 묵수해서 성경구절을 자기나름대로 맞추어 본래적이며 또한 성서전체를 흐르는 진리를 외곡되게 해석하고 있다.

(1) 그릇된 신관(The Idea of God)

기독교의 교리중 신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본래 말씀이 계시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 1장 1절)』를 "The Word was a God"으로 번역했다. a god은 여러신들 중의 하나의 신이다. a god이 아니라 God이다. 즉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격하시켰다. 이들은 『주 안에서』라는 (사도바울의 서신에서 163회 사용) 구절을 묵살해 버렸다.

여호와와 증인들의 예정표에 의하면 『1914년에 여호와께서 기름부은 자를 왕좌에 오르게 하셨으니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 그 후 3년 반 후에 곧 1918년에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다』(J. F. Rutherford, Prophecy PP. 73-74). 이때 비로소 그

리스도는 신앙의 잔존자들을 모아 여호와의 증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이 잔존자는 14만 4천명에 제한되며 이들만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J.F Rutherford, Government PP. 277-300).

성서는 요한계시록(7장 4절)에서 이 숫자를 말했으나 요한계시록은 로마정권의 학대시에 기록된 것으로서 은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성서는 요한계시록(7장 9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명이라고 부르짖는 박태선장로 전도관과 상통한다.

(2) 삼위일체론(Trinity of God)

이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그의 종들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상적 실체이며 움직이는 힘에 불과하다고 한다(Let God be true. P. 101). 성령을 Spirit이란 용어로 쓰지 않고 it, he로 쓴다. Unitarian과 방불하다. 하나님은 홀로 제신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삼위일체』(Trinity of God)신에서 한 발자극도 양보할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고후 13장 14절, 엠 4:30절).

(3) 기독교의 오류(Christology)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가 기독교의 진리를 좌우한다. 무죄하고 완전한 인간이었으며, 동시에 완전한 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첫번 피조물이라고 『여호와 의 증인』은 말한다. Jehava 하나님과 동일한 분도 아니며, 영원성도 없다고 한다. Logos인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천사장 미가엘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주 후 1세기의 이단이든 Arius의 논리와 방불하다.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는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음(Incarnation)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타락이전의 아담과 같은 존재로 나타났다고 한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성을 제물로 드려 무로 돌아 가게 되었으며 그의 부종의 보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신성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땅의 생애는 한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의 의의를 지닐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와 현재적이며 영적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존재는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생각한다(From Paradise Lost to Relegion Regained. P. 127).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적인 교리인데 예수의 부활을 『능력있는 불멸의 영으로 삼으셨다』고 한다(The Truth shall made you free P. 40).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성서의 요한계시록(1:17-18)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하는 말씀과는 상반되는 말이다.

(4) 종말론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망의 날이다. 『여호와와의 증인』의 교리는 1914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시되었다 한다. 단 보이지 않게 재림해서 본자가 없다 한다. 성서적 진리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고 했다. 또한 『불거여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묵 1:7).

(5) 국가관과 인간론

의사의 수술을 그들은 반대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질 것이다』(레 17:14). 수술은 피를 먹고 시는 것으

로 생각한다. 성서적인 교리는 짐승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상징한 것으로서 피먹는 것을 금하긴 했다. 위독한 환자에게 수술을 금한다면 사회정의에 있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관에 있어서는 국가에 경례를 금한다. 모든 정부는 보이는 악마적 기구이며 국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며 국가에 경례함은 구원을 국가에 물리는 행위라 한다(Let God be true PP. 242-3). 느브갓네살왕의 동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단 3:12)에 비교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를 거부한다. 그러나 성서적 태도는 『정권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므로 순종하며 복종하라』(롬 13:1).

(6) 교회론과 구원론

“Watch Tower”기구 외의 세계 모든 정부와 종교단체를 악마의 기구며, 교역자(성직자)는 악마와 인간을 매는 줄(The Kingdom at Hand. P. 186)이며, 교회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여호와증인의 무 계급이 있는데 구원받을 14만 4천과 큰 무리로서 수천년의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 사람씩 밖에 나가 전도하라』고 하여 복음증거와 분시보급에 힘쓴다.

II. 제 7일 예수 안식교(The Seventh Day Adventists)

W. Miller라는 농부가 1831년에 발표하기를 예수의 재림은 1833년에 있겠다고 했으나 없자 회브리 월력으로 하니 1834년이라 했다. 1834년에도 소식이 없자 이를 신봉한 E. Harmon (& White)이 1834년에 예수가 확실히 재림하였는데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위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 친히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종파를 세웠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예수는 1834년에 재림하여 하늘 위에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한 후 심판 하함과 죄인을 위한 문을 닫아 버렸으므로 E. White의 중재없이 들어갈 수 없다. 기성 타교파의 교회는 예수 없는 빈곳에 대고 기도드린다고 한다.

나. 일요일을 지키는 자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며 멸망의 운명을 가진 자다.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한다.

다. 요한계시록의(14:6-11) 세 가지 사신을 가진 자는 자기를 뿐이며 14만 4천(제 7:4)명의 구원받을 알맞은 자는 만원되었다고 한다.

라. 예수는 유죄한 타락 후의 인간성을 가졌다고 한다. 예수는 무죄한 것

이 복음적인 견해이다.

마. 죽은 후의 인간의 영혼은 온전한 침묵에 있으며, 활동도 없고, 온전한 부의식중에 있다고 한다. 복음적인 견해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다』를 찬송부르게 된다(제 7:10,11).

III. 말일성도 그리스도 교회(Mormone & The Latter Day Saints)

창설자 J. Smith가 15세 때(1819)에 환상을 보고 1822년에 계시받아, 그모라산에서 미국 홍인종의 역사와 그 때에 계시한 복음이 기록된 황금판을 발견하였는데 Mormon이 받아 기록해서 아들 Morony에게 전했으며 그가 임종시 그 모라산에 매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상형문자인데 번역해서 『물문경』이라 부르고 『계명의 책』과 『교리와 계약의 책』을 증습해서 성경도 경전으로 넣고 1828년 『말일성도 그리스도교회』라는 명칭으로 발족했다. Smith형제는 『일부다쳐 제도』를 부르짚었다. 이들은 1844년에 폭도들에 의해 손수 건설한 Nauvoo라는 도시에서 죽은 후 B. Young이 계승하여 1847년 Great Salt Lake에 이르러 불모지를 개척하여 Utah주 전체를 차지하여 개발 시설했다.

<군중코너>

이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과 전혀 다르며, 성령은 신격이 없고 힘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경에는 일부다처제가 임금되어 있으나 허락했다. B. Young은 17명의 여인을 거느렸다. 2~4년은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선교봉사를 해야하므로 날로 번창된다.

IV.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Marry Baker Eddy부인(1821출생)이 1862년에 Phineas P. Quimby에 의해 최면술로 병(신경계통)을 치료받고, 『과학과 건강』이란 책을 써서 3\$씩 받아 40만권이 매진되어 심리학대학과 신문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조직을 확장하여 나갔다.

이들의 우주관은 일원론적이며, 범신론적, 이상론적이다. 물질의 존재는 부인하고 마음만 존재한다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 한다. 극기를 역설한다. 질병은 그렇게 생각할 것 뿐이지 실재는 없다고 한다.

그들의 종교관은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선하고, 선한 것은 마음이다. 정신이 전부며 물질은 없다. 생명과 하나님과

진능함과 선동은 죽음과 악과 죄와 병은 생명과 하나님과 선과 진능함을 부인한다. 즉 하나님은 『인격적』이 아닌 원리에 불과하다.

또한 우주와 물질의 창조를 부인하며 하나님은 물질을 만든 적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한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신, 성령의 존재, 사죄의 도리 예수의 재림, 최후의 심,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됨을 일체 부인한다.

결 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하리라(마 24:4.5)』고 예수는 장래의 될 일을 예언한 바 있다.

광풍(狂風)을 헤치고

성경 사도행전 27:9~37



최 원 진 군주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향해 가는 아드라뉘테노라는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들 중에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백부장 울리오를 위시한 군병들과 이들의 감시를 받아 가며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직업 저들의 사람됨은 자각 달랐을지 모르지만 저들은 지금 같은 배에서 공동운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죄인아닌 죄인으로 기독교의 관도를 그려가는 일대 순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통적 이스라엘의 벤야민 지파에서 태어나므로 가문이 좋았고 난 때부터 로마시민권을 차지하므로 자유민의 권세가 당당했고, 권위있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기에 지식으로 교만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위인이었지만 다메섹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회심한 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분토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그는 유대인의 시기를 사고 죄인시 당하게 되어 결국 가이사황제의 재판까지 받아야 할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 운명에서 당시의 최고도시로 마르 항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해가 예상대로 순탄치가 않

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아드라뭇테노라는 배가 일단 미항이라는 곳에 안착하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 시기가 되었다고 오늘의 본문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의 속죄일을 말하는데 그 해에는 10월 상순경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항해습관에 의하면 10월이 지나 11월에는 풍량이 자주 일기 때문에 행선하기가 심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번의 전도여행으로 항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미항)에서 월동을 한 다음 항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배의 주인격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의견을 좇아 뵤닉소에 가서 과동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의 말을 무시한 그배는 백부장과 선장의 뜻대로 항해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기에 의기양양하여 행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조롱하며 행선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배는 걸잡을

<군종코너>

수 없이 이리밀리고 저리밀려서 점점 위험한 지경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인생향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다른 직책과 다른 계급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통되는 운명을 지닌 다 같은, 입장의 선원이요, 선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향해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으며 예기치 않았던 역경이라는 광풍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한 결과 광풍을 만나는 것과 같은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별로 어기지 않은 것 같은데도 걸잡을 수 없는 광풍이 밀어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과 같은 온갖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데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인간의 원죄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들은 어느 누구의 예언도 없이 인생고가

있기 마련이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고생을 살 필요는 없으며 일부러 광풍을 나가서 맞을 필요는 없지만 인생 항해과정에서 유라클로같은 광풍을 피할 길이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닥쳐오는 온갖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의 본문말씀에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에서 유라클로광풍을 만난 아드라쿠테노베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첫날에는 연장을 나렸다가 이틀날에는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사흘째 날에는 배의 기구를 내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첫째해야 할 일은 무게를 주었던 짐짝이니 연장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온갖 사회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광풍을 이겨 나갈려면 먼저 마음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다 털어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털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들을 하나하나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1907년이 대부흥운동의 해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사경회를 열고 부흥회를 열고 기도회를 열고 했는데 모임 때마다 저들은, 죄를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열렬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약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1910년 한일합병 이후 36년간 일제의 탄압이라는 모진 광풍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계속 자라왔으며 성령의 불길이 불어 왔던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죄를 털어내 버리는 회개운동 없이는 부흥할 수 없으며 온갖 광풍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탄던 배의 선객들이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절망중에 빠져 있는 선객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

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신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사도행전 23:25). 이러한 바울의 철지한 믿음, 꼭 이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마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있는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온갖 믿음의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물리치는 것도 믿음이며 핍박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이며 온갖 세상의 광풍을 헤쳐나가는 것도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1967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쥘리 월드박사는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세계가 핵파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성서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희망과 보배로운 성서의 본원에 의해서만 핵파괴를 피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향

〈군중코너〉

하고 있는 10년이내로 닥칠 것같은 대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 우리가 다가오는 온갖 세상의
광풍을 헤치고 나갈것은 하나님만을
은전히 의지하는 신앙생활에 있는것입
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시인과 같이
이렇게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
니 환란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의 변화는저 산이 흔들려 바다가운
데 빠지든지 바다물이 흉용하고 뛰놀
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요동할지
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탕던 배의 선객
전원이 구원받은 것은 배속의 짐을나
바다에 내던지고 바울의 철저한 신앙
에 따르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이 바울
의 위로와 권면으로 용기를 얻고 희망
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날
동안 광풍에 밀려다니던 선객들은 절
망 속에서 음식력기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사도바울은 저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오늘까
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굶어 왔읍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음식을 먹으
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복습

이 붙어 있을 것이고 당신들 중에 버
러카락 하나라도 잃은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저들은 삶에 의욕을 다시 찾고
모진 풍랑과 싸울 힘이 생기고 구원의
여명을 맞이 했던 것입니다. 온갖 풍
간을 이겨 내는 마지막길은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가져는 것입니다. 용기있
는 자는 광풍을 헤치고 나갈 수 있지만
비겁한 자는 광풍에 쓰러져고 마는 것
입니다.

실지로 함해를 많이 해 본 경험
이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해
도중 파선되어 표류했을 때 제일 무서
운 것은 음료수가 떨어지는 것과 따가
운 햇빛을 계속 맞게 되는 것과 전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제일 무
서운 것은 무엇보다 고독가운데서 안
담한 가운데서 절망해 버리는 것이라
고 합니다.

아무리 악조건에서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지닌다면 살길이 있지만 낙심
하고 절망한다면 영원한 패배자가 되
고 죽는 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광풍에서
나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설교 •

새 사람

성경 : 에베소서 4:22-24



이 전 명 군복

성경 : 에베소서 4:22-24 제목 : 「새사람」 바울의 두 가지 인간관은 옛 사람과 새사람이었다. 로마서 중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했다.

옛사람은 마치 알코홀 중독자와 같다. 윌리엄제임스는 『사람이 결심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했다. 「이 삶의 우화」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즉,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는 여자로 모양을 변장했다. 이 여자가 식탁앞에 앉아 있다가도 방 바닥에 쥐가 나타나기만 하면 자기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파스칼은 『사람은 천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악마도 아니다. 사람 속에 천사와 악마가 살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사람은 냄새나는 마구간과 같다』고 했으며 하비박사는 『사람은 끊임없는 우상제작소』라고 말했다. 또한 『최후의 피난소』란 소설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같이 옛사람의 인간상이란 절대자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며 부조리의 모순덩어리임을 직시할 수 있다. 우리는 단연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새사람의 인간형을 말하려 한다. 웨슬레의 저서 『기독교자의 완전』이란 책에서 『인간이 완전해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이 아무리 완전해 가까워가도 절대성에 도달하거나,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염려없다고 할 만큼 완전의 경지에 도달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즉 새사람도 완전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질주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사람에게는 동적이고/약동하는 생명력이 있다. 바울의 생활태도에 비추어 볼 때에 여전히 인간은 그 내면생활에 모순과 충돌을 계속하여 느끼고 있으며, 도덕적 딜레마에 봉착하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중에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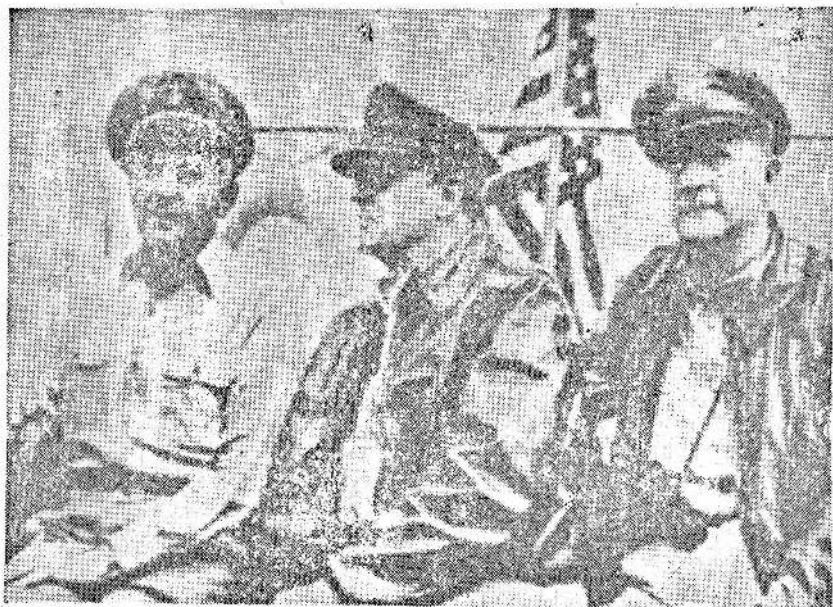
〈군중코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무한한 능력이 계심을 알고, 믿으며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사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실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시어서 "Here and now"(지금 여기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도움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옛사람은 자기의 요구를 모르나, 새사람은 아는 것이다. 또한 새사람은 수치의 감정을 시인하고 감저하나 옛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후시 안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긍정하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것이다. 시편과 에스겔서에서 『물같은, 단단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시』하는 애원의 기도를 볼 수 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한 시를 읊었는데, 그 내용은 광활한 넓은 바다에 빈 물병을 던졌는데 그 병 안에는 물이 한방울도 들어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개를 막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옛사람의 죄악상의 문이 꼭 닫힌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도 그 마음에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안을 떠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고 새사람의 경지에 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몇년 전 구라파를 횡단하려는 비행기가 한 대 있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조종사가 탔었는데, 갑자기 기계의 고장으로 아프리카대륙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게 되었다. 다시 고장난 부분을 정비하고 비행을 하는 도중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엔진을 들여다 보니 그 안에 쥐 한마리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하고 있었다. 이 쥐를 잡으려고 고심하던 중 한 조종사에게 하나님의 계시같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즉, 고도비행을 하면 사람은 쉼없으나 쥐는 쉼없이 적으므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고도비행을 단행하여 쥐를 죽일 수 있었다. 우리가 낮은 세계에서 옛사람의 형태로 살 때에 유혹과 피로움이 많으나 높은 영적인 새사람이 될 때에 유혹과 피로움은 사라진다. 우리의 인생관은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안도감의 양자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운데가 한국전쟁의 은인 맥아더 원수>

한국전의 용장 맥아더장군

정 성 환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 갈 뿐이다.」

◇ 그의 생애에 빛나는 날

1945년 9월 2일 「미즈리」함상 항복문서 조인식의 그날 「맥아더」원수는 역사의 초점에 서 있었다.

세계를 뒤덮던 제2차대전도 그날로서 종결된 것이다. 전쟁은 끝나고 자유는

왔다. 평화는 드디어 도래하였으니 위대 이 날이야 만로 「맥아더」장군의 건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아니었던가.

회고해 보면 66년의 그의 생애는 이날 하루를 위하여 있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리라.

진주만의 기슭으로 태평양전쟁에 돌입한지 4년 국운을 기울이고 전력을 다하

여 약전에 약전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속적으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을 감수케 할 완전승리를 축하하는 그날이다.

◇ 부지개 사단장

「맥아더」장군은 유서깊은 명문의 출신이다. 「맥아더」의 일가는 「맥아더」원수의 조부시대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조부는 후년 「위스킨신」주의 부지사까지 지낸 인물이었는데 그가 도미하자 일남 「아더」가 탄생하였으니 그가 「맥아더」장군의 친부이다.

남북전쟁이 도발하였을 때 「아더」는 겨우 16세였으나 전쟁에 출정하기를 열원하였으므로 조부는 부득이 탐정을 시켜서 집을 나가지 않도록 엄중한 경계를 명하였다. 그러나 너무도 열심히 지원함에 못이겨 다음 해는 드디어 출정을 허락하였다. 그때 제급이 소위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어울리는 소년다운 용모였기 때문에 동료의, 장교들로부터 소년취급을 받았으나 일단 전쟁이 벌어져 자 발군의 공훈을 세워서 용명을 떨쳤다.

사단장, 연대장 이하 간부장교가 모조리 전멸하여 아군이 후퇴하였을 때 「아더」소위만이 찢어진 군기를 사수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서반아전쟁(1898년)에는 사단장으로서 비올빈 공략전에 참가하여 「마닐라」점령

위 선두를 차지하였다. 이것이 기원이 되어 비올빈군정권에 임명되어 주둔비군의 지휘를 위임받았다.

약 10년 후 1912년 겨울 64세로서 퇴역하였을 때는 중장이었으나 그후 얼마 안되어 「밀워키」시에서 서거하였다. 그런데 죽을 때의 그 장면이 무인타웠다고 한다.

남북전쟁에서 그가 지휘하던 연대사관이 50회째의 연차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병증을 무리하면서 출석하였다는 것이다.

일찌기 장검을 어루만지며 야영의 밤을 함께 이야기로 밝히던 털기왕성한 진우는 그 대부분이 유명을 달리고 생존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백발의 노옹이 되었다.

「아더」중장의 음성은 떨렸다.

『제군의 용병한 들적은……』

하자 그대로 단상에 쓰러졌다. 그는 절명한 것이었다. 곁에 있던 옛날의 부관이 피에 붙들은 당시의 명예군기를 장군의 사체 위에 덮었다. 그러자 서너절을 그 노부관도 뒤를 따라 절명하고 말았다.

이 「에피소우드」는 금일에 이르기까지 「아더」중장의 최후를 장식할 미담으로서 전해지고 있다.

「머글라스·맥아더」장군은 그 장군을 부친으로 하고 「아칸소」주에서 탄생하였다. 그것이 1880년 1월 26일이다.

모친은 「버어지니아」주의 구가 「하디」씨의 딸이다. 「버어지니아」라면 남북전쟁에 있어서 남부제부를 인솔하고 쫓겨간 남군의 중심세력으로서 「하디」일가도 「로버트리」장군을 따라 용진하였다.

남북전쟁은 사상 미증유의 처참한 내란으로서 수년에 걸친 격전으로 남부제주는 폐허화 하였다. 거기다가 전세계가 불리하여 항복한 남부는 전후의 부흥시대에 북부의 압력으로 남부인은 오랫동안 북부인을 적대시 하였다. 따라서 「하디」씨의 영양 「매리」가 북부군의 대위와 상사지간이 되자 「하디」일가로서는 용이치 않은 중대문제가 되었다. 그래도 「매리」양은 「아더」대위와 결혼한 것이다. 주위의 반대는 영리하고도 자부심이 강한 여성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맥아더」장군은 용기를 그의 부친으로부터 받고 재능을 그의 모친으로부터 이어 받았다. 「더글라스」이외에 2남이 있었으나 하나는 요절하고 또 하나는 해군 소령이 되었을 때 병사하였다. 부모의 총애는 「맥아더」장군 일신에 집중되었다. 그것도 모친의 사랑이 더욱 강했다 한다.

사실상 후년의 「맥아더」장군은 그의 자모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립자처럼 82세의 고령으로 작고할 때까지 모친은 항상 「맥」장군 신변에 있

었다. 그리고 「맥아더」가는 유례가 드문 명문이며, 아들에게 부친보다도 훈공을 세워서 가명을 높여야 한다고 늘 타일렀다 한다. 더구나 모친은 「맥」장군을 사랑하는 나머지 건강으로부터 면학에 이르기까지 만사에 있어서 세심히 보살피주었다. 「맥」장군이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 재학중 우연히 동급이 된 「올리세스·그랜드」(그랜드 대통령의 손자)와 수석을 타투었을 때 매일같이 교정에 나타나서 경쟁을 하던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맥」장군의 모친과 「그랜드」부인이었다는 것은 지금도 유명한 이야기다.

결국은 「맥」장군이 수석의 영예를 획득하였는데 재학 4년간의 총 평균 점수가 98.14점이라는 전대미문의 성적이었다. 그리하여 개교이래 최고 기록점수로서 졸업하여 세인으로 하여금 귀재출현이라고 오랫동안 경탄을 붙들게 하였다.

「맥아더」장군이 귀재를 발휘한 것은 수학시대뿐만이 아니다. 그는 무엇이든 항상 으뜸에 있었다. 그리고 항상 기록을 깨뜨렸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사단장도 「맥아더」장군이요, 가장 젊은 사관학교장도 「맥아더」장군 또 가장 젊은 참모총장도 역시 「맥아더」장군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참모총장으로 있었던 것도 역시 「맥아더」장군이였다.

이러한 일은 무수하게 많다. 그는 확

실히 천재적이라 할가 영웅적이라 할가
— 그러한 소질을 가졌다. 그러나 그
소질을 난단하게 개화시킨 것은 그의 모
친의 공적이다. 부친의 정력과 모친의
야심 등이 때로는 빛이 되고 어떤 때는
수분이 되어 이 최유의 꽃을 피우게 한
것이다. 허나 항상 수석이 되어 동료 선
배를 뛰어 넘어 이례의 출세를 거듭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행복이라고만 할 수
도 없다.

후년에 꿈을 이루고 명성을 떨쳤을 때
「맥아더」장군은

『장군이란 이 얼마나 고독한 것이냐』
하고 개탄한 일이 있었다 한다.

어떤 때는 소수의 부하를 이끌고 포화
를 무릅쓰고 적진을 야습하였는데 언제
까지 기다려도 참모장관이 돌아오지 않
더라는 것이다. 모두가 이마를 찌푸리
고 걱정하고 있을 때 「푸로샤」사단의 1
연대장을 포로로 끌고 돌아 왔다. 계다
가 자신은 무기하나 휴대하지 않은 알몸
이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철모나 「헬메
트」는 전혀 쓰지 않는다. 여하한 격전에도
태연하게 보통 배의 군모를 쓴다. 계
다가 대단한 「스타일리스트」였기 때문에
군모의 철사를 빼고 약간 모자를 뒤로
쓰는 것이다. 또 언제나 거울처럼 광채
가 나는 장화를 신었다. 그런지 청조하
게 보였다는 것이다.

어쨌든 참모장의 진두지휘와 영웅적인
자태가 초출격인 무지개 사단의 사기를
크게 고무한 것만은 틀림없다.

무지개 떨어지는 곳에 승리가 있다.
전군 장병은 이 군가를 고창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였다.

「맥아더」참모장 그는 무지개 사단을
창설하고 여기에 승리의 영광을 준 것
이다.

그리하여 전두 때마다 감사장을 받고
새로운 작전 때마다 훈장을 받아 38세 때
에 이미 사단장으로 등용되었다. 물론
무지개 사단의 사단장이다. 이런 사이에
도 부상도 하였고 독가스에도 혼이 갔
다. 어느 때는 너무 벌리 진격하였기 때
문에 우군 포화를 만났고 어떤 때는 너
무 빨리 진격하여 독일병이 미군 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오인되어 포로가 된 때도
있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개선하였을 때 가
슴에는 D.S.C(수훈십자장)이하 13개의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부두에 출영한
자당의 만족이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포격은 그쳤다 세계는 군복을 벗는다.
평화와 군복으로 장군은 필요치 않다.
이때 「맥아더」장군은 추천되어 「웨스트
·포인트」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이 되었
다. 대전은 사관학교교육을 혼란에 빠뜨
리고 있었다. 「맥아더」장군은 착착 교육

을 재건하면서 그때 이미 차기 전쟁에 대비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가 「필라벨피아」의 대부호집 영양인 「루이즈」와 알게 된 것이 이때였다. 그때 「루이즈」는 초혼에 파경하여 파리에 서 이혼하였을 때였다. 당시 그 여자는 「퍼싱」장군과 친근한 사이여서 장군의 연회에는 반드시 주부인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0세의 장군과 25세의 재원과의 「로맨스」를 수근거렸던 것이다. 「퍼싱」장군이려면 원정군의 총 사령관으로서 공훈이赫赫한 육군의 최고 존재였었으며 「루이즈」는 풍성한 가인이었으니 무리도 아니다.

그러던 이 「루이즈」가 하루 밤 사이의 연정을 불태우고 홀연 「맥아더」장군과 결혼하고자 말았다. 허지만 구혼한 쪽은 사관학교장 「맥아더」장군이였다.

결혼식은 1922년 성 「케네티」제인 2월 14일을 기하여 거행되었다.

이날 사관학교생도는 전부 흥맥의 「리본」으로 장식된 「웨딩·케일」을 한 상자씩 받았다고 하니 호화찬란을 나 한 성전이었다 한다. 신문은 「군신과 백만장자와의 결혼」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자 결혼한지 2개월도 못되어 「맥아더」장군은 비울빈으로 전임되었다. 「퍼싱」장군에 (?) 의한 것이라는 풍문이었

다. 사람의 운이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백아더」장군의 후반생을 결정한 기로였다.

「루이즈」부인과의 결혼은 7년도 못되어 해소되었다. 부인은 「바랄과 함께 사라져다」의 여주인공인 「스카렛·오하라」의 면모가 있었다는 것인데 사교적이고 호화스러웠기 때문에 군인생활에는 별로 적합치 않았다. 특히 「마닐라」에서는 자극이 없어 너무나 심심해서 여자경찰을 지원하여 동물을 학대한 부부를 체포해서 신문에는 쓸데없는 「고심」을 제공하였다.

부인은 「맥아더」장군을 저극히 사랑하였으나 한편 「맥아더」장군은 군무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빈번히 궁중에서 이탈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40세의 장군장군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에게 있어서 군무는 성직과 같았다. 부부의 관계는 본국에 귀임하자 다소 완화되었다가 1928년 「맥아더」장군이 다시 비울빈으로 부임을 명 받음에 이르자 드디어 파탄이 생겼다. 「루이즈」부인은 「마닐라」에 동행하지 않고 「레노」시로 향하였다.

그후 2년인 1930년 「맥아더」장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참모총장으로 기용되었다. 그때 나이 50세였다. 이 나이로 그런 군직에 취임한 장군은 일찌기

없었다. 그런데다가 임기 4년을 마치고 1년 이상을 더 중임하였으니 이는 당시의 대통령 「푸랑크린·루즈벨트」의 간청에 의한 것이다.

제직 중 그는 전력을 다하여 군비 충실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후버」시정의 심각한 불경기시대였었으므로 재정긴축의 요구는 오히려 군비축소를 여지없이 하였기 때문에 그의 논의에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었다. 그가 상세한 숫자를 들어서 미국 군비는 위험한 수준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나이」상원의원은 그를 「전쟁선동가」라고 비평하였다. 「피핀제이」(멋쟁이)라는 별호 아름답지 못한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였다.

그래도 그는 장래의 전쟁은 기동전의 양상을 띠우리라는 확신 하에 육군의 기계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공군 참모본부를 창설한 것은 그의 탁견으로서 특서대필할 가치가 있다.

그의 의견서와 보고서는 4백페이지의 대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읽으면 흡사 예언자라는 감명을 받는다는 것이 정평이다. 그점은 같은 때에 「처어칠」씨가 저술한 「영국이 잠자는 사이에」라는 책과 비슷하다는 것인데 양자가 공통적으로 침략의 위협을 강조하고 군비의 충실을 역설한 것이다. 아울러 양자는 모두가 명 문필가다. 「처어칠」과 「맥

아더」의 교체는 별개의 것이다. 예로 「맥아더」참모총장의 보고서는 고전문학을 접할 때의 그 맛이 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군인으로서의 드물게 보는 독서가이며 특히 동서고금의 역사에 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참모총장 재임 중에 유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나스·마처」사건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1932년 여름 대저의 귀환 용사가 생활원호를 요구하여 처자를 겨르리고 속속 수도로 진행하였다. 화부의 중앙통 가두에 집결하여 야영을 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드디어는 이것이 폭도가 되어 백악관 앞으로 해도하여 경찰의 손을 넘게 하였다. 그때 참모총장은 육군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그는 백차를 타고 이를 지휘하여 곧 진압시켰다.

그때 군대가 「보나스」를 요구하는 귀환용사의 주문지와 속소를 활살라 버렸다 해서 그는 신랄하게 비난을 받았다. 진상인즉 「보나스」를 요구하여 폭동을 야기시킨 분자 중에 공산당원이 혼입되어 그 분자들이 주문지와 속소에 방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 때 심한 원망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가 공산당을 증오하는 감정이 강했다.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루즈벨트」대통령은 그를 놓지 않았다. 「루」대통령은

지극히 그를 신뢰하였다는 것이다.

「루즈벨트」대통령은 대중들로 하여금 친밀감을 갖게 하는 민중정치가적인 「타임」을 가졌다하면 「맥아더」장군은 그와 반대로 공경받는 파두 정치가적인 풍격을 가졌다는 것이 통설이다.

여하튼 「루」대통령은 유사시에는 「맥아더」장군 밖에는 없다고까지 심중 크게 신뢰하였다는 것이다.

◇ 나는 귀환하리라

그것이 「맥」장군의 비술빈 파견으로 된 것이다. 참모총장을 마치며는 보통 순서 같으면 퇴역하는 것이 전례이다.

「루」대통령은 비술빈 정부의 간청에 의하여 「맥」장군을 비술빈에 보낸 것이다.

때는 1935년 그리하여 「맥아더」장군은 55세 때에 또 다시 부자의 인연이 깊은 「마닐라」에 돌아간 것이다.

그의 사명은 비술빈이 독립하는 1946년까지 공화국의 국방력을 완성함에 있었다. 「케슨」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연액 8백만불의 지출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독립주의 전성시대였으므로 비술빈을 깊이 불바 줄 여유도 없고 한편 「마닐라」국회는 불황을 이유로 군사비의 삭감을 요구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의 임무는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 「케슨」대통령은 약속을 몇 번이고 어겼다. 그래도 「맥아더」

장군은 일익전심 사명달성에 몰두하였다. 「마닐라」호텔의 5층에 있는 그의 거실에는 야식을 넘어도 전등이 황황히 빛나고 때로는 천야 낭하를 걷는 소리가 아래층 사람들의 안면을 방해할 때가 몇 번이고 있었다. 사실 그는 깊은 사념에 잠겼을 때나 대답할 때는 곧잘 거닐었다. 동경 연합사령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한국전선으로 비례하는 얘기 속에서도 험가지였다. 그는 「마닐라」를 사랑하였다. 격무 중에도 촌가를 얻어 독서하였다.

1941년 6월 태평양전쟁이 도발하기 6개월전에 「루즈벨트」대통령은 돌연 「맥아더」장군을 현역에 복귀시키고 극동미군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역사의 전당은 그를 위하여 다시 문을 열었으니 그때 나이는 61세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진주만 기습으로 개전되었다. 그때 일본군의 기습은 전승장군인 그에게 악전고투와 참패를 가져왔다. 드디어 「바탄」의 보루로 후퇴하게 되었다. 더구나 연일악전이 거듭된다. 그성낙일투병 회소하려 할 때 「루즈벨트」대통령은 비전을 보내어 그에게 탈출을 명하였다.

밤이 찾아를 무렵 잠입한 수뢰정 4척에 분승하고 「맥아더」장군은 가족과 소수의 막료와 함께 「민다나오」도로 향하였다. 도중 일본군의 잠수함을 목격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민다나오」도에

서 기대한지 3일 후 일행은 「하늘의 요새」인 B-29로 호주의 「멜보른」에 안착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이것이 그의 반격작전의 일대 기저가 되었다. 상륙하자 그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나에게 「코레히도올」 탈출을 명한 것은 일본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 제 1 목표는 비울빈의 해방이다. 여는 탈출하였다. 여는 귀환하리라!』

『I Shall Return』—이 말이 곧 그후 전군의 표어가 되었다. 흡사 「치칠」씨의 V사인처럼 「아이 샬 리턴」의 제 단어는 「게릴라」와 주민에 의하여 비울빈 가는 곳마다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아무때든지 씌여졌다.

—씩, 전주, 도로상, 심지어는 일본군의 탄약고에도, 일본군 사령관의 승용차에까지 아무도 모르게 쓰여져 있었다. 드디어 그날은 왔다. 2년 반의 악전고투 끝에 1944년 10월 「맥아더」장군은 「메이테」만두에 상륙한 것이다.

『이것은 자유의 소리입니다. 「맥아더」장군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귀환하였다.』

그는 이렇게 비울빈 국민에게 귀환을 보고한 다음 필기하여 한테 봉쳐 일본군을 구축하자고 격려했다.

이 방송은 너무 거창하다고 해서 당시

때 비명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동양인의 심리 속에 파고 드는 데에 그는 독특한 직감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로 말하면 『나는 귀환하리라』라는 공약술 그때 실행한 것이었다. 머지나 『나는 귀환하였다』라는 이 방송은 과연 비울빈 전도에 전격적인 충동을 주었다.

그러나 한 때 미국은 비울빈을 우회하여 대만을 칠 방침이었다. 그것을 변경시킨 것은 1944년 초두 「하와이」에 있어서 「루즈벨트」대통령과 「맥아더」장군과의 회담에서였다. 사실은 그때 「맥아더」장군은 퇴역이 될 예정이었는데 필생의 웅변을 토하여 비울빈해방의 급무임의 소치를 역설하여 드디어는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옛날부터 신비에 가까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그 회담 때의 웅변은 더욱 훌륭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전선에 귀임하였다. 좌우간 세치의 헛바닥 하나로 본국 정부가 결정한 기본전략을 일변시켰으니 그야말로 놀라운 웅변이다. 게다가 퇴역도 안되고 귀임하였으니 더욱 놀랍다.

『「맥아더」군 내가 지고 말았네. 그러나 필시 저 해군이 시끄러울 것일세』

이렇게 말하며 「루」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었다는 것이다.

다음해 즉 1945년 3월 2일 「맥아더」장군은 「코레히도올」요새 위에 섰다. 힐끗

쳐다보니 남은 것네가 있었다.

『죽기를 울려라!』

나팔소리와 함께 성조기가 펄펄 날리며 올라간다. 그것을 우러러 보는 쌍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때 눈물에 젖은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언덕 위에 있는 흰 벽의 집이었다.

그집은 연일 연야의 폭격 속에서 애처와 애식과 함께 지내오던 「사랑의 집」이었다. 가련한 처자는 여하히 작렬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한 때도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코레히도올」 탈출의 날을 상기하면 만감이 교묘하여 부한한 감개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 감개를 벅차게 지니고 그는 부인에게 금시계를 증정하였다. 그 이면에는 역시 세 단어가 부각되어 있었다.

『To: The Bravest』(가장 용감한 사람에게).

◇ 평화의 승리

『평화에도 전쟁에 못지 않는 승리의 명성이 있다』 「세익스피어」의 이 명언은 아마 「맥아더」장군의 경우에 가장 알맞는 말이 아닐까?

「맥아더」장군은 5년 8개월간의 일본 점령을 통해서 유감없이 그것을 입증하였다.

비밀빈을 탈환한 그는 곧 이어 오키나와를 공격하였다. 그것이 1945년 6월이다. 그때 미국 정부는 원자폭탄의 사용을 결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작전도 예정하고 있었다. 그해 11월에는 구주 남단 1946년 봄에는 관동평야에 대거 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몰락 후 1개월이 지나자 「포스담 선언」이 발표되고 원자폭탄이 두하둑 다음 뒤이어 소련이 참전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항전 능력을 과대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한편으로 소련의 참전을 요청하는 과실을 범하고 다른면으로는 일본 처리의 복안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종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알타」협정에 의하여 「난화태」와 「간도」 및 재만권익을 획득한 소련은 불과 수일간 참전한 대상으로 「맥아더」장군과 같은 권한을 유하는 사령관으로서 「와시레프스키」원수를 일본점령에 참가시켜 북해도를 점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을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거부권을 인정하는 연합국 판티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맥아더」장군은 점령행정에 있어서 소련의 개입에는 시종 단호히 반대하여 만일 소련의 주장이 통과될 경우에는 즉시 최고 사령관의 직을 사임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응수하였다.

☆☆☆☆ 한국전의 용장 백아더장군 ☆☆☆☆☆

무조건 항복이 초대하는 혼란을 회피하면서 소련의 간섭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백아더」장군의 탁월한 수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 점령에 대하여 「크레무린」은 완전히 방관자의 지위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일억육백만을 떠들고 있던 광신적인 일본 국민을 일조일석에 평화적인 민주국민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용이치 않은 난사업이었다.

그러나 「백아더」장군은 어느 정도 그 난사업을 달성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는 일본이 가면을 쓰고 비군사화 민주화를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그것은 요즈음 일본의 칩락근성의 태두 그리고 친공적인 정책이 여실히 증명한다. 그야말로 일본은 미국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백아더」장군은 드물게 보는 신념이 투철한 장군이다. 그가 일본 점령의 제 일보를 원목비행장에 내디뎠을 때 애기 「바탄」호는 일체 무방비였다고 한다. 탄흔이 생생한 비행장에 내려선 「백아더」장군은 무기 없는 맨몸이었다.

막료가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 무기를 두고 오게』

이렇게 말하였다.

특히 그 원목비행장에는 그 직전까지도 소위 특공대원이 항복에 불응하고 회

후의 일전을 저절렸다는 것이다.

생각하면 「백아더」장군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믿는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운명의 사람』임을 자임하고 있다. 운명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운명을 움직인다고 할까?

그의 초연주의, 무한의 용기, 절대적 권위, 굳은 의지, 엄연한 위용 등의 총화가 숭배자의 눈에는 시대의 영웅으로 보이고 방관자에게는 일세의 파내망상자로 보이는 것이다. 여하튼 그는 세계적인 거인이며 영웅임에는 틀림이 없다. 시대의 진보에 따라 영웅이라는 명칭의 개념이 점차 희박해 진다고 하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백아더」장군은 확실히 영웅이었다.

패전 후 6년의 일본역사는 「백아더」장군 개인의 역사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백아더」장군이 「로맨티스트」라는 것은 진기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그는 이상주의자다. 더구나 「백」장군처럼 경건한 「크리스천」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두텁다. 그가 연설에서 성서에서 인용하고 신에 호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느 해의 탄생일에는 「모마」법황으로부터 자서한 사진을 받고 극히 기뻐하였다는 것이다.

『법황과 장군 두 사람만이 「그리스도」교의 수호자인 모양』이라든가 아무래도 『하느님과 친척인 모양』 이렇게 짓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도 이쯤 추켜놓으면 곤란하다. 사실 어느 사이에 「맥아더」장군만은 반농이라는 전설적인 신앙이 미국인에게 퍼졌다.

◇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야말로 청천의 벽력이다.

1951년 4월 11일 오전 1시 「트루먼」대통령은 심야의 특별기자회견을 소집하여 돌연 「맥아더」장군의 해임을 공포하였다. 잠옷 위에 의두를 걸치고 백악관으로 달려간 기자단은 의외의 처사에 아연하였다. 전 미국민은 경탄하여 전국은 순간에 흥분하고 인대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동경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오후 3시 바로 그때 「맥아더」장군은 미국 대사관에서 내일 증인 「매그라손」상원의원과 오찬중에 있었는데 제일보는 「라디오」로 알았다는 것이다. 부관의 「하후」대령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령부에서 달려왔다. 손에는 「Flash」깃급이라고 주시한 다색 봉투를 가지고 있다. 해임의 군사 명령이다.

일독한 「맥」장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유연하게 담소를 계속하였다. 흥중이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윽고 「하후」대령은 현관에 다시 나타나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단에게 「성명은 없읍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가버

렸다. 다음엔 호의소리 요란하고 서글프게 울렸으니 낙담무정이다. 왜 이런 의외사가 돌발하였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통제 즉 명령위반이요. 또 하나는 정책 즉 의견의 대립이다. 한국도란도발이래 본국정부에서는 「맥아더」장군이 걸핏하면 국책에 반하는 독자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통제를 교란케한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몇 차례나 「맥」장군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그러나 신념이 강한 「맥아더」장군은 의견 그의 견해를 강조하며 서슴치 않았다. 그러한 결과 영국의 「에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지도하는 것은 「와싱턴」이나 동경이냐 하며 반문하였다. 「맥아더」주의라는 신어까지 나왔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자부심이 강한 「트루먼」대통령으로서도 무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백악관의 권위를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드디어 해임이라는 비상수단에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문제는 정책의 상위에서 발생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본국정부가 구주를 아시아에 우선시키는데 대하여 「맥아더」장군은 당면의 중요 무대가 아시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분류는 이 대립으로부터 초래될 것이다.

구주 제일주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

☆☆☆☆☆ **한국전의 용장 맥아더장군** ☆☆☆☆☆

책으로서 금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제2차대전 당시에 있어서도 먼저 독일을 타도하는데 주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영·불양국과 외교적인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득불 그 입장을 견지해야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주제일주의는 삼국협조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아더」장군은 구주를 편중하는 결과 아시아를 상실한다면 자유세계는 급격하게 위태롭게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을 좇는다면 소련은 현재 시구에 대하여는 수세를 취하고 오히려 아시아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하면 그에 의하여 시구에 대한 위협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맥아더」장군은 일찍이 UN군을 상당히 증강하거나 또는 만주등지의 중공기지에 대한 공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한국의 전국은 조만간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 왔었다.

그러나 UN군의 증강은 현하 불가능하였다. 그러면 정치적인 해결은 어떠한 하던 이것도 당면은 난망이다.

그러하여 「맥아더」장군은 승리로써 급속히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침으로서 만주기지의 폭격 이외에 장개석총통의 자유중국군을 사용하는 한편 중국봉쇄 등

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비운민 등의 방위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만은 절대로 적군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화부에서는 「맥아더」장군의 권고를 따르다면 전국을 확대하고 중공——나아가서는 소련——과 전면 전쟁을 격발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대만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란이 계속되는 한 중립화정책을 버리지 않을 방침인 모양이었는데 중공이 장래 정전에 응한다면 별개의 고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시위까지 하였다.

이렇게 타협이 되지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트루먼」대 「맥아더」의 대결은 어차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해인병원에 입원한 날과 5일째의 16일 「맥아더」장군은 여차 애식과 함께 귀도에 올랐다.

일전 비행장에서서의 승별은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군악대의 탄주, 19발의 예포, 열병 그 것도 순식간에 끝나고 장군은 기상에 올랐다.

이별곡의 탄주, 공함을 제압하는 간정의 「맥」장군은 잠시 승강대에 정립하여 환송에 응한다. 왼손을 들었다. 기가 막히게 멋진 「포즈」로.

「맥아더」장군은 언제 여하한 때에도 극적인 「포즈」를 한다. 머구나 그것이

저극히 자연스럽다.

7시 18분 이륙기수는 일로 동쪽으로 잡고—어느듯 까맣게 멀어지며.

14년백의 귀국이다. 아니 개선이다.

「호노롤루」, 「샌프란시스코」, 「와싱턴」 어디서던 전대미문의 열광적인 환영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일 일부러 비행선승까지 실시하였는데 특히 비행기를 띄우고 소명을 「맥아더」장군으로 가상하여 착륙시키기까지한 치밀한 준비였다.

「뉴우욕」시에 동원된 사람은 무려 7백만명이라는 호화찬란하고도 열광적인 환영으로서 일찌기 미국사상에 없었던 일이라 한다.

이점에 있어서도 「맥아더」장군은 기록을 깨뜨렸으니 「아이젠하워」장군의 환영기록을 훨씬 능가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런 14년간이나 해외에 있으면서 항상 인기투표의 수위를 차지한 이상하게도 매력적인 인물이다.

영웅심리도 있었을 것이다. 동정도 있었을 것이다. 역전역승의 명장 아닌 영웅이 일편의 통화로서 해적된 것이다.

「맥아더」장군의 해임이 그 정당성이나 이론상으로 납득이 되나 감정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고개가 좌우로 흔들려지는 것 이것이 인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 해임에는 당파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 해임에는 당파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 해임에는 당파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 해임에는 당파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 해임에는 당파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 해임에는 당파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다.

바야흐로 「트루먼」대통령의 인기가 좌락할 때였고 공화당의 반격이 급한 때였다.

이런 복잡한 이유는 한꺼번에 겹쳐서 「맥아더」장군의 인기를 더 한층 높인 것이다.

마치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19일 「맥아더」장군은 의회의 초청에 응하고 양원합동회의에 입하여 필생의 그리고 세기적인 대연설을 행하였다.

그 공채야말로 연기효과 100%이며 또한 위대한 연설이었다.

애국의 지성 우국의 정열 말 마다가 체부를 찌르는 것이었다.

38분간에 걸쳐 의회는 흥분에 백열화하였고 미국인 역시 한꺼번에 감격 열광하였다.

특히 최후의 일절은 그야말로 황금의 문자였다.

『노병은 죽지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옛 노래를 인용하여

『나도 역시 이 노병처럼 사라지려 합니다』

하고 「굿·바이」의 일구로서 끝을 맺었을 때는 만장이 숙연하여 유언무구 웃음을 여비고 경건 그대모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병은 과연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인가?

「트루먼」과 「맥아더」의 관계에 있어서 「맥아더」장군도 타일 언젠가는 「루비컨」을 도장할 것이다.

<반공수기>

암
흑
을
뚫
고

< 5 >

이
상
욱

△시사통신 상무이사▽

소위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보안서」에서 소련군에게 인계된 우리 일행은 그날 밤으로 청진(咸北·清津)에 이송됐다.

청진형무소였다. 그들은 8·15 후 형무소를 교화소(敎化所)라고 불렀다.

신암동(新岩洞) 해안도로를 달리는 「트럭」 위에는 두 보안서원이 호송하고 있었다.

푸른 동해 바닷바람을 쏘이며 달리던 「트럭」은 「새나루(新津)」교개 중턱에 자리 잡은 붉은 벽돌담의 청진형무소 정문에 머물렀다.

◇ 여긴 청진형무소

청진형무소 하면, 일제(日帝)때, 그러

니까 학생시절 벌리셔 붉은 벽돌담을 구경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그 내부에 대해서는 보기는 커녕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는 곳이었다.

(……여기가 청진형무소로구나, 형무소 신세……. 그럼 내 싸움터는 없어지는 것일까. 도망칠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형무소란 과연 어떠한 곳인가에 궁금증을 느꼈다.

클직한 철문이 열렸다.

우리는 널찍한 마당에서 하차했다. 손목에는 쇠고랑이 차여 있었다.

우리는 보안서원의 안내로 어떤 방에 들어섰다.

『여기 앉아 기다려요.』

나와 민정환, 이명재, 안재필, 네 사람은 보안서원이 시키는 대로 긴 의자에 앉아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형무소? 밖에서 볼 때는 몹시 으스스한 것 같으나 이 사무실에 앉아 오고 가는 소원들을 볼 때 여기도 역시 바깥 사회와 별다른 것이 없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첫 인상이었다.

형무소 교화관이란 작자들도 보안서원이나 다름 없었다. 그놈들이 바로 그놈들이었다.

우리를 환송해 온 서원들이 우리들을 인계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 교화관이 우리를 불렀다.

★

★

『이리 따라 와요.』

우리들은 한 교화관의 뒤를 따라 뒷문으로 나갔다.

이쪽 저쪽에 큼직큼직한 건물이 우뚝 솟아 마치 공장지대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공장같은 건물에는 들어서지 않고 역시 붉은 담으로 된 큼직한 건물에 들어섰다.

그것은 알고 보니 형무소 안의 형무소였다.

독방에서 공동감방에로였다.

나는 203호 감방에 들어갔다.

네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들어 갔다. 모두들 독방이 아니고 공동 감방이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 왔는가? 아니면 재판도 없이 잡아 가두는 것일까?)

나의 생각은 더 이상없이 착잡스러웠다.

서운한 것은 같이 온 동료들이 방마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었다.

(사나이로 태어나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데…… 싸우다 죽으면 내 진정을 알리라. 싸우자. 싸워서 이겨보자)

나는 굳은 결심을 다시금 다졌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 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우리 감방에는 모두 9명이 수감돼 있

었다.

그 중에서는 내가 제일 젊었다. 모두가 반공운동에서 들어온 애국지사들이었다.

잡범은 대체로 낮에 밖에 나가 일하나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정치범은 밤낮 가두어 두고 있었다.

그러나 때때로 작업장에 끌려 나간다고 했다.

내 자리는 오물통 바로 옆이었다.

왜냐하면 초년 수감자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소위 「교화소」의 심리를 알아 보기 위해 모든 행동을 참고 견디며 그 내부의 생활을 문에 익히며 동정을 살펴보았다.

◇ 수감 닷새만에

소위 청진교화소 감방 신세를 진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감방에서 다섯 사람이 호명되어 복도에 나갔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회령(會寧)에서 왔다는 강민구씨는 부르지 않았다.

강민구씨는 감방 안에서 가장 좌상으로 또 그 누구보다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또 그 위풍이 당당한 두사형이었다.

(……감방을 옮기는 것일까! 아니면

재판? 또 그렇지 않으면 「시베리아」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착잡한 마음을 억누를 길 없었다.

마졌던 소저품중 혁대를 받아 배를 조르니 좀 힘이 나는 것 같았다.

나는 강선생에게 목례(目禮)하고 간수를 따라 나섰다.

마당에 나서보니 3·40명이 모여 있었다. 분명히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드럭 에 몸을 실었다.

역시 앞 뒤에는 간수들이 집총을 한 채 우리들을 지켜 보고 있었다.

『간수동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요?』

하고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간수놈은 빙그레 웃으며,

『왜? 알고 싶소』

『예, 알고 싶어서』

『동무들이라고 놀고 먹을 수 있겠어.

이 인민공화국은 일하는 사람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소. 지금 동무들은 수성(驛城)에 가는 거요. 수성에 가서 일 하는 거요.』

『네 그래요.』

나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소위 그들이 말 하는 일일(日日) 노동하러 떠나는 것

이었다.

눈에 보이는 청진 시가는 예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오가는 사람의 동정은 모두가 침울하고 멧기를 잃고 있었다.

해변 도로변을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소련군대를 뿐이었다.

나는 「트럭」 위에서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수성을 되새겨 왔다.

그 수성은 함경북도에서는 가장 넓은 벌이 있다.

때문에 그 옛날 기차 선로는 그 수성 평야를 거쳐 이 청진항구에 들어왔다.

그러면 것이 일제 말엽 청진이 극제항) 구로 팽창되고 서항(西港), 어항(漁港) 이 공업단지로 확장됨에 따라 청진에 직결되게 부설되었던 것이다. 그 수성의 한 북판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수성천. 그것을 사이에 두고 평야들이 루고 있는 것이다.

그 하류가 바로 어항이며 서항의 공업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진의 개발은 바로 그 수성평야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수성천은 2차대전 말엽 모진 수난을 당했다.

그것은 이 땅이 해방되기 이틀 전인 8월 13일 소련군이 이곳으로 상륙을 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던 소련군은 1차 상륙에 완전 실패했다.

당시 나남(羅南)에는 일본군 19사단사령부가 있었다.

때문에 이 지역의 방어는 그 어느 지역보다 완강한 편이었다.

그것은 이, 북단이 일·소·만주의 3개국 국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에다 또한 소련군은 8월 9일부터 미국의 B·29의 정찰비행과는 달리 폭격기와 전투기를 투입시켜 국경선부터 길수까지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때문에 수성이나 청진등은 2차 대전중 한 반도에서 유일의 피폭지역이었다. 그것도 전쟁 종말을 이틀 앞두고 받은 피해이고 보니 주민들의 감정은 좋올리 만무했다.

그러했던 피해는 8·15를 맞이했다고는 하나 복구할 겨를이 없었다.

더우기 청진시가는 소련군 상륙부대와 일본군과의 교전으로 가옥은 적지 않게 파괴돼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복구하려 나가는 것이었다.

수성천을 따라 수성역에 도착했다.

철교와 역사는 해방된지도 1년이 다되는데 여전히 파괴된 채 내버려 두고 있

었다.

우리는 지금 수성역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의 교량을 복구하기 위해 도착한 것이다.

일해야만 먹는다는 공산주의의 강제노동 습성의 단면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 열녀에 짓어 고민

작업 능률이 오를리 만무했다.

일 인해도 주는 콩 밥인데 일을 한다면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었다.

또 내일의 운명을 모르는 우리들에게서 노동의 성과를 보자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감독원이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다. 우리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었다.

나는 바닷가 쪽에 쪽쪽 떨어 있는 「닛테즈(日鐵)」며 「미쯔비시(三菱)」 청진제철공장이며 방직공장을 바라다 보았다. 그 옛날 그 죽순같은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 등서풍을 따라 바다쪽으로 떠 다다해서 청진은 공업의 요지로서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고들 했다.

그런데 지금 그 굴뚝들은 연기를 물고 있었다. 아니 죽어간 사화산(死火山) 처럼 숨소리마저 잃은 듯 조용했다.

「로스케(소련인)」 새끼들이 저 공장 기계도 뜯어 갔겠지. 바다가 가까워서 열사 좋다고 가져 갔겠는걸.

탈로탄의 해방의 은인. 그 냇가는 정말 엄청나는구나…….)

나는 삽자루를 저행이로 벗 삼고 우두커니 선 채 멀리 그 공장저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깨질듯, 아니 그 이상의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넛테프」정진공장엔 해방되던 해 소위 일제의 「학도 근로 보구대」로 동원되어 와서 약 7개월 강제 노동을 한 바 있었다.

때문에 그 회상은 나에게 묘한 마음의 충격을 주었다.

사람이 피로워 한다는것. 그것은 정말 고된 일ियो, 또 그것은 육체로 하여금 불같이 뜨겁기 마련이나.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열뇌(熱腦)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열뇌에 걸려 어쩔줄 모르는게 바로나였다.

(에라 도망쳐 볼까? 고향에 가면 잡힐 것이고, 멀리 멀리 산중에나 가볼까, 아니면 이남으로 가 볼까…)

하루에도 두 세번 고민해야 했다. 그것은 한가 할 수록 더욱 더 했다.

그러면 이상스럽게도 길주에서 나와

함께 청진에 이송돼 온 다른 동료들은 이 작업장에서 찾을 길 없었다.

그러니까 이 작업장에 나 혼자만이 끌려 나왔다는게 더욱 수궁이 가질 않고 나로 하여금 여러가지로 번뇌에 잠기게 했다.

◇ 싸움은 이제부터

그날부터 우리들은 거의 매일같이 수성평야에 끌려나가 복구 작업을 하게 됐다.

감방에 앉아 소일하기 보다는 훨씬 마음이 가볍고 기분도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다 할 심문(訊問)이나 판결(判決)도 없이 매일 이대로 끌려다니는 것은 여간 짜증이 나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여기와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하나…)

모두가 되는대로 되라는 듯 시키는대로 끌려다니는 뿐이었구나.

마치 혼(魂)이 빠진 해골들을 끌고 다니며 작업을 시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해골들에는 짧은 피가 약동하고 있어 잘못 진드리기만 하면 터질듯 흥분해 있었다.

그들은 무지가 아니 선각(先覺)된 인간들이 었는지도 모른다.

허물이' 항상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모순을 발견할 줄 아는 인간,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북녘 땅의 선자자들이었다.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려는 시대를 바로 잡아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고쳐 정상 사회건설에 진력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오늘날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자의(自意)를 잃고 타의(他意)에서 움직여야만 했다.

영어의 신세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그들은 일기당천을 자부하고 싸우던 용사들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형무소 간수들이나 호송하는 간수같은 말단 직원에게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너도 공산당의 주구이기는 하지만 너에게야 무슨 죄가…… 너는 그토록 주구(走狗)로 만든 너 윗놈들이…….)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우리가 작업장에서 돌아오자 같은 감방에 수감돼 있던 강선생은 무척 초조한 눈치였다.

나는 감방 안에서 그를 아버지처럼 그리고 때로는 친 형님처럼 믿고 저녁마다

그의 곁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공산당의 부조리와 독재의 종말, 그리고 노동귀족의 대두를 경고하는 질서 정연한 이론이었다.

『여보게 이 상옥이……』

그는 농무라는 말 대신 동지라고 끈질겼다.

『네.』

『조용히 듣게. 오늘 내가 어떤 간수놈 하나를 꼬여서 물었더니 2·3일 안에 소위 사상범에 대해서 재 분류한다나 봐. 여기 계속 수용할 사람을 남기고 또 「시베리아」에 보낼 사람은 소련군에 넘기고 아오지(阿吾地) 탄광에 보낼 사람은 아오지 탄광에 보내고……. 아마 판가름을 내나 봐.』

『아니 재판도 없이?』

『재판이 무슨 재판이야. 재판 했대야 무슨 소용이야. 변호사가 있나? 방청객이 있나……. 공산주의 사회의 재판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게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기는…… 놈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 밖에 없지 필 그래. 그러나 우리는 작자가 지닌 원대한 뜻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오직 몸만 건강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거야.』

우리가 찾는 자유도 멀지 않아 세계의 조류에 밀려 닥쳐 올거야. 세상은 언제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장을 보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지닌 자유의 재물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에게 재산이라면 자유와 마음의 낙이요, 그래도 공산당은 어겨져 38이북을 손아귀에 쥐지 않았는가. 걱정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공세하는 입장이고 그들은수세의 입장이 아닌가. 어쨌든 큰 마음 큰 뜻을 저버리지 말고 굳건히 살아가 주길 바랄 뿐이다. 그렇게 살아가느라 면 우리 언젠가 태극깃발 아래서 웃을 날이 올거야. 압, 틀림없이 오구말구.....』

『네 길이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부딪친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걱정할수록 인생살이라는게 허무하고 간단한 것임을 재삼 깨달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산다는 인생에 비열과 울분을 느낄 정도였다.

◇ 인생은 갈대와 같다더니

그토록 세기를 창조하고 만물의 영장(靈長)을 자처해도 그 전변(轉變)은 순간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살고 죽는다는 인생의 가름 길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어야 웅지(雄志)도 뻗장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자학의 심정에 사로 잡히기가 쉽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고 보면 인간의 한 세상은 정말 갈대와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인간살이란 이루어졌는가 하고 생각하면 이내 부서지고, 태어났는가 하면 곧 죽어가는 가엾은 짐승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여 죽는 것을 한으로 하고 살아 있는 동안 보람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때문에 나는 같은 값이면 비싸게 죽자는 것이 신조였다.

개 죽음을 하지 말고 싸우다 보람 있게 죽자는 것이 나의 신조였으나 감옥의 하루 이들은 그러한 나의 신조에 금슬하니 들썩 그어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극도의 영양실조로 나날이 힘이 감퇴해 가는 일이었다. 영양실조는 공상(空想)에 잠긴 힘마저도 앗아갔다.

그러나 나는 그 보람을 위해 헛되이 몸을 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선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집을 나오면 날 새벽,

『언제나 몸을 아끼고 조심해라……』

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껏 청전을 정정 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8시.

『이상옥!』

간수의 호출이었다. 우리가 수감돼 있는 「가」동에서 10여번째로 호출되었다.

그중의 한 사람으로 나도 낀 것이다.

◇ 또 어디로 가는건지

나는 대답하고 곧 복도에 나갔다.

강선생에게서 들은 바도 있고 해서 다른 감방이 아니면 「아오지」탄광 아니면 「시베리아」…… 또 그것도 아니면 퀴조(取調)차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호명되는 사람이 한 두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아침도 아닌 밤중…….

(분명히 딴 곳으로 끌고 가는거구나.)

나는 그 동안 정들었던 강선생의 손을 맞잡고 목례를 하고는 눈을 지긋이 감았다.

『몸 조심하게. 그리고 사나이의 큰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야.』

『네. 알았습니다. 평생을 두고 잊지않겠습니다.』

같이 영오의 신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집단이란 것이 서로 의지한다는 힘의 위력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 호명된 동무들!』

『네.』

『번호!』

『하나, 둘, 셋…….』

모두 40명이었다.

『우항 우! 앞으로 가!』

우리들은 형무소 뒤뜰에 끌려 나갔다.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 형무소 뒤뜰은 대체로 이 형무소를 떠날 때 또는 들어올 때 사용되는 광장이었다.

그렇게 미루어 보아 이 밤중에 형무소를 떠날것만 같았다.

그러나 감방에 앉아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보는 수감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우리들을 무척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그제서야 나는 눈치 차렸다.

나와 함께 길주에서 온 세동료중 안재필군만이 호출되고 이명재와 민정환군

은 그대로 수감돼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육신엔 번개가 치듯 온 신경을
자극했다.

『야아 정한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야.』

하고 그의 얼굴을 고자 소리없이 눈물이
얼굴을 가렸다.

『싸워야 하지. 어디가서나 싸워야 하
지.』

그도 울고 있었다. 철창 사이로 손을
내 저으며 울고 있었다. 나는 울었다.

나는 통곡하며 울었다.

『개 새끼들아. 내가 공산주의를 반대
하는게 왜 죄가 된단 말이냐!

새끼들아?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반
동(反動)인가 말이다?』

라고 내가 고래 고래 소리 저르자 감방
안의 동료들은 약속이나 하듯

『울소! 부서라! 공산당 때려 부실
때까지 우리 싸우자.』

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새끼들! 빨리 나가!』

간수의 호통이었다. 나는 간수에게 궁
둥이를 한대 얻어 채인채 밖으로 밀려나
갔다.

그리고 예상대로 「트럭」에 몸을 싣
고 형무소를 뒤로 우리는 번화가를 달려
나갔다.

「트럭」은 청진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
는 것이었다.

◇ 화차에 몸을 기내어

「트럭」은 「플랫·폼」에 들어갔다. 그
리고 우리는 빈 화차(貨車)에 올라탔다.

10여량의 화차가 연결된 맨 앞의 기관
차는 마치 우리들을 삼킬듯 검은 연기를
뿜으며 쉼없이 가고 있었다.

나는 태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
고 나는 나 자신을 잊으려고 무척 노력
했다.

흔히 세상사람들은 자기라는 것을 너
무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기 본위의 이기주의에 사로 잡히기 쉬
우나 지금의 나의 처지는 반공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니 반사에 집날 것이 없
었다.

화차에 기댄 나의 심정은 다시금 자유
라는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케
했다.

인간의 삶에서 자유롭다는게 그 인간
에게 얼마나 값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인
가를 깊이 깨달게 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화분(花盆)에
심은 꽃은 아무리 고와도 생기가 없고 향
취가 안 나는 법이다.

비록 이름없는 꽃이라도 숲 사이에서

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아름다와 보이고 더욱 살찌고 기름지게 보인다.

인간도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을 때와 이치런 응달에서 살 때를 생각하니 이는 삶의 천지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회심에 잠긴 채 이일 저일을 생각하며 기차가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말졌다.

기차는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던 상관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초조해 한다고 달리던 기차가 멈추거나 갈 길을 바꿀리 만무했다.

나는 안재필군에게,
『어디로 가는 걸까?』
『글세. 아무데면 될 하오. 기왕 반공하기 위해 나선 바에야……』
『웁아. 크게 마음 먹자.』

안재필의 심정도 역시 나와 다름 없었다.

두 사람은 형무소에 남아있는 민정환군과 이명재군의 뒷 소식이 궁금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길도 없거나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직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도 저 영역에서 제 구실을 다 하리라 믿기 때문이었다.

나의 조용한 마음 속에는 흘러간 지난

날이 마치 하나의 가락처럼 쫓겨 나왔다.

일제(日帝)의 노예생활, 그리고 오늘의 착취생활, 이러한 두 세계를 고무 밧불 나에게서는 그 두 세계가 서로 저울질하는 것이었다.

서로 기울어질려고 하지 않았다.
(차라리 일본 제국주의가 패하지 않았다더라면 이런 꼴을 안 봤을 것을……. 소련놈이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지 않고 미군만이 진주하였다면…… 이 역시 이 더러운 꼴을 안 봤을 걸…….)

이렇게 생각하니 강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이 약소국에 대한 것밧힘에 통탄을 금할 진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 패야 하나?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게 과연 죄가 되는 것일까?

그러나 나의 마음 속에는 내 소신것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자부(自負)가 마음 속에서 풍악을 울리고 청향(清香)을 뿌리면서 자위하고 있었다.

◇ 하늘 아래 첫 마을

분명히 금(金)은 광(鑛)에서 나고 옥(玉)이 돌에서 나듯이 인간의 진실은 환상이나 공상(空想)에서 꿈틀거리기 마련이다.

기차는 우리들의 이러한 시름도 모르는척 그저 썩 썩 거리기만 하면서 남쪽으로 내 달리기만 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척 다행한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만약 이 기차가 북으로 달린다면 그것은 저 유명한 아오지(阿吾地)탄광이 아니면 「시베리아」겠지만 남쪽으로 달리는 것으로 봐서 극상해야 광산 아니면 탄광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아오지」탄광은 소위 「정치범」의 강제노동장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때문에 북한에서 「아오지」하면 반공주의자들의 순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 아오지 탄광에나 가서 췌질놈…….』

하면 북한에선 친구 사이에 오고가는 농담이기도 했다.

기차는 험준한 함경북도의 산 비탈을 들머 술한 「터널」과 교량을 지나 3시간 여만에 어떤 역에 멎었다.

물론 밖을 내다 볼 수도 없거니와 캄캄한 밤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도시 알길 없었다.

차 앞은 코 고는 소리, 잠꼬대 소리, 그애다 신음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 더욱 슬프게 했다.

우리를 감시하는 간수도 총을 우뚝 세운 채 앉아 조는 것이었다.

잠시후 우리가 탄 화차는 탄 기관차에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기차는 다시 움직였다.

도망치려 해도 도망 칠 기력조차 없었다.

두 동료를 잃은 고독은 행동마저 탄력을 잃게 했다.

알고 보니 기차는 길주에서 방향을 바꾸어 길혜선(吉惠線)을 따라 백안(白岩)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차는 재덕(載德), 성덕, 양복을 지나 합수(合水)에 이르렀다.

함경산맥 중 허리에 오르는 험준한 전로(鐵路)였다.

합수와 백안은 그 산맥 중턱에 있는 자그만한 고을이었다.

함경도 사람들은 이 지대를 하늘 아래 첫 등베라고 했다.

그것은 그만큼 고원지대이고 겨울 추위가 이만 저만한 곳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침 4시 넘어 백안역에 내렸다. 6월인데도 아침 공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마그네사이트」 공장

우리는 「마그네사이트」를 파 내는 광

산에 투입됐다.

이 광석은 흰 암석으로 무척 견고해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손에 상처를 입기가 일쑤였다.

채광된 광석은 「도토리」(손으로 밀고 다니는 광석 운반차)로 화차에 싣는 일이었다.

어떤 동료들은 광굴 속에 들어가 채광기로 바위를 뚫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채광되고 운반되는 광석은 길주 또는 성진(城津)에 운반되어 공장용 광로에서 「코르크스」와 함께 구우면 「탱그스벤」을 만드는 원광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광산이며 공장은 일제 때부터 가동되고 있었다.

일제 때 일본은 이러한 공장에 소위 「학도군로 봉사대」와 알선인부를 투입하여 광산과 공장을 움직였다.

때문에 일제 때도 이 공장들은 군수산업(軍需産業)으로 무척 중요시 했던 것이다.

해방이 되자 공산당은 이를 재빨리 소위 「국유화」 명목으로 접수하여 복역수로 하여금 그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아침 5시부터 이 원광(原鑛)을 캐는 광산에 투입되어 일 하는 것이었다.

나와 안재필군은 꼭 함께 일거수 일투족을 같이 했던 것이다.

사실 안군 이외의 판 동료들과는 같은 복역수라 해도 마음 놓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같은 복역수 가운데도 밀정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나 저러나 이곳 강제 노동 수용장은 「아오지」탄광에 가는 것 보다는 훨씬 편한 편이었다.

나는 여기에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필수록 감시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머우기 나는 내 고향 땅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게 그 무엇보다 반가웠다.

(저 놈들의 비위를 거슬리면 또 판국에 보내지나 않을까.... 「아오지」 아니면 덕신 탄광이래도...)

우리가 투숙한 집은 탄광현장에서 약 2「킬로」 떨어진 산 중 토막이었다.

그 움막집 벽은 끔찍한 환경도의 원목을 그대로 잘라다 연결시킨 것으로 쌓은 것이다.

쌓은 그 사이에는 풀을 말려 다져 틈을 메꾸고 있는 것이다.

정말 원시인들이 사는 집 같은 움막이었다.

지붕은 크고 두꺼운 나무 껍질을 들로

눌러 놓았다.

나서 말하면 그 집 벽에는 흙 한덩이 쓰지 않고 지은 집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함경도는 고원지대일 수록 연토질의 진흙이 귀한 것이다.

흔한 것은 나무와 돌 뿐이다.

나는 그 수용소 제3호에 수용돼 있었다. 우리 집에는 나와 안균, 해서 9명이 수용돼 있었다.

◇ 반공주축 이론 천도교인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이지만 서로의 입장을 모르고 해서 인간이 지닌 가장 중요한 언어의 소통을 잃고 있었다.

또 모두가 형기(刑期)나 죄명조차 모르는 형편이었다.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언제나 복수한다는 굳은 의지의 사나이들 뿐이었다.

그러한 그들이기 때문에 간수들이 잘못 거느리기만 하면 당장에 터질듯 했다.

나는 언제나 안균과 함께 짝이 되어 「도토리」도 굴리고 집에서도 함께 지냈다.

그 밖에 사귄 사람은 나와 동갑인 김정인씨가 있었다.

김씨는 천도교 교인이었다.

당시 북한 땅에서 가장 강한 반공매열이 이 천도교 교인들이었다.

또 그 교인들은 당시 청우당(靑友堂)이란 조직을 가지고 공산당원들과 대결하기도 했다.

김씨는 아침에 일어 나면 반드시 청수(淸水) 한 그릇을 떠다 놓고 기도를 잊지 않았다.

그의 기도와 정성에 3호에 수용된 동료들은 모두가 숙연하고 자아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비록 교인은 아니었어도 그가 기도 드릴 때면 스스로 무릎을 꿇고 깊은 명상에 잠겨 부모님의 안녕을 빌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실 부모님...)

하루 이틀이 지나고 보니 나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크게 말하면 나는 이때부터 신앙에 대한 새로운 경지를 발견했었다.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 신앙만이 마음을 가라 앉히고 자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세상은 두고 봐야

세상에 부자(富者)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빈자(貧者)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끼리를 굶지 않고 제 나름대로 마음
편하면 그야말로 갑부가 부럽지 않으리
라.

세상은 인간의 철리(哲理)와 인연(因
緣)에 일컫는다고 함은 바로 그것을 두
고 하는 말 임을 새삼 느끼게 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잡시 어울려 있는 존재라고 해도 좋으
리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형체는
어느 것이나 다 허무하고 보잘 것 없는
형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우
면 얼마나 아름답고, 미우면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르겠느냐 말이다.

비록 인간이 늙으면 모발(毛髮)이 빠
지거나 치아가 성그리적거나 시들고 변
화한다 해도 그대로 내 버려 두는 것이
좋으리라.

그것은 슬퍼해도 서러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호흡하는 이 세상은 솔
직히 말해서 그 자체, 그 주체성이 변화
하는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모
습이 참된 인간의 진리인 것이다.

또 그것이 선비들이 말하는 인간의 상
주불변(常住不變), 바로 그것을 말해 주
는 것이기도 하리라.

인간에게 욕심이 없을리 없다. 살다보
면 현재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인간에게서 그 욕심을 빼 놓으면
보잘것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진위성이 바로 그
욕심에 있는 것이다.

욕심없는 인간은 출세의 길이 막혔다
고 하는 것도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소리
이리라.

때문에 욕심이 없는 마음은 고요한 못
물과도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욕심이 일면 한
담(寒淡)에 물결이 끓어 오르는 것같이
요동하는 법이다.

그것이 인간이 대자연과 다른 점이라
하겠나.

인간이 가꾼 숲도 고요를 지닐 줄 아
는데 그 고요를 만든 인간이 그 숲의 생
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약
점이기도 하리라.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죄에 자기가 속
기 마련이고 자신이 만든 율개미에 스스
로 걸리기 마련인 것이다.

◇ 때문에 공산당 제놈도

나는 공산당이 이토록 북한 주민을 노
예화하여 노동관에 몰아 넣는 것을 봐서

언젠가는,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만든 범주 속에 끌려들어 자신들의 운명을 지울 절 할 때가 있으리라고 믿었다.

내 욕심은 바로 그것이였다.

만약 나에게 그러한 한 가닥의 욕념(慾念)마저 없다면, 아니 내 육체에 그러한 욕념마저 머물지 않았다면 무더운 한 여름에도 더위를 모르고 저녁야 할 것이고, 겨울의 영하에서 추위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이 곳에 온지 열흘도 지난 어느 날이었다.

우리의 생활은 아침, 저녁으로 마치 다람쥐가 쳄바퀴 돌듯 뱅글 뱅글 도는 신세에서 나는 내일을 인생의 끝장으로 생각하고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아무리 용기를 잃었다고 한들 이곳에 와서부터 그 누구하고도 싸울 대상이 없었다.

그까짓 불쌍한 간수하고 싸웠다고 해야 별 신통한것 없고 오히려 불쌍하게만 여겨졌다.

(여기를 탈출하자…….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갈까? 그곳 역시 공산당 세상이니 내 스스로가 호랑이 굴을 찾아 가는 격이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집?

아니다. 이남으로? 그런데 이 최북단에서 어떻게 해서 38선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잠든 척 하면서 이러한 공상에 잠겨 보았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 동무 주무세요?』

하고 부르는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옆에 누워 잠든 척 하던 안군이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허벅다리를 살짝 꼬집었다.

『왜?』

내가 대답하자 그는 바싹 내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 동무, 어대요. 우리 한 번 모험합시다. 여기를 도망쳐 보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일을 하다 죽을바엔 38선이나 넘다 죽읍시다. 기왕 죽을 몸, 죽을 자리나 제대로 찾아 봅시다.

자유. 그 자유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주먹으로 쟁취해 보자는 겁니다.』

그는 담요 밑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컷속 말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파연 그의 생각도 내 생각하는 것과 꼭 같은데 나는 놀랐다.

『안 동무.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나도 그런 생각을 여러번 해 봤어요. 그

★

★

벌 때마다 나는 그 38선까지 어떻게 가
나 하는 것에 부딪치곤 하더군요.

어쨌든 안 동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적저 찬동하며 같이 연구하여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합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두 사람의 용기
를 합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을거요.
우리 한번 죽기를 맹서하고 해 봅시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물컹해졌다. 벌써 소원했던 자유를 찾은
것만 같았다.

『이동무, 물론 거리는 멀어도 우리 38
선까지 가서 그 마(魔)의 선을 넘어 봅시
다. 물론 그에는 상상하지 못한 험준한
애트가 우리를 기다릴 것을 작오해야 할
것입니다…….』

『작오해야 하지. 그럼 그런 작오없이
는 떠날 수 없지 그래. 우리 한번 공상
을 실천에 옮겨 봅시다. 한번 소원을 성
취시켜 봅시다.』

두 사람은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늘에
기도하며 굳게 맹세했다.

물론 두 사람이 탈출 계획은 어제오늘
에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안씨는 나보다
탈출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연
구한 것 같았다.

그때부터 우리는 문자 그대로 생명을
진 탈출의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기 시
작한 것이다.

조용했던 나의 마음에 다시금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원래 강물이 흘러내려 간다는 것은 소
리가 없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흘러내려가는 물이 소리를 낸
다는 것은 곧 그 바닥이 명명하지 못하
다는 까닭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도 이와 같다. 마음이 고요하면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라도 고요한 참
맛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언젠가 책에 보던 글귀
절이 생각났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돌은 구르
는 동안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사실 인간이란 움직이는 것만 좋아 하
면 깊은 맛이 없고 적적하고 조용한 것
만 좋아 하면 생기가 없다는 것을 생각
할 때 거동에 자신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내가 결심했다고 하면 모두가 자신
이 있다.

사실 자신이 없는 일을 할 수가 없었
다.

물이 흐르다가 한 군데 고이게 되면 거
기에서 고기가 튀어 오르듯, 조용한 구

◇ 탈출할 것을 결심하고

몸은 갑작스레 소나기를 몰고오듯 가라앉은 내 마음에 폭풍을 휘몰아 올 것 같았다.

『안 등무. 그럼 언제쯤이 좋을까?』

『떠나는것 말이야.....』

『소 빨도 단 김에 메라고 좋은 일과 자신이 생긴 일에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시기를 봐서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죠.』

『내일?』

나는 너무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애초에는 좀 당황했으나 사실 탈출을 결심한 바에는 한시도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내일... 그럼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첫차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첫차보다 나는 내일 저녁 막차로 우선 길주까지 내려가는게 제1단계예요. 그것이 성공되면 거기서 원산이나 함흥 쪽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또 이용해야지. 이것이 제2단계. 제2단계가 성공되면 제3단계는 38선 통과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이 제1단계 작업인거요. 처음에 실패하면 2·3단계가 있을리 만무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씨가 세운 탈출계획을 자세히 들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짜여져 있

었다.

그의 세밀한 계획은 38선 돌파가 무난할 것 같았다. 자신이 있고 여유있는 계획이었다.

또 아침 탈출보다 저녁이 옳았다.

아침에 탈출한다는 것은 추격의 여유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의 치밀한 탈출계획에 자신도 얻었지만, 그러나 행여나? 하는테서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만사를 그때위식으로 생각하거나 가는 성사될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두 사람은 주위의 고요에 잠시 숙연하여 부푼 가슴을 억누르며 잠을 청했으나 한 잠도 이루지 못했다.

다쳐 올 자신의 운명을 저울질 해보는 중대한 순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계속>



< 단 편 >

전 설

최 정 희

앞 뒷산이 이마를 맞대다시피 하여 한 칠마장 가랑 골짜기를 지으며 동쪽으로 내려떨던 것이 깜짝 정신을 차린듯 산들은 서로 자리를 양보해 뒤로 물러 앉으면서 평퍼짐이 평야를 이루어 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바싹 정신을 차렸다는듯 산들은 아주 더 썩 뒤로 물러 앉으면서 평야보다 몇 백곱절 되는 바다를 전개시켜 주었다.

북쪽으로부터 시작된 그리 대수롭지 않은 내(江)가 골짜기와 평야와의 사이를 허리 잘라 놓았으니 이 허리 잘리운 내로 해서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나뉘게 된 것이다. 즉 강 위쪽 골짜기에 큼직큼직한 집들이 들앓아 있는데

를 윗마을이라고 부르고 강 아래쪽 평야와 바다 변두리에 게딱지 같은 집들이 들앓은 테를 아랫마을이라 불렀다.

아랫마을엔 거의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든가 미역을 해서 생활해 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할 가량은 윗마을 지주(地主)들의 토지를 경작해 먹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윗마을에선 이 아랫마을을 상것들이라 하여 상중하려 들지 않았다.

농작물과 해산물을 받아 들이는 외엔 교섭이 없었다.

어느 날 한번은 노루 한 마리가 골짜기에 내려왔는데 마을의 젊은 이들은 이것을 잡아볼 양으로 몽둥이와 그 외의 적당한 무기(?)들을 가지고 『위어 이 위어이』 노루를 몰았던 것이나 물려던 노루는 잡히기는 고사하고 내를 훌쩍 뛰어넘어 내저쪽 아랫마을로 내려달렸다. 젊은이들은 닭 쫓듯 개모양으로 내저쪽 아랫마을을 내려다볼 뿐 쫓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말뚝 같은 상투들만 흔들흔들 그냥 돌아섰다.

그러나 아랫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물려 내려온 노루가 넓은 평야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를 한낮이 훨씬 지나기까지 하다가 끝내 그놈이 바다에 물러들어가고 만 것을 바다에 들어가서까지 잡아내었다. 잡아서 술을 차려 진탕 먹은 일이 있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일도 하려니와 먹고 놀기도 끈질겼다. 고개 넘어 『주재소』 순경이 오지 않을 눈치가 보이는 돼지요 개요 심하면 소까지도 저희들 손으로 때려눕히기가 일쑤였다.

그것 뿐만 아니라 윗마을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치마할량』이니 『송평집』이니 하는 타판에서 들어온 색주가 갈보들이 벌여놓은 술집에서

산중의 귀물은 멀구 다래

인간에 귀물은 큰아기 궁둥

하고 이런 따위의 또는 이와 비슷한 노래들을 밤이 깊도록 불러 『가며 흥겨워하기도 일쑤였다.

이렇게 아랫마을이 흥겨워 흥겨워 흥성한 대신 윗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옥칠월 한낮의 수탉 울음처럼 권태로울뿐 불려도 메아리 조차 있을 듯 싶지 않았다.

봉황녀(鳳凰女)는 이 권태로운 윗마을 이 참봉의 손녀딸로 태어났다.

이 참봉은 윗마을에서 으뜸가는 지주이나 항상 불만인 것은 정 참판베보다 떨어지는 문벌이 속병같이 아팠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양반인 정 참판 며느리가 같은 달에 태기가 있어 또한 똑같이 배가 불러가는 것을 은근히 칭찬하며 돈과 술을 미끼로 드디어 정 참판 며느리 뱃속에 들앴은 아이와 자기 며느리 뱃속에 들앴은 아이와의 뱃속 약혼을 정해 놓았던 것이다.

본래부터 정 참판이 이처럼 돈과 술에 녹아 떨어질만큼 천덕스런 인물은 아니었던만 시름시름 내려앉기 시작한 가산이 자기대에 이르러선 말이 못 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

이 참봉은 정 참판과 사돈을 정하던 날 너무 좋아서 정 참판이 돌아가자 바삐 집안 식구들에게 물론 이웃 장쇠 할아범을 불려다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장쇠 할아범 입으로 온 동리에 퍼지라고 해서 그랬다. 이 동리의 소문이란 소문은 장쇠 할아범 입으로 퍼진다는 것을 이 참봉은 잘 알고 있었다.

그날로 소문은 윗마을 뿐 아니라 내 건너 아랫마을까지 확 퍼졌다. 이 참봉은 이제는 자기네도 정 참판에게 질배없는 양반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만족해도 하고 점점 기울어져가는 정 참판베보다 오히려 자기네가 더 호기를 뽐게 된 것이라고 좋아도 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은 정 참판의 며느리와 자기 며느리가 똑같이 아들이거나 딸을 낳으면 어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참봉은 잠을 자고 아침이면 마누라에게 무슨 꿈을 꾸지 못했느냐고 이렇게 먼저 물은 다음 또 마누라를 시켜 며느리에게 같은 말을 물어보게 하는 것이었다. 또 그리고 자기도 행여 무슨 좋은 꿈이 껴어 지지나 않나 하고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기를 오래 하다가 어느 날 밤 이 참봉은 자신이 꿈을 꾸었다. 늘 타국

에 가 있던 아들 창연이가 오노란 기별도 없이 돌아왔으므로 모두 모여 기뻐들 하는 가운데 난데없는 새 한 마리가 휘얼 뿔 날아와서 새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지 여러 사람 머리 위를 한참 빙빙 배회하다가 아들 창연의 어깨 위에 날개를 움추리는 것이었다.

주둥아리만 노랗고 몸뚱이 전체가 짙은 녹색인데 주둥아리의 노란 부분이나 몸뚱이 전체에서나 똑같이 황금 빛을 내뿜는 새였다. 그 빛은 들이치는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때로는 칠색 무지개보다 황홀하고 찬란하여 시선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데 『아! 저게 무슨 새야?』 하고 참봉 마누라가 손으로 강렬한 광채를 막으며 소리를 쳤다. 마누라가 선창을 놓자 영감도 역시 부시는 눈에 손을 가린채 『그게 아야, 무슨새냐? 창연아 그게 무슨새냐?』고 물었다.

아들은 눈이 부셔 하는 양도 없이 또 어깨에 앉은 새를 보는 일도 없이 제법 자신있게 『봉황새옵시다 이 굵고 빛나는 날개를 보십시오』 하고 수월히 대답하여 만족해 하는 눈치였다.

『봉황새? 봉황새라? 야야 틀림없지? 응 야야!』 이 참봉은 물어 본다고보다 소리를 질렀다. 그는 꿈에서까지 이것은 머누리로 해서 꾸는 태몽인 것이라고 의식했기 때문이라 마누라가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더 많이 더 오래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꿈에서 깨인 참봉은 마누라에게 꿈 이야길 하며 머누리가 봉황새 처럼 고운 촌녀딸을 낳을 것이라고 기뻐했음은 물론이고 이튿날 날이 밝기를 기다리서 정 참판을 찾아 갔다. 겨우 인사를 치르고 난 이 참봉은 『정 참판께선 무슨 꿈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꿈이라니요?』 정 참판은 이 참봉이 묻는 말을 알아채지 못하는 체했다. 그러자 이 참봉은 또 저것이 탄전을 부라는 것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으나 다시 자기를 가다듬어 『아, 저 태몽을 꾸셨느냐 말씀이지요, 나는 간밤에 봉황새 봤거던 봉황새요 인제 정 참판께선 손주만 보십시오. 그럼 내 손주 딸년을 손주 머누리로 가져가실게 아니십니까』 하고 정 참판의 오금을 박아 놓았다. 그제서 정 참판은 이 참봉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수염을 내려 썼으며 『허어 그말이요? 난 또 웬 소린가 했더니…… 그야 딸인지 아들인지 인력으로

하는 노릇이요 낱아 봐야 알지』했다.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의 배가 불러 을수록 가슴이 후두두 해 지는 정 참판이었다.

(높은 것이 망녕이야 망하면 꿈계 망하지 그래 이 참봉네하구 사돈을 정하다니…… 제놈들이 근자에 와서 돈이 있다구 대가리질하니 그렇지 제놈들이 어디라구 사돈을 정한단 말인가 여림두 없지 없어……) 이렇게 뱃속 호통을 쳐가며 도리를 혼드는 정 참판이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럭저럭 날이가고 뼈꾸기가 불기 시작해서 며칠쯤되는 어느날 먼저 정 참판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다시 이틀을 지나서 또 참봉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참봉은 두말없이 아이의 이름을 봉황녀라 지었다.(정 참판의 손주 이름은 울섭이라 지었다) 참봉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못 견딜 지경이 있으나 마음을 잔뜩리면서 봉황녀가 나서 삼칠일 되는날 큰 잔치를 열어 봉황녀와 약혼피로를 했다. 정 참판은 꼼짝없이 이 참봉네와 사돈된 일을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도 술이 만취해갈 마지막 판엔 이 참봉과 들어서 『얼시구나 좋구나』를 연발해 가며 춤까지 추었다.

어찌 됐든지 봉황녀는 꿈계 자라갔다.

대여섯살이 되면서부터 그는 벌써 지붕 밑보다 하늘을 좋아하는 계집아이였다. 골짜기보다 넓은 평야를 좋아하고 언제나 묵묵히 이마를 맞대인 산보다 잠시도 가만 못있어 출렁대는 푸른 바다를 좋아하는 계집아이였다.

그렇지만 봉황녀는 평야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내 저쪽 아랫마을엔 아무도 못가는 데라고 들어왔다. 들어만 올뿐 아니라 가는 사람을 본일도 없었다.

그래서 봉황녀는 바다와 평야가 잘 보이는 뒷산마루턱에 올라가 아랫마을을 보곤했다. 말(馬)잔등처럼 구부러진 마루에 걸터앉으면 시야(視野)가 아프도록 평야와 바다는 그득차 지는 것이었다.

삼용이가 업으러 오지만 않는다면 봉황녀는 밤이 어둡기까지 어둡게 앉아 있어도 시원할 상 싶지가 않았다.

삼용에게 업혀 집에 돌아가면 할아버지는 번번이 『저년이 제 애빌 닮아서

밤낮 나돌아다니지... 걱정이야...』 이러한 말로 꾸지람을 하곤 했다. 그런데 봉황너는 제가 닳았다는 아버지가 기억에 없었다. 할아버지가 닳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할머니 하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봉황너가 제살 닳을 때 집에 왔다가 이어 바람처럼(할머니 말을 그대로 하면) 또 어디론가 가 버린 것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 때 아버지는 정 참판네와 사돈 정한일로 해서 할아버지와 원 동리 이웃이 들씩 떠나가게 싸웠다고 했다. 목에 칼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정 참판네와 사돈을 파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봉황너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할아버지 보다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되었다. 자기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정 참판네 집에 시집가기가 싫었다. 밤낮 술에 골아떨어져 있는 정 참판 남쪽같이 희어 멀깃멀깃한 정 참판의 아들 즉 율섭의 아버지도 싫었지만 아버지를 닳아서 역시 남쪽같이 희고 멀깃멀깃한 율섭이는 더 싫었다. 귀통이가 즉 처진 입이며 남쪽같이 희기만 할뿐 아니라 누르면 무슨 물이라도 내뿜을 듯한 뚱뚱 뜬 피부 언제나 바지 허리춤에 손을 넣고 멀거니 서 있기를 잘하는 율섭이가 딱 질색이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율섭이가 오기만 하면 곳감을 준다. 깨강청을 준다. 야단 이어서 더 질색이었다. 봉황너는 율섭이만 보면 이마를 맞대고 묵묵히 앉아 있는 산을 보는 때와 같이 가슴이 팍 막혔다. 이래서 봉황너는 산보다 바다를 즐기며 골짜기보다 평야를 좋아하는 버릇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봉황너의 아버지 이 창영은 봉황너가 여덟 살 먹던해 늦은 가을에 돌아왔다. 양복에 모자에 구두를 신고 돌아왔다. 전에도 그는 어디갔다 오는 때마다 번번이 매무새가 달라지는 일이 있곤 했지만 이렇게 양복에 모자에 구두까지 말짱 개혁신기는 처음이었다.

열 여덟 살에 그는 처음으로 어디 가노란 말도 없이 집을 떠났다가 일년 만에 돌아올 적에 울려 틀었던 상투를 깎아버리는 동시에 관이며 망건이며 이러한 것들은 원통 벗어버리고 돌아왔다.

이 참봉은 이제 집안 망할자식이 생겨 났다고 들어오자마자 방망이요, 목칠이요 하는 이런 끔찍한 것들로 매질을 시작했으며 참봉 마누라는 상투자른

일, 아들이 모진 매를 맞는 일, 남이 부끄러운 일 등등으로 초상 상주처럼 통곡을 하고 참봉 며느리는 남몰래 숨어서 눈물만 흘리고 이웃 동리에선 구경으로 혹은 상투자른 불상자에 대한 의문으로 모여들고…… 이래서 집안은 꼭 초상난것 같았다. 이웃동리에서 이 참봉 아들이 타관에 가서 바람이나 돌아왔다고 떠들썩 했으며 인제 영낙없이 이 참봉내는 내려질 것이라 그들 뒷 공론 질이었다.

이렇게 집안에서와 남들이야 어찌던 말건 창영은 제 할대로 다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굴건만 아랫마을 강 재선, 최 용익, 허 용 등과 어울려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창영은 강재선, 최 용익, 허 용 등과 어울려서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종종 먹는 일도 있지만) 색주가 갈보집에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어느 때나 국사를 논하고 민족을 이야기하는 일에 열중했다. 동리 이웃에서 바람이 났다고 난봉이 났다고 썩군대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씩 들썩 차츰차츰 이 창영의 옳은 생각을 알아주게 되어 난봉꾼이요 바람쟁이라던 이 창영을 개화생(開化生)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봉황녀는 이 개화생인 아버지가 끔찍히 좋았다. 난생 처음 보는 모자와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아버지가 희한했다. 키가 별쪽한 판에 상투를 흔들 흔들 척 늘어진 바지가랑이를 질질 끄는 모양새만보아 봉황녀라 망건도 아무것도 없이 수월이 쓰고 벗고 하는 모자와 압으면 착 들어붙은 양복 걸으면 뚜걱뚜걱 꼭 고개 넘어 주재소 순경 같은 신발이긴 하나 주재소 순경처럼 무섭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봉황녀만 아니라 동리 이웃 사람들도 모두 희한하고 이상하다고 했다. 구경꾼이 모여들었다. 상투를 자르고 참봉 영감에게 얻어맞았다던 때만 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러나 상투 자르던 때와는 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다. 상투 자르던 때는 비웃고 비방하고 뒷공론질하고 욕하고 했으나 이번엔 이상한 감정의에 부러워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것이었다. 「아주 늙은 축들은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 이유는 봉황녀 아버지가 이러한 모자와 옷과 신발을 자기만 쓰고 신

고 입었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여러벌 가져온데 있었다. 이 창영이와 함께 개화생이라 불리우는 강재선, 최 용익, 허 용 등에게도 가져왔지만 아래윗 마을 스무살에서부터 스물 다섯 먹은 청년들에게 입히고자 수무벌이 넘는 양복과 신발 모자 등을 가져왔다.

창영은 그것을 입히기전에 먼저 아래윗 마을 청년들에게 상투와 머리 배를 자르게 했다. 그리고 복장을 입혀 테리고 이백리를 더 가야 있다는 S읍으로 가는 것이었다.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갔다.

그렇게 갔다 오는 한편 창영은 아랫 마을 청소년 소녀들과 윗마을 청소년 소녀들을 몰아 윗마을 구석에 석 들어 앉은 서당자리애 학교를 설립했다. 물론 봉황녀도 학교에 들었다. 율섭이도 들었다. 봉황녀와 율섭은 학교가 서기까지는 집에서 독혼장을 앉혀놓고 배웠다. (율섭은 저의 아버지한테 배우고) 윗마을에서 들은 아랫마을 청소년…… 더구나 남자 여자를 한테 모아넣었다고 일이 아니라 그 불명 불만인 축들이 있었으나 앞에 석 나시서 항거하는 자는 없었다. 아들의 상투를 잘랐을 때만 해도 목침이요 방망이요 하던 이 참봉조차 아들의 하는양이 기가 막히긴 하지만 말을 못했다.

더구나 이 참봉은 정 참판네와 사돈정한 일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가만 있었다.

주리를 틀어도 저 할대로 하고야 마는 그 늙은 자식이 또 봉황녀의 결혼은 아버지도 저도 상관 못 한다고 봉황녀 자유 의사에 맡겨 뉘야 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면 어찌랴 싫어서 가만 있었다.

정 참판은 정 참판네로 자기네는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가고 이 참봉네는 날이 갈수록 불일듯하는 탓도 있겠지만 손주 며느리가 될 봉황녀가 소담스레 자라가는 것이 흐뭇해서 되도록이면 창영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 들었던 것이다.

육칠월 한낮 수담 울음처럼 권태로울뿐 불려도 메아티조차 있을듯 싶지 않던 윗마을에 학교가 생기면서부터는 생기가 돌았다. 묵묵히 가만 앉아 있는 산들도 푸둑푸둑 웃는것 같았다. 우쭐우쭐 춤추는 것 같았다.

학교에선 이제까지 훈장에게 배워오던 천자문이니 명십보감이니 논어, 맹자, 주역 이런것만이 아니고 가갸 거갸 국문도 배우고 1 2 3 4(아라비아)의

숫자와 산술도 배우고 하나 둘 하는 체조도 배웠다.

선생은 봉황녀 아버지 창영이와 친구 강재선, 최용익, 허용 등과 습자와 한문 선생만이 서당에 훈장으로 있던 김희창 영감이었다.

창가와 그림은 창영이가 가르치고 국문은 강재선, 산술은 최용익, 체조는 허용이가 가르쳤다.

봉황녀는 지리하게 혼자서 한문을 배웠던 때 보다 어떻게 재미있는지 몰랐다. 더구나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림과 창가 시간은 날마다 있어도 좋을 것 같았다.

제일 처음 배운 노래가 학도가였다.

창가 시간엔 남자나 여자나(여자라야 강재선 딸과 허용의 딸 그리고 봉황녀 셋 뿐이었지만) 모두 한테서 불렀다.

그 다음으로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라는 창가를 배웠다. 봉황녀 아버지 이창영은 이 창가를 배워줄 때 어쩔 일 없이 울면서 배워주었다. 아이들은(아이 아범도 있고 말만큼씩 큰 총각도 있고 상투가 달린 새 신랑도 있었다.) 영문도 모르면서 따라 울었다. 나중엔 창가 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어영 소리를 내어 울기만 했다. 학생들이 온통 울게 되니까 봉황녀 아버지는 울음을 그치고 학생들을 달래었다. 학생들은 좀체 듣지 않았다.

봉황녀도 그치지 않았다. (영문도 모르면서) 그래서 봉황녀 아버지는 이렇게 너무 울고 떠들면 고개 너머 순경이 잡아간다고 일러 주었다.

『파랑새』라는 창가를 배우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봉황녀는 다른 노래보다 이 『파랑새』가 갑절 좋았다.

아버지는 『파랑새』라는 창가 속에 나오는 파랑새는 저어 멀리 더운 남쪽 나라에 있는 새라고 설명해 주었다. 봉황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번쩍 들며 (손드는 법을 배우지 얼마 안 되어 좀체 들러 안 했는데) 일어나서 파랑새가 사는 남쪽 먼 나라는 온통 보리밭 모양으로 파랗고 물었다.

리밭이 보였기 때문
것이다. 아버지는 봉

파랑새가 사는 남쪽
파랑고 예쁘냐』고 물

은 울섭의 얼굴이 자
르코『그렇다』고 대답

문에 웃음이 터져 나
말을 그때로 믿는

울섭을 열눈질해 보
푸름이 얼룩지 있었

은 어제 그리 너저분
창배처럼 입을 찌억

가 실립되어 삼년동안
못하고 변일없이 번창

고 양복을 입고 S음에
붙잡혀 갔다 오고 나

나신 아주 문을 닫
다시 세웠다.

창영 등이 떠난 뒤
여 다시 윗마을과 아
저쪽에 가는 사람

그 때 마침 활짝 열린 문으로 늙실늙실 물결치는 보
에 봉황너는 이렇게 보리밭 모양으로 파라냐고 물었던
황너의 이 회한한 사상의 세계에 놀타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여기나 거기나』 봉황너는 또 다시 『파
나라 사람들은 허영계 밀깃밀깃하지 않고 파랑새처럼
었다.

이것은 오른편으로 고개만 약간 돌리면 이내 뵈어지
구 보였기 때문에 들은 말이었다. 아버지는 영문도 모
해 버렸다.

아버지는 딸의 묻는 말이 너무 귀엽고 신통하기 때문
와서 『그렇다』고 간단히 대답해 버렸던 것이다. 아버지
봉황너는 한숨을 가늘게 쉬었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오른편으로 고개를 가만히 돌려
었다. 물결치는 보리밭으로 해서 울섭의 얼굴은 푸름
다.

그의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모르게 창가 부르는 입은
할까. 어제 그 옆에 나란히 앉아 부르는 최 용익의 아들
적 크게 벌리며 신이나 하지 못할까.

봉황너가 열살먹던 여름에 학교가 폐쇄되었다. 학교
을 창영이가 몇 달간씩 타관에 가 있는 동안만 그렇지
해 갔는데 창영, 강 재선, 최 용익, 허 용 등과 또 그리고
훈면반으러 갔다 하던 청년들이 고개너머 주재소에
이먹은 학생들의 필기책이 불에 태워 진다 어쩐다하고
쳐 버렸다.

그대신 그 자리에 김 회창 훈장을 눌러앉쳐 서당을
학교가 폐쇄되자 창영 등은 이어 타관으로 가버렸다
라 서당에선 윗마을 아이들만 배우게 되었다. 그리하
랫마을 사이에 내(江)가 경계선이 되어 내 이쪽에서 나

을 볼 수 없었고 또한 내 쪽에서 내 이쪽에 일 없이 오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그동안 내 윗쪽에서보다 내 아랫쪽에서 더 많이 살아 온 봉황녀는 천지가 뒤바뀐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서당에서 책을 펴 놓고 앉아 읽노라던 글자가 바로 씌는 일이 없고 그 글자 하나 하나가 바위 틈에서 창백과 같이 혹은 혼자서 주워본 일이 있는 조개나 방게가 되어 책위에 아물거리는 것이었다. 또 습자를 쓰더라도 길게 그어야 할 획을 짧게 긋든가 짧게 그을 획을 한발씩 길게 긋든가 하는 알이 일췌였다. 한번은 맹(孟)자를 쓰는데 위에 아들자에 건너 '긋기를 길게 긋고 마지막 건너 그을 획을 짧게 그어 훈장에게 콩지 빠진 수탉같은 맹자를 썼다고 꾸지람을 들은 일이 있다. 정말이지 봉황녀는 훈장이 소리를 쳐 일깨워 주면 그때만 오들오들 놀랄 뿐으로 길이 두자 넓이 한장의 습자 전체에 원통 콩지 빠진 수탉 같은 맹자를 써 놓았던 것이다. 이력저력 세월이 흘러 앞뒷 산에는 진달래꽃이 가득 피어있고 또 뼈꾸기가 물어대는 봄이 왔었다. 어느 날 봉황녀는 읽기 싫은 글을 소리쳐 읽고 있는데

『봉황녀야! 이리 좀 나오너라』하고 훈장이 불렀다. 봉황녀는 가슴이 섬뜩했다.

자기가 헛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알아 쟈 쟈인가 보다고 알았다. 허둥허둥 일어서서 훈장 앞에 내려간즉

『주먹을 단단히 쥐고 저놈들 뺨따귀를 한번씩 갈겨줘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훈장은 흥분한 어조로 양쪽에 두줄로 주옥 늘어앉은 사내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봉황녀는 훈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훈장이 시키는 대로 주먹을 단단히 쥐고 다음 아랫목으로부터 시작했다. 아무 생각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몇 번째였는지 모른다. 봉황녀는 어느 한 아이 앞에 이르자 이 때까지 한 손으로만 쥐어박던 것을 저도 모르는 새에 양쪽 주먹을 다져 쥐고 앞에 앉은 아이의 뺨따귀를 정신없이 후려갈겼다. 맞은 아이는 울성이었다. 얼마를 후려갈기고 나서 그랬던지 봉황녀는 열린문으로 쫓살같이 내달렸다. 바람

은 달리는 봉황너게로만 모여들었다. 머리카락이 죄다 일어섰다. 옷고름이 너풀거렸다. 치맛자락이 펄럭펄럭 소리를 쳤다. 그것은 마치 바람부는 날 빨래줄의 빨래처럼 세차게 펄럭 거렸다.

그러면서 가는 줄도 모르게 간곳이 바다였다. 가로막은 내를 건너야만 하였다. 바다는 파도가 세어서 그런지 조개줍는 사람도 없었다.

창배도 없었다.

잠깐도 가만있지 않는 거센 물결이 있을 뿐이었다. 봉황너는 금세 팍 맺혔던 가슴이 툭 터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건만 심심하지도 않았다.

한참은 거저 멍하니 들이치는 물결만 보고 있다가 봉황너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자작자작 바위들이 많이 있는 창배랑 조개도 줍고 방게잡이도 하던 쪽으로 발을 옮겼다. 물결은 거세어도 물은 밀바닥까지 들여다 보이게 맑았다.

그런데서 방게가 바위틈에서 바위틈으로 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조개도 말짱게 들여다 보였다.

봉황너는 무엇이나 다 잊어버리고 치마 아랫자락을 거뒀 발을 벗고 바다 물에 들어섰다. 시원했다. 구리터분한 서당에서 싫은 글을 읽노라고 메속 메속하던 기분도 사라져 버렸다. 밀것밀것하던 울습의 생각도 잊어버렸다. 조개와 방게가 발에 와 닿고 밟히고 하는 것만이 즐거웠다. 그것을 치마앞에 잡아 넣는 것만이 재미났다. 조개보다 게를 더 많이 주어담았다. 조개보다 게가 많아서가 아니라 조개는 가만 있는데 게는 가만있지 않기 때문에 게를 주었다. 봉황너는 가만있는 조개보다 가만 안 있는 게가 좋았다.

어둑어둑해서 돌아온 봉황너는 할아버지한테 호되게 걱정을 들었다. 할아버지는 낮에 장쇠 할아범에게서 봉황너가 내 건너 아랫마을엘 가더란 말을 들었다. 저저 가만가만 암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을 만총같이 일으켜 세우고 췌게췌게 달려가더라고 들었다.

할아버지는 너무 성이나서 상투까지 떨렸다. 봉황너는 아버지 있을 땐 그렇게 바다에 가도 모르는체하던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야단일까 하고 할아

버지만 건너다 보았다. 아닌게 아니라 이 참봉은 아들이 떠나간뒤에 다시 호기를 뽑을 뿐 아니라 정 참판배와의 내왕도 전과 같이 자주했다. 봉황녀를 사내들만 있는 서당에 다니게 한 것도 울섭이와 같이 다니게 하라는 정 참판의 말을 좃느라고 해서 한 일이었다.

그날밤 봉황녀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깨었다. 꿈에 울섭이가 희고 밀깃밀깃한 얼굴에 할아버지 상투보다 더 큰 상투를 틀어올리고 여니 때 보다 다르게 입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 기운이 보였다.

어머니는 봉황녀를 안은 채 일어나 거울을 벗겨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봉황녀는 『저기 저기 울섭이 자식이……』하고 가리켰다. 어머니는 이 소리에 가느다란 한숨을 쉬어 마음 속으로 봉황녀 아버지가 어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잖아도 봉황녀 어머니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던 터였다.

이튿날 봉황녀는 서당에도 가지않고 늘 잘가는 뒷산 마루터기에 올라가서 구부러진 나무를 타고 있었다. 바다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평야를 보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가 앉아 있었다. 진달래 꽃은 가득 피어 있고 봉황녀가 앉은 산에서도 마른편 산에서도 빠꾸기는 성히 울어 대었다.

그렇다고 봉황녀는 진달래꽃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또 빠꾸기의 울음을 듣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얼마를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내를 건너 이쪽으로 오는 향아리장수를 보았다.

향아리장수는 언제나 아랫마을에 먼저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사 윗마을에 들리는 것이었다. 아랫마을에선 무엇이냐 많이 팔아 주는 때문이었다. 윗마을에선 기껏해야 달걀을 주고 성냥이나 실이나 이런 따위의 것을 바꾸는 정도였다.

봉황녀는 이 향아리장수가 오는날이 늘 기다려 졌다. 아버지가 있으면 고무파리 풀가락지 봉어사탕 오리사탕 등을 사주었고 아버지가 없었더라도 할머니가 고무파리 짙은 달걀과 바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오기만하면 반가웠다.

그런데 그날은 도무저 반갑지가 않았다. 나무에 걸터앉은 채 향아리장수

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나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것도 싫증이 나서 그만두고 거저 앉아 있었다. 향아리장수는 집집에 다 들었는지 군소털 흥얼흥얼 치더니 어느새 남쪽산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었다. 같은 봉황녀 집에서조차 보았다. 높은 산 중턱을 비탈 지어 돌아간 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잘 보였다. 윗마을 사람들이 나 아랫마을 사람들이 다른 고장을 다녀오자면 으레 이 길을 걸어가고 오곤 했다. 봉황녀 아버지가 졸곧 타판에 갈 때에도 이길을 걸어갔으며 돌아올 때에도 이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아래윗 마을 청년들이 양복을 입고 S읍에 갈 때에도 이길로 오고 가고 했다. 거저 가만 앉아 있기만 하던 봉황녀는 고개를 치켜들고 향아리장수의 뒤를 쫓았다.

참으로 좋았다. 향아리장수는 빨리 걸지도 않았다. 거저 군소리를 흥얼대는 양으로 느리게 걸고 있었다.

봉황녀는 나무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번엔 걸음으로 향아리장수의 뒤를 쫓는다. 그는 아버지한테 『파랑새』 창가를 배워 부른 뒤로는 언제나 앞산 중턱을 비탈지어 돌아간 길을 걸어 고개고개 넘어면 파랑새가 사는 보리밭 처럼 파아란 나라로 가질것이라고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봉황녀는 향아리장수의 뒤를 쫓으면서도 평소애 가졌던 그 생각을 하면서 쫓는 것이었다. 별로 바람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고름 치마자락이 휘날렸다. 산 길이기 때문이리라.

진달래꽃이 가득 피어 있는 앞뿔 산에선 삐꾸기가 자꾸 울고 있다.

<편집후기>

○...「마하-2 공군」의 믿음직스러운 전진을 위해서는 오로지 투철한 사명감과 불굴의 투지, 그리고 슬기로운 기상과 멸사봉공의 희생적 정신으로 다져진 정신력이 앞선다.

군인생활의 향상을 위한 「교양 시리즈」를 특집으로 엮은 것도 이를 뒷받침해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였다.

○...지난 4월 1일은 우리 공군 정훈감실 창설 20주년 기념일— 결코 함자 않은 연륜, 오늘날의 정예 공군 정훈이 있기까지엔 역대 정훈감과 선배, 전우들의 피어린 노고가 깃들려져 있었음을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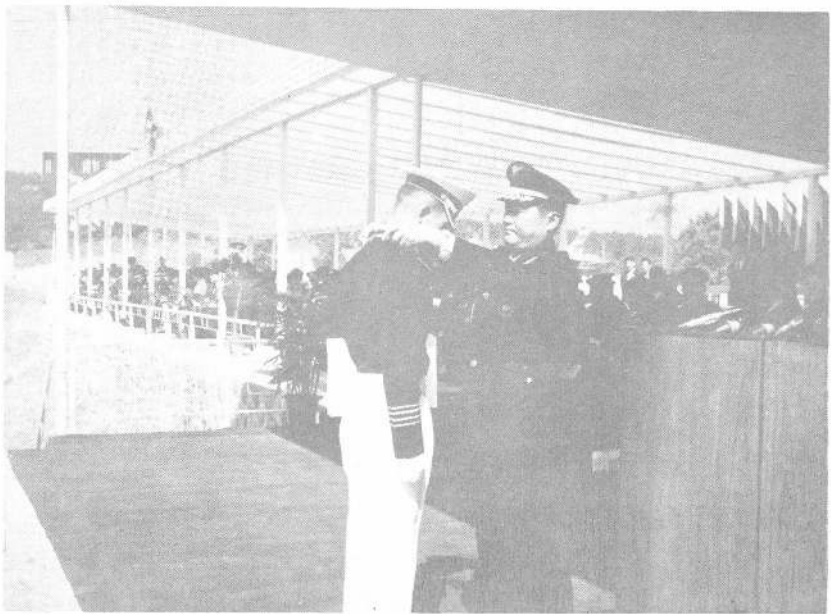
특히 초창기부터 정훈 일선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시던 주정호 <예비역 대령 8대정훈감>님이 지난 5월 10일 가족과 함께 도미(이민)하였다. 그를 보배는 아쉬움 그지 없다.

○...하늘이 티없이 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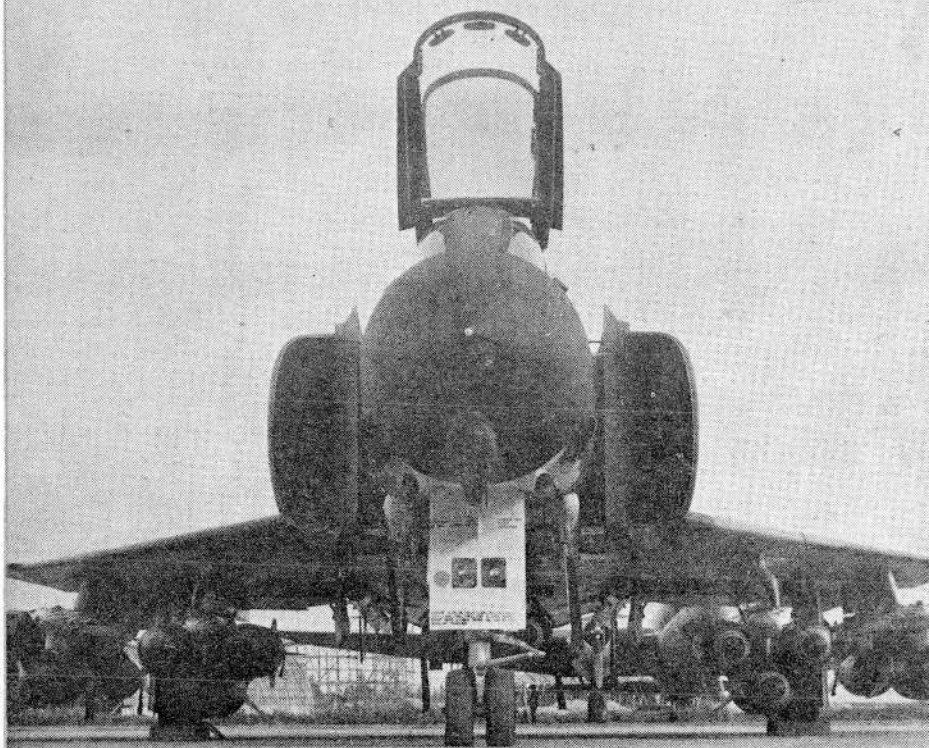
자 기지에서 영공방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장병들, 벗 S— 푸르르기만한 5월의 대기 만끽하면서 전승하시길.....<준>



공군사관학교 제 18기 사관생도 졸업식이 3월 31일, 동교 대연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각하 내외분 임석리, 내외 귀빈과 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전투태세완비

전력증강
전기연마
즉각반응

인화단결

출선실행
공지일채
기강확립

